中央語文學會

제44회 온라인 학술발표대회

언택트 시대, 소통의 인문학

◆ 일시: 2021년 2월 18일 (목)

◆ 진행: 실시간 화상 회의 및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 주최: 중앙어문학회

中央語文學會

(http://www.cakoll.or.kr)

중앙어문학회 제44회 온라인 학술발표대회

언택트 시대, 소통의 인문학

◎ 전체 일정

14:30~15:00 실시간 화상 회의실 입장
15:00~15:10 개회사 및 축사
15:10~16:40 기획주제 발표
16:40~17:30 중앙어문학회 정기 총회

◎ 일　　시　　2021년 2월 18일 (목) 14:30~17:30
◎ 기획주제　　실시간 화상 회의실
◎ 자유주제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대회 진행 방법

기획주제　　실시간 화상 회의
자유주제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기획 주제 발표

사회: 박선옥 (한성대)

15:10~15:40 초급 한국어 학습자 대상 플립러닝 적용 수업 사례 연구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발표 최수현 (한성대)　▷토론 이주미 (경인교대)

15:40~16:10 TV드라마에 나타난 학교 폭력 양상(樣相) 연구
- <후아유-학교2015>를 중심으로 -
▶발표 강성애 (중앙대)　▷토론 김강원 (고려대)

16:10~16:40 <이덕열언간>을 통해 본 신하와 가장의 한 모습
▶발표 이래호 (강원대)　▷토론 강문종 (제주대)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국어학

피·사동접미사 '-기'의 경음화 경향 분석
▶발표 전지연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토론 임현열 (중앙대)

북한어의 개념
▶발표 정유남 (고려대)
▷토론 손진희 (강원대)

연결어미의 응집성과 의도성에 대한 고찰 - 칼럼에 나타난 '-(으)며'를 중심으로
▶발표 황희선 (중앙대)
▷토론 이성우 (한림대)

남북한 국어사전의 흉내말 비교 연구
▶발표 박동근 (대진대)
▷토론 한명숙 (안양대)

◎ 현대문학

오장환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발표 양소영 (충북대)
▷토론 최희진 (서울대)

정재완의 첫 동시집『해바라기』에 나타난 시적 세계의 양상
▶발표 정민구 (전남대)
▷토론 김정배 (원광대)

사유이미지로서의 시와 풍경의 윤리 ―김소월의 시를 중심으로―
▶발표 김유희 (강원대)
▷토론 김낙현 (중앙대)

이효석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성 고찰 -「계절」,「석류」를 중심으로
▶발표 이민정 (나사렛대)
▷토론 손혜숙 (한남대)

◎ 고전문학

「황비호실기(黃飛虎實記)」를 통해 본 『봉신연의(封神演義)』의 유통 문제
▶발표 유춘동 (강원대)
▷토론 권태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숫자노래의 형성과 문학적 특질
▶발표 하경숙 (선문대)
▷토론 배은희 (인천대)

체험주의 상상력을 통해 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발표 염승연 (전남대)
▷토론 남기민 (경상대)

◎ 한국어교육

코로나 19 시대의 해외 한국어·한국학 교육 -칠레가톨릭대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발표 민원정 (칠레 가톡릭대학교 / 서울대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토론 안정민 (한국외대)

초급 한국어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유사 문법 기술을 위한 소고 -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
▶발표 박기선 (사이버 한국외대)
▷토론 임수진 (서울대)

대조 수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한·중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 비교 연구
▶발표 형재연 (한성대)
▷토론 김윤희 (광주대)

한국어 'ㅣ' 발음 변용 현상 연구 - '켜다'와 '바뀌다'를 중심으로 -
▶발표 김명권 (선문대 한국어교육원 / 한국어 세계화 연구소)
▷토론 안미영 (인천대)

▣ 기획주제 발표

언택트 시대, 소통의 인문학

초급 한국어 학습자 대상 플립러닝 적용 수업 사례 연구
TV드라마에 나타난 학교 폭력 양상(樣相) 연구
<이덕열언간>을 통해 본 신하와 가장의 한 모습

초급 한국어 학습자 대상 플립러닝 적용 수업 사례 연구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최수현 (한성대)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기관의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플립러닝 적용 수업 사례 연구로 이러한 수업 방식이 국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에 어떠한 교육적 시사점이 있는지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많아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되어 왔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수요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요구에 맞춰 각종 학습 사이트를 통해 어휘 교육 콘텐츠, 문법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한국어교육용 콘텐츠가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학습 사이트에 올려진 교육용 콘텐츠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수업 방식이나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 방식이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올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플립러닝은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학습의 주체가 학습자중심으로 이양된다는 점, 정제된 수업 자료의 제공으로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어 교육 효과가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플립러닝의 긍정적인 효과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부 전공 수업에서의 교육 효과나 교양 수업에서의 교육 효과를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으나 어학기관에서의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플립러닝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플립러닝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방식의 적용을 통해 교육의 환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플립러닝 적용 한국어 수업 사례를 통해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할 것이다.

2. 한국어 수업 환경의 변화와 플립러닝

20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21세기에 기기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비롯된 감염 위험으로 인해 언택트[1]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가속화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환경 역시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인 수업은 교실 안에서 책을 통해서만 이뤄졌지만 오

1)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Contact'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Un'이 합쳐진 것으로 '접촉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늘날의 수업은 교실 안에서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을 바탕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온라인 환경의 수업은 대학 입시 사교육 시장을 통해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사이버대학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 등 성인들을 위한 교육 역시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한국어 교육 분야 역시 교육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최정순(2017)에서는 20세기 말에 웹 기반의 한국어교재가 개발되었고 이후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도 시도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한국어 교수-학습 역시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했다. 노정은·임수진·안윤숙(2020)에서도 전통적인 언어 교육이 오프라인 공간인 교실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학습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으며 온·오프라인 공간을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가 201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은 혼합형 수업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결합하여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소개할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이 결합된 블렌디드 러닝이나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플립러닝이란 무엇일까? 플립러닝은 다른 말로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민경(2014a)에 따르면 거꾸로 교실 즉, 플립러닝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지식과 내용을 교사가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보게 하고 수업시간엔 학생 활동(질의응답, 토론, 또래 학습, 팀별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꾸려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모두 수업 전에 학생들 스스로가 예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핵심적인 교과지식과 내용을 전달한 후 과제를 통해 학습자들이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다르다.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 이전에 교수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핵심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과제 수행이나 문제 풀이를 통해 실제적 적용을 하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플립러닝을 통해 수업의 중심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립러닝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첫째, 수업 전에 학습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교과지식의 습득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김연경, 2016). 여기에서의 도구에는 교사가 제작한 동영상과 기존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동영상, 읽기 자료, 인터넷 자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전통적인 교실과 비교해 봤을 때 수업의 중심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 가면서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달라졌다. 이민경(2014b)에서는 전통적인 수업에서 통제적인 감독자 또는 지식전달자로만 존재했던 교사가 플립러닝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조력자로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동적인 학습자였던 학생들 역시 수업의 주체로서 역할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전통적인 수업은 교사가 교단에 서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위계적인 교실문화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플립러닝을 통해 수업이 학생 활동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게 변화되고 이를 통해 위계적인 교실문화가 보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민경, 2014a).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플립러닝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한국어 수업의 모형은 '도입-제시-연습(활동)-사용-마무리'의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박진욱(2014)에서는 4개 대학의 학부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수업을 확인한 결과 수업 시간의 대부분이 '제시(64.3%)'와 '연습(32.6%)'에 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수업 활동이 '제시'와 '연습'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플립러닝을 활용한다면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제시' 단계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문법 및 어휘)을 전달하고 본 수업에서는 '연습/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경·윤영(2017)에서도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하게 되면 교사가 핵심 내용으로만 사전 학습 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수업 자료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주장했고 본 수업에서 문법을 사용해 볼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소현(2015)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이뤄지는 문법의 의미와 기능, 규칙 등의 수업은 이론 수업에 가깝기에 플립러닝을 적용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법을 활용한 쓰기, 말하기와 같은 활동은 본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플립러닝 적용에 대한 연구나 실제로 플립러닝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박진욱(2014)의 논의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학부의 전공이나 교양 수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진욱(2014), 이소현(2015), 이경·윤영(2017)외에도 김규훈(2016), 정혜선(2017), 김강희(2020) 등에서도 학부의 전공이나 교양 수업에서 다루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대학교 수업에서 주로 적용된 플립러닝 수업방식을 어학기관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외에서 한국어를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플립러닝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학습 효과 및 적용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 설계

본 장에서는 플립러닝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 H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 방문학생반의 수업 설계 과정과 모형을 소개하겠다.

3.1. 수업 설계 과정

수업 설계는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본 수업 모형은 학습자의 요구 및 환경을 분석하여 설계하였으며 교수 자료 개발과 실행 및 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하였다. 다음은 플립러닝 수업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 H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 방문학생반 수업 설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1) 분석

먼저 본 수업 설계 모형을 적용할 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대상 학습자는 H대학교의 중국 자매대학 미용학과 관련 전공의 학생으로 중국 국적의 총 30명이었다.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토픽 보유현황 조사와 지필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초급 1(H대학교 한국어과정 1급 초반)수준이 20명, 초급 2(H대학교 한국어과정 1급 후반) 수준이 10명임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사전 조사와 면접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향후 한국에 유학하여 뷰티 관련 전공수업을 듣거나 한국어로 된 뷰티 관련 콘텐츠를 이해할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쌓고 싶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학습자 중에는 토픽 보유자도 있었으나 아직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의 학습자도 있어서 학습자 간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면서 초급 문법과 말하기 유창성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세워졌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기관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미 중국의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식에 대한 이해는 충분했다. 또한 각 거주 지역에 따라 인터넷 연결 상태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온라인 수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학생 전원이 PC 또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이메일 계정이 있었으며 위챗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온라인 학습 환경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 설계

본 방문학생반은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말하기 유창성 신장에 목표를 두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초급 수준에서의 의사소통은 문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핵심 문법에 대한 이해 및 사용의 정도가 의사소통능력 및 말하기 유창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핵심 문법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핵심 문법을 자기주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말하기 유창성과 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의 목표 달성에 대한 학습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국외 온라인 수업 환경을 고려할 때 핵심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플립러닝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대면수업에서와 동일하게 한국어교육과정 1급 문법의 학습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수자-학습자와 학습자-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즉각적인 답변이나 피드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실시간 수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문법 중심의 실시간 웹엑스 온라인 강의 방식을 채택했다.

학습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별로 초급1반 2개와 초급2반 1개 총 3개로 분반하였다. 수업 시간은 50분짜리 3차시로 구성하였다. 중국 현지와 한국의 1시간 시차를 고려하여 중국 시간으로 9시에 시작하여 1개 교시 수업 50분, 10분 휴식하여 1일 3교시를 진행하면 오전 11시 50분에 수업이 끝난다. 1주일 5일, 1개 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포함하여 15주 총 200시수로 설계하였다. 수업 전 단계에 문법 동영상을 보여 주고 그날 배울 문법을 예습하게 하며 퀴즈를 통해 사전 학습을 확인하는 장치를 설계하였다. 수업 중 단계에서는 문법 학습과 병행하여 말하기 능력을 강화한 수업 방식을 채택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수업 후 단계에서는 학생에게 과제를 주어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교사는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수업 후 교육의 환류를 도모하도록 설계하였다.

(3) 개발

앞선 분석과 설계에 따라 교수 자료와 평가 도구를 실제로 개발 및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특히 수업 전 온라인 자료 개발 및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했다. 우선 수업 전 온라인 자료로서 문법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초급 문법 중 중요

30개를 선별하여 약 10분짜리 동영상 30개를 제작하였는데, 초급 문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여 수업 전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업 전 활동으로 각 해당 문법을 심화하는 퀴즈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하였다. 수업 중 자료로서는 국외 온라인 수업 진행을 고려하여 교안을 명료화 단순화하거나 양을 줄여 개발하고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ppt 자료를 구축하여 교수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4) 실행

동영상 자료를 비롯해 퀴즈 풀이, 과제 제출 등 준비된 교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수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준비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수업 실행 단계에서 사전 학습에 기반을 두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심화 학습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방문학생반 학습자 30명은 한성대학교 LMS e-clsass를 사용하여 사전 동영상 보기, 퀴즈 풀이, 과제 제출, 평가를 하고 웹엑스 화상 강의, 그룹 활동 기능을 활용하여 본 수업과 과제 활동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교수자의 빠르고 적절한 피드백을 위해 위챗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평가

본 수업 설계 과정이 효율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학 전 교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매주 교사 회의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 교육이 실행된 과정의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교수 전략, 수업 자료, 활용 매체가 수업 목표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학습자들이 실제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차에 걸친 학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와 실시간 통역을 활용하여 플립러닝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형성 평가는 각 영역별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수자들에게는 수업 실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수업의 장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해 내도록 하였다.

3.2. 플립러닝 환경 조성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국외 거주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플립러닝에 기반한 한국어교육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첫째로 한성대학교 LMS를 전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성대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 해당 학습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학번을 부여받고 한성대학교의 학생으로서 e-class에 접속하여 화상강의를 비롯해 퀴즈, 과제 제출 등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둘째로 수업 전 활동에 필요한 문법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사전 교사 회의를 통해 초급 문법 중 중요 문법 30개를 선정하고, 자문 및 검수 단계를 거쳐 초급 수업 경력 교사 3명으로 구성된 교수안 제작팀이 해당 문법 교수안을 작성하였다. 문법 설명에 필요한 보조 도구로 그림을 활용하고자 초급 어휘 삽화 100여 개와 초급 문법 삽화 150여 개를 제작하였다. 각 문법 당 약 10분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본 방문수업반 수업 담당 교사가 촬영을 하고, 녹화

와 편집은 온라인수업 녹화 도우미를 활용하였다. 제작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4개월이다.

셋째로 5명의 전문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여 플립러닝 학습 체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영상 출연 교사, 중국어 가능 교사, 경력 교사, 한국어교육트랙 교수를 본 수업에 투입하여 질적 확보를 도모했다.

넷째로 플립러닝에 기반을 둔 본 수업에 대한 교육 효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는 통역인력 확보 등 인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 현지 담당 교수 및 행정 인력과 한성대 교수진 및 행정 인력과의 유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담임제 시행, 간담회 개최, 학습 관리, 결석자 관리, 상담 진행 등 학생 관리와 수업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4. 플립러닝 적용 수업 사례와 교육의 환류

3장에서 살펴본 플립러닝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진행된 실제 수업 사례에서 나타난 수업 운영 및 교육의 환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교사의 성찰일지와 학습자 간담회를 통한 교육의 환류로 크게 나누어 볼 것이며 그 전에 수업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자 한다.

4.1. 수업 운영의 실제

수업의 내용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고 플립러닝 영상 및 퀴즈 제작 과정과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4.1.1. 수업 구성과 진행

본 수업은 학습계획표에 따라 15주 동안 주5일 3시간 수업으로 한국어 정규 과정 1급의 학습 내용을 마치도록 아래의 <표 1>과 같은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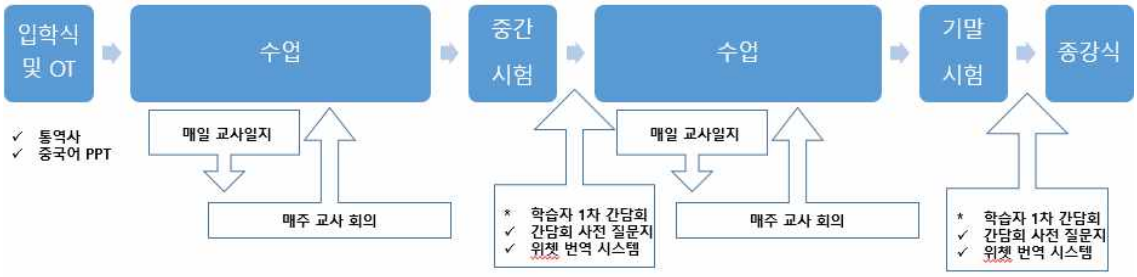
교과목명	H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 방문학생반
강의 시기	2020년 가을학기(15주)
강의 시수	1일 3시간 * 주 5일 * 15주 총 200시수
학습자	중국 국적 H대학교 자매대학 뷰티관련 학과 30명
교수자	H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 한국어 강사 5명
수업 방식	플립러닝 적용 및 온라인 실시간 대면 수업
학습 내용	한국어 정규 과정 1급

<표 4> 플립러닝을 적용한 초급 수업 정보

국외 학습자를 대상으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요구되었다. 학기 시작 전 중국에 있는 학습자들이 전반적인 시스템 사용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본 기관과 중국 소속 대학의 상호 협조 아래 미리 학습자 안내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온라인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PPT를 바탕으로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가 다시 한 번 이루어졌다. 수업 첫날에는 학

습자 측의 기술적 문제 발생 시 대처와 수업 운영 안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통역 인력이 각반 온라인 수업 현장에 배치되었다.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는 대부분 신속히 안정화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업 후 각반 교사는 당일 수업에 대한 내용을 교사 성찰일지로 남겼다. 교사 성찰일지는 교육의 환류를 위해 수업 내용과 성찰한 부분을 기록하여 모든 교사가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자의 학습 성취 점검 및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매주 교사 회의를 통해 수업 진행 상황과 추후 수업에 대한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수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후 각각 한 차례씩 학습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내용을 교사 회의를 통해 수업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수업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림 2>와 같이 다각도의 성찰과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수업의 흐름

<그림 2> 다각도의 성찰과 피드백을 통한 환류 효과

구체적인 수업 진행 과정[2]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한 과의 문법, 어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영역을 9차시에 걸쳐 실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수업 전 영상과 퀴즈 풀이 및 단어 숙제, 문법 활동지, 워크북 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교사가 지속적인 공지를 하였으며 영상 시청과 퀴즈 풀이에 참여하지 않은 학습자를 확인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 사전 학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2) 사전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수행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표 2> 한 과의 수업 진행 예시(9차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사전 학습	단어 숙제 플립러닝 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예습[3]	문법 활동지 플립러닝 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예습	문법 활동지 워크북 과제
1교시	문법 설명 및 연습	문법 설명 및 연습	읽기, 듣기, 쓰기 활동
2교시			
3교시	말하기 활동	말하기 활동	총 복습

9차시 수업은 중간시험 후 한 주 정도 이어졌으며 1급 후반의 문법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교사 성찰 및 학습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12차시 수업으로 수업을 늘려 진행하였다. 문법 연습 및 활동 시간을 늘렸으며 활동과 복습을 이틀로 늘려 학습자의 이해도에 따라 4일차 수업을 유동성 있게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그 과에서 문법 설명 및 연습이 부족했으면 4일차에 보충을 하거나 활동이 부족하면 4일차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2차시로 학습 계획을 수정하며 학습자들도 수업 진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한 과의 수업 진행 예시(12차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사전 학습	단어 숙제 플립러닝 영상 및 퀴즈 풀이 예습	문법 활동지 플립러닝 영상 및 퀴즈 풀이 예습	문법 활동지	워크북 과제
1교시	문법 설명 및 연습	문법 설명 및 연습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활동	문법 및 활동 복습
2교시				
3교시	문법말하기 연습	말하기 연습		

오리엔테이션과 기초 자모 학습 후 2주차부터 본격적인 플립러닝 적용이 시작되었다. 학습자들이 수업 전 동영상 시청과 퀴즈 풀이, 실시간 수업 참여, 수업 후 과제 수행으로 진행되는 수업 사이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학기 초반에는 동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담임교사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시청을 독려하였다. 학습자들은 플립러닝 방식에 무리 없이 적응하였으며 100%에 가까운 사전 학습률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는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LMS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의 플립러닝 영상 시청 여부와 소요 시간 및 퀴즈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학습자들의 영상 시청과 퀴즈 풀이 여부는 E-CLASS를 통해 교사가 확인하였다.

		이름	학번	진행 상황	시작 일시	종료 일시	소요 시간	성적/10.00
□		주가문 응시내역 검토	20K1027	종료됨	2020-09-17 17:37	2020-09-17 17:39	1 분 37 초	10.00
□		뇌흡기 응시내역 검토	20K1021	종료됨	2020-09-17 17:40	2020-09-17 17:41	57 초	10.00
□		교우 응시내역 검토	20K1026	종료됨	2020-09-17 18:12	2020-09-17 18:16	4 분 43 초	10.00
□		손가미 응시내역 검토	20K1006	종료됨	2020-09-17 18:25	2020-09-17 18:45	19 분 44 초	10.00
□		오사몽 응시내역 검토	20K1024	종료됨	2020-09-17 22:18	2020-09-17 22:21	2 분 56 초	10.00
□		마영 응시내역 검토	20K1014	종료됨	2020-09-17 23:37	2020-09-17 23:43	6 분 47 초	0.00
□		장량일 응시내역 검토	20K1008	종료됨	2020-09-17 23:40	2020-09-17 23:44	3 분 51 초	10.00
□		이서양 응시내역 검토	20K1028	종료됨	2020-09-18 00:18	2020-09-18 00:22	3 분 31 초	10.00
□		풍보이 응시내역 검토	20K1013	종료됨	2020-09-18 00:55	2020-09-18 00:58	2 분 48 초	10.00
□		이여의 응시내역 검토	20K1019	종료됨	2020-09-18 09:44	2020-09-18 10:00	16 분	10.00

<그림 3> 퀴즈 참여 확인 화면

4.1.2. 플립러닝 영상 및 퀴즈 제작

플립러닝을 위한 영상과 퀴즈 제작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4개월이다. 수업 전 활동에 필요한 문법 동영상 제작을 위해 사전 교사 회의를 통해 초급 문법 중 중요 문법 30개를 선정하고, 자문 및 검수 단계를 거쳐 초급 수업 경력 교사 3명으로 구성된 교수안 제작팀이 해당 문법 교수안을 작성하였다. 문법 설명에 필요한 보조 도구로 그림을 활용하고자 초급 어휘 삽화 100여 개와 초급 문법 삽화 150여 개를 제작하였다. 각 문법 당 약 10분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본 방문 수업반 수업 담당 교사가 촬영을 하고, 녹화와 편집은 온라인수업 녹화 도우미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동영상에 출연하여 문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 동영상에서 봤던 교사를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 학습자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동영상의 구성은 먼저 목표 문법 제시 후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문법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문법이 쓰이는 상황을 먼저 접하면서 학습자는 목표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을 짐작하고 예문을 통해 목표 문법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의미 설명 후 문법 형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형태적 불규칙과 문법 사용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배운 문법의 의미가 드러나는 사진과 예문을 보며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영상의 길이는 7분-10분 정도였으며 대표성을 갖는 상황과 예문으로 수업 전 목표 문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플립러닝 영상의 내용은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플립러닝 영상 내용 구성의 예

영상 후 내용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는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상을 보았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다. 아래의 <그림 5>는 플립러닝 영상 후 관련 퀴즈

의 일부인데 학습자가 퀴즈를 푼 후에 교사는 학습자의 응시내역을 통해 학습자가 틀렸을 경우 어떤 오답을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플립러닝 영상 후 퀴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입국하지 않고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점, 플립러닝이 시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규 과정에서 사용하던 교안과 학습활동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므로 사전 조정과 더불어 진행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수자 성찰일지 및 학습자의 수시 피드백, 두 차례에 걸친 학습자 간담회를 통해 유연하게 수정을 거듭하고자 하였다. 특히 환류 효과가 컸던 교수자 성찰일지와 학습자 간담회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을 통해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4.2. 교사 성찰일지를 통한 교육의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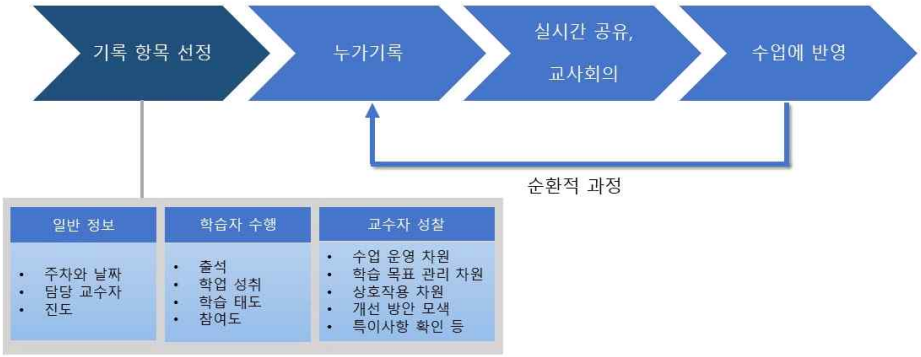
교사 성찰일지는 담당 교사들이 하나의 구글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공유하고 각 반 시트에 해당 일자의 내용을 누적 기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그림 6> 참고). 웹 기반 문서를 활용하는 방식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기기에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의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교사 간의 성찰 내용이 실시간 공유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성찰일지의 내용은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 정보(주차, 날짜, 담당 교수자, 진도 등)와 학습자 수행(출석, 학업 성취, 학습 태도 및 참여도 등), 교수자의 성찰(수업 방법 개선 등에 대한 의견 등)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수행과 교수자 성찰 란에 기록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 성취 부분에서는 그날의 수업에서 목표 학습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수업 내용의 이해도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학습자의 기존 지식이 교수자의 기대와 다름을 발견한 경우, 특정 학습자의 학업 성취가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특히 앞서거나 늦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오류 항목 등을 공유하였다. 학습 태도 및 참여도 부분에서는 학기가 진행되면서 학습자의 면학 태도와 참여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영상 시청률 및 온라인 과제 수행률이 낮은 학습자를 공유하고, 각반의 수업 분위기 등을 공유하여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교수자 성찰 부분에서는 수업 진행상의 시행착오나 문제점, 온라인 수업 도구의 활용 방안, 수업 시간 운용에 대한 의견 등을 공유하였다.

성찰일지에 기록하고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 1회 교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에서

수업에 반영할 사항을 결정하고 즉각 개선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환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수업에 적용한 결과 또한 성찰의 대상으로서 일지에 기록되었다.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찰 내용의 기록과 공유, 개선점의 도출과 수업의 수정, 수정 결과를 재성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그림 6>과 같이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6> 성찰일지를 통한 환류 효과의 발생 과정

성찰 내용이 수업에 반영된 사례를 발췌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플립러닝 운영과 관련된 사례

한국어 집중 과정에서의 플립러닝 도입은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학습자가 플립러닝의 절차를 이해하였는가, 사전 학습 수행률은 어떠한가, 사전 학습한 내용의 이해도는 어떠한가 등의 내용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학기 진행과 더불어 문법 학습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 시각이 일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수업에 접속하기 직전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사전 동영상 학습이 필요한 날에는 담당 교사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수업 30분 전 인사와 함께 간단한 알림 공지를 전송하였다. 해당 학기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으나 기 제작 완료된 동영상을 활용하여 플립러닝을 진행하게 될 추후의 학기에는 학습자용 학습계획표에 동영상 시청 일정을 표시하여 미리 배포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ㄱ. ▪ 수업을 하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이 문법 동영상을 보고 들어왔으며** 수업 내내 카메라를 끄지 않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2020-09-15 교사B의 일지)
▪ 영상이 밤에 업로드되어 미시청 학생이 있었음. **미시청 학생은 수업 후 보충으로 영상을 보도록** 안내. (2020-09-14 교사C의 일지)
▪ 8:30에 컴퓨터를 켜고 **수업 직전에 동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진행 중. 전날 보도록 하는 것보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시청률도 높은 편임**. (2020-09-25 교사C의 일지)

(2) 온라인 수업 도구 활용과 관련된 사례

동료 학습자 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없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초급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늘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실 운영 방안의 개발과 공유가 시급했다. 성찰일지를 통해 주석 기능의 활용, 화상 게임 진행 방식, 소그룹 기능의 활용 등의 운영 기법이 활발히 공유되었다.

ㄴ. ▪ 참여시키는 방법을 좀 더 고안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상이어서 참여에 한계가 있음**. (2020-9-8 교사A의 일지)
▪ **학생들이 배운 자모를 화면에 쓰도록(주석 기능)** 유도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이 좋았음. 특히 온라인에서는 화면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모 쓰는 순서를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교실보다 이 부분은 더 좋았음. (2020-9-9 교사A의 일지)
▪ 웹엑스 **화면상에서 참여자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획했던) 게임 진행이 어려움**. (2020-9-23 교사C의 일지)
▪ 웹엑스 게임 시 참여자 위치 바뀌는 문제: 호스트 '화면 공유'로 해결 가능. 프로그램 공유와 달리 **호스트에게 보이는 웹엑스 화면이 그대로 공유되므로 모두가 같은 순서로 게임 진행 가능함**. (2020-9-24 교사C의 일지)

(3)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사례

해당 과정의 학습자들은 동일 국적 반이라는 점, 결연 관계 학교의 졸업생이라는 점, 동일 전공으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한국어과정의 학습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과의 교류 경험이나 한국인 교사와의 학습 경험이 없고, 본국에서 학습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읽기나 쓰기에 비해 듣기와 말하기 기능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로 문법 학습 시에 형태 교체와 문장 만들기는 잘 수행하였으나 말하기에서는 출력이 느리고 잦은 오류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플립러닝을 통해 수업 중 문법 설명에 할애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말하기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ㄷ. ▪ 생활환경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보다 한국어를 충분히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듦. (2020-9-28 교사B의 일지)
▪ **본국에서 중국인 교사와 문법 위주로 수업**: 문법 내용과 문장 쓰기에는 익숙하나 말하기는 1급 수준으로 출력이 느리고 연습이 필요함. **수업 시간에 말하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2020-9-15 교사C의 일지)
▪ **세부세션 활용해서 말하기 연습**을 진행해 봄. 반응은 괜찮은 편. 3명씩 대화를 만들도록 했는데 의도했던 것보다 짧게 만들어서 예상보다 시간이 적게 걸림. -> 세부 세션 활용시 **교사가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확인 및 개입해주어야** 할 것. (2020-10-19 교사C의 일지)
▪ 세부세션을 활용한 **말하기 활동이 학생들의 적극성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음. 다만 교사가 하나의 세부세션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말하기 연습만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0-11-13 교사B의 일지)

(4) 교육 과정과 관련된 사례

교육 과정은 사전 설계된 내용을 기본으로 플립러닝의 운영과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몇 주차에 걸친 교수자 성찰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에서는 학습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대면 강의에서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1개 단원을 9차시로 진행하던 학습 계획을 중간시험 이후부터 12차시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변경된 계획안에 따라 수업을 시행한 결과 학습자와 교수자의 피드백은 긍정적이었다.

ㄹ. ▪ **규칙은 이해하고 있지만 형태 연습 시간이 부족**한 느낌임. 목표 문법 학습 시간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20-9-22 교사B의 일지)

▪ **학습자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1-2주차에도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3주차에 접어들고 문법을 배우고 문장을 생성하면서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남. 문법을 활용하는 것은 다 하고 있지만 문장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꽤 많이 남. (2020-9-21 교사B의 일지)

▪ (중간시험 이후 1과 9차시의 학습 계획을 1과 12차시로 수정함) 차시를 늘리면서 기계적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유의적 연습 또한 잘 진행되었음.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교실 수업보다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2020-11-19 교사B의 일지)

(5) 학습자 피드백 및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사례

플립러닝과 온라인 기반 학습에서는 강의의 현장성을 잃는 대신 강의 플랫폼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개별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 결과물을 따로 파일링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피드백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기가 용이하므로 학습자 언어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간이 포트폴리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갖는다. 각 교수자가 보유한 간이 포트폴리오와 성찰일지의 학습자 수행 내용을 참고하여 개별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강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초반에는 워드 파일로 과제를 부여하고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했으나, 손으로 쓰는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성찰 내용에 따라 과제를 손으로 쓰고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교수자는 제출받은 사진 위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사진 편집 기능으로 피드백한 후 학습자에게 파일을 재전송하였다. 쓰기 외에도 발음과 말하기 영역의 피드백을 위해 위챗의 음성 전송 기능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공유하였다.

ㅁ. ▪ 문법 활동지에서 문장은 잘 만들지만 글쓰기를 할 때 드러나는 오류들이 있음. 배운 표현을 활용한 쓰기, 말하기 활동이 더 필요함. **컴퓨터로 작성하는 문법 활동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오류가 손으로 쓸 때에는 더 많이 발생함**. (2020-9-23 교사C의 일지)

▪ 위챗으로 활동을 올리는 것은 모두 잘 수행하는 편임. 서서히 오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오류들에 대한 피드백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020-10-15 교사B의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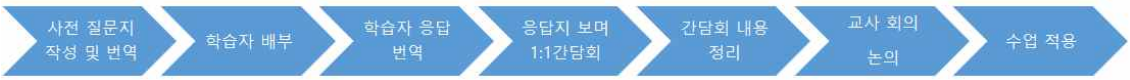
▪ 의외로 쓰기를 싫어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수시로 손을 쓰게 하는 것**이 수업 집중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음. 문장 써서 사진 보내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도움이 됨. (2020-12-8 교사C의 일지)

▪ 맹**, 손** 문법 적용해서 문장 만들기 잘 못 함. **몇몇 학생들이 읽기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말하기, 읽기 연습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10-20 교사A의 일지)

▪ **위챗 음성메모 전송 기능으로 말하기 녹음 복습 과제로 제시함**. 녹음을 같이 보내라고 하니 발음 확인도 할 수 있고 좋음. (2020-11-1 교사A의 일지)

4.3. 학습자 간담회를 통한 교육의 환류

간담회는 한 학기에 두 번 중간시험 후 1차, 기말시험 후 2차로 진행되었다. 1차 간담회는 1:1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전에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번역된 사전 질문지를 미리 나눠주어 면담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간담회의 진행 과정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간담회 진행 과정

사전 질문지의 내용은 교사 회의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한국어 학습 관련 질문' 3문항, '수업 진행 방식 관련 질문' 3문항, '수업 내용 관련 질문'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학습 관련 질문'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묻기 위한 질문이며 '수업 진행 방식 관련 질문'은 온라인 수업과 플립러닝 수업 방식과 관련된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 관련 질문'은 실제 수업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었다[4].

1차와 2차 간담회 형식에 차이를 두었는데 1차 때는 교사와 학생이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1:1 면담 과정에서 통역사는 없었으나 학습자는 모국어인 중국어로 된 설문지를 받고 중국어로 답했으며 이를 통역사가 미리 번역하여 교사에게 전달하였다. 교사와 1:1 면담 상황에서도 학습자가 한국어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경우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교사는 미리 배부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화된 질문을 이어나갔다.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챗[5]을 통해 진행하였다.

4) 1차, 2차 사전 질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5) 위챗 메신저에 자체 통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중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보내면 한국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었다.

2차 간담회의 사전 질문지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어로 번역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학습자는 모국어인 중국어로 답변을 하였다. 2차는 1:1 면대면 질문이 아닌 모든 학생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룹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속한 언어 전달을 위해 중국어-한국어 통역사가 교사와 함께 하며 학습자의 답변을 통역해 주었다. 2차 질문지 내용은 1차 때와 비슷한 틀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으며 설문지 내용 외에 교사가 궁금한 점이나 추가 질문을 통역사를 통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간담회 진행은 모두 녹화되었으며 녹화된 것을 전사하여 정리하였다.

간담회는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가장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의견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존에 진행해 온 학생들의 수업 평가 방식이 일방적인 평가형식이었다면 간담회는 교사와 학생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학습자가 생각하는 수업 내용 및 수업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교육 시스템'과 '수업 내용' 및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수업 후 매일 교사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교사 회의에서 교사 간 피드백을 통해 수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학습자의 반응보다는 교사의 판단과 의견들을 통한 피드백 시간으로 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평가를 통한 수업에의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간담회 결과를 교사회의 때 논의하였는데 1차 간담회를 통해 학습자가 기존의 수업 내용 외에 '발음 수업' '토픽 수업' 및 '수준별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요구하여 특별수업으로 여러 가지 수업을 추가하였으며 교사가 학습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업 방식을 변형하는 등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4.3.1. 온라인 수업에 대한 피드백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본 플립러닝 수업은 온라인 수업 내에서 진행되었다. 교사와 학습자가 대면할 수 없는 온라인 상황은 일반적인 플립러닝 수업의 적용 사례와도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전반에 대한 학습자 피드백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적용된 플립러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수업도 교실 수업과 다르지 않고 동일하며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더 좋다고 응답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학습자가 응답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ㄱ. 온라인 수업의 장점

Q.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좋았던 점이 뭐예요?
A. 아주 재미있어요. / 편리해요. /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고 해외에 안 가도 된다.
수업 내용이 화면에서 잘 보인다. / 학생들이 떠들지 않아요.
수업과 동영상을 병행해서 수업 시간이 많아서 좋음.

온라인 수업에 대해 만족한 학습자는 대체로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고 집에서 듣는 것이 편하다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두는 학습자였다. 그 외에도 공부할 부분이 잘 보이는 점이나 교사의 지식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학습자가 온라인 환경의 수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한

학습자는 교실 수업의 경우 판서가 가끔 잘 안 보이는데 온라인 수업은 그렇지 않아서 편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실 수업을 하면 친구들이 떠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장점이라고 답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학생간의 소통이 자유롭지 않아서 오히려 교사의 지식 전달 상황에서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습자도 있었다. 또한 플립러닝이 적용된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단점으로는 인터넷 환경(Wifi)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을 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ㄴ. 온라인 수업의 단점

Q.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나빴던 점이 뭐예요?

A.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 대면이 아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됨.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실제로 학교 인터넷 환경(Wifi) 때문에 수업 진행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각반에서는 핸드폰으로 음성으로만 소통하면서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과제를 위챗에 올려 받아서 수업 시간의 갑작스런 인터넷 환경(Wifi) 문제에 대처했다. 그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복습 시간을 활용하여 진도를 맞췄으며 이 외에도 개개인의 학생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 링크에 여러 번 접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집이라는 환경이 너무 편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 외에도 교사와 동료 학습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정서적인 측면의 요구도 있었다.

ㄷ. 면대면 수업에 대한 정서적인 요구

Q.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나빴던 점이 뭐예요?

A. 교류가 적어요. / 선생님을 만날 수 없어요. / 얼굴을 마주 할 수 없는 것 (대면할 수 없는 것)

4.3.2. 플립러닝에 대한 피드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플립러닝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모든 반에서 높았다. 교사는 수업 전 학습자의 영상 시청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거의 모든 학생이 플립 영상을 시청하고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간혹 시청하지 않은 학습자들도 실수로 잊어버리거나 와이파이(Wifi) 상황이 좋지 않아 놓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영상 시청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간혹 시청하지 못한 학습자들도 영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플립러닝 영상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이유가 학습자들이 원래 수업을 미리 준비하고 예습하는 것에 익숙한 성향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수업 준비나 숙제를 잘 해가지 않는 편인데도 플립러닝 문법 영상이 매우 도움이 되어 매번 보고 수업에 들어왔다고 답했

다. 이러한 만족도는 플립러닝 영상의 교육적 효과와 사용의 편리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플립러닝 영상의 교육적 효과는 크게 예습, 복습 효과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었다. 먼저 대다수의 학습자는 플립러닝 영상의 예습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ㄹ. 플립러닝 영상의 예습 효과

Q.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서 수업하는 방식이 어때요?

A. 좋아요. 수업 내용을 미리 예습할 수 있기 때문에. / 좋아요. 먼저 예습을 해서 수업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많은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운다는 점에서 플립러닝 영상이 좋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 학습자는 해외에서 한국인 선생님에게 듣는 수업이어서 긴장이 되고 혹시나 알아듣지 못할까 부담이 있었는데 공부할 내용을 미리 알아서 안심이 되었다고 응답하기도 있었다. 이는 수업 내용에 대해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학습자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립 영상은 예습을 위한 영상으로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림을 통한 명확한 상황 설명과 형태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문 등으로 구성된 10분짜리 영상으로 학습자가 혼자 본다고 해도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교육 자료는 학습자가 문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도왔고 이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ㅁ. 플립러닝 영상의 교육 효과

Q.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서 수업하는 방식이 어때요?

A. 수업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 좋아요. 수업 시간에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어요. / 문법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배울 문법에 대한 의미와 사용 상황, 그리고 형태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 익히고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수월하게 들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교사의 의도에 맞게 학습자들도 수업을 이해하는 용도로 플립러닝을 사용하였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습득에 대한 열정이 비교적 높아 수업 외에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한 학습자의 경우는 1급에서 배우는 문법이 자신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여겨져 수업 전에 듣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문법 내용에 대해 선택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복습용으로 활용하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예습용으로 플립러닝을 시청한 학습자들도 수업 후에도 반복적으로 들으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ㅂ. 플립러닝 영상의 복습 효과

Q.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서 수업하는 방식이 어때요?

A. 너무 좋아요. 문법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아요. / 좋다. 동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학습자들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로 온라인이지만 교실 수업 외에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도가 높았으며 1급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며 간단한 예문들로 구성된 플립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습자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ㅅ. 교육 기회 제공으로서의 플립러닝 영상

Q.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좋았던 점이 뭐예요?

A. 수업과 동영상을 병행해서 수업 시간이 많아서 좋음.

이외에도 플립러닝 영상을 사용하는 방식의 편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ㅇ. 플립러닝 영상의 편리성

Q.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서 수업하는 방식이 어때요?

A. 좋아요. 편리하기 때문에 / 편리해요. /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고 해외에 안 가도 된다. / 한국인 선생님과 처음 수업해서 걱정됐는데 많이 도움이 됨.

플립러닝 영상은 인터넷 환경(Wifi)만 주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립 영상을 반복적으로 본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는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100%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제약도 많이 있었지만 인터넷 상황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더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플립러닝 영상을 요구하는 응답도 있었다. 수업 후에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복습하고 싶다는 의견을 구두로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ㅈ. 플립러닝 영상의 편리성

Q.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서 수업하는 방식이 어때요?

A. 더 많은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수업 영상을 원합니다.

플립러닝 영상 시청 후 퀴즈에 대한 참여도도 높았다. 플립러닝 퀴즈는 영상에서 제시된 예문을 그대로 활용한 문제로 난이도가 높지 않고 영상을 본 학습자라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였다. 플립러닝 퀴즈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따로 없었으며 이에 대해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문제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높지 않고 영상에 나온 예문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문제풀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답하였다. 퀴즈 답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단순히 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4.3.3. 수업 내용에 대한 피드백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되는 과목의 경우 '읽기', '단어' 등 혼자 공부하기 어렵지 않은 분야는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이 많았으나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비교적 높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ㅊ. 말하기, 듣기 수업에 대한 요구

Q. 한국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A. 듣기가 비교적 어렵다고 생각해요. 가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 발음이 어려워요. 소리의 변이가 많아서 어려워요. (수음, 연음)

Q. 한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더 많이 연습하고 싶어요?

A. 대화랑 듣기를 연습하고 싶어요. 듣기는 어려워서, 한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연습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더 잘 말하고 싶어요.

Q.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세히 쓰세요.

A. 듣기 내용을 많이 추가할 수 있어요? 듣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는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를 처음 접하면서 발음에 익숙하지 않아 듣기 이해가 다소 어려운 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듣기와 말하기 수업에 대한 요구는 한국어 능력이 비교적 낮은 A, B반의 학습자들의 듣기, 말하기 수업에 대한 필요가 더 높았다.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발음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서 듣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주로 읽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와 같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학습자들의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어려움은 수업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졌다. 온라인 상황에서는 교실 상황보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많지 않고 1명씩 말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기다려야 하는 등 말하기 기회가 적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 회의를 통해 세션 활동[6] 활용 및 말하기 녹음 숙제[7], 발음 특별 수업으로 적용하였으며 기존 수업에서도 학습자의 발음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수료식에서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 발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온라인상에서 듣기와 말하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큰 초급 학습자들로 이러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2차 간담회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만족하는 학습자도 있었고 발음이 많이 고쳐져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다. 2차 간담회 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학습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ㅋ. 말하기, 듣기 실력 향상에 대한 답변

Q.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질문하세요.

A. 말하기 발음 부분이 많이 교정됨. / 듣기가 많이 향상돼서 좋았음. / 한국인 선생님과 처음 수업해서 걱정됐는데 많이 도움이 됨.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대면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좀 아쉬웠지만 듣기와 말하기가 향상된 부분 있었음.

온라인 수업에서 비교적 부족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시간의 양을 늘리거나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온라인 수업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본 학습자들은 추후에 토픽을 취득하여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학습자들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외에도 토픽 수업에 대한 필요도 높았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반

6) 세션 활동은 학습자 2-3명씩 개인 방에 들어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사가 말하기 활동에 대한 설명 후 2명씩 말하기 활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차 간담회 후 세션 활동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가 매우 재미있고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7) 개인의 말하기 연습 시간을 늘리고 발음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였다.

응은 다음과 같다.

ㅌ. 토픽 수업에 대한 요구

Q.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질문하세요.

A. 수업 내용 끝나고 남는 시간에 topik 연습해요. / 읽기 (TOPIK시험을 보고 싶어요)

학습자들의 토픽 수업에 대한 필요를 인지한 1차 간담회 후 각반의 수준에 맞게 토픽 특별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어 수준이 비교적 높은 C반의 경우 1급 진도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자유로운 말하기 활동으로 연계시키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토픽 수업의 비중을 늘렸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A, B반의 경우 1급 수업 내용을 충실히 진행해 나가면서 특별 수업으로 토픽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수업 중반에 실시된 토픽 시험에 총 16명의 학습자가 응시하여 4명이 토픽 1급, 4명이 토픽 2급, 5명이 토픽 3급을 취득하였다. 떨어진 5명은 1,2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이지만 토픽2에서 3급을 받지 못해 급수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수업의 목표 중의 하나인 토픽 1,2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까지 향상된 것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더 제공받고 싶다는 필요를 드러낸 학습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ㅍ.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요구

Q.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질문하세요.

A. 한국 문화와 한국에 인기 있는 곳,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세요. / 책에 있는 것 외에 한국 문화나 습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 인터넷 강의 선생님께서 한국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본 학습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학생이어서 개인적인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에 대한 영상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들도 추가 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단,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수준에 맞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찾거나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5. 결론

본고는 국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플립러닝 적용 수업 사례를 통해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플립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과 함께 영상 업로드 및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가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그간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플립러닝을 적용해 보고 교육의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적용 사례는 한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 사례였으므로 이러한 수업 방식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후속 연

구 과제로 남기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강희(2020),「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기반 문법 수업의 설계 및 운영 방안 연구: 실제 사례 및 학습자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반교어문연구』Vol.0 No.54, pp.189-222

김규훈(2016),「플립드 러닝의 문법교육적 적용 방안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문법 교육』Vol.26 No.-, pp.157-186

김연경(2016),「대학수업을 위한 활동이론 기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모형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정은·임수진·안윤숙(2020),「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자 및 학습자 인식에 대한 사례 연구」,『한국어 교육』Vol. 31 No.4, pp.21-53

박진욱(2014),「대단위 한국어 수업을 위한 역진행 수업(flipped classroom) 모형 개발 연구」,『이중언어학』Vol.57 No.-, pp.75-102

이경·윤영(2017),「한국어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기반 문법 교육 방안 연구」,『교육문화연구』Vol. 23 No.4, pp.333-361

이민경(2014a),「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의 교실사회학적 의미 분석 : 참여 교사들의 경험을 중심으로」,『교육사회학연구』제24권 제2호, pp.181-207

이민경(2014b),「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의 효과와 의미에 대한 사례 연구」,『한국교육』Vol.41 No.1, pp.87-116

이소현(2015),「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 - 대학 학부 한국어 문법 수업을 중심으로」,『언어와 문화』제 11권 2호, PP.221-262

이정희(2020),「'한국어교육론' 교과목의 플립러닝 수업 설계 연구-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 기반하여-」,『한국어 교육』Vol. 31 No.1, pp.77-103

정혜선(2017),「플립러닝을 활용한 화용 교수가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관례어 이해와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순(2017),「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어교육의 재조명」,『우리말 글』73, pp,247-284

[부록]

1차 간담회 사전 질문지

[한국어 학습 관련][韩国语学习方面]
1. 한국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문법이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쓰기는 쉽지만 말하기가 어려워요 등)
1. 学习韩国语最难的地方是什么？
（比如说，语法难，发音难，写作比较简单，不过口语难 等）

2. 한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더 많이 연습하고 싶어요?
2. 韩国语课堂上，你想在哪些方面多多练习？

[수업 진행 방식 관련][授课方式方面]
1.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서 수업하는 방식이 어때요?
1. 先看教学视频再上课，这种授课方式怎么样？

2.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이 뭐예요?
2. 你觉得网课的好处和坏处是什么？

3.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세히 쓰세요.
3. 关于授课方式有什么建议吗？请详细的写一下。

[수업 내용 관련][授课内容方面]
1. 수업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배운 내용을 몇 퍼센트 이해하고 있어요?
1. 授课内容难不难？课堂上学过的内容，你理解了百分之多少？

2. 수업 진도가 빨라요, 느려요?
2. 你觉得课程进度快还是慢？

3. 수업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세히 쓰세요.
3. 对于授课的内容有什么建议吗？请详细的写一下。

[기타][其他方面]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질문하세요.
你有什么话想对老师说？请随便提问。

2차 간담회 사전 질문지

2020-2 중국 방문/교환학생 2차 간담회 질문

[수업 내용]

1.한 학기 동안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어휘, 문법을 공부했어요. 어땠어요?

1-1. 공부하기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이었어요?

1-2. 공부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어요?

2. 수업 시간에 교재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을 공부했으면 어땠을까요?

(토픽, 말하기 발표 등)

3. 중간시험 이후에 짝활동(모둠활동)을 했어요. 어땠어요?

3-1.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3-2.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어요?

[수업 체계]

1.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어땠어요?

1-1.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1-2.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어요?

2. 수업 전에 미리 동영상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됐어요?

2-1. 도움이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2-2. 도움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3. 수업 전에 미리 동영상을 잘 보고 수업에 들어왔어요?

3-1. 잘 봤어요.

3-2. 잘 안 봤어요. 왜 잘 안 봤어요?

4. E-class에 있는 퀴즈를 잘 풀었어요?

4-1. 잘 풀었어요.

4-2. 잘 안 풀었어요. 왜 잘 안 풀었어요?

5. 15주 동안 수업을 한 것은 어땠어요?

5-1. 15주 동안 수업을 한 것이 길었어요?

5-2. 15주 동안 수업을 한 것이 짧았어요?

6. 3시간 동안 수업을 한 것은 어땠어요?

6-1. 수업이 길었어요?

6-2. 수업이 짧았어요?

TV드라마에 나타난 학교 폭력 양상(樣相) 연구
- <후아유-학교2015>를 중심으로 -

강성애 (중앙대)

<목 차>

1. 서론
2. 고아(孤兒), 학교의 호모 사케르
3. 소통의 부재와 학교 폭력
4. 공감 능력의 회복과 소통
5. 결론

1. 서론

TV 드라마가 극예술로 인정받으며 학문의 대상이 된 지 10년이 지났다. 현재는 TV 드라마 자체에 집중한 논문들이 많지만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TV 드라마를 수단으로 사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20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청소년 드라마[8] 연구는 여전히 TV 드라마를 수단으로만 대하는 경향을 지닌다. 충분히 사회의 여러 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자체보다는 '청소년'에 방점이 찍혀 버리는 것이다. 청소년 드라마가 사회의 징후를 나타낸다고 볼 때 그중에서도 '학교'라는 공간을 사회의 축소판으로 보고 접근한 드라마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TV 드라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이하 <상속자들>)의 경우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 간의 폭력이 학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리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9] 이 드라마가 그려낸 학교 폭력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적이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학교'는 약자를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높은 계층의 학생들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계층 간의 폭력이 세습되고 반복되면서 대물림 되는 곳이다. 그러나 <상속자들>에 나타난 계급 간의 폭력은 드라마 전반의 서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물이 벌이는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반면, TV 드라마 <후아유-학교2015>[10](이하 <후아유>)의 경우 학교 폭력

8) 청소년드라마는 주요 인물을 청소년으로 하고, 학교와 가정, 그 주변을 주요 공간으로 하면서 내용을 전개해나가는 드라마를 말한다. 청소년드라마는 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 가정과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며, 일종의 성장드라마 형식을 취한다. (이상범, 「청소년드라마의 구조유형 연구 : 소재, 캐릭터, 인물관계도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9쪽)

9) 강성애, 「TV 드라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에 나타난 계급 표상(表象) 연구」, 『리터러시 연구』 11(3),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0.

을 중심으로 드라마 서사를 이끌어 가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을 막아주지 못하는 학교의 안정성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에 주목을 요한다.

<후아유>는 현실적인 학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폭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 이 드라마를 수단으로 '청소년'에 대해 연구했을 뿐 드라마 자체에 주목하지는 않았다.[11] <후아유>는 고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계급 간의 학교 폭력을 다루면서도 '소통'을 키워드로 접근하였다. 소통의 부재로 생긴 학교 폭력이 소통으로 해결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부유한 쌍둥이 언니가 주인공의 이상적인 자아로 등장하여 주인공이 이상적 자아와의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드라마 <후아유>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이 시대의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통을 중심으로 TV 드라마 <후아유>에 나타난 학교 폭력 양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고아(孤兒), 학교의 호모 사케르

<후아유>는 통영 누리여고에 다니는 2학년 학생 이은비의 인터뷰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은 은비가 알바를 세 개씩 하면서 고아원 동생들을 보살피는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터뷰 장면 바로 다음에 은비가 학교에서 강소영과 그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장면의 순서를 통해 이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바로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후아유>는 부모도 없고 백도 없으면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힌다는 것을 고아를 여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이야기한다.

은비는 소영의 생일날 인간 케이크가 된다. 소영의 친구들은 은비에게 밀가루와 계란, 까나리 액젓 등을 뿌리고 소영의 생일 선물로 은비를 바친다. 은비는 냄새로 인해 더욱더 철저하게 학교에서 소외당한다. 모두 은비를 냄새난다고 피할 뿐이다. 그 누구도 은비의 편에서 은비를 도와주지 않는다. 소영과 그의 친구들은 커튼을 치고 그 속에서 옷을 풀어헤치며 은비를 괴롭히고 소영은 그러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놀린다. 드라마는 괴롭힘당하는 은비와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은비의 반 친구들의 모습을 교대로 보여주면서 은비를 괴롭히는 것은 소영과 그의 친구들뿐 아니라 은비의 고통에 무관심한 전교생임을 이야기한다. 은비는 결국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자퇴를 하게 된다. 떠나기 전 은비가 소영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묻는다. 그때 소영은 "그냥. 이은비라서 다 싫어. 아, 이은비 냄새나."(1회)라고 이야기한다. 은비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냥 싫은 존재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학교에서 애들에게 맞고 온 은비는 자신을 잘 따르는 동생 라진이 역시 고아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처럼 드라마는 은비의 고통이 라진에게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고아로 살기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를 고발한다. 고아원에 은비를 괴롭히려고 온 소영과 친구들은 라진을 보게 되고 나중에 은비에게 "네 동생 라진이 꼭 너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게."라고 이야기한다. 이 대사를 통해 라

10) <후아유>, 김민정 · 임예진 극본, 백상훈 · 김성윤 연출, KBS2, 총 16부작, 2015.4.27~2015.6.16.
11) 김길주, 「텔레비전드라마를 활용한 역할극 학습 방안 : <후아유 학교 2015>를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16; 김미경, 「미디어에 나타난 학교폭력 : 드라마 <후아유-학교2015>를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17.

진이 은비 나이게 되면 똑같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된다.

무엇보다도 은비의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핑계로 괴롭히려고 온 친구들이 은비에게 하는 말을 통해 은비가 고아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수미	야, 따순이. 이거 네가 해. 네가 먹을 거잖아.
김경진	여기가 다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니냐? 그러니까 염치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봉사도 좀 하고
강소영	그래. 그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응?

-<후아유> 1화 중.

은비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다. 그래서 '염치'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봉사를 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런 의식 속에서 친구들은 은비를 맘 놓고 괴롭힐 수 있었다. 은비 스스로 이러한 위치 차이를 인식하고 순응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적이다. 소영의 아버지인 강일산 검사는 통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검사이며 사랑의 집을 후원해 온 사람으로 고아원 원장에겐 은인이다. 은비는 강일산 검사가 새로운 후원처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운영난 때문에 힘든 원장을 돕기 위해서 소영에게 사랑의 집을 후원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와 같은 장면은 은비가 자신을 때리고 학대하는 친구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도 없는 완벽한 약자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처럼 은비가 당하는 학교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후아유>는 고아원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르조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죽여도 처벌 받지 않는 존재, 그래서 누구나 죽일 수 있는 존재가 호모 사케르이다.[12] 아무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은비 역시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누구나 마음에 체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의 거리낌 없이 괴롭힐 수 있는 존재였다.

<후아유>는 은비가 피해자인 학교 폭력 외에도 다양한 폭력 양상을 보여준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사회의 권력이 학교 내에서도 그대로 작용하여 학교 폭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모습을 그린다. 이런 장면으로 인해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아름다운 공간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다.

가해자	피해자
강소영	오정아
강소영 외	이은비
연미주 외	정수인
고은별 외	서영은
전교생	강소영

<표1>

중학교 때 반장이었던 은비는 오정아를 괴롭히는 강소영에게 대항하다가 왕따가 된다. 정아는 다시는 왕따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 은비를 돕지 않는다. 은비의 쌍둥이 언니인 은별이 역시 왕따가 되고 싶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수인이를 외면했다. 그 결과 수인이가 외롭게 수업 시간에 죽게 되었고 그에 대한 죄책감에 수인이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된다. 정아와 은별이는 모두 친구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

12)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175쪽.

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학교 폭력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폭력에 방관자로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은비가 당했던 고통을 감수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겐 그 용기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방관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또 다른 피해자로 살아가게 된다. 은별은 이안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야, 왕따 당하던 친구 감싸다가 왕따 된 은비랑 힘든 친구 모른 척하고 도망 다녔던 나랑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한 거 같냐?”(14화 중) 은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둘 다 불쌍한 피해자다.

이 드라마의 주요 인물들은 학교 폭력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다양한 포지션으로 살아가게 된다. 은비는 중학교 때는 반장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다가 고등학교 때는 학폭의 피해자가 되고, 또 고은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가해자의 입장에도 처하게 된다. 오정아는 피해자에서 방관자로 변화되고, 고은별은 가해자와 방관자 모두의 입장에 있다가 스스로 사회적 죽음을 택하고 사라진다. 강소영은 주도적으로 은비를 왕따시키는 입장에서 전교생에게 미움을 받는 왕따가 된다. 이처럼 <후아유>는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위치에서 폭력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3. 소통의 부재와 학교 폭력

은비가 고아라는 사실이 학교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폭력을 방치한 것은 은비와의 소통에 실패한 주변 사람들이다. 특히 은비의 담임 선생님이 그 대표적이다. 까나리 액젓을 뒤집어쓴 은비가 교실로 들어오자 반 학생들은 다 냄새난다고 싫어한다. 반 아이들 모두 맡은 냄새를 담임 선생님이 못 맡았을 리 없다. 그리고 반 아이들이 모두 은비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은비를 따로 불러내어 체육복을 입고 다닌다고 혼내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선생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너 혼자 매일 체육복 입고 있어? 지난번에도 주의 준 거 같은데. 혹시 누가 괴롭히니?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선생님이 도울 수가 있어.
이은비	에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후아유> 1화 중.

선생님은 은비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라고 말하는데 이 대목에서 은비에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이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은비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혹시 누가 괴롭히는지 물어본다. 그런데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선생님이 도울 수” 있다는 말에는 정말 돕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고 고아원으로 돌아온 은비는 고아원 동생 라진이가 다친 것을 보고 라진이와 대화를 시도한다. 학폭의 피해자였던 은비가 이번엔 라진의 보호자의 입장에 섰다.

은비	라진아 여기 왜 이래?
라진	넘어졌어.
은비	왜? 어쩌다가 넘어졌는데? 응?
라진	그냥. 애들이랑 놀다가
은비	언니 눈 보고 얘기해. 괜찮아.

-<후아유> 1화 중.

라진이 역시 은비가 선생님에게 그랬듯 바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다. 은비가 눈을 마주치며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라진이는 울면서 자신이 친구에게 괴롭힘당했던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로써 은비는 라진과 소통에 성공했다. 은비는 라진을 끌고 가해자 학생을 찾아가 사과를 받아내고 라진은 폭력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된다.

<후아유>는 은비의 담임 선생님이 소통에 실패한 장면 이후에 은비와 라진의 대화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묻는다. 라진이가 은비처럼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은비가 라진의 속마음을 이끌어 낸 것을 대조시키면서 담임 선생님과 은비 사이의 대화의 실패가 은비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에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담임 선생님은 소영이가 누명을 씌워 은비를 학폭의 가해자로 몰았을 때도 소영이의 말만 믿고 은비를 다그치며 학교에서 내쫓듯이 보내 버린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13] 소통에 실패한 담임 선생님으로 인해 은비는 학교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됐다. 결국 은비는 그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죽을 결심을 하게 된다.

서울의 세강고에서 왕따로 살아가는 서영은의 경우 은비와 다르게 부유한 집안의 학생이다. <후아유>는 영은이 왕따를 당한 이유를 따로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대신 영은이 부모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줌으로써 폭력의 기저에 친밀한 사람과의 '소통 불능'이 있음을 드러낸다.

영은모	정식으로 학폭위 요청합니다.
서영은	전 싫어요. 절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영은모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얘가 왜 이래 정말
서영은	학폭위 열면 얻는 게 뭔데, 서영은 애들 지갑 노릇이나 하는 찌질이 왕따다 공식 선언하는 거거든!
영은모	너 찌질이 왕따 취급받았어? 걔들은 또 누구야? 명단 불러. 누구냐고!
서영은	진짜 가식 쩐다. 언제부터 내 걱정 그렇게 했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갑자기 좋은 엄마 코스프레 하는데 재수 없게!

-<후아유> 3화 중.

영은은 부유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돈으로 친구를 사며 반에서 공식적인 지갑 역할을 담당했다. 영은의 엄마는 평소 바빠 영은의 아픔을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문 잠그고 나오지 않는 영은에게 돈만 올려놓고 떠날 뿐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나 돈으로밖에 사귀는 법을 몰랐던 영은의 고충은 부모와의 소통 단절로 인해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엄마의 물건을 몰래 훔쳐 돈을 마련하는 데까지,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을 벌이기까지 나아갔다.

<후아유>는 은비의 자살(실제 죽음)과 은별이의 자살(사회적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은비는 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담임 선생님 등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들과 소통에 실패하여 고립된 삶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고, 은별이 역시 엄마에게 은비에 대한 죄책감과 수인이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지 못해 혼자 끙끙대다가 자신의 자리에

13) 황수영, 「소통의 이론과 그 철학적 기반: 리쾨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2(1),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9, 70쪽.

은비를 앉히고 자신은 원래 있던 고아원으로 돌아가면서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폭력이 방치되고 그로 인해 폭력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배경에는 부모님과의 소통 불능이 있었다. 물론 친구와의 소통 불능도 존재한다. 은비는 후에 이안에게 너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은별이 역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까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지 못해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영은이 또한 가족과 친구, 선생님에게 자신의 고충을 말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후아유>는 은비와 영은, 은별이라는 인물들을 통해 소통이 단절되면 학교 폭력이 주는 여러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4. 공감 능력의 회복과 소통

죽은 은별이 대신 은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은별이로 살아가게 된 은비는 은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해자인 은비가 가해자인 은별의 위치에서 살자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가해자 캐릭터가 탄생한다. 은비는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떠올리며 영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고, 영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소통을 시도했다.

이은비	교실 안의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느끼는 거만큼 끔찍한 일은 아마 없을 거에요. 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많이도 필요 없이 딱 한 명이면 되는데.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와주지 않을까. 영은이를 두렵게 만든 건 제가 맞습니다.

-<후아유> 3화 중.

만약 은별이었다면 은비가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왕따를 당해본 은비이기 때문에 영은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은별이 대신 영은에게 사과할 수 있었다. 누스바움은 연민을 배우는 것에 실패할 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데, 연민은 공감에서 형성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14] 특히 누스바움은 루소가 말한 잠재적 취약함에 주목하면서 주장을 펼쳤다. 루소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매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귀족이 평민을 멸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평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했다.[15] 즉, 상대방이 처한 아픔이나 고통이 언제든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누스바움 역시 루소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온다고 보았다. 은비는 가해자 입장에 서 있는 은별로 살아가지만 왕따를 경험해 본 피해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학생인 영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불합리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낭비하면서 살아갔던 영은이의 정의는 실현됐다.

소영은 자신이 은비에게 했던 모든 일이 탄로 나서 전교생에게 미움을 받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욕을 먹게 되면서 은비가 당했던 고통을 절절히 느끼게 된다. 결국 소영은 은비를 따로 불러내서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니 도와달라고 한다. 은비는 소영에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위로를 해주고 떠난다. 소영이 은비

14)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앞의 책, 147~150쪽.
15) 장 자크 루소, 『에밀 또는 교육론 2』, 이용철·문경자 옮김, 한길사, 2007, 36~41쪽.

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소영이 은비의 위로를 듣고 우는 장면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이은비가 하루아침에 가장 인기 있는 고은별로 살아가고 은비를 괴롭히던 소영은 철저한 왕따가 되어 살아간다. 이를 통해 보여주고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은별로 살아가는 이은비는 계속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는 너는 학교 폭력에서 피해자이냐, 아니면 가해자이냐의 질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질문은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폭력 앞에서 우리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폭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폭행을 당했을 때, 폭력을 행사했을 때, 혹은 방관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해 <후아유>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드라마는 폭력의 해결 방안으로 소통을 내세운다. 라진이를 때렸던 아이가 라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사과한 장면을 통해 만약 폭행을 했어도 사과를 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은비가 라진에게 하는 대사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이은비	라진아. 아무리 친한 친구래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 싫은 건 싫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 다음번엔 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 응?

-<후아유> 1화 중.

또한 정아와 은별이가 각각 은비와 수인이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관자였던 사람은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서 친구를 도울 수 있는지도 가르쳐준다. 은비가 라진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은비가 정아를 구하기 위해 한 행동을 통해 친구를 돕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는 은비가 쌍둥이 언니인 은별과의 소통을 통해 성장을 이뤄나가고 학교 폭력에 대항해나가도록 했다.

이은비	언니 나 정말 고은별로 살아도 돼? 항상 언니가 같이 있다고 믿을게. 언니 이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게.

-<후아유> 4화 중.

은비는 은별이로 살아가면서 죽었다고 믿고 있는 은별이에게 말을 걸면서 성장해나간다. 이때 은별은 은비의 자아 이상으로 볼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자아 이상은 우리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다. 자아와 자아이상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실현하면서 나르시시즘적인 만족이 생긴다.[16] 은비 역시 죽은 은별과 대화를 하면서 은별을 닮아가고 왕따에서 인기 많은 학생으로 점차 변화되는 만족을 누린다.

5. 결론

16) 맹정현, 『멜랑꼴리의 검은 마술』, 한솔수북, 2015, 130쪽.

<후아유>는 18살 고아 여학생이 학교에서 검사 딸인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매 회 다양한 학교 폭력 관련된 에피소드를 배치하면서 학교 폭력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어 갔다. 학교가 사회에 만연한 계급 간의 폭력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고, 피해자 학생과 주변 인물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고통이 증가했다. 학교 폭력이 해결되는 것 역시 학교나 선생의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소통 회복으로 인해 이뤄졌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로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있다. 중학교 때 반장이었던 은비가 고등학생 때 왕따가 된 것처럼 학교 폭력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호모 사케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 그런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학교라는 공간에 호모 사케르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약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TV 드라마 <후아유>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소통은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이덕열언간>을 통해 본 신하와 가장의 한 모습

이래호(강원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이덕열언간>에 담겨 있는 사연을 통해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과 신하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을 걱정하는 가장으로서 이덕열의 모습을 재현해 보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간은 현재 전하는 언간의 양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15세기 말부터 19세기에이르기까지 조선시대의 대부분을 망라할 정도로 시기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 언간은 향유 층에 따라 최상 계층이 쓴 궁중 편지에서부터 아래로는 사대부 가문, 그리고 일반 서민 계층이 남긴 편지까지 계층별로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17] 이러한 언간의 분포적 특징으로 인해 일찍이 국어사적 분야에서 당시의 언어 양상과 언어의 변화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언간의 내용은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의 여러 제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위했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기에[18] 최근에는 문화사, 생활사 분야에서도 언간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문화사, 생활사 분야에서는 언간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선비와 그 가족의 삶 조명해 내거나[19] 여성의 삶을 재현해 내는 등의 연구[20]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언간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역사와 제도를 연구[21]하는 데까지 지평이 넓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생활사 분야에서 언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생활의 모습을 재구하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이덕열(李德悅, 1534~1599)의 부인인 청풍 김씨(淸風金氏)와 주고받은 <이덕열언간> 가운데,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언간을 통해 임진왜란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신하로서 모습과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재현해 보고자 한다. 신하와 가장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덕열이 저술한 <양호당일기>[22]를 참고하여 언간의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 2장에서는

---

17) 이래호(2015),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p.66.

18) 전경목(2011),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p.28.

19) 조선시대 선비와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연구는 백두현(1998),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17세기의 習俗과 儀禮」, 문헌과해석 3호, 문헌과해석사, 72-91를 위시하여 수십여 편의 연구가 있다. 백두현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래호(2015),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pp. 120~121의 참고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송준길가 언간, 송규렴가 언간을 중심으로 대전의 생활문화를 고찰한 연구로는 문희순(2011), 「한글편지에 반영된 옛 대전의 생활문화 1 - 송준길.송규렴가 편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70권, 129-157; 문희순(2012), 「동춘당 송준길가 소장 한글편지에 반영된 생활문화」, 인문학연구 통권 8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3-62 등이 있다.

20) 언간을 통해 여성의 삶을 조명한 연구로는 양인실(1985), 「언간에 나타난 선조여인의 실상고」, 겨레어문학 9, 겨레어문학회, 253-268; 최윤희(2002), 「16세기 한글편지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식 - 신천강씨의 한글편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회, 86-106 등을 들 수 있다.

21) 대표적인 논문으로 전경목(2011),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27-57이 있다.

22) <양호당일기>는 이덕열이 임진왜란 중에 작성한 일기로, 승정원일기의 형식을 빌려 기술하고 있으며 비교적 생생하게 임진왜란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책이다. 수록 기간은 1592년 7월 25일에서 1597년 4월 15일까지이며, 빠진 기간이 있다.

<이덕열언간>과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언간과 <양호당일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신하로서의 이덕열의 모습을 4장에서는 가장으로서 피난 중 가족을 걱정하는 이덕열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2. <이덕열언간>에 대한 소개

조선 중기 사대부가에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매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격묘(灰隔墓) 방식이었다. 묘광을 파고 숯가루, 삼물(석회, 세사, 황토), 목곽, 목관(이중관)의 4중 구조로 시신을 안치하는데 목곽과 목관을 제외하고도 숯과 삼물의 두께가 25~35cm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조성된다. 두꺼운 회벽 안에는 동식물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벽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여 밀폐시킴으로써 주검과 같이 관 속에 넣은 여러 상례·장례 용품 등이 산화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발견되기도 한다.

최근에 회격묘 안에서 미라와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광주 이씨 문경공지파(文景公支派) 문중은 2016년 10월 17일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에 있는 청풍김씨의 묘를 이장하였다. 청풍김씨의 묘는 회격묘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목관은 옻칠이 되어 있었다. 목관 안에 든 시신은 미라 형태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목관은 옻칠을 촘촘히 했고, 옻칠관 속에서는 시신과 함께 염주 혹은 유리구슬로 추정되는 유품 1점과 한지로 된 봉지 2점이 나왔다. 한지로 된 봉지에는 각각 한글로 '낙발'(落髮)과 '가중셔간'(家中書簡)이라고 적혀 있었다. '낙발' 봉지는 '爪髮囊'으로써 모발이 싸여 있었고, '가중셔간' 봉지는 외피지, 내피지로 싸여 있으며 언간 13점이 들어 있었다.[23]

그림 13 청풍김씨 미라

이 묘의 주인은 광주 이씨 문경공지파 이덕열(李德悅, 1534~1599)의 부인인 청풍김씨(淸風金氏)이다. 장고은.김영(2019)에 따르면 언간 13건은 남편인 이덕열이 청풍김씨에게 보낸 편지이며, 그 중 1건은 아내가 보낸 편지지 뒷장에 남편이 답장을 써서 보낸 것[24]이어서 내용상으로 보면 총 14건이 된다.[25]

---

23) <이덕열언간>에 대한 해제는 장고은·김영(2019), 16세기 후반 한글자료인 <청풍김씨묘출토언간(이덕열언간)>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29, 국어사학회, 125-156를 참고하기 바람.

24) 이에 해당하는 편지가 12번 편지이며 장고은·김영(2019)에서는 12번 편지를 12-1, 12-2로 나누었다. 12-1은 청풍김씨가 이덕열에게 보낸 편지이며, 12-2는 12-1의 뒷면에 남편이 아내에게 답장을 쓴 것이다. 장고은·김영(2019)에서는 <이덕열언간>의 편지를 13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덕열 집안에서 소유한 논밭과 그 논밭에 나는 수확량을 적은 1건이 더 존재한다. 논과 수확량을 적은 1건을 언간으로 보기 어려워 언간의 건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내용상 15건이 된다.

청풍김씨 묘에서 출토된 언간 14건은 1590년부터 1599년까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며(장고은·김영 2019 참조), 임진왜란 당시와 직후에 임무를 수행하면서 본가에 있거나 피란하고 있는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부인과 가족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다. 이 편지를 장고은·김영(2019)에서는 <청풍김씨묘출토언간(이덕열언간)>으로 이름하였다.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이덕열언간>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장고은·김영(2019)에서 제시한 <이덕열언간>의 발수신자, 발신일을 수정,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장고은·김영(2019)에서 13건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덕열 집안에서 소유한 논밭과 그 논밭에 나는 수확량을 적은 1건이 더 존재한다. 논과 수확량을 적은 1건을 언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내용상 15건이 된다.

편지번호	발신인 표시	수신인 표시	발수신 관계	발신일(추정)
이덕열언간 1		남원 힝ᄎᆞ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3. 8. 12.
이덕열언간 2	니	통녜찍 힝ᄎᆞ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3. 8. 14.
이덕열언간 3	셩짂 힝ᄎᆞ	□□본턱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2. 5. 8.[26]
이덕열언간 4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3. 7.
이덕열언간 5	가댱 니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3. 5. 1.
이덕열언간 6	가댱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3. 7. 10.
이덕열언간 7	니	참의찍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7. 7. 14.
이덕열언간 8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0～1591)
이덕열언간 9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0～1591)
이덕열언간 10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3～1599)
이덕열언간 11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3. 8.
이덕열언간 12-1			부인(청풍김씨)→남편(이덕열)	(1593～1599)
이덕열언간 12-2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3～1599)
이덕열언간 13	니		남편(이덕열)→부인(청풍김씨)	1592. 8. 8.[27]
이덕열언간 14			남편(이덕열)→미상	(1590～1599)

26) 장고은·김영(2019: 129)의 <표1> <이덕열언간> 자료 개관에서 3번 편지에 대해 발신 일자를 '1592. 8. 2.'로 추정하였는데, <이덕열언간 3>은 '오월 초팔일'이라는 발신 일자가 있으며 장고은·김영(2019: 138)에서는 "편지의 발신 일자가 5월 8일이므로, 이 편지는 1592년 5월 8일에 쓰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1592. 5. 8'로 바로잡는다.

27) 장고은·김영(2019: 129)의 <표1> <이덕열언간> 자료 개관에서 13번 편지에 대해 '1593. 8.'로 추정하였고, 장고은·김영(2019: 141)에서는 "왜적이 전라도에 들어갔고 수신인은 전라도 가까이에 있으며 행차가 곧 있을 예정이고, 날씨는 덥고 습한 초여드렛날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자료들과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덕열언간 13>은 1593년 8월 8일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양호당일기> 1592년 8월 5일자에 "남원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전주 경내에서 패한 왜적이 금산으로 물러갔다가 옥천으로 향하려 한다."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덕열언간 13>의 "전라도에 예 하 만히 드러가시니 게도 간ᄂᆞᆫ가"라는 내용으로 추정해 보건대, 남원에 갔다가 돌아온 사

주 발신인인 이덕열(1534~1599)의 호는 양호당(養澔堂)이며, 영의정을 지낸 이준경(李浚慶)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후, 5촌 숙부인 이유경(李有慶)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덕열은 1569년 별시문과에 병과에 급제해 수찬, 청주목사, 장령 등을 지내고 1590년 성주목사(星州牧使)에 부임하였다.(장고은・김영 2019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이덕열은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성주성에서 적을 토벌하였으며, 1593년 장령이 되어서는 사은사(謝恩使) 정철(鄭澈) 등이 왕을 홀로 대좌해 자신의 견해를 전하는 전대(專對)의 임무를 받고 남은 왜적이 없다는 설을 힘껏 변명하지 못한 데 대해 탄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조정에서의 정책 결정 및 전황, 자신의 역할 등을 기록한 <양호당일기>를 저술하였다.

이덕열은 양천허씨 허우(許堣)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양천허씨는 자식 없이 1589년 세상을 떴다. 그 이듬해인 1590년 청풍김씨 김운(金澐)의 딸을 계배(繼配)로 맞이하여 3남 1녀를 두었다(장고은・김영 2019).

편지의 수신인인 청풍김씨는 1567년 김운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24세가 되던 해인 1590년 이덕열과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남원, 양성 등지에서 피란하다가 1593년 서울로 갔다. 청풍김씨는 남편의 사망(1599) 후 삼년상을 마치고 남원[28] 주포장(周浦庄, 현 남원 주생면 영천리)으로 내려가, 1637년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장고은・김영 2019).

2. 신하로서의 이덕열의 모습

1592년 4월 14일 오후 5시, 왜적들의 배들이 부산 앞바다를 온통 뒤덮으며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조선으로 쳐들어 온 왜적은 9개 부대 15만 8천여 명으로 부산진성은 4시간 만에 함락되었다. 임진년에 왜적이 일으킨 7년 전쟁, 그 기나긴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당시 이덕열은 성주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성주의 거점인 성주성은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열흘만인 4월 23일 함락되었다. 이때 성주 판관 고현(高晛)은 도망가고 장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29]

한편, 전쟁이 일어난 지 4일 후 소식을 듣게 된 조정은 당시 최고의 명장이라 불렸던 신립을 보내 충주를 지키게 했다. 충주는 서울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신립마저 패하자 4월 30일 선조는 수도 서울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다. 왜적은 빠른 속도로 진격하여 전쟁을 벌인 지 20일이 채 안 된 5월 2일 서울을 함락하였다. 선조의 피란에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때 이덕열의 부인 청풍김씨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란하였다. 전쟁 중이던 남편 이덕열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가족을 걱정하며 성주의 상황과 서울의 상황을 함께 적어 보

람이 왜적이 전라도를 침략한 상황을 전해 듣고 다시 부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덕열언간 13>을 1792년 8월 8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한다.

28) 남원은 이덕열의 양부 이유경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연산군 10년(1504)에 이유경의 부친 이수원(李守元, 1468~1504)와 조부 이세좌(李世佐, 1445~1504)가 갑자사화로 사사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유경이 어머니와 함께 외조부 방의문(房毅文)이 거주하고 있는 남원으로 옮겨 그곳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풍김씨가 남편의 사후 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나 그녀의 묘가 남원과 가까운 곡성에 있는 것은 이러한 양부 이유경의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고은・김영 2019: 130, 각주 6)

29) 이탁영(2002),『역주 정만록』,「征蠻錄 坤」, 의성군, p. 239.

낸다.

엇디 구러 간고 분별ᄒᆞ다니 아히들ᄒᆞ고 ᄠᅳᆯ드ᄅᆞ니 업시 오라 드러 가다 ᄒᆞ니 깃거ᄒᆞ뇌 나도 당시 무ᄉᆞ히 인뇌 도적은 고을히 ᄀᆞᄃᆞᆨᄒᆞ엿고 아랫사ᄅᆞᆷ 다 ᄃᆞ라나고 내죵 어드러 갈고 ᄒᆞ뇌 셔울도 나라히 나가시다 ᄒᆞ니 온 자안ᄒᆞᆯ ᄇᆞ린 거시니 엇더ᄒᆞᆫ고 ᄀᆡ이업ᄉᆡ 여긔 두 고대 이쩐 지믈 아ᄆᆞ것도 내디 몯ᄒᆞ니 비록 사라ᄡᅡ 므스 거ᄉᆞ로 얼구ᄅᆞᆯ ᄯᅳ려 살고 …… 오월 초팔일 셩쥐 힝ᄎᆞ<이덕열언간-3>

【어떻게 해서 갔는고 염려하였더니, 아이들하고 떨어뜨리는 것 없이 오라고 들어서 갔다고 하니 기뻐하오. 나도 아직 무사히 있소. 도적[왜적]은 고을에 가득하였고 아랫사람은 다 달아나고, 나중은 어디로 갈까 하오. 서울도 임금께서 나가셨다 하는데, 온 서울을 버린 것이니, 어떠한고? 가이없네. 여기 두 곳에 있던 짐을 아무것도 내지 못하니, 비록 살았다고 해도 어떤 것으로 몸을 꾸려 살꼬? …… 5월 8일 성주 행차.】

이덕열이 성주 목사로 재임한 기간은 1590년부터 1592년 9월까지이고, 이 편지의 발신자 표시가 '셩쥐 힝ᄎᆞ'로 되어 있으므로, 이덕열이 임지인 성주에서 보낸 것이다. 임금마저 서울을 버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선조의 의주 파천을 뜻하는 것이며, 임금이 파천한 날은 4월 30일이었으므로 이 편지는 1592년 5월 8일이다. 이 편지에는 성주성 함락 이후 성주의 상황을 비롯하여 서울이 함락되고 임금이 파천한 서울의 상황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편지에서 "도적은 고을에 가득하고 아랫사람들은 다 달아나고"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성주 성내에 왜적들이 웅거하고 있었고, 또한 군사들은 왜적을 피해 이리저리 흩어진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때 이덕열은 도망하지 않고 성주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당시 성주의 상황에 대해『난중잡록』4월 23일 조에는 "가운데 길[中道]로 침입해 오는 왜군은 인동을 불태워 버렸고, 오른쪽 길[右道]로 오는 왜군은 현풍에서 길을 나누어 낙동강을 건너서는 성주를 불태워 버리니, 성주 판관 고현(高晛)은 도망쳐 달아났고, 목사 이덕열(李德悅)이 겨우 몸만 살아남아서 끝까지 고을을 지켰다. 왜적이 성안으로 들어와 점거하고 있으면서 목사를 가칭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꾀어 모으자 궁박해진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왜적에게 항복하고 부동하는 자들도 많았다."[30]라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서울도 임금께서 나가셨다 하는데, 온 서울을 버린 것이니"라는 구절을 통해 서울이 함락당하고 임금마저 의주로 파천한 당시의 상황도 알 수 있다.[31]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 상황을 "새벽에 상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오니 백관들과 인마(人馬) 등이 대궐 뜰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상과 동궁은 말을 타고 중전 등은 뚜껑 있는 교자를 탔었는데 홍제원(洪濟院)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숙의(淑儀) 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궁인(宮人)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으며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관은 그 수가 1백 명도 되지 않았다."[32]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덕열은 편지에서 "임금이 서울을 나가신 것"은 "서울을 버린 것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성주목사(星州牧使) 이덕열은, 다른 장수들은 모두 도망하였는데도 성내에 웅거하고 있는 왜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지경을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면서 도망한 군사

30)『국역 대동야승 Ⅵ』제26권,「난중잡록 1」, 임진년 4월 23일, 341쪽.

31) 1592년(선조 25) 4월, 15일 만에 왜군이 충청도와 경기도를 넘어 한성부까지 들어오자, 선조가 4월 30일 서울을 떠나 5월 평양성을 거쳐서 6월 평안북도 의주까지 피신한 사건을 말한다.

32)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30일(1592)

들을 수습해 적을 계속 토벌하였다. 성주성은 임진왜란 초기 왜군이 번성(藩城)으로 삼았던 곳으로서, 경상도 지역 왜군 주둔의 거점이자 이들의 수송과 보급 선상에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성주 지역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조선으로서도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수복해야 하는 곳[33]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덕열의 장수로서 활약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하고 있다.

> 웅천 현감(熊川縣監) 허일(許鎰)은 적이 경내를 침범하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도주하였으며,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덕열(李德悅)은 왜적이 성주성에 웅거하고 있는데도 성주의 지경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판관(判官) 고현(高晛)은 젊은 무부로서 홀로 먼저 도피하였으며, 개령 현감(開寧縣監) 이희급(李希伋), 선산 부사(善山府使) 정경달(丁景達), 상주 목사 김해(金澥), 판관 권길(權吉), 문경 현감 신길원(申吉元) 등은 모두 다 도망가 숨어 적이 가는지 머무는지를 일체 치보(馳報)하지 않았습니다.[34]
>
> 왜적이 성주(星州)를 점거하여 목사(牧使)의 간 곳을 끝까지 탐색하였지만, 이덕열(李德悅)은 죽음에 이르도록 피하지 아니하고 그 지방을 굳게 지켜 흩어져 도망한 군사들을 수습하여 그 적을 토벌하겠다고 주청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가상하니 특별히 논상(論賞)하여 다른 사람들을 권장하소서.[35]

이덕열은 군사들을 수습하고 의병들과 함께 성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였다. 4월 23일 성주성을 왜적에게 빼앗긴 이후 의병들은 6월부터 성주성이 회복되는 1593년(선조 26) 1월까지 무려 18차례 이상 왜적을 공격하였다.[36] 그러나 이덕열은 성주성을 탈환할 때가지 목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1592년 9월 9일 성주목사에서 파출된 후[37], 9월 20일 방백(方伯)에게 임금이 계시는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연군의 정을 펼치고 싶다는 내용으로 소지(所志)를 올린 후[38] 체개(遞改)되어 남원으로 돌아간다.[39] 이덕열은 9월 25일 향소(鄕所)를 출발하여 남원으로 향하여 28일 남원에 도착하였다.

이후, 남원에서 지내던 이덕열은 11월 27일 행장을 꾸려 근왕(勤王)의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아산에서 이르러 바닷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근왕(勤王)의 길에 나서지 못하고 홍주(洪州)에 들러 장인을 만나고 다시 남원으로 돌아갔다.[40] 이후 1593년 2월 22일 다시 남

---

33) 김종수(2019),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성주(星州) 전투, 軍史 第111號, pp. 131-132.

34)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1592)

35)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9일(1592)

36) 김종수(2019),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성주(星州) 전투, 軍史 第111號, p. 135.

37) <양호당일기> 9월 9일자에 "저물녘에 배설(裵楔)이 사람을 시켜 통보(通報)하기를 "목사와 판관을 사도(使道: 감사를 지칭한 말)가 계청(啓請)하고 파출(罷黜)하였습니다."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8) <양호당일기> 9월 20일자에 따르면 "신병을 앓는 중에 자식 놈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신(心神)이 아울러 상합니다. 기왕 파출을 당하였으니 청컨대 속히 물러나 행조(行朝: 行在所에서 개설한 조정. 행재소와 같은 뜻으로 쓰였음)로 달려가서 연군(戀君)의 정을 펴고 싶소이다."라는 내용으로 소지를 올렸다.

39) <양호당일기> 8월 20일자에 "순찰사가 나에게 묻기를 "무슨 집을 지은 일이 있는고?" 하였다. 이는 내가 막개곡(莫開谷)의 촌가(村家)에 있을 때 초정(草亭) 한 칸을 임시로 얽어 혹독한 햇볕을 가린 것인데 고을 사람들이 마을 지어 집을 지었다고 하여 정인홍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정인홍은 그대에 합천의 가수(假守)로 있으면서 초유사(招諭使)에게 첩보(牒報)하기를 "성주목사 아무개는 산골에 숨어서 들어 있는 가사(家舍)에 백성을 침탈하여 성주(成柱)하였다." 하여 초유사가 순찰사에게 말을 하여 묻게 된 것이다. 정인홍은 유언(流言)을 편신(偏信)하고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기어코 사명(使命)을 받든 조신(朝臣)에게 보고를 하여 사람을 해치려 하니 그 마음이 참으로 불량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초정을 지은 일에 대한 모함으로 파출된 것으로 보인다.

40) <양호당일기> 1592년 11월 27일~12월 13일 일기 참조.

원을 출발하여 3월에 영유(永柔)의 행재소(行在所)에 도착하여 우통례(右通禮)로서 선조를 모셨다. 이후 4월에 선릉과 정릉을 영장(永葬)할 개장도감의 낭청이 되었다. 이에 이덕열은 부인에게 편지를 써 이 사실을 알린다.

> 또 예라셔 셜능 졍능을 다 파 셜능은 다 불ᄉᆞ라 ᄇᆞ리고 졍능은 신톄ᄅᆞᆯ 내여 ᄇᆞ려시니 그 고텨 영장ᄒᆞ올 도감도텽을 내 ᄒᆞ여시니 이 초나ᄒᆞᆫ날로 셔울다히로 가뇌 그리 가시면 사ᄅᆞᆷ 돈니기 갓가울 거시니 됴ᄒᆞ되 녀ᄅᆞᆷᄀᆞ을지 슈고ᄒᆞᆯ 거시니 긔 민망ᄒᆞ이……오월 ᄎᆞᄒᆞᆫ날 가댱 니<이덕열언간-5>
>
> 【또 왜적이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다 파헤쳤는데, 선릉은 다 불살라 버리고 정릉은 신체를 내어 버렸소. 그 고쳐 영장(永葬)할 도감 도청(都監都廳)으로 내가 되었으니, 이달 초나흘에 서울 쪽으로 가오. 그리 가시면 사람 다니기 가까울 것이니 좋지만, 여름에서 가을까지 수고할 것이니 그것이 민망하오.……5월 1일 가장(家長) 이(李)】

이 편지는 5월 1일이라는 날짜만 나오는데, 편지에 "왜적이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다 파헤친" 사건이 나타나고 선릉과 정릉은 1593년 8월경에 개장(改葬)을 하였으므로 이 편지는 1593년 5월 1일에 보낸 것이다.

"왜적이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다 파헤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와 신료들이 서울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신했다. 이런 왕과 양반 사대부들의 행태의 배신감을 느낀 백성들은 도성 이곳저곳에 불을 질렀다. 선릉과 정릉이 도굴되고 성종의 시신이 불에 타 사라졌던 것도 이런 민심과 무관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은 "풍저창(豊儲倉, 곡물 창고를 경비하던 기관)의 노비 팽석이 왜적들과 결탁한 후 선릉, 정릉으로 유인하여 발굴한 상황을 대강 승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도굴의 결과는 참혹했다. 선릉은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의 시신이 불에 타 한 줌의 재만 남아 있었다. 정릉의 경우에는 시신을 담고 있던 관은 모두 불에 타 버리고 무덤 안에 시신이 남아 있었다. 문제는 중종의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이 불타버려 시신의 진위를 분명히 가릴 수가 없게 되면서 일어났다. 조정에서는 중종의 생전 얼굴을 보았던 종실과 신료들을 찾아서 그 진위를 가리려 했으나 이미 상당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여서 논란만 계속되었다. 또 선릉뿐 아니라 정릉 주변에서도 불에 탄 시체의 재가 발견되어 더욱 논란이 가중되었다. 선릉의 시체는 불태웠으면서도 정릉의 시체만 그대로 놔두었을 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왜적이 다른 시체를 구해다가 중종의 무덤구덩이 안에 갖다 놓은 것으로 판단해 무덤 주변에 있었던 불타버린 시신의 재를 가지고 정릉을 개장함으로써 종결되었다.[41] 이 편지에서는 "왜적이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다 파헤쳤는데, 선릉은 다 불살라 버리고 정릉은 신체를 내어 버렸소."라며 당시의 끔찍한 사건을 부인에게 전한다.

선릉은 1593년 7월 21일에, 정릉은 8월 15일에 개장을 마치고 10월 15일에 위안제를 지냈는데, 이 개장 시 영장(永葬)할 도감도청(都監都廳)을 맡은 이가 이덕열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대신이 선릉과 정릉의 개장을 청하고 도장도감을 설치하여 제반 일을 속히 거행할 것을 청하자 선조가 이를 따랐다"<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4일(1593)>는 기록이 있다.[42]

이후 이덕열은 선조를 모시고 환궁하기 위해 9월 17일 해주로 행재소에 도착하였고, 선조는

---

41) 이철(2011),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 알마.

42) <양호당일기> 4월 27일 일기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치계(馳啟)에 "정릉(靖陵)에서는 옥체(玉體)를 한데에 드러내 놓았고 선릉(宣陵)에서는 양위(兩位)의 재궁(梓宮)을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운운"하였다. 조정에서는 다시 의논하기를 변복(變服)으로 회곡(會哭)하고 삭망곡(朔望哭)은 개장(改葬)할 때까지 하기로 하여 개장도감(改葬都監)을 설치하였는데 나도 도청낭청(都廳郎廳)으로 참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1593년(선조 26) 9월 21일에 해주를 출발하여 10월 3일 한양에 도착하였다.
이덕열은 왜적에게 성주성은 함락당한 상황에서 장수들과 병졸들은 모두 도망한 상황에서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의 파천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성주목사로서 성내에 웅거하고 있는 왜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지경을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면서 도망한 군사들을 수습하였다. 또한 근왕(勤王)을 위해 의주로 가 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도감도청(都監都廳)으로서 선릉과 정릉을 영장(永葬)하였으며, 해주에 머물고 있던 선조를 모시고 환궁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신하로서 전쟁 중 나라를 지키고 근왕하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충신으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쟁 중 가족을 걱정하는 가장으로서 이덕열의 모습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부인 청풍김씨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란하였다. 당시 성주성이 함락당하고 장졸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덕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다.

> 엇디 구러 간고 분별ᄒᆞ다니 아ᄒᆡᄃᆞᆯᄒᆞ고 ᄠᅳᆯᄃᆞᄅᆞ니 업시 오라 드러 가다 ᄒᆞ니 깃거ᄒᆞ뇌 나도 당시 무ᄉᆞ히 인뇌 도ᄌᆞᆨ은 고을ᄒᆡ ᄀᆞᄃᆞᆨᄒᆞ엿고 아랫사ᄅᆞᆷ 다 ᄃᆞ라나고 내죵 어드러 갈고 ᄒᆞ뇌 셔울도 나라히 나가시다 ᄒᆞ니 온 자안ᄒᆞᆯ ᄇᆞ린 거시니 엇더ᄒᆞᆫ고 ᄀᆡ이업ᄉᆡ 여긔 두 고대 이ᄯᅥᆫ 지믈 아ᄆᆞ것도 내디 몯ᄒᆞ니 비록 사라ᄯᅡ 므스 거ᄉᆞ로 얼구ᄅᆞᆯ ᄯᅳ려 살고……그리 몰쇼히 되니 복 업ᄉᆞᆯᄯᅡ ᄀᆡ이업ᄉᆡ 자내네도 ᄒᆞ마 자피일 후ᄯᅢ 드ᄅᆞ니 서ᄅᆞᆯᄒᆞ데 내 브티 ᄯᅥᄉᆞᆯ 져그나 게 가 두ᄯᅥᆫ가 몰라 ᄒᆞ뇌……ᄯᅩ 거긔도 옛 긔별 잇다 ᄒᆞ니 그러옷 ᄒᆞ면 아ᄆᆞ ᄃᆡ 가도 살기 어려올쇠 뫼해나 내ᄃᆞᄅᆞᆯ 야으로 차려 두고셔 기ᄃᆞ로소 대강 여러 겨레ᄒᆞ고 양식 니우기 어려올 거시니 아ᄆᆞ려나 ᄀᆞᄂᆞ리 ᄡᅳ고 살기ᄅᆞᆯ 머드리ᄃᆞ려 의론ᄒᆞ여 ᄒᆞ소……ᄀᆞ업서 이만 오월 초팔일 셩쥐 힝ᄎᆞ<이덕열언간-3>
>
> 【어떻게 해서 갔는고 염려하였더니, 아이들하고 떨어뜨리는 것 없이 오라고 들어서 갔다고 하니 기뻐하오. 나도 아직 무사히 있소. 도적[왜적]은 고을에 가득하였고 아랫사람은 다 달아나고, 나중은 어디로 갈까 하오. 서울도 임금께서 나가셨다 하는데, 온 서울을 버린 것이니, 어떠한고? 가이없네. 여기 두 곳에 있던 짐을 아무것도 내지 못하니, 비록 살았다고 해도 어떤 것으로 몸을 꾸려 살꼬? …… 모조리 그렇게 되었으니, 복 없음이 끝이 없소. 자네네도 이미 잡힌 후에 들으니 서늘하였소. 내 부친 것을 조금이나마 거기 가 두었는지 모르겠소. …… 또 거기도 왜적의 기별 있다 하니, 그렇게 하면 어느 곳에 가도 살기 어려울 것이오. 산에나 내달을 양으로 차려 두고서 기다리소. 대강 여러 겨레[가족]와 함께 양식을 잇기 어려울 것이니 아무쪼록 가늘게 쓰고 살기를 머드리와 의논하여 하소.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어, 이만. 5월 8일 성주 행차.】

이덕열은 “어떻게 해서 갔는고 염려하였더니, 아이들하고 떨어뜨리는 것 없이 오라고 들어서 갔다 하니 기뻐하오.”라며 부인이 피란 간 것에 대해 기뻐한다. ‘오라고 들어가 갔다 하니’를 통해 보면 이덕열이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피란을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라는 편지를 받고 피란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일어난 당시 이덕열의 상황이 편지를 보낼 상황이 아니었기에 어떻게 피란을 하였는지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것인데, 부인의 편지를 받고 피란지에 도착한 것에 대해 기뻐한 것이다. 피란은 어디로 갔을까? 수신자 표시에 ‘□□ 본턱’으로 나타나는데, 본댁은 남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원은 청풍김씨의 본가이고, 이 당시 남룡

을 임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라도 남원으로 피란을 간 것이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전라도는 왜군의 직접적 공격 목표에서는 벗어나 있었기에 남원은 왜적으로부터 다른 지역보다 안전한[43] 곳이기도 하였다. 선조 25년(1592) 9월에 이덕열이 성주목사에서 체개(遞改)되어 남원으로 돌아간 것을 통해서도 청풍김씨가 아이들과 함께 남원으로 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족의 피란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편지에 "자네네도 이미 잡힌 후 들으니 서늘하오."라는 내용으로 보아 청풍김씨 일행이 피란길 도중에 왜적에게 잡혔다 풀려났던 모양이다. 이덕열의 교대를 제폐하고 물러나고 싶다는 뜻으로 올린 소지(所志)를 방백(方伯)에도 "신병을 앓는 중에 자식 놈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신(心神)이 아울러 상합니다."[44]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가족이 왜적에게 잡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청풍김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상황에 가족이 피란 중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덕열은 심신이 상할 정도로 아프고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남원에 살아 도착하였지만, 가족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짐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고, 가족과 함께 양식을 잇기 어려운 상황이니 보내준 양식을 아무쪼록 가늘게(아껴) 쓰고 살기를 머드리(종)와 의논하여 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남원에 왜적의 기별이 있다고 하니 그것 또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옛 기별"은 왜적이 침략했다는 기별을 뜻한다.[45]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살기가 어려울 것이니 만약을 대비해 산에나 내달을 양으로 차비하여 두고서 기다리라고 당부한다.
이덕열은 성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장졸들을 수습하고 의병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가족이 있는 남원의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갖는다. 많은 왜적이 전라도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에 또다시 편지를 보낸다.

> 졀라도로 예 하 만히 드러가시니 게도 간ᄂᆞᆫ가 하 놀라와 긔별 알며 피홀 쟈기면 죵도 져글 거실ᄉᆡ 순보기 보내뇌 ■(긔)별란 고을 사름 ᄒᆞ여 답장ᄒᆞ소 …… 일뎡이 갈 거시라 잠깐 당긁 ᄒᆞ나 보내뇌 힝ᄎᆞ홀 제 ᄡᅳ소 초여드랜날 니<이덕열언간-13>
>
> 【전라도로 왜적이 매우 많이 들어갔으니, 거기도 갔는가? 매우 놀라워서 기별 알리며, 피할 것 같으면 종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순복이를 보내네. 기별일랑 고을 사람을 시켜 답장하소. ……일정이가 갈 것이라 잠깐 고리 하나 보내오. 행차할 때 쓰소. 초 8일 이(李)】

<양호당일기> 8월 5일자에 남원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통해 "전주 경내에서 패한 왜적이 금산으로 물러갔다가 옥천으로 향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46]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남원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왜적이 전라도를 침략한 상황을 전해 듣고 다시 부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혹시나 남원에 왜적이 침입하게 되면 가족은 또다시 피란을 떠나야 하기에 이덕열은 전라도에 왜적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식에 남원에도 많이 갔는가 하여 놀라워하며 성주에서 왜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43)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지역은 초기부터 관군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다. 전라도 관군은 임란 발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왜군의 호남 공격을 막아내고 호남 곡창을 수호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임란 극복의 주요 전투마다 주력 병력으로 참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하태규(2007),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149.]
44) <양호당일기> 1592년 9월 20일자.
45) <훈몽자회>에 '倭'의 석(釋)이 '예'로 되어 있어 '옛 기별'의 '예'가 倭 를 뜻함을 알 수 있다. 倭 예 외<훈몽자회(내각문고본)中:4a>, 倭 예 와<훈몽자회(존경각본)中:4a>, 倭 예 외<훈몽자회(동중본)中:4a>, 倭 예 와<1613훈몽자회(규장각본)中:4a>, 倭 예 외<1613훈몽자회(범문사본)中:4a>
46) <양호당일기> 1592년 8월 5일자.

걱정을 놓지 못한다. 그래서 또다시 임신한 몸으로 피란을 가게 되면 종도 적어서 어려울 것이니 종도 함께 보내고, 피란 시 사용할 고리짝도 함께 보내 준다. 다행스럽게도 이때 왜적이 남원을 침략하지는 않았다. 전라도 관군은 왜군의 소굴이 된 경상도로부터 넘어올 수 있는 왜군을 막기 위해 남원 장수 지역의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7]

이렇게 가족을 걱정하던 이덕열은 9월 성주목사에서 체개(遞改)되어 남원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하게 되고, 이때 아들 남룡이 태어난다. <양호당일기>에 "임진 10월 1일. 날이 저물 무렵에 아들 남룡(南龍)이 태어났다.<양호당일기 상: 15> (十月初一日 日將夕子南龍生 <양호당일기 1: 20>)"라는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전쟁 중 가족과 함께 하는 일도 길게 이어질 수 없었다. 이덕열은 임금이 계시는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연군의 정을 펼치고 싶다는 내용으로 소지(所志)를 올려 체개(遞改)되었기 때문에 남원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해 11월 말 행장을 꾸려 근왕(勤王)의 길을 나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다음해인 1593년 2월에 다시 근왕의 길에 나섰다. 가족과 함께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쟁 중 신하로서 근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호당일기>에서는 "근왕(勤王)의 의리가 너무 늦어 마음에 몹시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있다.[48]

파죽지세로 몰아붙이던 왜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조선에 이순신은 잇따른 전투에서 승전보를 올린다. 전쟁이 한창이던 이때 경남 의령의 선비 곽재우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관군들이 힘을 얻고 곳곳에서 승전보가 들리고 서울 주변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서울이 수복되었다. 그렇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왜적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었고 당시 도청도감(都監都廳)으로 임명된 이덕열은 행재소(行在所)가 있는 해주에서 왜적이 전라도까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부인에게 편지를 한다.

> 요ᄉᆞ이 그다히 엇디 인ᄂᆞᆫ고 긔별 드롤 길히 업ᄉᆞ니 민망ᄒᆞ여 ᄒᆞ뇌 예 졀라도 가려ᄒᆞᆫ닷 긔별 드ᄅᆞᆫ 후에 고텨 긔별 업ᄉᆞ니 엇더ᄒᆞᆫ고 그러옷 ᄒᆞ면 엿디 어드러로 가ᄂᆞᆫ고 일야 분별ᄒᆞ뇌 셔울 에[예] 보셔 나가고 나라토 ᄂᆡ월로 나아가시ᄂᆡ …… ᄯᅩ 예라셔 셜능 졍능을 다 파 셜능은 다 불ᄉᆞ라 ᄇᆞ리고 졍능은 신톄ᄅᆞᆯ 내여 ᄇᆞ려시니 그 고텨 영장ᄒᆞ올 도감도텽을 내 ᄒᆞ여시니 이 초나ᄒᆞᆫ날로 셔울다히로 가뇌 그리 가시면 사ᄅᆞᆷ 돈니기 갓가울 거시니 됴ᄒᆞ되 녀ᄅᆞᆷᄀᆞ을지 슈고ᄒᆞᆯ 거시니 긔 민망ᄒᆞ이 … 셔울 드러가면 죵을 즉재 보내리 ᄉᆞ지ᄡᆞᆨ도 요ᄉᆞ이 나가실쇠 ᄯᅩ 아히ᄃᆞᆯ 엇디 이시며 역질 긔쳑 업손가 나라히 수션ᄒᆞ여 대궈ᄅᆡ 와셔 잠깐 뎍뇌 오월 ᄎᆞᄒᆞᆫ날 가댱 니<이덕열언간-5>

> 【요사이 그쪽은 어찌 있는고? 기별 들을 길이 없으니 민망(憫惘)하여 하오. 왜가 전라도로 가려고 한다는 기별 들은 후에 바뀐 기별 없으니, 어떠한고? 그렇게 하면 엿디[미상] 어디로 가는고? 밤낮으로 염려하오. 서울에서 왜적이 벌써 나가고 나라[임금]도 다음 달로 나가실 것이오. …… 또 왜적이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을 다 파헤쳤는데, 선릉은 다 불살라 버리고 정릉은 신체를 내어 버렸소. 그 고쳐 영장(永葬)할 도감 도청(都監都廳)으로 내가 되었으니, 이달 초나흘에 서울 쪽으로 가오. 그리 가시면 사람 다니기 가까울 것이니 좋지만, 여름에서 가을까지 수고할 것이니 그것이 민망하오. … 서울 들어가면 종을 즉시 보내리. 사지댁도 요사이 나가실 것이오. 또 아이들 어찌 있으며, 역질(疫疾, 천연

47) 하태규(2007),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149. <宣祖修正實錄> 25년 임진 6월 1일조에, 왜군이 錦山으로부터 진안을 점령하여 全州府城이 위협을 당하게 되자 全羅監司 李洸은 첩을 올려 광주목사 權慄을 都節制使를 삼았고, 권율이 同福縣監 黃進, 나주판관, 이복남과 金堤郡守 鄭湛 등으로 하여금 웅치와 이치의 關隘를 지키게 하여 대비하였다고 하여 호남방어를 위한 준비태세를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8) <양호당일기> 12월 13일자.

두) 기척은 없는가? 나라가 어수선하여 대궐에 와서 잠깐 적네. 5월 1일 가장(家長) 이(李)】

이덕열은 도감도청을 맡은 후, 잠시 대궐에 왔다가 잠시 짬을 내어 아내에게 자신의 관직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덕열은 새로운 관직을 맡아 (1593년) 5월 4일에 서울에 가면 여름에서 가을까지 바빠질 것이므로 또 아내에게 가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민망하다고 표현하다.

이 당시 왜적은 독산성 전투, 행주산성 전투, 노원평.사한리 전투 등 한성 주변에서 발생한 전투들의 패배로 조선군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고, 명과의 강화 협상으로 서울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다.[49] 편지에서 "서울에서 왜적이 벌써 나가고"는 강화 협상으로 왜적이 서울에서 철수하게 된 상황을 이르는 것이다.[50] 왜적이 서울에서 철수하였지만, 남쪽 지방에서는 왜적의 침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편지에서는 먼저 아내가 있는 남원의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있다. 전쟁 중이라 전인(專人)도 없고 이덕열이 있는 서울에서 아내가 있는 곳까지 오가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니 기별도 못 하여 아내의 상황이 궁금하고 또한 1592년 10월 1일 태어난 아들의 소식도 궁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왜적이 전라도로 가려고 한다는 소식이다.[51] 이 당시에도 아내는 본가가 있는 남원에 있었는데, 왜적이 침입하면 남원을 떠나야 하므로 전라도에 왜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내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밤낮으로 염려"를 한다.

그런데 아들이 아프다. "역질 기척은 없는가"하며 역질의 차도를 묻고 있다. 안타깝게도 얼마 후 좋지 않은 소식을 듣는다. 아들이 태어난 후 본지도 오래되었는데, 1693년 7월에 이덕열은 병으로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된다.

> 아기 둘 감역 유무에는 니질ᄒᆞ다가 담등 나 가다 ᄒᆞ고 자내 유무에는 염질로 그리 되다 ᄒᆞ니 어니 병으로 주근고 더 슬거워쩐가 나는 보안디 오라니 ᄌᆞ셰티 몯ᄒᆡ 아마도 몯 살 거시런돌 어려셔 가미 아니 ᄒᆞ릴가 하 구쳐 마소 팔자ᄅᆞᆯ 쇼경 ᄃᆞ리 쾌하니디 아니 ᄒᆞ더니 그 다신가 내 ᄋᆡ기 그지업서 어린 거시 맛다 간가 어엿버ᄒᆞ뇌 두 아돌 나한노라 ᄂᆞᆷᄃᆞᆯᄃᆞ려 쟈랑ᄒᆞ라니 긔나 말 거술 ᄒᆞ뇌<이덕열언간-4>
>
> 【아기 둘은 감역(監役)의 편지에는 이질(痢疾)을 하다가 담증(痰症)이 나서 갔다고 하고, 자네 편지에는 염질(染疾, 전염병)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병으로 죽었는고? 더 슬기로웠던가? 나는 본지 오래여서 자세하지 못하오. 아마도 못살 것이라면 어려서 감이 낫지 않겠는가. 너무 언짢아 마소. 소경 데리고 팔자를 시원스럽게 하지 않았더니, 그 탓인가? 내 액(厄)이 끝이 없어서 어린 것이 맡아서 간 것인가? 가여워하네. 두 아들을 낳았다고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이나 말 것을…' 하오.】

아들이 죽은 사연이 꽤나 혼란스럽다. 감역으로 온 편지에는 이질과 담증으로 죽었다고 하고 아내의 편지에서는 염질(전염병)로 죽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의 편지에서 '역질 기척'을 묻는 것으로 보아 '역질'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듯하다. 죽은 아들을 본 지가 오래되어서 이덕열은 그 아들이 슬기로웠는지 알지도 못한다. 아들의 죽음

49) 유연성(2014), 임진왜란기 한성 주변 전투의 전략적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48, 93-130 참조.
50) <양호당일기> 4월 8일자에 "오늘이 왜적이 물러가기로 약정한 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1) <양호당일기> 4월 1일자에 "전라순찰사 권율 등으로 하여금 왜군을 요격함으로써 사기를 그르치지 말게 하라 운운"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적이 전라도로 가려고 한다는 기별"은 이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을 자신의 액을 아들이 맡아서 그런 것이라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덕열은 아들이 태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것인가? '그것이나 말 것을…' 하며 자랑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은 <양호당일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 6월 29일. ○밤에 꿈이 상서롭지 못하니 아들을 잃을 조짐이다.
> 7월 3일. 도감에 출좌하였다. ○파하고 돌아와 남쪽 소식을 들으니 남룡(南龍)이 죽었다고 하였다. 늙어서 쌍아(雙兒)를 얻어 다행으로 여겼더니 마침내 한 아이는 보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명수(命數)가 기박하여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아프다. 울음을 삼킬 따름이다. <양호당일기 상: 33>

남룡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며칠 전 상서롭지 못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아들이 죽을 조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덕열은 늙어서 얻은 두 아들을 가운데 한 아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마음 아파하며 크게 울지도 못하고 울음을 삼키고 있다. 언간과 <양호당일기>에 표현된 아들을 잃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덕열은 울음을 삼키며 다시 집에 편지(<이덕열언간-6>)를 하여 부인에게 남룡이를 단단히 묻고 신주 간수하는 것도 잘 감독하라고 부탁한다.
지속적으로 왜적이 전라도를 침략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덕열은 가족의 거처를 남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다.

> 요ᄉᆞ이 마히 엇디 겨신고 용이 난 후 안부 엇던고 분별ᄒᆞ뇌 이제나 집안란 ᄀᆞ존가 향더기 어둔개ᄂᆞᆫ 병으로 주근가 역질로 주근가 몰라 ᄒᆞ뇌 ᄯᅩ 예 그별이 요란타 홀ᄉᆡ 일뎡이 ᄆᆞᆯ 가져 보내뇌 진실로 졀라도 예 온다 ᄒᆞ면 설워 피홀 거시니 옥쳔딕과 의론ᄒᆞ여 홈ᄭᅴ 나소 다ᄆᆞᆫ 어드러 와야 홀고 홍쥐 ᄉᆞ이 나와셔 남원 곧 통홀 양이면 양시기나 갇다가 먹고 하 도ᄌᆞ기 퍼디게 되면 셔울로 올쇠 남뇽이 ᄃᆞᆫᄃᆞᆫ이 묻고 [隔]신쥬 간ᄉᆞᄒᆞᄋᆞᆸ기 감역ᄒᆞ여 구디 ᄒᆞ오라 ᄒᆞ소 셰간도 집안히 무ᄃᆞ면 뎍 파내니 길처 뫼해 묻게 ᄒᆞ소커니와 ᄆᆞ을 사ᄅᆞᆷ이 둘가이 둔 거시나 타작ᄒᆞ여 ᄃᆞᆫ나면 아닐가 엇디 될고 민망히 셔우론 하 곡셔기 업서 사ᄅᆞᆷᄃᆞ리 나날 주그니 아ᄆᆡᆫᄃᆞᆯ 엇디 살고 시븨…<이덕열언간-6>
> 【요사이 장마에 어찌 계신고? 용이 간 후 안부 어떠한고? 걱정하오. 이제 집안일랑 가지런한가? 향덕이와 어둔개는 병으로 죽었는가, 역질(疫疾)로 죽었는가? 몰라 하오. 또 왜적의 기별이 요란하다 하기에 일정이에게 말을 가져가게 보냈소. 진실로 전라도에 왜적이 온다 하면 서러워 피할 것이니, 옥천댁과 의논하여 함께 나서소. 다만 어디로 와야 할꼬? 홍주 사이로 나와서 남원을 통할 것이면 양식이나 가져다 먹고, 너무 도적이 퍼지게 되면 서울로 오소. 남룡이 단단히 묻고 신주(神主) 간수하는 것을 감역(監役, 일을 감독함)하여 굳게 하라고 하소. 세간도 집안에 묻으면 적이 파낼 것이니 길 근처의 산에 묻게 하거니와 마을 사람이 들 가에 둔 것이나 타작하여 다니면 아니 될까? 어찌 될꼬? 민망하오. 서울은 너무 곡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날이 죽으니, 아무인들 어찌 살까 싶소.…】

왜적이 전라도를 침략한다는 소식은 들끓기에 이덕열은 말을 보내여 가족을 남원에서 피란하게 하지만, 전라도로 왜구가 온다면 아내에게 남원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이덕열은 아직도 선릉과 개장 일을 맡아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홍주에 잠시 머물렀다가 왜적의 상황을 보아 서울로 오라고 하였지만, 실제 가족은 서울로도 오지 못하고 양성(안성)의 임생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당시 왜적은 군량미가 부족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당시 먹을 것도 부족했던 백성들은 조금의

양식이라도 모두 땅속 곳곳에 파묻어 놓아 그나마의 세간과 양식을 지킬 수 있었다. '세간도 집안에 묻으면 적이 파낼 것이니 길 근처의 산에 묻게 하거니와'는 그때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다.
남원을 떠나 잠시 홍주에 머물렀던 가족들은 서울로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덕열은 가족을 양성(안성)으로 가게 한다.

게도 주접업고 남원도 예 경샹도 이시니 아ᄆᆞ 제 올동 모ᄅᆞ니 도로 가기 두리오니 설워 양셩이나 왓다가 보아셔 셔울 오거나 남원 가거나 홀쇠 양셩의 죵의 지비 안죽 이셤 죽ᄒᆞ다코 임싱이 유무ᄒᆞ연ᄂᆡ 그리 오게 ᄒᆞ소 남원의 가 ᄆᆞ죵 오라 ᄒᆞ면 쉽디 아닐 거시니 거긔셔 동싱 집돌 ᄆᆞ죵이나 비러가 ᄃᆞ리 ᄒᆞ여 오게 ᄒᆞ소 ……ᄯᅩ 자반 바되 여긔 아니 먹ᄂᆞᆫ 무근 것 보내뇌 미육 ᄒᆞᆫ 동 소곰 닷 되도 가ᄂᆡ 고을히 쟝 빈 유무ᄒᆞ뇌 나ᄂᆞᆫ 이 스므날씌 능 일 ᄆᆞ차도 ᄯᅩ 셔울 가 무거 ᄂᆡ월로야 뎌리 갈쇠 일뎡이도 보낼 거시라 이만 뎍뇌 팔월 열이ᄐᆞᆫ날<이덕열언간 1>

【거기(홍주=홍성)도 주접(住接)할 곳이 없고, 남원도 왜가 경상도에 있으며 어느 때 올지 모르고 도로 가기 두려우니 서러워하오. 양성에 왔다가 보아서 서울로 오거나 남원으로 가거나 하소. 양성의 종의 집이 아직 있으면 족하다고 임생에게 편지하였소. 그리 오게 하소. 남원에 가서 말과 종을 오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동생 집들의 말과 종을 빌려가서 데리고 오게 하소. …… 또 자반 받았소. 여기에서 먹지 않는 묵은 것을 보내오. 미역 한 동(同), 소금 다섯 되도 가오. 고을에 늘 빈 편지를 하오. 나는 이 스무날께 능(陵)의 일을 마쳐도 또 서울에 가서 묵고, 내월(來月)에야 저리로 갈 것이오. 일정이도 보낼 것이라 이만 적네. 8월 12일】

이덕열은 홍주(洪州, 홍성)에서 잠시 지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라도의 상황도 전하면서 그곳의 상황은 어떤지 편지를 보낸다. 전라도에 왜적이 많이 들어갔으니 전라도와 그리 멀지 않은 홍주에 왜적이 들어왔는지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조금 가까운 양성(陽城=안성)에 있는 임생에 편지를 하여 가족들을 양성으로 옮기게 한다. 전쟁 중 더운 날씨에 아이와 함께 피란을 다니는 데 종도 없을 것이니 아내를 돌봐 줄 여종을 보내는 배려도 함께 한다. 또한 새로운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기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므로 이덕열은 자신이 받은 자반을 비롯하여 미역, 소금 등도 함께 보낸다. 특히 소금은 전쟁 당시에 더욱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선릉과 정릉의 개장 일을 할 때 이덕열 자신이 먹어야 할 자반이며 음식들을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함께 있지 못하는 가장의 최소한의 배려일 것이다. 그리고 선릉과 정릉의 개장 일이 끝나면 조정의 일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야 하지만, 다음 달에는 양성으로 갈 것이라는 기쁜 소식도 전한다.
여종과 음식을 보내는 이러한 배려도 부족했는지, 이덕열은 이틀 후에 가족이 홍주에서 양성으로 편히 올 수 있도록 또 다른 배려를 한다.

복챵이 간ᄂᆞᆫ가 양셩의 오긔 ᄒᆞ고도 엇디 와셔 머글고 근심 이만ᄒᆞ여 ᄒᆞ뇌 일뎡이 ᄆᆞᆯᄒᆞ고 보내뇌 이ᄆᆞ리 됴ᄒᆞ니 자내나 셩놓이나 타 오소 길헤도 도죽 두리우니 각관 드러 자고 조심ᄒᆞ소 신졉 양식인돌 엇디ᄒᆞᆯ고 ᄑᆞ라 머글 거시나 이실가 그 분별이나 아ᄅᆞ시ᄂᆞᆫ가 ᄒᆞ뇌 나ᄂᆞᆫ 능의 일이 이 스므날 휘면 ᄆᆞᆺ고 ᄯᅩ 셔울 가 ᄒᆞᆯ 일 이시니 에 보아 잠깐 ᄃᆞᆫ녀오고져 호ᄃᆡ 될동말동ᄒᆞ여 하뇌 팔월 열나ᄒᆞᆯ날 니 길헤 양식이라도 되홉을 다 아라 ᄡᅳ고 허소히 마소 힝혀 줄 ᄃᆡ 이셔도 ᄃᆞᆫᄃᆞᆫ이 출여 받소<이덕열언간 -2>

【복창이 갔는가? 양성에 오게 하고도 어찌 와서 먹을지 근심이 많소. 일정이를 말하고 함께 보내

오. 이 말이 좋으니 자네나 성룡이나 타고 오소. 길에 도적이 드리웠으니 각관(各官)에 들어가서 자고 조심하소. '신접(新接) 양식인들 어찌 하겠는가? 팔아서 먹을 것이나 있을까? 그 걱정이나 알겠는가?' 하네. 또 서울 가서 할 일이 있으니, 틈을 보아 잠깐 다녀오고자 하는데 될동말동하여 하오. 8월 14일 이(李) 길 가는데 쓰는 양식은 되홉을 다 알아서 쓰고 허술하게 쓰지 마소. 행여 줄 데가 있어도 단단히 차려 받소.】

이덕열은 가족을, 홍주를 떠나 경기도 양성 임생(任生)의 집에 오게 하였지만 가족이 어떻게 올 것인가 걱정이 되어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말을 보낸다. 그리고 길에 왜적이 드리웠으니 올 때 각 관청에 가서 자면서 조심히 양성에 가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어떠한 음식을 먹을지 걱정하고 있다. 아마도 양성으로 오는 기에 먹으라고 쌀되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허투루 하지 말고 아껴 쓸 것이며, 행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더라도 반드시 챙겨서 받으라는 당부까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편지에서도 능의 일이 끝나면 잠깐 짬을 내어 양성에 다녀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가족이 양성에 있는 기간에 능의 봉축(封築)이 끝났지만, 이덕열은 명장(明將)의 접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리고 9월에 초에 장령으로 임명되자 행장을 꾸려 가족을 만나러 양성으로 내려갔다. <양호당일기>에 "9월 6일 길을 나서 수원을 경유하여 양성(陽城)으로 가서 처자를 만나보았다."라는 기록이 있다.[52] 가족을 만난 후 이덕열은 선조를 모시고 환궁하기 위해 9월 17일 해주로 행재소에 도착하였고, 선조는 1593년(선조 26) 9월 21일에 해주를 출발하여 10월 3일 한양에 도착하였다. 그 이후에 가족이 양성에서 서울에 올라올 수 있었다.[53]
임진왜란이 휴전기에 들어서자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함께 살지만 오랜 피란생활 때문인지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덕열이 임지에 있으면서 보낸 짧은 편지에 병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오ᄂᆞ른 병이 엇던고 어제와 ᄒᆞᆫ가진가 ᄯᅩ 달리 아ᄑᆞᆫ가 알외소 ᄉᆡ양 달히니 ᄒᆞ고 어을메 가던 약 다 자신가<이덕열언간-9>

【오늘은 병이 어떤고? 어제와 한가진가? 또 달리 아픈가? 아뢰소. 새로 달인 것과 조금 가던 약은 다 자셨는가?】

ᄉᆡ양 모과 달혀 몬져 자코 그 무근 야그란 말고 이 야글 졍히 달혀 바ᄆᆡ나 아져긔나 자소<이덕열언간-10>

【생강 모과 달여 먼저 자시고, 그 묵은 약일랑 말고, 이 약을 정성 들여 달여서 밤이나 아침에 드시오.】

이 편지의 작성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장고은·김영(2019)에서는 이 두 편지는 모두 부부가 서울에서 함께 지낸 시기인 1593년 10월 이후부터 이덕열이 사망하기 전인 1599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을 받아들인다면 청풍김씨는 전쟁 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가 매일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두 편지에서 아내의 병은 단순히 며칠 아픈 병이 아니라 꽤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편지에서의 이덕열은 이전 편지와 함께 약을 보냈는데 그 약을 다 먹었는지도 궁

52) <양호당일기> 9월 6일자.
53) 10월 28일. 가소(家小=妻子)가 양성에서 서울로 들어왔다.<양호당일기 상: 38>

금해 하며 조금의 차도는 없는지, 다른 병세는 없는지 궁금하고 걱정하고 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모과와 생강을 달여 먹이고 새로 보내는 약을 정성스레 달여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묵은 약'과 '조금 가던 약'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약을 먹을 정도로 아내의 병은 오래되었고, 이덕열은 좋다는 약을 구해 꾸준히 아내에게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짧은 두 편지를 통해 아내의 병을 걱정하는 약을 보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덕열언간>에는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당시 백성들의 두려움은 왜적뿐만 아니라 굶주림과 역병이었다. 당시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가 힘들었고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굶는 사람과 굶어죽는 사람 또한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장마에 역질까지 퍼져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덕열언간 6>에서도 향덕이와 어둔게가 병으로 죽었고, 남룡이도 병으로 죽은 이야기가 나온다. 임진왜란 당시 굶주림과 역질, 그리고 왜구의 침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다. <선조수정실록 30권, 선조 29년 2월 1일(1596)>에서는 "우리 조종(祖宗)이 2백 년 동안 길러온 백성들이 전쟁으로 죽고 역질과 굶주림에 섬멸되어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다. 마을은 황폐하여 굴뚝엔 연기가 나지 않으며 넓은 들판엔 쓸쓸하게 잡초만 무성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쟁 당시 역질에 굶주림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이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양식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도 잘 나타나 있다.

양식을 남원셔 온 것 얼멜고 엇디ᄒᆞ여 니을고 하뇌 ᄒᆞᆫ 되홉도 허피 말고 ᄀᆞ장 앗겨쁘소 동싱들 비셔원ᄒᆞ여도 내 지븨 어려이 도여시니 ᄂᆞᆷ 도라볼 ᄉᆞ이 이실가<이덕열언간-1>

【양식은 남원에서 온 것이 얼마인고? 어찌하여 이을까 하오. 한 되, 한 홉도 헛되이 말고 매우 아껴 쓰소. 동생들이 빌어도 내 집이 어렵게 되었으니 남 돌아볼 새 있겠는가.】

이 편지는 이덕열이 1593년 8월 12일에 아내에게 보낸 것이다. 서울서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양식이었을 것이다. 그 사이 왜구를 피해 홍주에 와 있는 아내에게 시댁 남원에서 양식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적은 양이어서 조금이라도 헛되이 하지 말고 아껴 쓰라고 한다. 그리고 동생들이 양식을 나눠 달라고 빌어도 남 돌볼 새가 어디 있냐며 주지 말라고 한다. 우선 아내와 자식이 살아야 하겠기에 야속해질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진주하씨묘출토언간>에서도 임진왜란 전후의 어려운 사정이 나타난다. 백두현(2019: 32)에 따르면 이 편지의 주된 발신자인 곽주는 적지 않은 수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세(公稅)를 받는 땅이 많아 평상시라면 경제적 곤란이 없어야 할 사회적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연이 곽주가 진주하씨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난다.

아히들 비골론 양 보다가 오니 더옥 닛디 몯ᄒᆞ여 ᄒᆞ뇌. <진주하씨묘-119/곽씨-49>

【아이들의 배곯는 모양을 보다가 오니 더욱 잊지 못하여 하네.】

날 ᄀᆞ문 양을 보면 보리밥도 니울 길히 업슬가 식븨 어듸 가 나록밥을 어더 홀고… 졧뫼도 나록발 니워 홀 길히 어려워 보리발과 섯거 ᄒᆞ거든 ᄒᆞ물며 다른 밥이야<진주하씨묘-083/곽씨-65>

【날이 가무는 모양을 보면 보리밥도 이을 길이 없지 않을까 싶으이.…제사에도 쌀밥을 못 쓰면서

(하물며) 다른 데 잘 할까.】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배를 곯고 있는 모습을 걱정하는 모습, 제사에 올리는 메도 쌀밥을 올리지 못하고 보리쌀을 섞어 하도록 하는 모습을 통해 백두현(2019:33)의 언급처럼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당시의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주하씨묘출토언간>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불안한 상황도 잘 묘사되어 있다.

내 이신 적은 아ᄆᆞ라ᄒᆞ여도 므던커니와 나 업슨 제란 ᄉᆡᆼ심도 혼자 자지 마소. 조심조심ᄒᆞ여 겨소 앏 사립플 ᄆᆡ양 다다 ᄆᆡ여 두고 ᄃᆞᆫ니기란 스ᄉᆡᆼ의 집 앏프로 ᄃᆞᆫ니게 ᄒᆞ소. 븍간도 움 두혜 ᄆᆡᆼ그라셔 보고 ᄉᆡᆼ심도 밧 븍간의 나와 보디 마소<진주하씨묘-101/곽씨-12>

【내가 있었던 때는 어떻게 하여도 무던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절대로 혼자 자지 마소. 조심조심하여 계시오. 앞 사립문을 늘 닫아 매어 두고 다니기는 스승의 집 앞으로 다니도록 하시오. 뒷간도 움 뒤에 만들어서 (용변을) 보고 절대로 밖의 뒷간에 나와 보지 마소.】

샹직 뷔우디 말고 ᄉᆡᆼ심도 혼자 자지 말고 조심ᄒᆞ여 겨소. 나디라도 자내 잇ᄂᆞᆫ 집이 외쁘니 ᄉᆡᆼ심도 혼자 겨시디 말고 졍녜 졍녈이를 ᄒᆞᆫᄃᆡ 뼈나디 몯ᄒᆞ게 ᄒᆞ여 ᄃᆞ리고 겨소.<진주하씨묘-111/곽씨-13>

【상직을 비우지 말고 절대로 혼자 자지 말고 조심하여 있으오. 낮이라도 자네 있는 집이 외딴 곳이니 절대로 혼자 있지 말고, 졍녜, 졍녈이를 한 데서 떠나지 못하게 하여 데리고 계시오.】

위 편지는 곽주가 서울로 간 사이에 보낸 것인데 집안 식구의 안전을 염려하는 초조한 마음이 그려져 있다. 아이들을 항상 곁에 데리고 있으라는 것, 밤에 혼자 자지 말고 노복들로 하여금 집을 지키도록 하라는 당부이다(백두현 2019: 33). 이를 통해서도 임진왜란 당시 또는 전후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4. 나오며

본 연구는 생활사 분야에서 언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생활의 모습을 재구하는 시도 중의 하나로서, <이덕열언간> 14건 가운데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언간을 통해 임진왜란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장수로서, 신하로서 모습과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재현해 보았다.

군주제 국가에서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이다. 조선시대에도 신하라면 누구나 왕에게 충성했어야 했다. 조선시대 정초(鄭招, ?~1434)는 <삼강행실도> 발문에서 “충신이 절의를 다하는 것은 바야흐로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있는 것이니, 변고를 만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겠습니까. …… 신하가 그 나라를 자기 집처럼 근심하고 절의를 다하여 봉공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몸이 평안하고 나라가 부유하여 그 존엄과 영화를 보전하며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게 하면, 이것이 능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54]라고 하였다. 충신의 절의는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덕열언간>에서 신하와 장수로서의 모습은 두 가지 경우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덕열언간>과 이와 관련된 <양호당일기>

54) 鄭招, 삼강행실도 , 「跋」(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삼강행실도 , 1982).

의 내용을 통해, 이덕열은 임진왜란 당시 성주목사로서 지경을 떠나지 않고 홀로 지켰으며, 근왕(勤王)을 위해 해주 행재소로 가 왕을 모셨고 도감도청(都監都廳)이 되어 선릉과 정릉을 영장(永葬)하기도 하였으며 서울을 떠나 해주에 머물고 있던 선조를 모시고 환궁하기도 하였기에, 이덕열은 전쟁 중 충신으로서의 절의를 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家長은 반드시 禮法을 신중하게 지켜서 모든 子弟와 집 안 사람들을 다스리며 職分을 나누고[倉廩, 廏庫, 庖廚, 舍業, 田園 따위를 관장하게 함을 말한다] 일을 맡기며[아침저녁으로 주관하는 일과 비상시의 일을 말한다] 그 공을 이루는 것을 책임져야 했다.[55] 그렇기에 가장은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도 그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그러나 이덕열의 경우에는 관직에 나아가 신하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하느라 전쟁 중 가족을 돌볼 수 없었다. 나라를 지키는 일과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었기에 이덕열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전쟁 중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피란을 하고 있고, 피란한 남원에 왜적이 자꾸 들어가니 더더욱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피란 중에 아들은 병으로 죽어 더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덕열언간>과 <양호당일기>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전쟁 중 인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 아내의 안부를 묻고 왜적의 상황을 전하며 피란처를 옮기도록 해 주기도 하였고 양식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가족을 서울로 데리고 왔지만 이덕열은 다시 임지로 나가 가족을 돌보기 어려웠다. 그 사이 병든 아내를 위해 약을 구해 보내주는 등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내 청풍김씨에 보낸 편지를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수(2019),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성주(星州) 전투, 軍史 第111號, 131-161.

문희순(2011), 「한글편지에 반영된 옛 대전의 생활문화 1 - 송준길.송규렴가 편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70권, 129-157.

문희순(2012), 「동춘당 송준길가 소장 한글편지에 반영된 생활문화」, 인문학연구 통권 89,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3-62.

민족문화추진회(1971), 『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위원회.

朴璨希(2019), 16세기 兩班 남성家長의 유교적 삶과 그 이면, - 默齋日記 와 眉巖日記 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두현(1998),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난 17세기의 習俗과 儀禮」, 문헌과해석 3호, 문헌과해석사, 72-91

백두현(2019), 증보판 현풍곽씨언간 주해, 역락.

양인실(1985), 「언간에 나타난 선조여인의 실상고」, 겨레어문학 9, 겨레어문학회, 253-268.

유연성(2014), 임진왜란기 한성 주변 전투의 전략적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48, 93-130

이래호(2015),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 및 그 특성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65-126.

이철(2011),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 알마.

이탁영(2002), 『역주 정만록』, 「征蠻錄 坤」, 의성군.

장고은 · 김영(2019), 16세기 후반 한글자료인 <청풍김씨묘출토언간(이덕열언간)>에 대하여, 국

55) 朴璨希(2019), 16세기 兩班 남성家長의 유교적 삶과 그 이면, - 默齋日記 와 眉巖日記 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사연구 29, 국어사학회, 125-156.
전경목(2011),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27-57.
최윤희(2002), 「16세기 한글편지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식 - 신천강씨의 한글편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회, 86-106.
하태규(2007),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147-180.

▣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국어학*

피·사동접미사 '-기'의 경음화 경향 분석
북한어의 개념
연결어미의 응집성과 의도성에 대한 고찰
남북한 국어사전의 흉내말 비교 연구

◇ *현대문학*

오장환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정재완의 첫 동시집『해바라기』에 나타난 시적 세계의 양상
사유이미지로서의 시와 풍경의 윤리
이효석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성 고찰

◇ *고전문학*

「황비호실기(黃飛虎實記)」를 통해 본『봉신연의(封神演義)』의 유통 문제
숫자노래의 형성과 문학적 특질
체험주의 상상력을 통해 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한국어교육*

코로나 19 시대의 해외 한국어·한국학 교육
초급 한국어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유사 문법 기술을 위한 소고
대조 수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한·중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 비교 연구
한국어 'ㅣ' 발음 변용 현상 연구

[국어학]

피·사동접미사 '-기'의 경음화 경향 분석
북한어의 개념
연결어미의 응집성과 의도성에 대한 고찰
남북한 국어사전의 흉내말 비교 연구

중앙어문학회 발표문

피·사동접미사 '-기'의 경음화 경향 분석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연구원 전지연

1. 서론
2.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 경향
3.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 분석
   1)통시적인 원인
   2)단어 경계에 대한 인식 변화
   3)비음운론적 조건의 경음화와 비교
4. 결론

1.서론

1)연구 배경

경음화는 후두폐쇄라는 음운론적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음운현상이다. 하지만 후두폐쇄 자질을 가지지 못하는 공명음과 자음이 결합할 때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다. 국어에서 '체언+조사'의 발음과 '용언 어간+어미'의 발음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안과 밖'에서 '안(체언)+과(조사)'는 [안과]로 발음되면서 '안'의 받침인 'ㄴ'은 뒤에 따라오는 조사의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용언 '안다'에서 '안'의 받침인 'ㄴ'은 똑같이 비음이지만 뒤에 따라오는 어미 '다'의 발음 자질에 영향을 주어 [안따]라는 경음화를 만든다. 여기까지는 용언의 활용과 체언의 곡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유독 피·사동 접미사 '-기'가 붙으면 비음의 구강 폐쇄성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명사화 접미사 '-기'를 붙이면 경음화는 자연스럽게 발화되지만 피·사동 접미사 '-기'를 붙이면 경음화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의 표준발음법 제24항에서는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그 예로 '신고[신:꼬],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꼬], 얹다[언따]'로 발음하는데, 다만항에서는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예로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등을 보여주고 있다. 해설에는 '신기다'는 현실 발음에서 [신끼다]라고 발음하지만 표준 발음은 [신기다]라고 재언급 하

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 화자들에게 피·사동의 접미사 '-기'에서 경음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접미사 '-기'의 경음화 생산성 획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현대 국어 화자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피·사동 접미사 '-기'가 경음성을 획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선행 논문에서는 먼저 경음화를 다룬 논문을 살펴보았다. 피·사동 접미사 '-기'에 대해 다룬 논문으로 구본관(1990)[56]에서는 경주시 천북면의 언어자료를 분석하면서 어간 말 비음이 피동접사 '-기'와 결합할 때 경음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깜-, 숨-, 담-, 신-, 안-, 삶-'에 피동접사 '-기'가 결합되면 '깡끼-, 숭씨-, 당끼-, 싱끼-, 앙끼-, 상끼-'로 실현되어 접미사 '-기'의 경음화가 공시적 생산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 이이에는 경음화의 음운적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을 하고자 한 연구를 이어졌다. 신승용·안미애(2012)[57]에서는 사이시옷 첨가 조건 환경이 아닌데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라는 환경이 아닌 경우에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한자어 /ㄹ/ 뒤 경음화의 조건 환경이 아님에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경음화의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즉, 음절말에서 유성 자음 /ㅁㄴㅇㄹ/ 뒤에 경음화 환경이 아닌데 화자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성 자음 /ㅁㄴㅇㄹ/ 가 화자에 따라 외파괴디고 하고 불파되기도 하면서, 음절말 불파 발음이 화자에 어휘에 따라 수의적인 경음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떤 규칙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보다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변용우(2012)[58]에서는 국어 유성자음 뒤의 경음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ㄷ' 첨가 규칙의 설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유성 자음 뒤에서 경음화가 발생하기 위해서 먼저 후두 폐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성자음이 음절 종성에서 폐쇄를 획득해야 하는 이 과정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두 폐쇄는 자질이기 때문에 이를 표상하는 음소가 첨가되어야 경음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음소로 'ㄷ'을 첨가하여, 어간말 폐쇄음의 조건과 통일시키려는 화자들의 의도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한별(2019)[59]에서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를 '음절말 /ㅅ/ 불파화'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용언 어간말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음운론적 정보이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였다. 이를 음절말 /ㅅ/의 불파화가 비음 뒤에서 촉발되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비음 뒤에서 시작된 음절말 /ㅅ/의 불파화가 비음 뒤 경음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사동 접미사 '-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태영(1987)[60]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음운론적 조건으로 해명되지 않고 있는 사동-피동점사들의 변이형태가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56) 구본관(1994), 경주 방언 피동형에 대한 연구, 국어 연구 100, 국어 연구회

57) 신승용·안미애(2012), 유성 자음 뒤 경음화의 특성 및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인문학 22, 119~140쪽.

58) 변용우(2012), 유성자음 뒤의 경음화 현상에 대하여-'ㄷ'첨가 규칙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악어문학 59, 223~263쪽.

59) 김한별(2019), '음절말 /ㅅ/ 불파화'와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189, 5~37쪽.

60) 崔泰榮(1987), 使動·被動接辭의 音韻論的 硏究, 崇實語文 4집, 2747쪽.

설명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중세국어에 나타난 사동, 피동의 접사 '-기'계의 사동과 피동 접사를 음운론적으로 살펴보고, 사동으로 쓰이는 '-기'계와 '고/구'계, 피동으로만 쓰이는 '-기'계 이외에 다른 형태소의 존재 유무도 검토하였다.

선행논문을 통해 현대 국어 화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경음화의 경향과 확산경, 경음화에 대한 기존 분석을 토대로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2.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 경향

1)조사 범위 및 대상 어휘 선정

피·사동 접미사 '-기'가 들어가 만들어지는 피·사동은 다음과 같다.

<피동사>
어간 말음이 ㅁ : 잠그다> 잠기다, 감다>감기다, 뽐다>뽐기다[61], 담다>담기다, 다듬다>다듬기다, 품다>품기다[62], 심다>심기다, 삶다>삶기다

어간 말음이 ㄷ : 믿다>믿기다, 뜯다>뜯기다, 찢다>찢기다, 쫓다>쫓기다, 씻다>씻기다, 빼앗다>빼앗기다

어간 말음이 ㄴ : 신다>신기다, 안다>안기다, 끊다>끊기다,

<사동사>
어간 말음이 ㅁ : 굶다>굶기다, 남다>남기다, 숨다>숨기다, 옮다>옮기다, 넘다>넘기다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할 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표준 발음법 제24항 다만항의 해설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현실 발음에서 '신기다[신끼다]'는 표준 발음이 아니며 [신기다]가 표준 발음이라고 주의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는 '신기다'를 제외하고도 다른 용언의 활용에서 경음화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용언 어간 뒤'와 '어미'라는 문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간에 비음 'ㄴ, ㅁ'[63]과 피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는 용언 중에 경음화가 확산세를 띄는 몇 개의 용언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어휘는 평소 경음화를 보이는 용언 중에서 '신기다, (면이) 삶기다, (꽃이) 심기다, (머리를) 감기다, 끊기다'로 정하였다.

2)조사 방법

조사 대상은 20대 15명, 30~40대 15명으로 총 30명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선정된 피·사동사를 기본형으로 제시해 주고, 같이 보여주는 문장에 변환해 넣어 완성된 문장으로 읽으라고 지시하였다. 즉 변환 문장에 해당 조사 용언을 OOO으로 표시하고 그 문항에 적합한 용언을 넣어서 완성된 문장으로 발화하도록 하였다.

---

61) 우리말샘에서 [북한어] '내뿜다'의 피동사로 설명된다.
6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품속에 넣어지거나 가슴에 대어 안기다. '품다'의 피동사로 설명된다.
63) 어간 받침에 'ㅇ'으로 끝나는 용언이 없기 때문에 받침은 'ㄴ, ㅁ'에 한정하며, 피사동 접미사에서 경음자질을 획득할 수 있는 접미사는 '-기'뿐이기 때문에 결합을 '-기'접미사에 한정한다.

감다: 붕대 감긴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OOO 불편하다.
삶다: 면이 오래 OOO 불어서 맛이 없다.
심다: 꽃이 너무 듬성듬성 OOO 볼품이 없다.
신다: 아이의 신발을 OOO.
끊다: 수도고 전기고 다 OOO 못 살겠다.

3) 조사 결과

조사 용언	문장 변환	'-기' 경음화		어두경음화		표준 발음	
감기다	붕대 감긴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기니 불편하다.	[감끼니, 깜끼니]	10	[깜기니]	10	[감기니]	10
삶기다	면이 오래 삶기면 불어서 맛이 없다.	[삼끼면, 쌈끼면]	9	[쌈기면]	15	[삼기면]	6
심기다	꽃이 너무 듬성듬성 심겨서 볼품이 없다.	[심껴서]	12			[심겨서]	18
신기다	아이의 신발을 신기다.	[신끼다]	28			[신기다]	2
끊기다	수도고 전기고 다 끊겨서 못 살겠다.	[끈껴서]	12	[끈겨서][64]	12	[끈켜서]	8

표1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 경향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기다'의 '-기'는 단연 경음화가 높다. 거의 대부분이 [신끼다]로 발음하였으며, [신기다]로 발음한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의 평상시 발음에 확신이 없었다. 그 뒤를 이어 '심겨서', '끊겨서'가 경음화 현상을 보였다. 그중 '끊겨서'에서 표준 발음은 [끈켜서]이지만 표준 발음대로 발화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유기성을 상실시켜서 [끈겨서]라고 발음하거나 유기성을 후두 폐쇄로 바꿔서 [끈껴서]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따. '감기니'와 '삶기면'은 '-기'의 경음화와 함께 [깜], [쌈]이라는 어두경음화를 시켜 발음하는 경우도 있었다.

3.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 실현 분석

1)'-기'의 통시적 특징

표준 국어대사전에 나온 피·사동 접사 '-기'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았다.

· <곰기다<내훈>←곰-+-기-
· <솖기다<월석>←솖-+-기-
· 신기다<가언>←신-+-기-

다음으로 朴明東(1999)[65]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본 접미사 '-기'의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후기 중세 국어: 담다(담기다), 솖다(솖기다), 쌈다(쌈기다), 좀다(좀기다), 덞다(덞기다)
· 16세기 국어: 좀다(좀기다), 돔다(돔기다), 솖다(솖기다)
· 근대 국어: 씨앗다(씨앗기다), 옮다(옮기다), 빗다(빗기다)
· 현대 국어: 안다(안기다), 뜯다(뜯기다), 잠그다(잠기다), 씻다(씻기다), 쫓디(쫓기다), 끊다(끊기다)

64) 어두 경음화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기성을 상실한 발화이나, 표의 편의상 해당 칸에 기재하였다.
65) 朴明東(1999), 被動詞의 史的 硏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선행하는 말음에 대한 일부 음운적 조건의 정보는 얻을 수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피·사동 접미사 '-기'가 경음화를 획득하는데 통시적인 원이을 찾기에는 부족하였다. 추후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2)현대 국어 화자들의 단어 경계 인식 변화

송철의(1977)[66]에서는 일반적 파생어와는 다르게 피-사동 파생어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김성규(1987)[67]에서는 피-사동사가 공시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에 그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국어 화자들은 파생어의 인식을 하지 않고 하나의 어휘로 수용해서 경음화시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대 국어 화자들의 단어 경계 인식이 하나의 어휘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어간과 접사로서 인식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음화 확산의 현상에서도 다루겠지만,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경음화를 확산하고 있는 국어 화자들에게 접미사 '-기'는 하나의 어휘부로 존재하지 않는다. 박숙희(2007)[68]에서는 경북 동해안 방언을 분석하면서 형태소 경계를 두고 접사에만 강음화가 일어나고 접사가 독자적으로 형태 변화를 겪고, 접사가 개신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언중이 파생어를 분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3)비음운론적 조건의 경음화와 비교

현대 국어에서 경음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음화가 확산되는 경우를 다룬 논문들이 많다. 그중에 어두경음화, 비음 뒤 경음화, 복합어의 경음화가 대표적인데, 우순조(2017)[69]에서는 음운론적으로 조건화되지 않은 경음화 현상을 식별강화 효과 가설로 설명하였다. 공명음 어간말 자음을 뒤따르는 평폐쇄음이 경음화되는 현상과 합성어에서의 경음화, 그리고 관형형어미 'ㄹ' 다음에 오는 평폐쇄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언급하였다. 이는 발화자가 의도하는 언어 형식의 식별에 방해가 되면 그 발생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예로 어근-접사와 같은 형태론적 구성은 전체가 하나의 형식으로 인식되므로 굳이 구성 요소를 식별할 동기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별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면 음운론적 경음화 환경이 아니더라도 발화자는 충분히 경음화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앞서 본고에서는 국어 화자들의 단어 경계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식별을 강화하고자 경음화를 선택하는 화자들도 생기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徐輔月(1981)[70]에서는 복합어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동기적 기능이 크다고 보았는데, 화자들에게 심리적으로 강화작용의 동기가 생겨 경음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콩국'은 국의 의미를 강화하고자 하는 심리작용이 화자에게 일어나서 국을 경음화 시켜 발음을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도 피사동 '-기' 접사가 의미적으로 어간에 종속되면 굳이 경음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아직 추측에 그치지 않지만 심겨져 있는 '꽃'에 더 의미를 강화하거나, 눈을 '감다'와 머리를 '감다'의 동음이의어

66) 송철의(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 현상, 국어 연구 38, 국어연구회, 55~56쪽
67)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 현상, 국어 연구 77, 국어 연구회
68) 박숙희(2007), 피사동사 형성의 고시성과 통시성, -경북 동해안 방언을 대상으로, 한글 277, 101~132쪽.
69) 우순조(2017), 음운론적으로 조건화되지 않은 경음화의 환경과 제약, 언어학 제79호, 159~191쪽.
70) 徐輔月(1981), 動機的 機能에 依한 硬音化 現象, 문화와 융합, Vol.2, 31~49쪽.

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피사동 접사 '-기'에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염두해 볼 만한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경음화가 발생하는 음운론적인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음화가 일어나는 어간 말 비음의 활용형에서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피·사동 접미사 '-기'에서는 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구본관(1994)에서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가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있다고 보았다. 본 조사에서도 '신기다[신끼다]'를 필두로 '-기'는 경음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이를 통시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나 음운론적인 조건이나 어간의 형태로는 경음화의 동인을 찾아내기 힘들었다.

또 다른 접근으로 현대 국어 화자들이 가지는 단어 경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성규와 송철의에서는 하나의 어휘로 등재되어 인식하기 때문에 용언의 활용형이 아닌 피·사동 접미사 '-기'는 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반대로 그 경계를 인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경음으로 발화할 필요성을 내재적으로 갖게 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른 비음운론적 조건의 경음화와 피·사동 접미사 '-기'의 경음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순조의 의미 식별 동기 이론을 차용해 식별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면 음운론적 경음화 환경이 아니더라도 발화자는 충분히 경음화시킨다는 것을 접목하였다. 그리고 서보월의 의미 강화의 심리작용을 적용해, 국어 화자가 피·사동의 의미를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기'를 경음화 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연구의 데이터로 객관성을 얻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다. 또한 피·사동 접미사 '-기'가 경음화의 확산세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비교 모집단이 부재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힘들다. 이를 보완해 조사를 더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의 경음화에 어두경음화가 동반되는 경우, '끊기다'가 잘못 발음돼 '끈끼다'로 발음되는 이유, '신기다'는 압도적으로 [신끼다]로 경음화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갈 것이다.

[참고문헌]

구본관(1994), 경주 방언 피동형에 대한 연구, 국어 연구 100, 국어 연구회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 현상, 국어 연구 77, 국어 연구회

김한별(2019), '음절말 /ㅅ/ 불파화'와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189, 5~37쪽.

변용우(2012), 유성자음 뒤의 경음화 현상에 대하여-'ㄷ'첨가 규칙의 설정과 관련하여, 동악어문학 59, 223~263쪽.

신승용·안미애(2012), 유성 자음 뒤 경음화의 특성 및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인문학 22, 119~140쪽.

朴明東(1999), 被動詞의 史的 硏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숙희(2007), 피사동사 형성의 공시성과 통시성, -경북 동해안 방언을 대상으로, 한글 277, 101~132쪽.

徐輔月(1981), 動機的 機能에 依한 硬音化 現象, 문화와 융합, Vol.2, 31~49쪽.

송철의(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 현상, 국어 연구 38, 국어연구회, 55~56쪽

우순조(2017), 음운론적으로 조건화되지 않은 경음화의 환경과 제약, 언어학 제79호, 159~191쪽.

崔泰榮(1987), 使動·被動接辭의 音韻論的 硏究, 崇實語文 4집, 2747쪽.

중앙어문학회 제44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북한어의 개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정유남(sweetpea1003@naver.com)

- 차례 -

1. 머리말
2. 북한어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3. 북한어의 기준과 개념
4. 맺음말

1. 머리말

분단 이후 북한어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71] 그 후 수백여 편의 논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남북한 언어의 차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한 언어 통일·통합 방안, 남북한의 언어 정책, 북한어 교육 정책, 남북한의 언어문화, 사전에서의 북한어 기술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어'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연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연구는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휴전선 북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북한어'의 개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남한어와 북한어를 비교하거나 북한어의 특성을 논의하는 많은 연구들에서조차 '북한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들 들어, '긴장'은 북한어인가 아니면 남북한이 공히 같이 쓰는 공통어인가? 가령, ≪조선말대사전≫(1992, 2017)의 '긴장'의 ③번 뜻풀이는 '일을 순조롭게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바듯하게 되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긴장'의 이러한 뜻갈래는 남한에서 간행된 어떠한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긴장'의 ③번 뜻갈래는 명실 공히 북한어인 셈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인 '동무'도 부분적으로는 북한어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2장에서는 북한어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좀 더 면밀하게 논의하고 3장에서는 북한어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

71) 남북한의 언어문제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남북 대화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홍연숙(1973)의 '남북대화와 언어문제'를 다룬 일련의 논문들이 1970년대에 남북한 언어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이다.

2. 북한어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먼저 '북한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국어원'에서 웹(web)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웹)[72]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 '남한어'와 '북한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1) ≪표준국어대사전≫(웹)
남한-어(南韓語)「명사」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휴전선 남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말.
북한-어(北韓語)「명사」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휴전선 북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말.

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남한-어[南韓語] [명]
국토 분단 이후 남한에서 쓰는 말.
북한-어[北韓語] [명]
국토 분단 이후 북한에서 쓰는 말.

두 사전 모두 '남한어'와 '북한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준은 두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토 분단 이후'로 표현된 '시간적 기준'이며, 둘째는 '남쪽 지역에서/북쪽 지역에서', '남한에서/북한에서'로 표현된 '지역적 기준'이다. 이 두 기준에 의하면 '북한어'는 '분단 이후 북쪽 지역에서 두루 쓰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말샘≫에 실린 '게사니'의 풀이이다.

3) ≪우리말샘≫의 '게사니' 풀이
게사니「001」「명사」「방언」'거위'의 방언(강원, 경기).
게사니「002」「명사」「북한어」『동물』'거위'의 북한어.

위에서 살펴본 북한어의 기준을 적용하면 '게사니'는 북한어로 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게사니'는 분단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만 두루 쓰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풀이가 가능했던 이유는 '표준어 대 비표준어', '문화어 대 비문화어', '표준어 대 문화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오징어'의 예시에서도 단순하게 지역적 기준과 시간적 기준만 적용한다면 '북한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오징어'는 북한에서 '낙지'와 '갑오징어'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 기준'을 적용하면 '오징어'는 북한어이다.[74] 이밖에도 우리는 북한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휘적 기준'과 '어휘 형태적 기준', '언어 정책적 기준'을 더 적용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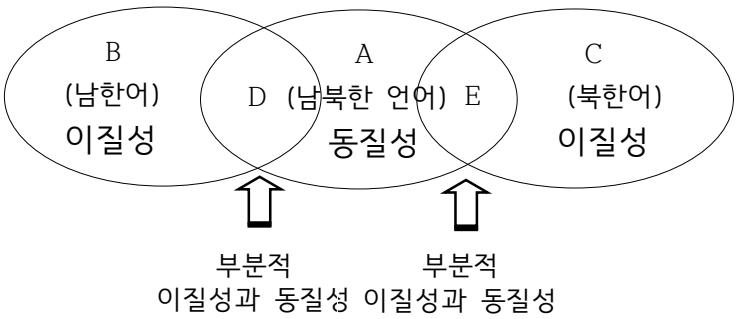
7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73) '게사니'가 자료로서 처음 조사되어 보고된 것은 小倉進平(1944)이다.
74) 다음은 '오징어'가 '갑오징어'의 뜻으로 쓰인 북한 소설의 예이다.
- 석근의 상처에 {오징어} 뼈가루를 바르던 로인은 갑자기 오인범을 쳐다보았다.《윤원삼(2011): 불새》
- 허창숙은 다정하게 말하면서 산호의 상처에 빨간약을 바르고 {오징어} 뼈가루를 뿌려주고는 아프겠다고 입으로 호호 불어주는것이였다.《석남진(2011): 하나를 위한 심장》

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북한어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하여 북한어의 판단 기준을 '지역적 기준, 시간적 기준, 의미적 기준, 어휘적 기준, 어휘 형태적 기준, 언어 정책적 기준' 등으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 북한어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3. 북한어의 기준과 개념

남한어와 북한어가 분단 이전에는 그 기층문화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동질성을 갖는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표층문화를 달리하게 되었다.[75]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는 기층문화에서는 동질적이지만 표층문화에서는 이질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언어 현실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남북한 언어의 구조적 모형

위의 모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동질적이며(A) 부분적으로 이질적이다(B, C).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어는 영역 C에 해당하며, 영역 E는 앞에서 언급한 '긴장'과 같이 부분적 이질성과 동질성을 보여주는 북한어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조선말대사전≫(2017)에서 '어버이'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4) '어버이'의 뜻풀이

어버이 [명]
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분》을 끝없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높이여 이르는 말.

위의 예시 (4)에서와 같이, '어버이'의 뜻갈래 ①은 E 영역에 속하지만, ②는 C 영역에 해당한다. 다른 예시로 '원수(元首)'는 A 영역에 포함되지만, '원쑤'는 C 영역에 속한다.[76]

75) 남한과 북한의 체제와 사회문화 차이로 발생한 이념적 어휘에 대해서는 정유남(2019)에서 논의한 바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웹)이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적 기준과 시간적 기준만을 적용하여 '북한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두 기준이 북한어를 정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고에서 추가적인 기준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어휘적 기준, 의미적 기준, 어휘 형태적 기준, 언어 정책적 기준'은 '지역적 기준과 시간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역적 기준과 시간적 기준만을 만족시키는 북한어는 가장 넓은 의미의 북한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북한어는 A와 C 영역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5) 넓은 의미에서 북한어의 개념: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두루 쓰는 말.

위의 정의에 따르면 '원수(元首)'도 '원쑤'도 북한어이다. 그러나 이질성만을 고려한다면 북한어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북한어의 개념과는 달라져야 한다. 즉, 이질성만을 고려한다면 '지역적 기준'과 '시간적 기준' 이외에도 '어휘적 기준', '의미적 기준', '어휘 형태적 기준', '언어 정책적 기준'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들이 추가되어 정의되는 북한어는 좁은 의미의 북한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지역적 기준

이 기준은 북한어를 정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즉, 북한어는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쓰이는 말이 남한에서도 같이 쓰인다면 그 말은 '북한어'로 볼 수 없다. 넓은 의미로 북한어의 개념에서는 '이북 지역에서'와 같이 표현하였는데,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는 '이북 지역에서만'으로 그 쓰임을 한정한 이유는 좁은 의미에서의 북한어는 남북이 공통으로 쓰는 말은 '북한어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함의한다.

② 시간적 기준

시간적 기준은 지역적 기준과 함께 북한어를 규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북한어는 분단 이후[77]에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어야 한다. 시간상으로 분단 이전에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쓰였던 말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북한어'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북한 지역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어휘적 기준

어휘적 기준에 따른 북한어는 분단 이후에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새로 만들어진 어휘적 신어를 포함한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진 말로 '바둑판논,[78] 자료기지,[79] 짤랑돈, 짤락돈[80]' 등을 들 수 있다. '바둑판논, 짤랑돈, 짤락돈' 등은 모두 ≪조선말대사전≫(2017)에 실

76) 《우리말샘》에서는 '원수(元首)'는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로 '원쑤'는 '원수(怨讐)'의 북한어로 풀이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계급적 원쑤, 철천지 원쑤'와 같이 사용된다.

77) 분단의 시점을 미·소군정의 시기부터 그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6.25 전쟁을 기점으로 삼아야 할지는 논외로 한다.

78) 경지 정리가 되어 네모반듯한 논.

79) 데이터베이스(database).

려 있지만 '자료기지'는 아직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이러한 어휘들은 남한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말들로 오롯이 북한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시 (6)은 북한 말뭉치에서 발견되는 북한어들이다.

6) ㄱ. 물은 물깊은곳을 재여가며 물을 대주느라고 온 {바둑판논을} 돌았다.《한웅빈(1975): 금수강산을 수놓는 처녀》
ㄴ. 바로 식료연구실은《제가 먹고싶은 음식》,《제식대로 만들어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화학적반응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하고 그 방법을 프로그람으로 만들어 식료상점에 CD(씨디)판으로 내가거나 콤퓨터망에 련결된 {자료기지에} 정립하여 넣는 일을 한다.《오성순(2007): 사랑을 바치라》
ㄷ. 벽에 기대여 앉아있던 라익진이 어디서 났는지 {짤락돈} 한잎을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사이에 쥐고 흔들어보이였다.《백현우(2004): 삶의 보람》
ㄹ. 주머니안에는 뻐스를 타려고 넣어두었던 {짤랑돈} 몇잎밖에는 없었다. ≪내려설수 없다≫

예문 (6)에서 나타나는 '바둑판논', '자료기지', '짤락돈', '짤랑돈'은 어휘적 기준에 근거한 말로 북한 사회에서 새롭게 생겨난 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①지역적, ②시간적, ③어휘적 기준에 해당하는 어휘 부류들과 그 용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7) 갱청년,[81] 겁둥이(겁쟁이), 곱돌이마,[82] 공학쟁이(공학도), 과일쨤(과일잼), 금줄재비,[83] 기계소(트랙터), 꽃테,[84] 낫똘,[85] 놀새,[86] 도끼손,[87] 돌총질(돌팔매질), 돌팔이군(돌팔이), 동네돌이(마을돌이), 둘닭(둘암탉), 막동녀(막내딸), 밤녀인(창녀), 불딱지(불찌), 빚가리(빚더미), 빚결(빚살), 상루막(상여막), 상투박이,[88] 새비,[89] 생매,[90] 세탁쟁이(세탁공), 소배내기(반작소), 손도움(곁꾼), 수건붙이(노루), 숯굿(숯가마), 쓰레발(슬리퍼), 아이문(음부), 애기서방,[91] 업음띠,[92] 온돌쟁이,[93] 외동며느리,[94] 외자술(외상술), 요술통(요지경), 울굴이뼈(울대뼈), 장마손님,[95] 지게팔,[96] 처녀설(첫눈), 청두부,[97] 치마쟁이,[98] 칡콩(장당콩),

80)동전(銅錢)을 달리 이르는 말.
81)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는 것.
82) 앞으로 동실하게 나오고 반질반질한 이마.
83) '금줄을 단 군인'을 낮압아 이르는 말.
84)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의 테이프(오색 테이프).
85) 나이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또래.
86)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87) '험한 일이나 굳은 일에 숙련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도끼에 비겨 이르는 말.
88) (상투를 틀어올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봉건사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홀하게 이르는 말.
89) (일정한 기관에 갓 들어왔거나 들어온지 얼마 안되여 아무런 직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아랫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
90)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91) 어린 나이에 장가든 남자.
92) 아이를 업을 때 쓰는 폭이 좁고 긴 천.
93) 구들을 놓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
94) 외아들의 아내
95) (큰물이 질 것을 알리려 오는 손님이라는 뜻으로) 집안에 뛰여드는 개구리를 비겨 이르는 말.
96) 지게차에서 팔처럼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들어내리는 부분.

코마가리집,[99] 콩나물서방,[100] 키금,[101] 탈타리(빈털털이), 혼빵(혼줄), 혼잡탕(혼잡통) 등

8) ㄱ. 남편은 {갱청년}사업을 맡아하면서 가정의 크고작은 일까지 돌보자니 얼마나 힘들겠는가.《김광남(2007): 한 녀선동원의 일기》
ㄴ. {곱돌이마에} 안경 낀 가게방주인이 고개를 기웃거린다.《림재성(1999): 외투》
ㄷ. 내가 그놈의 암송아지때문에 그렇게 졸경을 치른 그시절엔 소 한마리 매는게 농군으로 극상의 소원이였는데 지금은 저렇게 {기계소가} 우릉우릉하고 내달으면 다 되잖습니까? 《김규업(1963): 장비룡》
ㄹ. 인물 곱고 아버지에 대한 지성 또한 극진한 처녀라는 칭찬이 한입 건느고 두입 건너 어느덧 오태희로인의 집울타리안에까지 {동네돌이를} 하였다.《박혜탄(1994): 봄의 축복》
ㅁ. 하윤종에게 {손도움이라도} 주고싶어 뒤쫓아가려는 리충근을 련락병이 끌어안았다.《김수경(1994): 승리》
ㅂ. 두사람은 길다란 소재덩이를 힘겹게 맞들어 {지게팔에} 얹었다.《백남룡(1983): 배치장》
ㅅ. 바람벽에 연필로 그어놓은 {키금은} 조금씩 조금씩 우로 올라갔다.《박현(1975): 우리가 자란 집》
ㅇ. 우박 쏟아지듯 와그르르 소고소리 잦게 울리는 가운데 {꽃테를} 든 소녀가 빨간 넥타이를 날리며 달려왔다.《김영길(1975): 새광맥》
ㅈ, 애꾸러기들을 {혼빵을} 내주지는 않고 어루만지기만하다니!《고상훈: 좋은 형님》

④ 의미적 기준

북한어는 분단 이후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새롭게 생겨난 의미 때문에 남한어와 그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추가된 의미적 신어를 포함한다.[102] 즉, 형태는 동일하지만 그 쓰임이 남한과 달라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어휘를 말한다. 가령, '세대주'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장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는 남북한이 동질적 의미를 갖지만, 북한에서는 '세대주'가 '남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세대주'가 남한에서는 '남편'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의미를 갖는 '세대주'는 의미적 기준에 따라 북한어가 된다. 의미적 기준 ④에 따른 어휘 부류들은 다음과 같다.

9) 가락지, 비준, 아저씨, 집행, 청결 등

북한에서 '가락지'는 '바느질할 때 골무 대신으로 쓸 수 있도록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끼는 물건, 패킹, 고리 모양의 피임 용구(루프)'를 의미한다. 다음의 '비준'은 법률 전문어로서가 아

97) 풋콩으로 만든 두부. 푸르스름한 빛이 단다.
98) (치마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녀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99) (콧구멍같이 작은 막집이라는 뜻으로) 몹시 작은 집을 비겨 이르는 말.
100) (살이 빠져 빼빼 여윈 남자)를 콩나물에 비겨 이르는 말.
101) 키를 재기 위하여 벽은 그어 놓은 금.
102) 여기에서는 '늙은이'가 남한에서는 '비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비하'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으며, '소행'은 남한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긍정적' 의미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의미적 뉘앙스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니라 ‘승인이나 동의의 절차’이르는 일반어에 해당한다. 다음의 ‘아저씨’는 ‘형부’의 의미로 쓰이며 ‘집행’은 ‘희의가 제대로 진행되로록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청결’은 ‘청소’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의미적 신어들이다.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북한 말뭉치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ㄱ. 게다가 “{아저씨, 아저씨}” 하며 따르는 처제는 또 어떻고…. 《한웅빈(1993): 행운에 대한 기대》
ㄴ. 한번은 왜놈순사가 그의 초물상점에 들어와서 {청결을} 잘 안했다고 모욕적으로 그를 대하였다. 《엄단웅(1984): 뜨거운 태양》

⑤ 어휘 형태적 기준

북한어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어휘 의미는 같지만 어휘 형태가 달라진 말들을 포함한다.[103] 이는 주로 남북한의 어문 규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표기의 차이를 말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두음법칙, 사이시옷, 이중모음, 접사 등의 표기 차이를 들 수 있다. 어휘 형태적 기준 ⑤의 어휘 부류들과 용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 ㄱ. 두음법칙: 력사, 로인, 리발, 름름하다 등
ㄴ. 사이시옷: 가게방, 바다새, 우거지국, 이몸, 제사날, 해볕 등
ㄷ. 이중모음 표기: 개페(啓閉), 페문(閉門) 등
ㄹ. 한자어 율과 렬의 표기: 백분율(百分率), 운률(韻律), 나렬, 선렬 등
ㅁ, 접사의 표기: -갈(-깔), -군(-꾼), -동이(-둥이), -쟁이(-장이), -적다(-쩍다) 등

예시 (11)에서 보듯이, ‘로인, 해볕, 개페, 백분률, 나무군’ 등은 남북한 어문 규범의 차이로 발생하는 단순 표기상의 차이만을 보여 주지만 이 또한 명맥히 ‘북한어’이다.

⑥ 언어정책적 기준

북한에서 말다듬기 운동[104]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듬은말도 북한어의 한 유형이다. 북한어의 다듬은말이 비로 인위적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사회적 특성상 실제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어휘들이다. 언어정책적 기준 ⑥의 따른 어휘 부류들과 실제 쓰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단묵(젤리), 손기척(노크), 창가림(커튼) 등

13) ㄱ. 철호교원은 상업과장이 너무도 간절하게 권하자 {단물} 몇모금을 마시였다. 《정성훈(1978): 미래를 위한 초소》
ㄴ. 정학이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솜옷을 입고 모자를 집어드는데 조용한 {손기척} 소리가 났다. 《김형지(1982): 적후의 별들》
ㄷ. 온몸에 먼지를 들쓰며 다그쳐 일했지만 그래도 며칠 또 와서 마루를 닦고 {창가림도} 치고 벽도 새로 칠해야 사람사는 집같이 될것 같았다. 《리인철(1979): 손풍

103) 이들은 단순한 표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휘들로 어휘적 신어와는 구분된다.
104)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 말로 고치고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금소리》

지금까지 '북한어'의 실체를 지역적 기준, 시간적 기준, 어휘적 기준, 의미적 기준, 어휘 형태적 기준, 언어정책적 기준 등을 들어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통하여 좁은 의미에서 북한어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좁은 의미에서 북한어의 개념: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만 두루 쓰는 말. 북한어의 유형으로는 어휘적 신어, 의미적 신어, 그리고 단순 표기 차이에 의한 어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어의 실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북한어의 개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북한어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3장에서는 북한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적 기준
② 시간적 기준
③ 어휘적 기준
④ 의미적 기준
⑤ 어휘 형태적 기준
⑥ 언어 정책적 기준

본고에서 제시한 북한어 개념과 조건이 앞으로 북한어 연구자들에게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한 관련 연구에서 북한어의 개념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규정하고 북한어에 접근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사회과학원(2007).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17). 사회과학출판사.
정유남(2019). 남북한 이념적 어휘와 이질화 정도: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6)을 중심으로. JKC(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44, 37-76.
최호철(1999). 북한어학에 대한 남한의 연구. 한국어학 3, 43-91.
_____(2006).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 국어 정책 부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1, 35-85.
홍연숙(1973). 남북대화와 언어문제1. 북한 13(북한연구소), 236-245.
_____. 남북대화와 언어문제2. 북한 13(북한연구소), 257-264.
_____. 남북대화와 언어문제3. 북한 13(북한연구소), 158-165.

연결어미의 응집성과 의도성에 대한 고찰
- 칼럼에 나타난 '-(으)며'를 중심으로 -

황희선

목차

1. 서론
2. 분석 대상 칼럼과 분석 내용
3. 칼럼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응집성과 의도성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이 연구는 칼럼에 나타난 연결어미가 텍스트 차원에서 갖는 응집성과 의도성에 대해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결어미는 주로 통사론에서 형식 형태소로 다루어지며, 그 의미를 문장 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언어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의의가 있다. 앞, 뒤의 문맥과 상황에 따라, 화자(필자)와 청자(독자)의 정보와 의도에 따라 같은 문장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필자)도 문장 내의 의미가 아니라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중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한다.

이 연구는 연결어미에 텍스트 차원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칼럼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글의 목적이 뚜렷해 필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논증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텍스트 차원의 의도는 응집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칼럼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전문가 필자
- 논증적 텍스트
- 연결어미가 응집성에 영향을 주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 가정
- 전문가 필자는 문장이 짧고 응집성 높은 글을 작성

연결어미의 담화·텍스트상 역할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바, 텍스트 차원에서 연결어

미가 갖는 응집성과 의도성에 대해 칼럼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분석 대상 칼럼과 분석 내용

2.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필자 쓴 논증 텍스트인 칼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논증 텍스트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다른 글의 유형에 비해 필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전문가 필자의 글이 미숙한 필자의 글보다 문장당 글자 수가 적다[105]. 그럼에도 연결어미를 사용하며 문장을 길게 쓸 때에는 필자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전문가 필자의 글은 응집성이 뛰어나므로, 연결어미가 사용된 문맥이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칼럼은 '중앙일보[106]'의 10편이다. 다섯 명 필자의 칼럼 각 두 편씩, 총 열 편을 분석하였으며, 12월과 1월에 작성된 칼럼을 대상으로 하였다. 텍스트 차원에서 연결어미의 사용 문맥을 보는 것이므로 글의 주제는 분석 내용과 무관하였다.

텍스트 차원에서 연결어미가 갖는 응집성과 의도성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칼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1> 분석 대상의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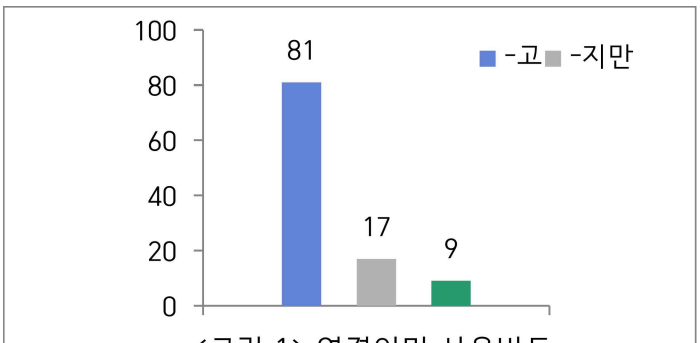
105) 정희모(2011:286)에서는 문장당 글자 수가 학생 상위집단(20개) 59.31자, 학생 하위집단(20개) 56.68, 전문가 집단(20개) 51.49자였으며, 황희선(2013:923)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문장당 글자 수가 평균 40.9자였다. (황희선, 2015:176에서 재인용)

106) 황희선(2015:180)에서 유료부수가 많은 상위 세 신문사의 칼럼 29편을 분석한 결과, 중앙일보의 칼럼에서 연결어미가 가장 많이 쓰였다.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는 필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2015년의 필진과 지금의 필진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텍스트 차원에서의 연결어미 사용 문맥을 보는 것이므로 필진이 달라진 것은 크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필자	소개	발행일	칼럼 제목	칼럼 번호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2021.01.04.	방역정권의 정신구조를 묻는다	1-1
		2020.12.21.	K-구재는 어디에?	1-2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2020.12.30.	남아있는 나날과 앞으로의 길	2-1
		2020.12.02.	정책의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	2-2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21.01.20.	우리만 몰랐던 모더나와 파우치의 숨은 비밀	3-1
		2020.12.23.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게 덤빌 수밖에 없다”	3-2
이하경	주필·부사장	2021.01.25.	눈먼 정치인이여 들어라 “사격중지!”	4-1
		2021.01.11.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야당 분열 노린 불장난인가	4-2
최훈	편집인	2021.01.19.	2045년 대한민국에서 온 편지	5-1
		2020.12.22.	“지지”	5-2

3.2. 분석 내용

주로 사용하는 연결어미인 ‘-고’, ‘-지만’, ‘-(으)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총 10편의 칼럼에서 ‘-고’는 81번, ‘-지만’은 17번, ‘-(으)며’는 9번 사용되었다.



<그림 1> 연결어미 사용빈도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연결어미는 ‘-(으)며’이다. 연결어미 ‘-고’가 가장 많아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문장과 문맥에 사용되어 오히려 제대로된 의도를 알기 어렵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이번 집행정지는 기각시키고 시간을 두고 본안 소송에서 다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2)

(ㄴ) 화가 난 바이러스를 잠재우려면 탐욕을 절제하고 공존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바이든은 “우리는 정치를 제쳐두고 하나의 국가로서 이 팬데믹을 마주해야 한다”고 했다. (4-1)

(ㄷ) 곧바로 7월 말 로열티 등 기술개발 지원금 9억95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8월 13일에는 15억 달러(1조7700억원)를 선불로 주고 1억회 분 백신을 선점했다. (3-1)

위의 예시는 한, 두 문장에 ‘-고’가 여러 번 사용된 것들이다. 필자가 의도한 바가 있겠지만, 그 수가 많아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3. 칼럼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응집성과 의도성

3.1. ‘-지만’, ‘-(으)며’

<‘-지만’>

이하경

1. 친문 강경파가 “쉽게 용서하면 다시 힘을 길러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김용민 의원)이라며 반발하지만 큰 흐름은 잡혀 가고 있다.

이철호

2. 모더나 백신은 그 직후 로열티를 물고 첨단 LNP를 사용한 덕분에 값은 비싸지만 영하 20도에서 보관 가능하다. 반면 자체 LNP 기술을 이용하는 화이자 백신은 값은 싸지만 영하 70도의 콜드체인이 필수다.

3. 그는 연일 “mRNA 백신은 새로운 기술이지만 나는 안전성과 성공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파격적인 지원을 응원했다.

---

4. 어제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했고 곧 결정을 내릴 모양이다. 결과는 속단할 수 없지만 징계 자체는 부당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5.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경계해야 한다.

최훈

6. 광화문에 항의하러 가는 자율주행차들의 진입을 국가데이터관리청에서 제어하지만 드론 시위대들의 벌떼 공습에 속수무책.

---

7. 고된 엄마들 입에 따라다니는 “지지”가 심오한 불법(佛法)에서 유래된 의성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 하고 싶은 말은 “지지”일 듯싶다.

송호근

---

8. 이력서를 백번 냈지만 여전히 백수, 합격과 대기통지를 동시에 받는 일이 다반사다.

염재호

9.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해결, 평화통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등 포부는 대단했지만 지금 황혼기를 앞둔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0. 인생으로 보면 치열하게는 살았지만 허탈한 황혼을 맞게 된 것이다.
11.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민주화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많은 진보 지식인들은 이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12.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립하지만 결국은 타협과 양보를 통해 적절한 차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참모습이다.
13. 여당의 전 대표는 앞으로 20년 집권의 길을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앞으로 20년 민주주의의 갈 길을 고민했으면 한다.
---
14. 좋은 정책 의도였지만 결과는 달랐다.
15. 흔히 외교정책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지만 도덕이 매우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1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선한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장의 균형상태를 인위적으로 깨트리는 정책 수단은 잘못되었다.
17. 자연상태로 물이 흐르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아 환경을 파괴했다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극렬하게 비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4대강사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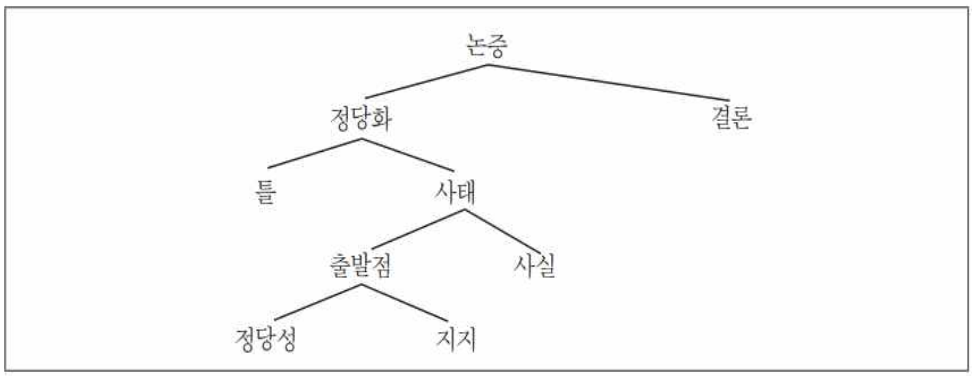
<'-(으)며'>
이철호
1. 미국·유럽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mRNA 백신에 발 빠르게 올라탔다.
최훈
2. 1인 가구, 혼술, 혼밥이 대세다. 100여 년 함께 사는 건 무리라며 졸혼(卒婚)도 늘어난다.
3. 기사 중 공통적이며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슈들로 발췌 인용, 재구성함.
---
4. 잘못된 행동을 그치라며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말이 "지지"다.
염재호
5. 새해 다짐한 일들은 잘 이루어졌는지, 나 자신을 괴롭히며 무리하게 산 것은 아닌지, 삶의 깊이를 고민하기보다 바쁜 현실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내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보람보다는 후회가 앞서는 것이 연말의 일상이다.
6.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영국작가 이시구로 카즈오의 『남아있는 나날』에서는 대저택의 노집사가 살아온 날들을 회고하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담담히 그려지고 있다.
7. 남아있는 나날에 주어진 삶의 의미를 관조하며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이다.
8. 이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남아있는 나날을 고민할 때가 왔다.
9. 우리가 소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시대전환과 같은 소수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가며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이다.

연결어미 사용 빈도를 보면, 필자에 따라 연결어미 사용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경, 송호근 필자는 각 두 편의 칼럼에서 '-지만'만을 한 번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문장이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전문가 필자의 문장 당 짧은 글자수, 높은 응집성을 보여준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결어미를 주로 사용한 염재호 필자의 두 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1과 2-2 칼럼은 같은 필자임에도 '-(으)며' 연결어미 사용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2-1 칼럼에서는 '-(으)며'가 다섯 번 쓰였으나, 2-2 칼럼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2-1에 쓰인 '-(으)며'는 RST 이론에 따르면 주로 '연결[107]'의 수사의미관계에서 사용되었다. '-(으)며'가 쓰인 문맥은 앞, 뒤 핵들 간의 의미 관계 없이 다중핵으로 연결되었다. 즉 긴밀한 논증 구조가 필요한 문맥이 아니라는 것이다[108].

2-1 칼럼의 도입부에 '-(으)며'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칼럼은 연말의 일상과 그리고 이시구로 카즈오의 『남아있는 나날』의 일부에 대해 의견을 적고, 문재인 정부의 남아있는 나날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본론으로 넘어간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도입부에서 '-(으)며'가 네 번 사용되는데, 이 부분은 에세이 형식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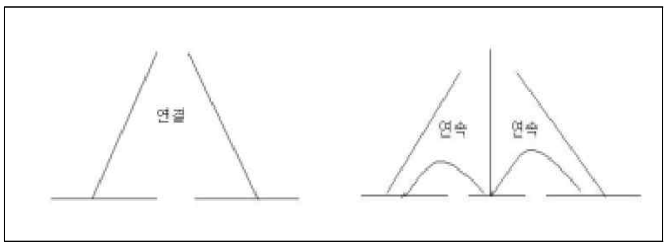


<그림 2> van Dijk(1987)가 주장한 논증의 초구조[109]

107) '연결'의 수사 의미 관계(이소현, 201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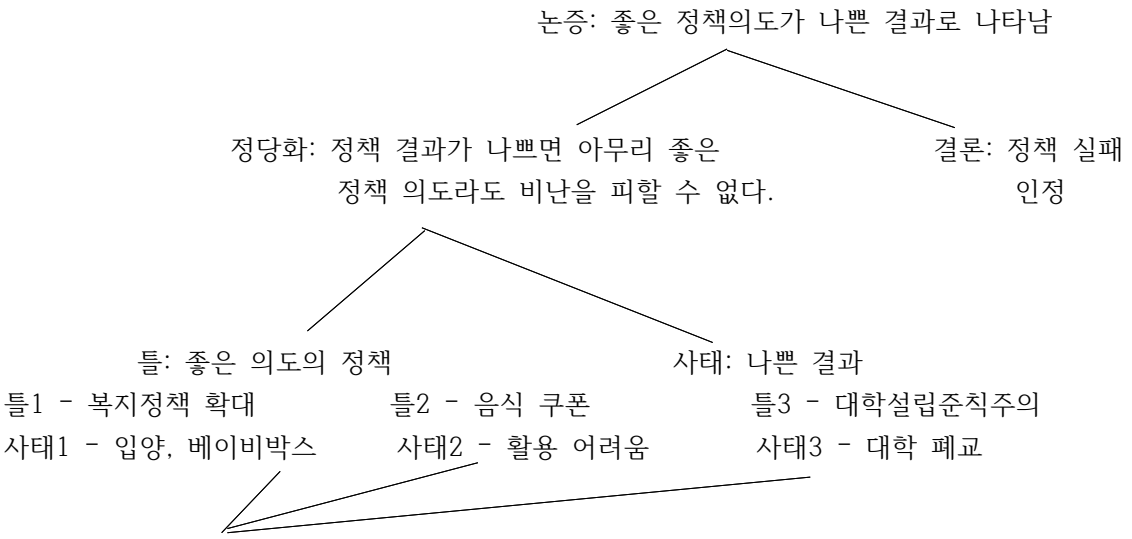
연결(joint)
이 도식은 연결이라 불리는데, 어떤 연결고리도 갖지 않는다. 이 도식은 다중핵이며 핵들 간에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의미 관계도 없다.

108) '연결'은 '연속'과는 서로 다른 수사 관계인데, 도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결'은 핵과 핵 사이의 의미적인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없고 단순히 연결만 된 관계이며, '연속'은 핵과 위성이 서로 연속된 의미 관계를 갖는다. (황희선, 2015:182)



109)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81) 참조

반 다이크는 논증의 초구조를 위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2-1 칼럼에서 '-(으)며'가 사용된 문맥은 아래와 같은 논증 텍스트의 초구조를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2-2 칼럼에서는 도입부부터 논증의 초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2 칼럼의 초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칼럼은 위와 같이 도입부부터 논증의 초구조를 갖는 논증 텍스트로 분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결'의 수사의미구조를 갖는 '-(으)며'가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으)며'가 논증 텍스트의 초구조에는 선호되지 않고, 보다 긴밀한 논증 과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장이 길어지는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으)며'와 같은 연결어미는 텍스트 차원에서 긴밀한 논증 과정이 아니라는 필자의 의도를 내포한다. 긴밀한 논증 과정이 아니라는 점은 van Dijk가 제시한 거시 규칙 중 '생략 규칙'과 '선택 규칙'이 사용될 수 있는 문맥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글의 응집성을 위해 생략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아/어서', '-니까'

또한 특이한 점은 10편의 칼럼에서 '-아/어서'와 '-니까'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어서'와 '-니까'는 원인이나 이유, 근거 등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로, 분석 대상 글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인과적인 내용의 경우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단문으로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증 텍스트인 칼럼에서 인과적 내용은 필수인데 논리적인 전개, 즉 논증의 과정은 단문으로 응집성 있게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이 연구는 연결어미가 텍스트 차원에서 갖는 응집성과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필자가 작성한 논증 텍스트인 '칼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결어미가 문맥에서 갖는 역할을 찾고자 하였다. 응집성이 높은 논증 텍스트에서 '-아/어서'와 '-니까'와 같은 인과적 표현의 연결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표면적인 언어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으)며'의 사용 양상이 특징적으로 두드러졌는데, 같은 필자라고 하더라도 논증의 초구조를 갖는 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반면, 에세이와 같은 내용의 문맥에서는 '-(으)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통해 필자의 '의도'와 '응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추후 이와 관련된 양적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내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해윤(2007), 담화표지에 의한 텍스트 구조 분석, 독어학 15권, 한국독어학회, pp.289-312.

이해윤·전수은(2007), 텍스트 유형별 구조 비교분석 - 수사구조이론을 기반으로-, 텍스트언어학 23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31-254.

이소현(2012),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정희모·김성희(2008), 대학생 글쓰기의 텍스트 비교 분석 연구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2집, 국어교육학회.

정희모(2011), 대학생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특성 비교 -대학생 필자와 전문 필자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35권, 한국어교육학회.

최승기(2013), 수사구조이론을 활용한 논증적 텍스트의 구조 분석-정당 논평 텍스트를 중심으로, 강릉원주대 박사학위논문.

_____(2014), 응집성 관계와 수사구조이론의 인과성과 주관성에 대한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 36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391-412.

황희선(2013), 주장 텍스트의 응집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겨레 어문연구 5집, 한겨레어문학회. pp.43-60.

_____(2014), 글의 조직 긴밀도에 관한 연구 -대학생과 외국인의 칼럼을 대상으로-, 언어와 정보사회 23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331-346.

_____(2015), RST를 활용한 연결어미 사용 문맥 연구, 語文論集 63, 중앙어문학회, pp. 169-190.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van Dijk, Teun A.(1978), *Textwissenschaft eine inter Diszipilinare Einfubrung*(정시호 옮김(2001), 텍스트학, 아르케).

2021년 2월 18일
제44회 중앙어문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남북한 국어사전의 흉내말 비교 연구

박동근(대진대학교)

1. 머리말

이 연구는 남북한 국어사전에서 흉내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대조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주요 어휘 범주로서 흉내말의 주요한 특징과 이를 사전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국어는 흉내말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모두 고유어(순우리말)로 그 수가 적지 않아 국어사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어사전을 편찬할 때는 흉내말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며 흉내말 전문 사전 편찬이나 국어사전에서 흉내말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110] 특히 북한은 우리의 의성어·의태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상징사'로 설정하여 독립된 품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북한의 문영호(2012:65)는 단어를 조어적 측면에서 토가 붙는 부류와 토가 붙지 않는 부류로 구분하고 토가 붙지 않은 단어 부류는 다시 수식어로 쓰이는 단어 부류와 독립어로 쓰이는 단어로 부류로 분류한 뒤, 객관의 모양과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 부류'를 '상징사'로 설정하였다. 이는 용언의 수식어로 쓰이는 단어 부류인 부사에서 상징사를 별도의 품사로 독립시킨 것이다.[111] 연변대학의 김성희(2015)에서는 오랜 봉건 통치배들에 의해 강요된 사대주의로 조선말의 어휘 구성에 한자말이 생겨났으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유럽 자본주의의 침투로 외래어들이 조선어의 어휘 구성에 자리잡게 되었지만 본딴말(흉내말)에는 외래적 언어요소의 침투가 전혀 없는 고유성이 가장 순수하게 보존된 어휘부류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는 음운, 형태, 통사, 화용 규범,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지 않은 논의들이 있었고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이질화의 문제로 시작해서 궁극의 지향점은 대개 언어 통일 또는 통합에 있었다. 이질화의 핵심은 언어에 대한 남북의 태도 차이로 이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반해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어휘 범주의 성격상 흉내말은 언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순수하게 사전학적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110) 국어사전에 흉내말 처리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흉내말 뜻풀이의 어려움을 논한 이극로(1938)을 비롯하여 김홍범(1993, 1998, 2000, 2007)의 일련의 연구와 조남호(1993, 2017), 서정욱(1994), 신중진(2001), 박동근(2014), 손달임(2016) 등의 논의가 있다. 사전에서 흉내말 처리에 대한 지침은 국립국어원(2000)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1) 남한에서도 의성어를 일괄 독립어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문영호(2012)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태어도 독립어로 보는 입장이다. 김홍범(2019)은 기능적 측면이나 조어적 측면에 상징사 설정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한의 규범 사전을 대표하는『조선말 대사전』과 남한의『표준국어대사전』을 기본으로 사전학적 측면에서 남북이 사전에서 흉내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112]『조선말대사전』(1992)는 북한을 대표하는 국어사전으로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87년에 개정한 <조선말규범집>을 반영한 사전으로 약 33만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후 첫 번째 증보판인『조선말대사전』(2006)에서는 약 40만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였고. 이후 2017년 두 번째 증보판이 발간되었다.[113]『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9년에 약 48만 어휘를 수록한 초판이 발간하였으며, 꾸준히 수정·보완 작업을 하였으며 전자사전 형태로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흉내말을 지칭하는 관련 용어가 남북한 사전에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형태, 의미 순으로 비교·고찰하도록 한다.[114]

2. 용어와 개념 비교

먼저, 흉내말, 시늉말, 상징어 등으로 통칭되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관련 용어가 남북한 사전의 표제어로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115]

(1)『조선』의 흉내말 관련 표제어들

상징어 [象徵語] [명]《언어》 소리나 모양을 직접 본따서 나타내는 말.《졸졸, 빵끗, 칙칙, 폭폭, 어슬렁어슬렁》과 같은 것이다.

흉내말 [명] 어떤 소리나 모양 또는 행동을 그대로 본따서 나타내는 말.

본딴말 [명]《언어》 사물현상의 소리, 모양, 성질, 움직임 등을 말소리로 직접 본따서 나타내는 단어.《하하》,《부엉부엉》,《졸졸》과 같이 사람이나 짐승 또는 자연계의 소리를 본따서 나타내는 소리본딴말과《씨물씨물》,《불긋불긋》,《느릿느릿》 등과 같이 사물현상의 모양이나 성질, 움직임을 본따서 나타내는 모양본딴말이 있다. 교착어에 많으며 우리 말에 매우 풍부하게 발달되여있다.

의성의태어 [擬聲擬態語] [명]⇒동의어:<본딴말>.

의성어 [擬聲語] [명] ⇒동의어:<소리본딴말>.

의태어 [擬態語] [명] ⇒동의어:<모양본딴말>.

소리본딴말 [명]《언어》 사물현상의 소리를 말소리로 직접 본따서 나타내는 단어.《호호》,《꾀꼴꾀꼴》,《땡땡》과 같이 사람이나 짐승이 내는 소리나 자연계의 소리를 본따서 만든 단어들이다. 교착어에 많으며 우리 나라 말에 매우 풍부하게 발달되여있다

모양본딴말 [명]《언어》 사물현상의 모양, 성질, 움직임을 말소리로 본따서 만든 단어.《벙글벙글》,《무럭무럭》,《꾸물꾸물》 등과 같은것이다. 교착어에 많으며 우리 말에 매우 풍부하게 발달되

---

112) 필요에 따라『표준국어대사전』이후 남한에서 발행한 유일한 대사전인『고려대한국어대사전』(2011)을 참고할 것이다.

113)『조선말대사전』은 현재 북한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kiri.com/)와 '조선의 오늘'(https://dprktoday.com) 두 군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우리민족끼리'에서 제공하는 사전은 북한의『현대조선말사전』을 저본으로 인터넷 환경에 맞게 전자화한 31만 여개의 올림말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의오늘'에서 제공하는 것은 2017년『조선어대사전』을 저본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14) 본고의 기술에서는 '상징어, 시늉만, 본딴말, 흉내말' 중 '흉내말'을 대표로 삼도록 한다.

115)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남한의 사전은『표준국어대사전』(줄여서『표준』) 북한의 사전은『조선말대사전』(줄여서『조선』)을 말한다.

여있다.

북한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상위어로 흉내말을 지칭하는 말로 상징어, 흉내말, 본딴말, 의성의태어를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상징어, 흉내말, 본딴말을 각각 별개의 단어처럼 뜻풀이하고 상호간에 관련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뜻풀이나 예시로 볼 때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뜻풀이에 이들이 기본적으로 '본따서 나타내는 말'이라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단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징어, 흉내만, 본딴말 가운데 '본딴말'에 상세한 풀이를 하고 있어 이를 세 단어의 대표어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딴말은 다시 본따는 대상에 따라 '소리본딴말'과 '모양 본딴말'고 구분하여 표제어로 등재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의성어, 의태어와 동의 관계로 맺고 있다. 뜻풀이는 '소리본딴말'과 '모양본따말'에 하고 있어 이를 대표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표준』의 흉내말 관련 표제어들

상징-어(象徵語) 명〔어〕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 의성어와 의태어로, '멍멍', '탕탕', '아장아장', '엉금엉금' 따위가 있다

흉내-말 명〔어〕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의 소리, 모양, 동작 따위를 흉내 내는 말. 의성어와 의태어 따위가 있다. ≒시늉말.

시늉-말 명〔어〕 =흉내말.

의성^의태어(擬聲擬態語) 〔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의성-어(擬聲語) 명〔어〕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멍멍', '땡땡', '우당탕', '퍼덕퍼덕' 따위가 있다. ≒사성어, 소리시늉말, 소리흉내말, 의음어. (참)의태어.

의태-어(擬態語) 명〔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아장아장', '엉금엉금', '번쩍번쩍' 따위가 있다. ≒꼴시늉말, 꼴흉내말, 짓시늉말, (참)의성어.

소리흉내-말 명〔어〕 =의성어.

꼴-흉내말 명〔어〕 =의태어.[116]

소리시늉-말 명〔어〕 =의성어.

꼴-시늉말 명〔어〕 =의태어.

짓시늉-말 명〔어〕 =의태어.

사성-어(寫聲語) 명〔어〕 =의성어.

의음-어(擬音語) 명〔어〕 =의성어.

『표준』에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칭하는 말로 상징어, 흉내말, 시늉말과 의성의태어를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흉내말과 시늉말은 동의어로 처리하고 흉내말을 대표어로 삼아 뜻풀이를 하고 있다. 뜻풀이의 지시 대상으로 볼 때 상징어는 흉내말이나 시늉말과 같은 범주의 말이나 이들과 동의관계로 처리하지 않고 좀더 언어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뜻풀이를 하였다.[117] 의성어와 의태어는 지시 대상에 따라 흉내말을 가르는 가장 전형적인 용어이다.『표준』에서는 이를 대표어로 삼고 나머지 용어는 이와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흉내말의 하위어는 '소리흉내말'과 '꼴흉내말'로 시늉말에 대해서는 '소리시늉말'과 '꼴시늉말/짓시늉말'을 표제어로 올렸다. '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상위어로 볼만 하지만 이에 대해 언중이 관련어로 인식하는 것은 약한 것 같다. 이에 의성의태어를 의성어와 의태어의 상위어 표제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

116) '소리흉내-말'과 '꼴-흉내말' '꼴-시늉말'과 '짓-시늉말'의 형태소 분석 표시에 일관성이 없다.

117) 표제어로 '본딴말'이 있으나 북한말로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용어로 '상징부사'를 표제어로 싣고 있으나 품사 차원의 용어이므로 (2)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닌가 한다.[118] 이외에 『조선』에 없는 한자어로 사성어와 의음어를 의성어와 동의어로 처리하여 수록하고 있다. 학술용어로는 '상징어'의 불투명성을 명확히 하는 '음성상징어'가 사용되나 『표준』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의성어, 의태어 외에 제 삼의 분류로 의정어(擬情語)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표준』의 표제어에는 없다. 의성어인 소리흉내말에 대해 모양이나 움직임을 모방한 말을 꼴흉내말로 수록하였는데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모양흉내말'은 표제어로 없다.[119] 이외에 『조선』에 없는 사성-어(寫聲語), 의음-어(擬音語) 등이 『표준』에 표제어로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한의 흉내말 관련 용어 비교[120]

북한	남한
상징어	상징어
흉내말	흉내말
	- 소리흉내말
	- 꼴흉내말
	시늉말
	- 소리시늉말
	- 꼴시늉말
	- 짓시늉말
본딴말	
- 소리본딴말	
- 모양본딴말	
의성의태어	의성의태어
- 의성어	- 의성어
- 의태어	- 의태어
	사성어
	의음어

118) 구글에서 완전일치로 검색한 결과 각 단어의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119) 구글에서 완전일치 조건으로 사용 빈도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상징어'는 의성어·의태어의 상위어의 뜻 위에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추상적으로 나타낼 때 더 널리 사용하므로 구글의 검색 결과가 의성어·의태어의 의미로 쓰인 상징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검색어	출현 빈도
흉내말	17,600
시늉말	3,690
상징어	77,500
의성의태어	19,300
음성상징어	7,560
의성어	2,640,000
의태어	2,380,000
소리흉내말	1,740
꼴흉내말	302
짓흉내말	8
모양흉내말	573
소리시늉말	800
꼴시늉말	211
짓시늉말	595
모양시늉말	127

120) 이는 사전 표제어를 대상으로 한 비교이므로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각 빈칸의 어휘들이 남과 북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표제어의 형태 비교

흉내말은 자음에서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와 모음에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응에 따른 말맛(어감)의 차이가 분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늘 규칙적인 것은 아니어서 흉내말에 체계에 빈칸이 존재한다.[121]

<표 2> 흉내말 체계의 빈칸

양성모음			음성모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반짝반짝	빤짝빤짝	*판착판착	번쩍번쩍	뻔쩍뻔쩍	*펀척펀척
*동동	똥똥	통통	*둥둥	뚱뚱	퉁퉁
보슬보슬	*뽀슬뽀슬	*포슬포슬	부슬부슬	*뿌슬뿌슬	*푸슬푸슬
*다금다금	따끔따끔	*타큼타큼	*드금드금	뜨끔뜨끔	*트큼트큼
*발락발락	*빨락빨락	팔락팔락	] *벌럭벌럭‘	*뻘럭뻘럭	펄럭펄럭

흉내말 체계의 빈칸은 역사적 요인이나 흉내말의 의미를 고려할 때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122] Martinet(1960)은 체계상에 빈칸이 생겼을 때 이 불균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변동이 생기는 데 그 자체가 소멸해 버리든지 또는 원래 없던 것이 생기어 빈칸을 매운다는 것이다. 『표준』에 비해 『조대』는 흉내말 체계상에 빈칸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나다.[123]

『표준』과 『조대』에 등재된 흉내말 가운데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자음 대응이 실제 양상의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 흉내말의 자음 대응에 나타나는 빈칸

발씬발씬	**[빨씬빨씬]**			*팔씬팔씬	
*발락발락	**[빨락빨락]**			팔락팔락	
보송보송	뽀송뽀송			**[포송포송]**	
[북신북신]	*뿍신뿍신			폭신폭신	
반득반득	반뜩반뜩	빤득빤득	빤뜩빤뜩	**[판득판득]**	[판뜩판뜩]
잘금잘금	*잘끔잘끔	**[짤금짤금]**	짤끔짤끔	*찰큼찰큼	

* 해당 어휘 없음, [ ] 『조대』에만 있음

『표준』이나 『조대』 모두 흉내말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대응 쌍을 모두 갖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드물다. 그런데 『조대』는 빈칸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표준』에 비해 자음 대응에 따른 빈칸이 상대적으로 적다.

<표 3>에서 [ ] 안의 흉내말은 『표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조대』에만 표제어로 올라 있는 흉내말이다. ‘발씬’에 대해 된소리 쌍인 ‘빨씬’을 기대할 수 있으나 『표준』에는 없고 『조대』에만 있다. ‘보송보송’에 대해 된소리쌍인 ‘뽀송뽀송’은 『표준』이나 『조대』에 모두 있지만 거센소리의 ‘포송포송’은 『조대』에만 있다.

121) 본고에서는 방언 차이에 형태 차이는 다루지 않는다.
122) 흉내말 체계에 빈칸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박동근(1995) 참조.
123)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대응 쌍을 모두 갖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드물다.

<표 4> 흉내말의 모음 대응에 나타나는 빈칸

파뜩파뜩	퍼뜩퍼뜩	[푸뜩푸뜩]	피뜩피뜩
자칫자칫	[저칫저칫]		지칫지칫
[자깔자깔]			지껄지껄
잘록잘록		[줄룩줄룩]	[질룩질룩]

* 해당 어휘 없음, [ ]『조대』에만 있음

'파뜩파뜩'에 대해 전형적인 모음 대응쌍은 '퍼뜩퍼뜩'이다. 이외에 '피뜩피뜩'이 남북 사전 모두에 표제어로 있다. '파뜩파뜩' 대해『조대』에는 푸뜩푸뜩이 더 있다. 표면형으로 볼 대 '자칫자칫'의 전형적인 모음 대응쌍은 '저칫저칫'이지만『조대』에만 있다. '잘록잘록'에 대해 기대되는 모음 대응형인 '절룩절룩'은 남북 사전에 모두 없다.[124]

<표 5> 흉내말의 모음 대응에 위배되는 쌍들

뾰족뾰족	[뾰죽뾰죽]	뿌죽뿌죽
잘똑잘똑	[잘뚝잘뚝]	절뚝절뚝
잘쏙잘쏙	[잘쑥잘쑥]	절쑥절쑥
[깡총깡총]	깡충깡충	껑충껑충
잘칵잘칵	[절칵절칵]	절컥절컥

* 해당 어휘 없음, [ ]『조대』에만 있음

1988년 개정한 표준어 규정에서 '껑충껑충'에 대응하는 표준어를 '깡충깡충'으로 '깡총깡총'은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 흉내말의 특징인 모음조화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 '깡총깡총'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맞겠으나 언중의 현실 발음을 인정한 것이다. 남한의 의성어·의태어에서 모음조화에 어긋난 것을 표준어로 삼는 것은 예외적인데 반해『조대』의 경우 <표 4>와 모음조화에 어긋난 어형을 표제어로 등재한 것이 적지 않다.[125]

흉내말은 형태상 반복형을 취하는 것이 전형인데 단순형이 자립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것에 따라 단순형이 사전에 등재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단순형의 사전 등재 또한『조대』의 경우가 더 적극적이다.

<표 6> 단순형과 반복형의 등재

[찐득]	찐득찐득
[짤름]	짤름짤름
[잘쏙]	잘쏙잘쏙
[절룩]	절룩절룩

* 해당 어휘 없음, [ ]『조대』에만 있음

예를 들어 <표 6>의 예들은『표준』의 경우 반복형만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는 데 반해『조대』의 경우 단순형과 반복형이 모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126]

---

124) 흉내말의 모음 대응에 대한 자세한 빈칸은 박동근(1995) 참조.

125) 남한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오순도순'에 대해 '오손도손'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126) 국립국어연구원의『사전편찬지침 Ⅱ』(377)에 따르면 "한글학회《우리말큰사전》에는 단독형과 반복형이 모두 있고, 금성판《국어 대사전》에서는 반복형만 있는 경우, 단독형은 어근으로 처리하고 반복형에서 뜻풀이한다. 현재 원고에서는 이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어 있지 않으니 단독형과 반복형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사전을 참조할 것!"라고 있다. 이는 흉내말의 표제어 선정에서『표준』이

4. 흉내말의 뜻풀이 비교

『표준』의 뜻풀이 원칙은 국립국어연구원(2000), 『사전편찬지침 Ⅱ』에 상세히 밝히고 있다. 먼저 흉내말을 크게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분하여 의성어는 '-하는 소리', 또는 '-할 때 나는 소리.'의 형식으로 풀이한다. 의태어의 경우 형상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하는 모양'으로 사물이나 현상의 형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상태'로 풀이한다. 또 촉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느낌'으로 풀이하도록 하였다. 또 의성어와 의태어의 뜻을 겸할 때는 '-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느낌'이나 '-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의 형식을 따르도록 하였다.

(3) 『표준』의 의성어와 의태어에 따른 뜻풀이 방법

쿵쾅-쿵쾅 명 폭발물이나 북소리 따위가 크고 작게 엇바뀌어 잇따라 요란하게 울리어 나는 소리.

반짝-반짝 명 작은 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따끔-따끔 명 따가울 정도로 몹시 더운 느낌

달랑-달랑 명 작은 방울이나 매달린 물체 따위가 자꾸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통상 해당하는 표제어의 품사에 따라 명사는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동사는 동사로 형용사는 형용사로 부사는 부사로 끝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흉내말은 대부분 부사로 처리되어 있는데 뜻풀이는 부사형을 취하지 않고 '소리, 모양, 느낌' 등의 명사로 통일하였다. 주목할 것은 뜻풀이 어형을 '소리, 모양, 느낌'의 3가지로 나누었다는 점인데, 소리는 의성어에 한정되며 의태어는 다시 '모양'과 '느낌'으로 구분하였다.[127]

(4) 『조대』의 의성어와 의태어에 따른 뜻풀이 방법

쿵쾅쿵쾅 [부] 잇달아 자꾸 쿵쾅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반짝반짝 [부] 작은 빛이 갑자기 잠간동안씩 잇달아 비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따끔따끔 [부] 가시가 배기거나 벌에 쏘일 때와 같이 자꾸 아픈 느낌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달랑달랑 [부] 작은 방울 같은것이 흔들리면서 잇달아 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128]

흉내말은 자모 교체에 의해 미묘한 말맛의 차이를 갖게 되며 이러한 차이를 뜻풀이로 변별해 내는 것은 흉내말의 사전 처리에서 난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덜걱'이나 '절걱'과 같이 자모 교체형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난해한 문제이다.

『표준』에서는 하나의 기본 흉내말에 대해 '센말, 거센말'이 여럿이 있으며 자모 교체에 따른 어감의 차이가 정연할 때 기본 표제어 이외의 표제어들은 기본 표제어의 뜻풀이를 반복한 다음에 다음 <표 7>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어감의 차이를 구분하고 하였다.

금성판 『국어 대사전』을 기저로 하고 있어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에 단순형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원칙에 따라 단순 누락된 것일 수 있다.

127) 흉내말에 따라 '소리'와 '모양' 어느 것으로 처리했는지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어휘 개별적인 분석의 문제이므로 다른 기회에 좀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128) 뜻풀이 '-나타내는 말'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사전이 기본적으로 말(단어)의 뜻을 풀이한다는 점에서 잉여적인 정보로 불필요한 방식이라 본다.

<표 7>『표준』의 어감 구분 방식

어감 표현	.	조금 센	센	아주 센	조금 거센	거센	아주 거센	세고 거센	세고 거센
첫음절	여린소리	여린소리	센소리	센소리	여린소리	거센소리	거센소리	센소리	거센소리
둘째음절	여린소리	센소리	여린소리	센소리	거센소리	여린소리	거센소리	거센소리	센소리

뜻풀이는 기본적으로 여린말에서 하지만 센말이나 거센말이 널리 쓰일 경우 그 말에서 풀이한다. 표준에서 이를 적용한 뜻풀이 방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표준』에서 '잘가닥' 계열의 뜻풀이 예시

잘가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까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

잘카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조금 거센 느낌을 준다.

짤가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센 느낌을 준다.

짤까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짤카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세고 거센 느낌을 준다.

찰가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찰까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세고 거센 느낌을 준다.

찰카닥 뿐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아주 거센 느낌을 준다.

『표준』이 뜻풀이를 기본형에 통일하고 나머지는 어감의 차이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면『조대』는 각 어형의 뜻풀이를 모두 달리 풀이하는 방식을 취했다.

(6)『조대』에서 '잘가닥' 계열의 뜻풀이 예시

잘가닥 뿐 작고 단단한 물체가 좀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잘까닥 뿐 작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칠 때 되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잘카닥 뿐 작고 단단한 물체가 세게 맞부딪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짤가닥 뿐 작고 딴딴한 쇠붙이 같은것이 서로 맞물리듯이 부딪칠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짤까닥 뿐 작고 딴딴한 물체가 서로 맞부딪칠 때 좀 새되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짤카닥 뿐 작고 딴딴한 물체가 매우 세차게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찰가닥 뿐 작고 딴딴한 물체가 좀 들어붙으면서 맞부딪칠 때 가볍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찰까닥 뿐 작고 딴딴한 물체가 세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찰카닥 뿐 작고 딴딴한 물체가 좀 세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즉 대상이 되는 물체의 견고함 정도에 따라 '단단한 것과 딴딴한 것, 쇠붙이 같은 것으로

구분하거나 구체화하고 부딪치는 정도에 따라 세게, 매우 세게, 들어붙으면서 등으로 차이를 두고 또 그러한 결과 나는 소리의 속성이 '새되게, 가볍게'등으로 구분하였다. 『표준』의 뜻풀이가 다소 기계적이라면 『조대』의 경우 실질적인 미세한 어감의 차이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129]

박동근(1997:198)에서 흉내말의 반복형은 [반복], [복수의 동작(동시동작)], [복수의 개체], [상태지속」, [강조]의 의미를 실현한다고 보았다. 국립국어원(2000)에서는 『표준』에서 "반복형의 의성 의태어는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뜻풀이에 '계속, 자꾸, 잇따라'를 사용한다.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매우', '아주', '꽤' 등을,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여럿이 다', '여럿이 한꺼번에' 등을, 복수와 반복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여럿이 한꺼번에 또는 하나가 여러 번' 등을, 복수와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여럿이 다 또는 하나가 … 매우/아주/꽤' 등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때 '계속'과 '잇따라'와 '자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계속, 잇따라, 자꾸'의 구분

계속 : 어떤 행위나 태도, 상태, 느낌 따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

잇따라 : 어떤 일정한 행위나 현상이 중간에 끊임이 없이 반복되는 경우

자꾸 : 같은 종류의 행위나 현상이 규칙적으로나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규칙적으로 반복되더라도 반복 간격이 긴 경우에는 '자꾸'를, 짧은 경우에는 '잇따라'를 사용하도록 하여 반복의 지속성에 따라 구분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8) 『표준』의 반복형의 뜻풀이 사례

반짝-반짝 부 작은 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오글-오글 부 좁은 그릇에서 적은 양의 물이나 찌개 따위가 자꾸 요란스럽게 끓어오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따끈-따끈 부 매우 따뜻하고 더운 느낌

말캉-말캉 부 너무 익거나 곯아서 물크러질 정도로 매우 또는 여기저기가 말랑한 느낌.

푹신-푹신 부 여럿이 다 또는 매우 푸근하게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느낌.

『표준』은 반복의 여러 의미 실현 양상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조대』의 경우 따로 지침을 확인할 수 없어 반복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원칙을 알기 어렵다.

(9) 『조대』의 반복형의 뜻풀이 사례

반짝반짝 [부] 작은 빛이 갑자기 잠간동안씩 잇달아 비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오글오글 [부] 사람, 짐승, 벌레 같은것이 한곳에 배좁게 많이 모여 번잡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따끈따끈 [부] 매우 따끈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

말캉말캉 [부] 매우 말캉한 모양을 이르는 말.

---

129) 다만 『조대』와 같은 독립적인 뜻풀이는 해당 표제어의 의미가 마치 관련어들 사이의 의미 경계가 뚜렷하고 뜻풀이에 한정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푹신푹신 [부] 살에 닿는 감촉이 딱딱하지 않고 매우 부드러우며 탄성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따끔따끔 [부] 가시가 배기거나 벌에 쏘일 때와 같이 자꾸 아픈 느낌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따끈따끈'과 '말캉말캉'은 단순형인 '따끈하다', '말캉하다'에 기대어 메타 뜻풀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푹신푹신'은 독자적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알기 어렵다. 반복을 뜻하는 풀이말로 '잇달아', '자꾸' 등을 모두 사용하는데 사례만으로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잇달아'와 '자꾸'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표준』에서는 뜻풀이는 본말과 준말 중 빈도가 높은 쪽에서 하되, 둘 중 어느 하나만 표준어인 경우는 표준어에서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표준』의 본말·준말 뜻풀이 사례

잘각 준 '잘가닥'의 준말.

잘가닥 준 작고 단단한 물체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1) 『조대』의 본말·준말 뜻풀이 사례

잘각 [부] 작고 단단한 물체가 가볍게 맞부딪치거나 달라붙을 때 좀 빠르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잘가닥 [부]작고 단단한 물체가 좀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반면에 『조대』에서는 준말과 본말의 관계로 보이는 말들은 뜻풀이에 관련성을 보이면서 각각 뜻풀이를 하였다. 의성어·의태어는 언중들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그와 가장 가깝게 흉내를 내거나 흉내 내었다고 인식하는 말이다. 단어의 자모 하나 음절 하나는 사물의 소리나 모양, 느낌과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명사와 같은 개념어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점에서 『표준』에서 음절 수가 다른 준말과 본말을 동의어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각각 남북한에서 정부 주도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대상으로 흉내말의 사전적 처리를 사전학적인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면에서 『표준』에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상위어로 '상징어, 흉내말, 시늉말, 의성의태어'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중 시늉말과 흉내말은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의성어를 가리키는 동의어로는 '소리흉내말, 소리시늉말, 사성어, 의음어'가 있으며 의성어에 대표 뜻풀이를 하였다. 의태어의 동의어로는 '꼴흉내말, 꼴시늉말, 짓시늉말'이 있으며 의태어에 대표 뜻풀이를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상위어로 '상징어, 흉내말, 본딴말, 의성의태어가'가 있는데 『표준』에 있는 '시늉말'은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다. 대표어는 '본딴말'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흉내말은 형태상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대응으로 '예삿말, 센말, 거센말'의 대응을, 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응에 의한 '큰말, 작은말'의 대응을, 또 단순과 반복의 대응쌍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 대립 체계가 정밀한 것은 아니어서 많은 체계상의 빈칸이 나타난다. 이러한 빈칸 부분에서 『조대』는 『표대』에 비해 빈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셋째, 의미면에서 『표준』은 흉내말을 크게 '-는 소리, -는 모양, -는 느낌'의 세 가지로 구분한 데 반해, 『조대』에서는 의성어는 '-는 소리', 의태어는 '-는 느낌'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음 대응에 따른 어감 차이를 『표준』에서는 본 의미에 차이를 두지 않고 부가적인 의미로 구분한 반면 『조대』에서는 각 어휘마다 독자적으로 풀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단순과 반복형의 뜻풀이면에서 『조대』에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찾기 어려웠다. 『표준』에서는 준말과 본말의 관계로 보이는 것을 동의어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는 도상성의 큰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부사형 흉내말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즉 흉내말을 어근으로 하여 생산성이 높은 '-하다, -대다,-거리다, -이다' 파생어까지 논의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교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연구원(2000),『사전편찬지침 Ⅱ』.

권경일·김홍범(201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상징어 학습사전의 편찬 연구,『한말연구』46, 31-57.

김성희(2015),『조선어 본딴말 연구』, 역락.

김한샘(2020), 『조선말대사전』(2017)의 거시 구조 분석,『한국사전학』 35, 한국사전학회, 221-249쪽.

김홍범(1993), 한국어 상징어 전문사전의 대조 분석,『원우론집』 20, 연세대학교 대학원, 333-357.

김홍범(1998), 한국어 상징어 사전의 편찬 방안,『한글』239, 한글학회.

김홍범(2000), 국어 사전 의미 정보 기술의 실제와 문제 - 상징 부사류를 중심으로,『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김홍범(2002),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사전 편찬 방안,『한말연구』11, 한말연구학회.

김홍범(2007), 상징어 사전에서 관용어 처리 문제,『한말연구』21, 한말연구학회.

김홍범(2018), 상징사 설정에 대한 논의,『겨레어문학』60, 겨레어문학회, 178-198

김홍범·박동근(2001), 한국어 상징어 사전편찬의 실제,『사전편찬학연구』 11-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01-115.

김홍범·이영주(2012),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 3) -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한말연구』31, 한말연구학회, 145-171.

문영호(2012),『조선어어휘구성론』, 사회과학출판사.

박동근(1995), 흉내말 체계의 '빈칸' 연구,『한말연구』1, 한말연구모임.

박동근(1997), 현대국어 흉내말의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동근(2014), 국아사전에서 흉내말의 다의어, 동형어 판별에 대한연구,『겨레어문학』53, 겨레어문학회, 237-261.

서정욱(1994), 국어 시늉말(의성·의태어) 사전 편찬의 한 방안,『계명어문학』8, 계명어문학회.

손달임(2016),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에 대하여 - 관련어의 유형과 정보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한말연구』 42, 한말연구학회, 83-112.

신중진(2001), 의성의태어 사전 처리와 그 방향 -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관악어문연구』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규동(2003), 조음 위치에 따른 우리말 배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성어 의태어를 중심으로,『언어연구』23, 서울대학교.

이극로(1938), 사전주해난,『한글』, 한글학회, 435-437.

이소령(1997), 사전에서의 '시늉말' 뜻풀이에 대하여,『부산한글』 16, 한글학회 부산지회, 77-100

조남호(1993), 국어사전에서의 의성 의태어 처리,『새국어생활』3-2, 국립국어원,

조남호(2017), 의성의태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개선점,『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191-222

조재수(2000),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맞춤법 : 시늉말 뿌리에'-이'가 붙어서 된 명사 적기,『한말글연구』6, 한말글연구회.

채완(2016),『한불자전』의 의성어 연구,『고기토』8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44-171.

[현대문학]

오장환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정재완의 첫 동시집『해바라기』에 나타난 시적 세계의 양상
사유이미지로서의 시와 풍경의 윤리
이효석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성 고찰

오장환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양소영 (충북대)

1. 서 론
2. 경성의 기계화와 환상 사이에 나타난 경계의 자아
3. 자기 동일성의 환상과 공생으로서의 환상
4. 환상적인 모성을 통한 치유
5. 결 론

1. 서 론

오장환은 1933년 『조선문학』에 「목욕간」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성벽』(풍림사, 1937), 『헌사』(남만서방, 1939), 『나사는 곳』(헌문사, 1947), 『병든 서울』(정음사, 1946)이 있다. 그리고 번역시집으로 『에쎄닌 시집』(동향사, 1946)있다. 오장환 시에 대한 그동안 논의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그의 시를 근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거나 시, 공간적인 측면과 고향의 특성, 여성성과 감정의 양상, 육체의 문제 등 철학적이고 심리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었다.[130] 특히, 오장환은 1930년대 중후반의 암담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식민 권력의 시선에 포획되기를 거부하고 고뇌와 절망이 아로새겨진 지식인의 육체를 퇴폐적이며 비현실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131] 오장환 시에 도둑, 광인, 매춘부, 빈민, 노동계급, 낙오자(「매음부」, 「나포리의 부랑자」, 「어포」, 「항해도」, 「황무지」 등)가 나온다. 시 속에서 그들은

130) 최두석,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오장환 전집2』, 창작과 비평사, 1989.
박호영, 「오장환 시의 모더니즘적 특성」, 『강릉대 인문학보』9호, 1990.
조병춘, 「오장환 시세계 연구」, 『문학 속의 서울』, 백문사, 1994.
박민수, 「오장환 시의 현대성」, 『현대시사상』25호, 고려원, 1995.
조해옥, 「근대인의 불안과 허무주의- 오장환의 『성벽』과 『헌사』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22, 한남어문학회 ,1997.
곽명숙, 「오장환 시의 수사적 특성과 변모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1997.
천영숙, 「1930년대 오장환 시의 근대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2005.
김윤정, 「오장환 문학에서의 '상징주의' 의미 연구」, 『한민족어문학』52, 한민족문학회, 2008.
주영중, 「오장환 시의 낭만성 연구」,『비교한국학』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임지연, 「오장환 시에 나타난 '병든 몸'의 의미의 윤리적 신체성」, 『비평문학』41, 한국비평문학회, 2012.
박정식, 「오장환 초기시의 감정과 비극성」, 『어문논집』66, 민족어문학회, 2012.
이경아, 「오장환 시의 근대성 연구」,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2008.
김진희, 「1930년대, 식민지 근대의 불모성과 여성」, 『여성문학연구』7, 한국여성문학회, 2002.
김종태, 「오장환 시의 여성성에 나타난 현실 인식 방법 연구」, 『한국시학연구』14, 한국여성문학회, 2005.
강경희, 「오장환 시의 근대적 미의식 연구」, 『어문연구』33, 한국어문교육학회, 2005.
남기혁, 「오장환 시의 육체와 퇴폐, 그리고 모럴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6,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윤수하,「오장환 시의 장소성 연구」,『국어문학』62, 어국문학회, 2016.
유성호,「오장환 시의 흐름과 위상」,『한국시학연구』55, 한국시학회, 2018.
정영진,「해방기 오장환의 인민 주권의 상상과 월북의 내적 논리」,『한국시학연구』55, 한국시학회, 2018.
곽효환,「오장환의 동시세계 연구」,『한국시학연구』55, 한국시학회, 2018.
서영희,「오장환 시의 금기 인식과 위반 충동」,『한민족어문학』82, 한민족어문학회, 2018.
131) 남기혁, 앞의 논문, 160쪽.

근대 도시의 삶을 살아가기에 빈곤하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더욱 공포스럽고 야수파적 상상력으로 그들을 재현해 낸다. 즉, 시인은 사회적이고 약자인 그들을 타자성으로 보고 악마적이고 불길하게 환상적으로 표현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오장환 시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측면 즉 환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로지 잭슨의 환상성 이론에 의해 그의 시를 더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오장환 시에 비현실적이며 그로테스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미의식의 특성으로 혹은 모럴과 관련해서 살펴본 논의가 있다. 여기서 오장환이 보여준 원색적이고 비현실적 특성을 자기 내부의 윤리적 균열을 직시하는 성찰의 시선 양상으로 살펴보거나[132] 현실의 아픔과 타락한 인간상, 보수와 진보의 불협화음으로 살펴보았다.[133] 정리하자면, 기존의 논의들은 오장환 시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면, 환상적인 부분을 죄의식, 현실의 아픔, 시대의 불협화음으로 연결해서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오장환 시를 보편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고 그 결과, 오장환만이 지닌 특수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 미흡했다. 이런 점을 문제의식으로 보아 본고는 오장환 시에 나타난 환상적인 부분을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치이자, 절망적인 사회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의 시에 나타난 환상은 자신의 내적 결핍에 원인을 두며, 욕구 표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오장환은 시에서 비현실적인 것을 통해 현실을 전복시키지만 현실의 도피는 아니다. 오히려 그는 환상성을 통해 공생관계를 모색하게 되며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

"환상성이란, 착각, 환각 등을 포함하는 그릇된 지각이다. <착각>이란 외부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 잘못되거나 비현실적인 지각 또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 환각이란, 외부의 자극이 실제로 없는 데도 마치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지각하는 연상이다. 환상은 환타지하는 능력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의 소산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띤다. (반드시 시각적인 것만은 아닌 의미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생각으로서의 환상은 사고와 지각 사이에 위치한다."[134] 환상은 전혀 생소한 비인간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도 초월적인 것이 아니며, 이 세계의 요소들을 전도시키는 것, 낯설고 친숙하지 않으며 그리고 명백하게 새롭고 절대적으로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그 구성 자질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결합하는 것이다.[135] "환상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phantasicus에서 나온 말로, 그것은 '가시화하다. 명백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상상적 활동은 환상적이며 모든 문학작품은 환상물이 된다. 지상과 지하 그리고 천상 세계를 쉽게 이동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결합하며 죽은 사람과의 대화를 허락하는 환상은 몽상 비정상적 상태, 기이한 말 인체의 행동, 어이없는 상황 등이 그것의 규범이 된다."[136] 환상은 진실의 적극적 구현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자극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진실을 시험하는 것이다.[137] 또한 환상은 정치적인 단위들에 대한 거부,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의 병치, 고정성에 대한 저항 등이 환상이 지니는 공격적 경향을 말한다. 게다가 환상은 사회적 맥락의 한계와 금기에 맞서 투쟁하는 반문화적 전복과 위반의 문화 양식이다.[138] 문학에서 환상의 조성을 욕망의 표현 방식으로 보는 관점은 장르론에 버금가는 입지를 가지며, 이런 시각을 대표하는 논자가 로지 잭슨으로, 그에 의하면

132) 위의 논문, 185쪽.
133) 강경희, 앞의 논문, 326쪽.
134) 조보라미, 「최인훈 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1999, 6쪽.
135)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환상성』, 문학동네, 18쪽.
136) 위의 책, 25쪽.
137) 위의 책, 26쪽.
138) 이창민, 『현대시와 판타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17~19쪽.

환상은 욕망에 관한 문학으로서 부재와 상실로 경험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139] 로지 잭슨은 작가들에 따라 환상이 다르게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가 생각한 환상은 사회적으로 받은 결핍을 채우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런 점은 현실에 대한 저항이다. 로지 잭슨은 문학에서 환상물들이 사회 여러 현상 속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로지 잭슨에 의하면, 환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제시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화의 제한을 드러내는데, 요컨대, 환상은 문화의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틀의 한계를 추적하는 것이다.[140]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정과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미지들은 커다란 역사적 변화를 겪고, 세속화되지 않은 사회는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것에 관하여 세속적 문화와는 다른 믿음을 지니고 있으며, 타자성의 제시는 서로 다르게 상상되고 해석된다.[141] 로지 잭슨의 환상은 정상적인 지각을 전복하고 보는 것의 '사실주의적' 방식을 무너뜨리려는 환상물의 시도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는 전복되고 동물, 식물 광물 등의 종의 구분 역시 흐려진다.[142] 이런 혼란의 중심부에 자아와 타자, 나와 나 아닌 존재, 나와 당신의 문제적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는 나와 나 아닌 존재,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론적 요소들의 변이체들이며, 환상적인 것이 가하는 주요 공격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구별 자체를 제거하고 분리와 차이에 저항하고 자아와 타자의 통합성을 재발견하려는 것이다.[143] "환상문학의 등장은 18,9세기 서구 문학의 주류였던 리얼리즘 문학의 쇠퇴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사실주의의 뒤를 이은 상징주의가 주관적, 관념적,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환상성을 지닌 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기법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1920년대의 모더니즘은 작품의 환상성에 박차를 가하였다."[144]

오장환 시에서 환상은 근대적인 현실에서 주는 여러 절망감과 소외감에 기인한다. 이런 혼란은 그의 시에서 퇴폐적이며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더욱 확장되어 갔다. 오장환이 보여준 환상은 지배적인 현실의 저항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아니다. 다시 말해 오장환 시에서 환상은 비현실적인 것을 통해 현실을 전복시키지만 현실도피는 아니며, 오히려 그는 환상성을 통해 공생 관계를 모색하게 되며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

---

139) 위의 책, 55쪽.

140) 로지 잭슨, 앞의 책, 38쪽.

141) 위의 책, 38쪽.

142) 위의 책, 70쪽. (불가능성과 불가능성은 머뭇거림과 모호함을 통해 구조적 차원에서 그리고 형태 없음, 텅 빔 불가시성의 이미지를 통해 주제적 차원에서 기입된다. 보이지 않는 것 말해지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위협으로 그리고 어떤 대상이나 형상이 어느 때라도 들어갈 수 있는 암흑의 영역으로 남는다. 개별 주체와 세계, 타자, 대상의 관계는 익히 아는 것이거나 안전한 것이기를 멈추며 이행의 문제는 현대 환상물의 핵심이 된다. 위의 책, 70쪽.)

143) 로지 잭슨, 앞의 책, 73쪽.

144) 박호영, 「한국현대시의 환상성 연구」, 『2004년도 한국현대문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2004, 85쪽. 최근 시 가운데 환상문학으로 간주되는 시 동향은 비재현적인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이다. 1. 일종의 소위 시뮬라크르를 만들어 가는 시들이다. 세계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지들 배후에는 실재가 없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부재하는 세계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지들 배후에는 실재가 없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부재하는 세계 대신에 실재로 오인되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 시의 본령이라 주장하는 시인들이 있다. 3. 아무 외적 참고항을 지니지 않지만 대단히 실재적인 텍스트 내적 환상을 창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노혜경, 「세기말 시의 환상성, 환각과 환멸 사이로 난 좁은 길」, 『오늘의 문예비평』, 1997, 199쪽.)

2. 기계화된 도시와 환상 사이에 나타난 경계성 자아

1930년대 식민지 현실 속에서 나타난 근대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여러 복잡하고 혼란스런 상황을 만들었고,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에서 오장환은 경계성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1930년대 도시는 근대 문명을 압도해 왔고, 이런 점은 절망적인 매혹을 이끌었다. 당시 시인은 현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풍요로움보다 공허함이 우세하였고, 그의 언어들은 사회적 일탈자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시인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상적 자아, 즉 문화적으로 형성된 에고와 일치하지 않는 파편화된 형상들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시에서 희극과 비극의 교차, 기이한 현상 등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점은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당시 경성은 어떤 의미일까. 경성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차이를 낳는 차이를 인식하고, '여성', '가부장제', '식민화'와 같은 이론적 범주들, 즉 진지한 비교지식뿐 아니라 정치적 행동의 본질적 범주들에 권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금지하는 다양한 각인들, '장소들' 혹은 '역사들'에 대한 지각"들이 존재한다.[145]

수부의 화장터는 번성하였다. 산마루턱에 드높은 굴뚝을 세우고 자그르르 기름이 튀는 소리
시체가 타오르는 타오르는 끄름은 맑은 하늘을 어지러놓는다.
시민들은 기계와 무감각을 가장 즐기어한다.
금빛금빛금빛금빛 교차되는 영구차
호화로운 울음소리에 영구차는 몰리어오고 쫓겨간다.
번잡을 존중하는 수부의 생명/ 화장장이 앉은 황천고개와 같은 언덕 밑으로 市街圖는 나래를 펼쳤다.

덜크덩 덜크덩 화물열차가 철교를 건늘 제
그는 포식하였다.
사처에서 운집하는 화물들
수레 안에는 꿀꿀거리는 도야지 도야지도 있고
가축류- 식료품. -원료. 원료품, 재목, 아람드리 소화되지 않은 재목들--
석탁-중석-아연-동, 철류-
보따리 멱대기 가마니 콩, 쌀, 팥, 목화, 누에꼬치 등
거대한 수부의 거대한 위장
관공용이—
민사용이—
화물, 화물들
.....
공장 속에선 무작정하고 연기를 품고 무작정하고 생산을 한다.
끼익 끼익 기름 마른 피대가 외마디 소리로 떠들 제
직공들은 키가 줄었다.
어제도 오늘도 동무는 죽어나갔다.
켜로 날리는 몬지처럼 몬지처럼

145) 정영화,「1930년대 여성 문학의 근대성 인식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2003, 26쪽

산등거리 파고 오르는 土墓들
썩은 새에 굼벙이 떨어지는 추녀들
이런 집에선 먼 촌 일가로 부쳐온 여공들이 폐를 앓고
세멘의 쓰레기통 룸펜의 만거 - 다리 밑 거적대기
노동숙박소
행려병자 무주사? - 깡통
수부는 등줄기가 피가 나도록 긁는다.

「首府」부분

「수부」는 당시 도시의 상황을 절망적인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시편이다. '수부의 화장터는 번성하였다.'에서 도시는 죽음과 절망의 공간을 의미한다. 비극적 공간에 "시체가 타오르는 끄름은 맑은 하늘을 어지러 놓"고,"산마루턱에 드높은 굴뚝을 세우고 자그르르 기름이 튀는 소리"가 흘러나오며 "시민들은 기계와 무감각을 가장 즐기어한다." 즉, 경성은 기계화가 되었고 시적 화자에게 그런 현실은 참혹했다. 기계화가 되었다는 것은 삶이 편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편리함은 고립화를 만들 수 있다. 벤야민에 의하면, 기계화는 야만적인 원시상태를 만들며 고립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은, 이전에는 그러고 싶다는 필요성에 의해 지속되어 왔지만 이제는 마찰 없는 사회적 메카니즘 속에서 점차로 둔화되어 가며, 이러한 메카니즘이 완벽해질수록 특정한 행동 양식과 특정한 감정의 활동은 무력하게 된다.[146] 다시 말해, 화자가 "무감각을 가장 즐기어한다."는 것은 상처입고 썩어가는 도시에 대해 더 이상 통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가 감각을 한다는 것은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일 뿐만 아니라 감각 그 자체에 몰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각은 대상 구석구석까지 시인의 내밀한 시선이 물들이고 나아가 시인을 대상과 동화시키는 것, 대상과 교감하며 느끼는 것[147]을 의미한다. 무감각을 가장 즐긴다는 것은 반어적으로 슬픔과 절망을 강조한 표현이다. 시인은 1930년대 근대적인 여러 현상들에서 오는 혼란을 통해 다른 대상과 교감이 중단되었다.

특히, "수부의 생명/ 화장장이 앉은 황천고개와 같은 언덕 밑으로 시가도는 나래를 펼쳤다."에서 수부는 "화장장이 황천고개의 시가도"처럼 더 이상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1930년대 경성은 식민지 근대화가 되었지만 기계화된 도시로 점차 변했다. 그 결과 도시는 몰락과 죽음의 이미지가 강한 "화장장이 황천고개의 시가도"가 되었다. 즉, 도시는 근대화가 되어 매혹적이지만 생명력이 없어 고립의 공간이 되어갔고, 이 공간은 점차 혐오스럽고 불쾌하게 변했다. 시인은 매정한 도시를 산책하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자신은 더욱 현실로부터 고립되었다. 위의 시에서 도시의 기계화 현상은 공장의 일상을 통해 더욱 자세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장은 계속적으로 연기를 품으며 무언가를 생산하며 이로 인해 "끼익끼익 기름 마른 피대가 외마디 소리로 떠들 제/직공들은 키가 줄었다./ 어제도 오늘도 동무는 죽어나갔다." 도시의 노동자는 고된 노동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의 삶은 희망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기보다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로 표현되기에 더욱 적합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은 30년대 자본주의가 이루어놓은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오장환은 근대화가 만들어낸 부조화에 절망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당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장환은 시 속에서 비현실적이며 희극과 비극의 교차하는 데 이를 환상적으로 형상

146) 발터 벤야민, 박성완 역,『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 민음사, 1983, 142쪽.
147) 김초희,「정지용 시 감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04, 2쪽.

화해 낸다. 즉, 환상은 '실재적인 것'을 범주화하고 '리얼리티'라는 지배적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의 위상에 관한 문제를 전경화함으로써 현실의 한계점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148]

쓰르갯바람은 못 쓰는 휴지쪽을 휩싸아가고
덧문을 척, 척 걸어닫은 商館의 껍데기 껍데기에는 맨 포스터 투셍이.
쫙 펴지는 번화가의 포스터
酒甫
초저녁 북새통에 갓을 비뚜로 쓴 시골영감
십년지기처럼 그 뒤를 따라나가는 늙은 좀도적!
음험한 눈자위를 구을리며 쑹덜쑹덜 수군거리는 거지
헌 구두를 훔키어잡고 달아나는 애편쟁이 눈섶이 싯푸른 청인은 훔침훔침 괴침을 추썩어리며 어둠 밖으로 나온다.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생명수! 생명수! 과연 너는 아편을 가졌다.
술맛이 쓰도록 생활이 고달픈 밤이라 뒷문이 아즉도 입을 다물지 않은 중화요리점에는 강단으로 정력을 꾸미어나가는 매음녀가 방궤처럼 삣낙질을 하였다.
컴컴한 골목으로 드나드는 사람들- 골목 뒤로는 옅은 추녀 밑으로 시꺼믄 복장의 순경이 굴뚝처럼 우뚝 다가섰다가 사라지고는 사라지고는 하였다. 영화관- 환락경, 당구-마작구락부-도박촌.

「夜街」

「야가」는 도시의 풍경을 병적으로 표현한 시편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여러 문제점을 지녔고, 그런 도시의 주변은 "쓰르갯바람은 못 쓰는 휴지쪽을 휩싸아가고/ 덧문을 척, 척 걸어닫은 商館의 껍데기 껍데기에는 맨 포스터 투셍이"처럼 어지럽고 무질서하다. 특히, 위의 시에 나타난 도시는 '늙은 좀도둑'과 '애편쟁이 눈섶이 싯푸른 청인'이 활보하여 광기와 어둠의 이미지가 가득하다. 이런 도시는 어둠의 공간이 되며 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더욱 고립감과 외로움에 휩싸이게 된다. 도시는 편리하고 화려하지만 그 이면은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피폐한 정신이 나타난다.

"컴컴한 골목으로 드나드는 사람들- 골목 뒤로는 옅은 추녀 밑으로 시꺼믄 복장의 순경이 굴뚝처럼 우뚝 다가섰다가 사라지고는 사라지고는 하였다."를 보면 도시에 순경이 필요하나, 순경은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리며 기묘한 행동을 한다. 다시 말해, 순경이든 좀 도둑이든, 애편쟁이 모두 오장환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시에 등장시키면서 "'다른'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위협하는 세계를 제시하기 위해 환상처럼 그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시에 자본주의의 점증하는 무정형성과 주체의 파편화가 환상처럼 나타나고 있다.[149] 오장환은 도시의 이중성에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외치며 온전한 자아가 아닌 경계의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 시인에게 부패하고 병든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더욱 도시를 환상적이며 기묘하게 전개시키는 것이다. 환상문학에서 이런 기이한 효과는 전혀 낯설고 새로운

148) 로지 잭슨, 앞의 책, 73쪽.
149) 위의 책, 176쪽.

것이 주는 공포가 아니라 안전하고 자연적인 것 뒤에 감춰진 모호하고 폐쇄된 영역의 폭로이다.[150]

2. 자기 동일성의 환상과 공생으로의 환상

시인은 1930년대 도시의 병폐로 인해 극단의 혼란을 경험하고 자신 또한 유령처럼 도시 속에서 비정상적며 비상식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게 된다. 오장환은 도시에 대한 혐오와 염증으로 더욱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한다. 「황혼」에서 "제 집을 향하는 많은 군중들은 시끄러이 떠들며,// 희미한 路燈을 본다. 띄엄띄엄 서 있는 포도 우에 잎새 없는 가로수도 나와 같이 공허하고나"를 보면 시적 화자가 도시 속에서 느끼는 공허한 마음의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는 나날이 늘어나가고, 나는 병든 사나이, 야윈 손을 들어 오랫동안 위태와, 무기력을 극진히 어루만졌다.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보이지 않는 황혼 속에서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린다."*(「황혼」) 시적 화자는 자신을 병든 사나이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자신의 주변은 일 잘하는 기계들로 인해 근대화가 점차 되며 편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장환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병든 사나이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화자가 자신의 야윈 손을 위태와 무기력으로 극진히 어루만졌다는 것은 자신의 불안과 슬픔,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보이지 않는 황혼 속에서 나는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린다."에서 화자는 황혼 속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조금은 수그러뜨리며 내면이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황혼」에서 '황혼'은 환상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환상적인 것은 모순과 양가성을 토대로 구조화되면서 말해질 수 없는 것, 명료하지 않는 것, 혹은 진실하지 않고 실재적인 세계를 문제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환상성은 실재와 비실재의 본질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적인 관심사로 전경화한다.[151]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보이지 않는 황혼 속에서" 황혼이란 낮과 밤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하다. 고요하고 적막한 상황은 더욱 경계의 불분명함을 가중시킨다. 황혼은 환상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이런 모호함은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버"(「환상성」)리게 한다. 오장환에게 환상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안정적인 자아를 찾게 하는 과정이다.

> 느티나무 속에선 올빼미가 울었다. 밤이면 운다. 항상, 음습한 바람은 얕게 나려앉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올빼미는 동화 속에 산다. 동리 아이들은 충충한 나무 밑을 무서워한다.
>
> 「전설」

「전설」은 몰락한 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이다. 썩어가는 느티나무 속에는 올빼미만 존재한다. 느티나무 주의를 부는 음습한 바람은 얕게 내려 앉아 주변을 슬픈 정서로 만든다. 하지만 시인은 몰락한 촌을 열악하고 절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 촌에 "올빼미는 동화 속에 산다."는 것은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시인은 몰락해

150) 로지 잭슨, 앞의 책, 242쪽.
151) 위의 책, 69쪽.

가는 촌을 결코 우울하지 않고 동화적인, 환상적으로 형상화하면서 비극적인 삶을 극복하고자 한다. 환상은 변함없이 자연의 과정이나 왜곡을 함축한다. 우리가 예술에서 환상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의적이고 비현존적인 사물들과 교류하는, 변덕스러운 공상의 실행에 기인한다.[152] 이런 점에서 볼 때 환상적이며 기묘한 촌의 모습은 부재와 결핍 속에서 존재하는 시인 자신이며 그래서 그는 욕망을 더욱 영속화할 수 있었다. 오장환은 환상을 통해 고향이라는 정서적으로 충만한 실재적인 것과 기묘한 촌의 상상 사이에 자리 잡은 차이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키며 이런 차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현실과 상상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양어장 속에서 갓 들어온 금붕어
어항이 무척은 신기한 모양이구나.

병상의 검온계는
오늘도 39도를 오르나리고
느릿느릿한 맥박과 같이
유리항아리로 피어오르는 물방울
금붕어는 아득한 꿈길을 모조리 먹어버린다.

몬지에 끄을은 초상과 마주 대하야
그림자를 잃은 청자의 화병이 하나
오늘도 시든 카네손의 꽃다발을 뱉어버렸다.

幽玄한 꽃향기를 입에 물고도
충충한 몬지와 회색의 기억밖에는
이그러지고도 파리한 얼골.

금붕어는 지금도 어느 꿈길을 따르는가요
책갈피에는 청춘이 접히어 있고
창밖으론 포도알들이 한테 몰리어 파르르 떱니다.

「병실」

어항 안
게으른 금붕어 나비 넥타이를 달고 있기에
나는 무엇을 하면 옳겠습니까

나래 무거운 회상에 어두운 거리
하나님이시여! 저무는 태양
나는 해바라기 모양 고개 숙이고 병든 위안을 찾어다니어

고층의 건축이건만
푸른 하늘도 창 옆으로는 가차이 오려 않는데
탁상에 힘없이 손을 나린다.

152) 위의 책, 32쪽.

먹을 수 없는 탱자 나무 열매 가시낭구 향내를 코에 대이며...
주판알을 굴리는 작은 아씨야.

「체온표」부분

「병실」는 꿈과 환상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다. 시적 화자는 병실에서 "오늘도 39도를 오르나리고/ 느릿느릿한 맥박과 같이"처럼 39도의 열이 오르는 상황에 처한다. 39도를 오르는 기온은 화자를 자연스럽게 혼미한 정신으로 유도하며 좀 더 환상적인 정서에 몰입하게 한다. 환상적인 정서 속에서 금붕어는 화자 자신과 동일화가 된다. "유리항아리로 피어오르는 물방울/ 금붕어는 아득한 꿈길을 모조리 먹어버린다."에서 항아리 속에 있는 금붕어는 꿈길을 모두 먹어 버리는 존재로 이는 화자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의미한다. 타자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아의 일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환상은 이상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상호적인 삶의 한 국면이며 무의식적 욕망의 표현이다.[153] 그렇기에 시적 화자와 금붕어의 동일화는 초자연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시적 화자가 열이 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상호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먼지에 그을린 초상과 마주한다. "몬지에 끄을은 초상과 마주 대하야/ 그림자를 잃은 청자의 화병이 하나/ 오늘도 시든 카네손의 꽃다발을 뱉어버렸다./ 幽玄한 꽃향기를 입에 물고도/충충한 몬지와 회색의 기억밖에는/ 이그러지고도 파리한 얼골." 그림에는 화병에 시든 카네손의 꽃다발이 뱉어버리는 모습, 이그러진 파리한 얼굴 등 마치 초현실주의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모양이 있다. 비현실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환상적이다. 환상적 본질적인 모호성을 지니고 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유령처럼 환상적인 것은 존재와 무 사이에서 정지된 유령적 존재이다.[154] "금붕어는 지금도 어느 꿈길을 따르는가요, 책갈피에는 청춘이 접히어 있고, 창밖으론 포도알들이한테 몰리어 파르르 떱니다."에서 여전히 화자는 고열이 있는 환상 속에서 어느 꿈길을 생각한다. 그 꿈길은 "청춘은 접히어 있는 듯" 이 미래도 없으며 "창밖으론 포도알들이 파르르 떠는" 텅 빈 세계가 연속해서 있는 등 의미 없는 상황이 나열된다. 화자는 "어느 꿈길"처럼 대상 없는 그림자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환상 속에서 "어항 속은 신기한 모양"인 충만한 것을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체온표」도 환상적인 상황이 담긴 시편이다. "어항 안 게으른 금붕어 나비 넥타이를 달고 있기에 /나는 무엇을 하면 옳겠습니까"에서 금붕어는 시적 화자와 동일시가 되며, 고열을 앓고 있는 시적 화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의문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 고개 숙이고 병든 위안을 찾어다니어"에서 화자는 고열의 희미한 상태로 "해바라기 모양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의 시에서 금붕어와 동일화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환상성은 환상이 지닌 이상적인 순수함 속에서 이상적인 자아를 찾고자했던 근본적인 힘의 양상이 담겨 있다.

썩어 문드러진 나무뿌리에서는 버섯들이 생겨난다. 썩은 나무뿌리의 냄새는 훗훗한 땅속에 묻히어 붉은 흙을 거멓게 살지워놓는다. 버섯은 밤내어 이상한 빛깔을 내었다. 어두운 밤을 독한 색채는 성좌를 향하야 쏘아오른다. 혼란한 삿갓을 뒤집어 쓴 가녈핀 버섯은 한자리에 무성

153) 로지 잭슨, 앞의 책, 77쪽.
154) 위의 책, 32쪽.

히 솟아올라서 사념을 모르는 들쥐이 식욕을 쏘을게 한다. 진한 병균의 독기를 빨어들이어 자주빛 빳빳하게 싸늘해지는 小동물들의 인광! 밤내어 밤내어 안개가 끼이고 찬 이슬 나려올 때면, 독한 풀에서는 요기의 광채가 피직, 피직 다 타버리랴는 기름불처럼 튀어나오고, 어둠 속에 시신만이 겅충 서 있는 썩은 나무는 이상한 내음새를 몹시는 풍기며, 딱다구리는, 딱다구리는, 불길한 가마귀처럼 밤눈을 밝혀가지고 병든 나무의 뇌수의 쪼읏고 있다. 쪼우고 있다.

「毒草」

「독초」는 썩어버린 나무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시편이다. 썩은 나무의 뿌리에서 버섯들이 솟아나거나, "썩은 나무뿌리의 냄새는 훗훗한 땅 속에 묻히어 붉은 흙을 거멓게 살지워 놓"고 버섯들은 들쥐의 식욕을 자극시키며 독기를 얻은 들쥐는 인광을 품어낸다. 위의 구절들은 어떤 인과과정 없이 기괴하며 환상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낸다. 버섯이 지닌 이상한 색깔은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이 화려함은 성좌를 향해 쏟을 정도로 신성하게 표현했다. 또 버섯은 사념을 모르는 들쥐의 먹이가 된다. 환상은 실재적인 것을 재결합하고 전도시키지만 그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재적인 것에 기생하거나 공생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환상적인 것은 지나치게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실재 세계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155] 다시 말해, 썩은 나무뿌리는 요란스럽고 기묘한 버섯을 만들어 버렸고, 그 버섯은 들쥐의 먹이가 되며, 또는 작은 동물의 식용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 다음 썩은 나무뿌리는 숲의 주변의 풀까지 전파하여 "독한 풀에서는 요기의 광채"를 낸다. 환상적인 모습은 독립적인 대상에게만 존재하기보다 실재적인 것에 기대여서 공생 관계 속에서 더욱 확장시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몽환적인 기괴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나와 타자, 자아와 타자의 상호관계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상문학은 늘 '나'와 '나 아닌 존재',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드러내고 탐색하는 데 관심을 보여 왔다. 초자연적 질서 또는 마술적 사고 방식 내에서 타자성은 이 세상 것이 아니거나 초자연적인 것, 인간을 넘어서는 혹은 인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세기에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상호적인 삶의 한 국면이고 무의식의 표현 양상이다."[156]

3. 모성적 환상을 통한 치유

오장환은 자신의 내면적 결핍을 '어머니, 나타샤, 마리아 등' 모성적 기호를 통해 치유하고자 했다. 환상은 자아의 절망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도시는 비극적 공간이지만 시인은 이 공간에서 환상을 통해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모색하며 경계성 자아를 치유한다. 그는 어머니 등 모성적 환타지에 의해 도시의 비극적 공간을 재생의 공간으로 그리고 절망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치유하게 된다.

어머니는 무슨 필요가 있기에 나를 맨든 것이냐! 나는 異港에 살고 어메는 고향에 있어 얕은 키를 더욱더 꼬부려가며 무수한 세월들을 흰머리칼처럼 날려보내며. 오 어메는 무슨, 죽을 때까지 윤락된 자식의 공명을 기두르는 것이냐. 충충한 세관의 창고를 기어달으며, 오늘도 나는 부두를 찾어나와 쑤왈수왈 지껄이는 이국 소녀의 회자를 들으며, 한나절 나는 향수에 부다끼었

155) 로지 잭슨, 앞의 책, 33쪽.
156) 위의 책, 75~76쪽.

다.

에메야! 온 세상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단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어메! 지금의 내가 있는 곳은 廣동인이 싣고 다니는 충충한 밀항선. 검고 비린 바다 우에 휘이한 각등이 비치울 때면, 나는 함부로 술과 싸움과 도박을 하다가 어메가 그리워 어둑어둑한 부두로 나오기도 하였다. 어메여! 아는가. 어두운 밤에 부두를 헤매이는 사람을, 알말도 않고 고향, 고향을 그리우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모다 깊은 상처를 숨겨가지고 ....띄엄이, 띄엄이, 헤엄져 있는 사람들.

암말도 않고 검은 그림자만 거닌는 사람아! 서 있는 사람아! 늬가 옛땅을 그리워하는 것도 내가 어메를 못 잊는 것도 다 마찬가지 제 몸이 외로우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어메야! 오륙년이 넘두락 일자소식이 없는 이 불효한 자식의 편지를, 너는 무슨 손꼽아 기두르는 것이냐. 나는 틈틈이 생각해본다. 너의 눈물을... 오 어메는 무엇이었느냐 너의 웃는 듯, 나타나는 너의 환상에 나는 지금까지도 설운 마음을 끊이지는 못하여왔다. 편지라는 서로이 서로움을 하소하는 풍습이려니, 어메는 행방도 모르는 자식의 安在를 믿음이 좋다.

「향수」

「향수」는 시적 화자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편이다. 화자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근원을 자각시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어머니는 곧 고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머니는 고향처럼 순수한 대상이다. 위의 시는 순수한 고향을 통해 타락하고 변질된 도시의 상황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어메는 무엇이었느냐 너의 웃는 듯, 나타나는 너의 환상에 나는 지금까지도 설운 마음을 끊이지는 못하여왔다.”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환상에 의해 나타나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대상, 보살핌과 사랑의 대상으로 모성적 판타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대상, 어머니는 여신과 같은 존재이다. 환상 속에도 나타나는 어머니, 이런 점에서 어머니는 모성적 환타지가 아닐까.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윤락된 자식의 공명을” 기다렸지만 화자는 어머니의 소망을 이룰 수 없었다. 화자는 어머니의 소망을 이룰 수 없어 “부두를 찾어나와” 쓸쓸히 거닐며 “향수에 부다끼었다.” 시적 화자는 어머니의 그리움을 통해 스스로 현재의 결핍을 더욱 느끼게 된다. 여기서 어머니는 위안와 애정보다 자아 성찰을 하는 계기를 더해 준다. 그리고 위의 시에 나타난 밀항선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정착할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마음의 상황이기도 하다. 혼란스러운 정서 상태 속에서 시적 화자가 할 수 있는 건, 술과 도박뿐. 하지만 그새 어머니가 그리워 어머니를 불러본다. 어쩌면 불안한 마음의 한켠엔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그리움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위의 시에서 보여준 ‘밀항선과 술과 도박, 어둑어둑한 부두’ 등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불안함의 표상들이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일상의 표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이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고통스런 여정은 어머니를 통해 새로운 여정으로 전환시켜 주었다. “어메는 행방도 모르는 자식의 安在를 믿음이 좋다.”에서 시인에게 모성성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면의 결핍을 지니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아를 치유하게 하는 대상이 된다.

정재완의 첫 동시집『해바라기』에 나타난 시적 세계의 양상

정민구(전남대학교)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첫 시집에서 첫 번째 동시집에 이르기까지
3.『해바라기』에 나타난 시적 세계의 양상
  1) 현실적 시선과 환상적 시선의 공존
  2)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의 중첩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936년 전남 나주군 나주읍(원고향은 장흥)에서 출생한 정재완(鄭在浣, 1936~2003)은 유치환(柳致環, 1908~1967)의 추천으로 1958년『현대문학(現代文學)』에「날개」,「그리움」,「어머니」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동인 및 문학회 활동으로 <서정시(抒情詩)>, <시단(詩壇)>, <원탁시(圓卓詩)>, <한국문인협회(韓國文人協會)>, <한국현대시인협회(韓國現代詩人協會)>, <청마문학회(靑馬文學會)>에 이름을 올렸다. 생전에 작품집으로 시집 9권과 동시집 2권을 상재하였으며, 영면 후 유고시집 1권이 발간되었다. 발간 연도에 따라 작품집(시집 및 동시집)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작품집명	출판사	발간 연도	비고
1	『하늘빛』	향문사	1962	
2	『저자에서』	형설출판사	1972	
3	『빗발같이 햇발같이』	형설출판사	1975	
4	『해바라기』	형설출판사	1975	동시집
5	『흙의 가슴』	형설출판사	1981	
6	『믿음과 노래』	청록출판사	1987	
7	『사랑 안에 살면』	청록출판사	1993	
8	『지상의 날에』	전남대출판부	1996	
9	『여태 사랑을 고독하지 못했고 고독을 사랑하지 못했으니』	전남대출판부	2001	시집『사람 새』,『넘어가는 해』및 동시집『온 세상 어린이』합본 시집
10	『그 무수한 나의 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와사람	2004	유고시집

정리한 작품집 목록에서 알 수 있듯, 정재완은 등단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작품활동을 지속해 온 한국현대 시인의 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예의 작품집이 상재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 광주(光州)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1956년 광주에 소재한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다 철학과로 전과하였으며 1961년에 철학과를 졸업한다. 이후 1965년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 1969년 문리과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2002년에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정년하였다. 이를 어림하여 셈해보자면 첫 시집『하늘빛』이 나온 1962년부터 유고시집이 나온 2006년까지가 대략 44년 이상이 되니, 반백의 시력(詩歷)을 광주에서 쌓아 올렸던 것이다. 실상 그가 상재한 시집들 모두가 광주에 적(籍)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직하다. 그만큼 그는 광주와 생애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밀착한 인연을 맺고 있는 시인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원을 염두에 두었을 때 광주의 시문학사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정재완이라는 이름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짐작되는 바, 그는 '50년대 광주의 시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1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재완 시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형편이다. 그나마 간략하게나마 시인의 시적 세계 전반을 다룬 글들과 시인의 저작에 대한 서평이 조금 있어 무색함을 덜어준다.[158] 이러한 형편에 대한 저간의 사정이야 간단할 리 만무한 일이겠으나, 그간 문학사에서 숨은 광주의 시인들을 조명하는 자리에서 한 연구자가 토로했던 것처럼, "광주지역에 거주하면서 중앙문단과 거리를 둔 것이 현대시사에서나 현대문학사에서 거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에서도 소외"[159]되는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에 우선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문학(사)에 대한 소외 문제를 극복하는 작업이 한국현대문학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방편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현대문학(사) 연구의 빈 자리를 메꾸어보려는 지역문학 연구 작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 광주의 숨은/연구되지 않은 시인들 가운데 한 명인 정재완에 주목하여 그의 시적 세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실상 남아있는 작품집의 수량이나 문학 활동의 왕성함에 견주어 시인의 생애적·문학적 측면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는 전연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된 후에 본격적인 작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때마침 광주의 젊은 지역문학 연구자가 정재완 시인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생애사/문학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고무적이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연구의 방향을 선회하여 그의 첫 동시집『해바라기』(형설출판사, 1975)에 나타난

157) 김종,「시문학사」,『광주문학사』, 한림, 1994, 43쪽. 참고로 김종은 시인이 주로 활동한 시기(60년대 이후)가 아닌 등단 시기(1956년)를 기준으로 하여 시대별로 시인을 분류하고 있다.

158) 강용권,「정재완 저「한국현대시의 반성」,『국어국문학』86, 국어국문학회, 1981; 임환모,「정재완의『한국현대시인연구』: 한국현대시의 정체성을 찾아서」,『용봉인문논총』3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장백일,「감동적 사유로서의 서정시」,『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전남대출판부, 2002; 정병헌,「부동(不動)의 반백(半白)과 지향」,『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전남대출판부, 2002; 송현호,「구도자의 자세와 순수 자연에 대한 탐구」,『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전남대출판부, 2002; 임환모,「아름다운 영혼과 절제의 미학」,『그 무수한 나의 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와사람, 2004.

159) 이동순,『광주의 시인들』, 소명출판, 2017, 78쪽.

시적 세계의 양상에 대해 논급하고자 한다. 이는 동시의 세계 속에 정재완의 시 세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원형(原型)이 내재해있으리라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후 시인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첫 시집에서 첫 번째 동시집에 이르기까지

1956년에 등단한 정재완은 1962년에 첫 번째 시집 『하늘빛』을 출간한 뒤,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시기에 해당하는 1972년에 두 번째 시집 『저자에서』를 출간하였다. 시집 후기에서 그는 첫 번째 시집에서 두 번째 시집에 이르는 긴 시간을 "침체의 기간"[160]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첫 시집을 묶을 때까지만 해도 다작(多作)의 시인이었던 그를 침체의 옥에 가두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어지는 후기를 보면, 그는 "오늘, 우리 시인의 자세, 시정신의 향방에 어떤 示唆의 肉聲인 듯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게 하는 것이 있어 故 靑馬 先生의 시에서 몇 구절을 책머리에 실은 것"[161]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가 책머리에 인용하고 있는 청마 유치환의 시 구절은 다음과 같다.

> ……그것은 내 딸자식이요 손주가 아니라서 너는 오늘도 아무런 죄스럼이나 노여움 없이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서 양복바지에 줄을 세워 입고는 모자를 얹고 나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는 어쩌면 네가 말할 수 없이 값지다고 믿는 예술이나 인생을 골돌히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 순간에도 굶주림에 개같이 지쳐 늘어진 무수한 인간들이 제 새끼를 목 졸라 죽일 만큼 독기에 질린 인간들이 그리고도 한마디 항변조차 있을 수 없이 꺼져가는 한겨레라는 이름의 인간들이 영락없이 무수히 무수히 있을 텐데도 그 숫자나마 너는 파적거리로라도 염두에 올려본 적이 있는가//……저 가엾은 애걸과 발악의 비명들이 소리소리 울려 들리는 데도 거룩하게도 너는 詩랍시고 문학이랍시고 이 따위를 태연히 앉아 쓴다는 말인가
>
> ―유치환, 「그래서 너는 시를 쓴다?」 부분[162]

인용된 유치환의 시 구절은 시인의 정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이다. 요컨대 오로지 자신의 세계에 골몰하면서 문학적 유희에 빠져있는 시인에게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엾은 애걸과 발악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마는 그런 태도의 시인을 질타하듯 '그래서 너는 현실이 이 모양인데 그 따위 시를 태연히 앉아 쓸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는 정말로 그런 문학주의에 빠져있는 시인을 향한 질타이자 자신도 모르게 시정신이 흐트러져 유희주의에 빠져있는지 모르는 자신의 시작 태도를 경계하기 위한 목소리("示唆의 肉聲")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구절을 정재완이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자신의 스승인 청마의 질타를 마음에 되새기려는 시인으로서의 진정성의 소산일

160) 정재완, 『저자에서』, 형설출판사, 1972, 129쪽.
161) 정재완, 위의 책, 130쪽.
162) 정재완, 위의 책, 3-4쪽.

것이다. 실상 1960년대 4·19 혁명이 실패하고 군부독재에 이어 1970년대 유신독재가 펼쳐졌거니와 그러한 암흑의 시대를 마주해야 했던 시인의 대부분은 현실의 부조리함과 비참함에 대해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현실을 향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이 시대의 시인들을 자주 엄습하곤 했을 터이다. 1962년에서 1972년에 이르는 '침체의 기간' 속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시 「나의 詩」에는 "67년 6월 8일 이후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해당 시에서 정재완은 "그럴싸한 民主의 나라/ 浮華한 차림새/ 그 밑바닥을/ 이처럼 웃어줄까. 좀 부끄럽게끔./ 아니면 통째로 발가벗기고 말까."라면서 시인으로서의 시대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1967년 6월 8일이 부정선거로 잘 알려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에서 표출된 그의 시대적 인식은 다분히 직접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 말하는 '침체의 기간'에 대해 그 연원을 짐작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 그는 현실의 상황이 '애걸과 발악의 비명'에 가득 차 있는데, '시를 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윤리적 고민 속에서 "초려"와 "자책"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163] 시를 썼을 것이나 청마의 말에 비추어 시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시를 쓸 수 없었을 것이나 청마에 말에 가닿는 시를 써내야만 했을 터이다. 송현호에 따르면, 정재완은 "한국현대시사에서 시인이 견지해야 할 자세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시인이 청마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큰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164] 말하자면 시인에게 있어서 유치환은 자신의 시적 태도를 정립하기 위한 일종의 준거틀이 되는 존재였다고 하겠다. 시집의 말미에서 세상을 떠난 지 네 해가 되는 스승을 떠올리며 "나는 이제사 작으나마 침묵을 배우려 한다./ 마흔해가 하루같이,/ 새벽마다 일어앉아 神氣 속 봄물처럼 풀어간 당신의 시, 슬기론 침묵의 외오침을."(「靑馬先生」 부분)이라고 언술하는 대목에서 분명 그는 청마의 질타를 늘상 가슴에 되새기며 시작(詩作)에 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침체의 기간'은 시를 쓰지 않은 기간이라기보다는 침묵의 시—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시정신을 도야하는 시—를 써 내려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집 『빗발같이 햇발같이』는 두 번째 시집 『저자에서』가 나온 3년 뒤인 1975년에 출간되었다. 후기에 따르면 시집의 표제는 '봉산탈춤'의 대본에 나오는 한 대목—"칠년대한(七年大旱) 가문 날에 빗발같이 보고지고, 구년홍수(九年洪水) 대홍수에 햇발같이 보고지고"—에서 빌려온 것이다.[165] 시인은 이러한 제목을 사용한 까닭으로 '한글에 대한 애착'과 '서민예술을 통한 현실에의 시정신의 모색'을 담아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66] 이처럼 세 번째 시집에 이르기까지 시인에게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시적 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가 여전히 중요한 테제였던 것이다. 세 번째 시집이 출간되는 1975년에 이르기까지 시인을 둘러싼 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해에는 세 번째 시집만 출간된 것이 아니었다. 첫 번째 동시집인 『해바라기』가 같은 날짜에 함께 출간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하는 시인의 자세, 현실에 대한 시정신의 모색, 문학주의에 빠지지

163) 정재완, 앞의 책, 129쪽.
164) 송현호, 「구도자의 자세와 순수 자연에 대한 탐구」, 『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전남대출판부, 2002, 33-34쪽.
165) 정재완, 『빗발같이 햇살같이』, 형설출판사, 1975, 153쪽.
166) 정재완, 위의 책, 153-154쪽.

않는 시적 태도 등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초려'와 '자책'에 고뇌하던 시인에게 있어서 동시집의 출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비록 재미있고 뜻있게 읽어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읽는 이의 마음의 꽃밭을 알뜰히 가꾸는 데에 조금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굳이 엮어 보았읍니다."[167] 『해바라기』의 책머리에서 정재완은 그렇게 적었다. 시인의 말에 따르자면, 그가 애써 첫 동시집을 엮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독자'가 "마음의 꽃밭"을 가꾸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 동시집을 엮은 이유, 다시 말해 동시를 써서 독자들에게 보이는 목적이라는 것은 시인이 동시를 쓰면서 지향하고자 하는 시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정재완의 첫 동시집 『해바라기』에 나타난 시적 세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는 시인이 언급한 그와 같은 동시집 발간의 변(辯)에 대한 먼저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동시 작품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머리말의 이러한 대목 속에는 두 가지의 물음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읽는 이=독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이것은 과연 시인은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에 해당하는 물음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꽃밭'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이것은 과연 시인은 무엇을 쓰는가에 해당하는 물음이라고 하겠다.

우선, 정재완의 동시에서 '읽는 이=독자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보통 동시(童詩)에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경우, 동시의 독자를 아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시가 현실과 인간에 대한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인 이상, 동시의 독자는 아동과 어른 둘 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168] 다음으로 '마음의 꽃밭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보통 동시에서 그려지는 것은 아동의 눈에 비친 세상과 사람의 모습 혹은 "아동의 유희세계"[169]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동시가 현실과 인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학인 이상, 동시에서 그려야 하는 것은 현실을 마주하는 아동의 눈과 마음에 감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의 세계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170]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이오덕의 논의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이제부터 첫 동시집 『해바라기』에 나타난 시적 세계를 탐색해가면서 앞서 제기한 물음의 답을 마련해 볼 요량이다.

3. 『해바라기』에 나타난 시적 세계의 양상

1) 현실적 시선과 환상적 시선의 공존

167) 정재완, 『해바라기』, 형설출판사, 1975, 3쪽.
168) 이오덕, 「동시란 무엇인가」,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 비평사, 1977, 212-219쪽.
169) 이오덕, 위의 책, 220쪽.
170) 이오덕, 위의 책, 219-229쪽.

『해바라기』의 머리말을 시작하면서 정재완은 "삶의 싱그러움과 기쁨을 향한 맑고 즐기찬 마음을 시의 꽃밭으로 가꾸어야 하겠다고 노상 별러 보았던 것입니다."[171]라고 적고 있다. 그가 말하는 "시의 꽃밭"은 앞서 살펴보았던 "마음의 꽃밭"과 겹쳐진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에게 있어서 시는 마음이다. 시=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시의 꽃밭, 마음의 꽃밭을 가꾸는 일은 "삶의 싱그러움과 기쁨"을 지향하면서 시를 읽는 사람이나 시를 쓰는 사람 모두가 실천해야만 하는 공통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꽃밭을 가꾸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듯싶다. 시인이 그것을 늘 욕망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일("노상 별러 보았던 것")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인에게 과제로 남아있던 동시의 시편들은 1975년 드디어 시집으로 엮이어 마음의 꽃밭을 가꾸려는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는 "읽는 이의 마음의 꽃밭을 알뜰히 가꾸는 데에 조금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굳이 엮어 보았습니다."[172]라는 술회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굳이"라는 표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듯 어떤 계기에서 추동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계기는 무엇일까?

> 시월이 다 가는 날/ 일요일/ 엄마 아빠 보채어// 뒷동산에 오른다./ 랄라라 랄라라/ 뒷동산에 오른다.// 야아 야 야아!/ 별아기/ 별아기가 밤새 소복이 내렸구나.// 지난 여름 밤/ 엄마가/ 가리키던 그 별똥별…// 짜아한 들국화/ 초롱초롱 반짝이는/ 산등성이에서// 동생도,/ 바둑이도,/ 나도/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
> —「들국화」 전문[173]

시인에게 시를 쓰거나 읽는 일은 마음의 꽃밭을 가꾸는 일이다. 그렇다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밭에 피어나는 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시를 통해 씨앗에서 꽃으로 발아/발화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가리켜 '시혼(詩魂)' 혹은 '시적 상상력'으로 불러볼 수 있을 것이다. '꽃=시적 상상력'으로 등식화해본다면, 인용된 시 「들국화」에 언표된 "들국화"는 시적 상상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럴 경우, 예의 시에서 펼쳐지는 것은 뒷동산에 별아기/별똥별이 쏟아진 자리에 들국화라는 시적 상상력이 별/꽃처럼 반짝이며 피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분히 어른보다는 아동에게 친숙한 것이며 아울러 환상적인 것이라고 말해봄 직하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라는 상황에 친숙한 것은 오히려 어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예의 시는 주목을 끈다. 동시를 쓰는 과정에서 시인은 적극적으로 아동의 퍼소나를 취하기 마련이지만, 이처럼 어른의 정체성을 숨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선의 교착(交錯)이 발생하고 있어서이다.

> 아빠도/ 때로는,/ 때로는 어린이가 되나봐.// 시월/ 햇빛이/ 손아귀처럼 따신 날
>
> —「푸른 날」 부분[174]

171) 정재완, 앞의 책, 3쪽.
172) 정재완, 위의 책, 3쪽.
173) 정재완, 위의 책, 8-9쪽.

채송화는/ 예쁜/ 우리 아가꽃.// 노랑,/ 빨강,/ 하양,/ 뜨락에 곱게 피었다.// 키는 꼬마이지만/ 저 옆 백일홍만큼/ 크고 또 탐스러운/ 얼굴.

—「채송화」 부분[175]

「들국화」와 마찬가지로 「푸른 날」에서도 시월(10월)이라는 시적 상황 속에서 아동과 어른의 정체성이 혼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채송화」에서도 아가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키는 꼬마이지만/ 저 옆 백일홍만큼/ 크고 탐스러운/ 얼굴")은 어른의 시선을 숨기지 못한다. 보통 아가의 얼굴을 보면서 '보름달같이 훤하고 예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른의 언어적 용법에 속하는데, 더 나아가 "백일홍"의 크고 탐스러운 빛깔을 떠올려 아가의 얼굴을 빗대는 것은 아동의 언어적 용법 안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착을 동시와 시를 함께 써 내려간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발생한—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 번째 시집과 첫 번째 동시집이 함께 발간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할 수 있는—단순한 오류로 간주할 수는 없다. 시인이 동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이 아동이 되는 방식 자체를 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를 쓰는 시인은 아동인 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아동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시가 될 수 없다. 또한 어른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동시가 될 수 없다."[176]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러하다.

계속해서 「들국화」의 시적 세계를 탐색해보기로 한다. 시에서 설정된 요일은 "일요일"이다. 아동-화자는 "엄마 아빠"를 보채어 "뒷동산"에 오르고자 한다. 어른인 엄마 아빠의 시선에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이다. 그러나 아동-화자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는 어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채어" 쉬는 날을 노는 날로 바꾸어보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시적 세계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일요일을 노는 날로 변용하는 아동의 시간과 쉬는 날로 변용하는 어른의 시간이 그것이다. 실상 엄마 아빠라는 호명은 일차적으로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른에 해당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차적으로는 일요일은 노는 날이라는 아동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어른의 시선 혹은 어른이 갖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예의 동시에 제시된 일요일의 뒷동산이라는 시공간에는 두 개의 시선과 두 개의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뒷동산에 가득 피어있는 들국화는 시에서 "별아기"로 표현되고 있다. 동시에서 별빛, 별, 등은 시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상징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뒷동산의 공간성에 대해 좀더 말할 수 있겠는데, "동심이 밤새 소복이 내려와 있는 곳"으로서 뒷동산은 시적 상상력이 머무는/처소하는 공간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공간에서는 시적 상상력을 잃어버린 각박한 어른의 세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예의 시에서는 어른들 모두가 그런 각박한 세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채는"[177] 행위를 통해 보여준다.

174) 정재완, 앞의 책, 10쪽.
175) 정재완, 위의 책, 21쪽.
176) 이오덕, 앞의 책, 222쪽.
177) '보채다'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보채다'가 어른/아동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이 어른(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어른이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화자의 보채는 행위가 상정하는 대상은 환상의 세계에 처소하면서 현실의 세계에도 처소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정재완의 동시를 현실과 떨어진 환상의 맥락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컨대 시인은 아동과 어른, 현실과 환상, 둘 다를 고려하면서 동시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엄마 아빠를 보채어 뒷동산으로 가자고 말하는 화자—아동/어른 둘 다에 해당하는 존재—의 의도는 좀더 명확해진다. 그는 아동/어른 구분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휴일인 '일요일'에 애써 찾아가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시적 상상력의 세계라는 것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의 중첩

정재완의 동시에서 나타나는 시적 세계는 오로지 아름답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빛의 세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의 시에서는 빛의 세계와 그늘(어둠)의 세계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어른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세계에도, 동시에 내재한 시적 상상력이 그려내는 세계에도, 빛과 그늘이라는 이항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시인의 인식은 아래에 인용한 이오덕의 견해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관절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선이란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악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선을 가르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이미 세상에서 모두 보고 듣고 알고 행하기까지 하고 있는 사회와 인간의 악을 작품에서 덮어 둔다고 해서 선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가? 사회와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 옳지 못한 것을 미워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정신을 키워가지 않고 어떻게 정의감과 진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어두운 생활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동정심을 기르겠는가.[178]

인용문에 따르면 문학은 선 혹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선/아름다운 마음은 현실에 존재하는 악/어둠을 숨기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모두를 보여주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르칠 수 있다. 동시를 작문을 가르치는 글쓰기의 영역이 아닌 문학의 영역에 위치시킨다면, 응당 문학이 그러하듯, 동시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악/어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바라기』의 머리말에 적힌 "어린이의 세계·동심의 빛과 그늘을 느껴 이해하려고 애썼"[179]다는 시인의 술회에 담긴 뜻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

1. 아기가 아프거나 졸리거나 불만족스러울 때에 어떻게 해 달라는 뜻으로 울거나 칭얼거리다.
2. 어떠한 것을 요구하며 성가시게 조르다.

178) 이오덕, 앞의 책, 218쪽.
179) 정재완, 앞의 책, 3쪽.

<1> 사뿐사뿐/ 우리집 정원에 찾아왔다.// 초록잎 물결사이/ 빨간 꽃불 앞세우고 뒤세우고// 새하이얗게 차리고/ 찾아왔다. <2> 어둠 속에/ 둥둥 떠내려 왔다.// 파아란 하늘물에/ 둥둥 떠온// 하얀 쪽배/ 반달같이.

—「치자꽃」 전문[180]

정재완의 동시에서 꽃=시적 상상력이다. "사뿐사뿐/ 우리집 정원에 찾아"온 것은 시적 상상력이다. 화자는 "찾아왔다."를 <1>의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면서 시적 상상력이 온 것, 그래서 시적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반기고 있다. 시적 세계의 빛깔은 치자꽃에서 볼 수 있는 빛깔처럼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이다. 화자는 시적 세계를 치자꽃이 피어나듯, 일순 시적 상상력의 방문을 통해 펼쳐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에서 화자는 치자꽃이 정원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이며 어둠을 거쳐 "둥둥 떠내려" 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화자는 다시 말을 바꾸어 그것은 파란 하늘 위에서 "둥둥 떠온" 것이라고 말한다. 전자가 피동적이라면 후자는 능동적이다. 이는 "앞세우고" "뒤세우고"라는 <1>의 언술과 대구를 이루면서 개화(開花)를 둘러싼 긴장을 자아낸다. 꽃의 개화가 꽃잎과 열매, 이파리와 줄기의 피동과 능동의 행위, 즉 밀고 당김이라는 자연적 순환을 거쳐 일어나는 것처럼, 시적 세계가 "우리집 정원에" 찾아오는 일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는 빛의 세계('개화')로 연장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낙화')로 연장될 것이다. 이처럼 시인에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는 중첩되어 있다고 하겠다.

낮에 꺼진/ 반달이/ 밤이 되어/ 불 켜졌네.// 하늘나라에/ 누가 계시기에/ 불을 저리 밝게/ 켜셨나.

—「반달」 전문[181]

"반달"을 제재로 삼은 예의 동시에서 시인은 '반달'을 "하늘나라"에서 켜진 '밝은 불빛'으로 그려낸다. 흥미로운 것은 반달=불빛을 둘러싼 낮과 밤의 차이다. 낮에는 달이 뜨지 않고 밤이 되어서야 달이 뜨는 것은 현실 세계의 일이다. 그러나 시적 세계에서 달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다. 달은 '전등'이다. 전등은 누군가 켜고 꺼야 하는 것이다. 그렇듯 이 시에서 반달=전등은 하늘나라에 있는 누군가가 낮에는 어둡게 껐다가 밤에는 밝게 켜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깜깜한 밤에 반달=전등을 밝게 켜는 이유는 밤의 어둠을 어느 정도 덜어내기 위함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한 대낮에 반달=전등을 끄는 이유는 낮의 어둠을 어느 정도 드리우기 위함일 것이다. 이처럼 시적 세계는 어둠이 덜어지고 어둠이 드리우는 과정을 통해 밤낮에 관계 없이, 켜진 절반과 꺼진 절반이 중첩된 반달의 형상 아래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훌씬/ 커버렸지/ 선희 진희 광희* 세 조카…// 고만고만 때의/ 너희같이 귀엽게/ 손꼽놀이에 열심인 저/ 아이들./ 풀썩풀썩 먼지 피는/ 한길 가에서.// 이야기 속 앙큼한/ 마녀 할멈같은/ 어둠이 점점점…/ 가까이 얼굴 내미는 줄도/ 모르고.// 아폴로 11호

180) 정재완, 위의 책, 52-53쪽.
181) 정재완, 위의 책, 54쪽.

우주선이/ 달의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시방 한창 신나게/ 가고 있는 것도/ 까맣게 잊어먹은 채.// 이제 훌씬 커버린,/ 클수록 애잔한 너희ㅡㅡ// 아폴로 11호도 착륙 못할/ 영 먼 나라/ 사상과 전쟁, 병마의 소용돌이땅 서슬 푸른 싸움등쌀/ 여읜 아빠.// 너희 아빠는/ 억만년 만에 처음/ 달나라 구경하듯/ 어린 날의 너희/ 소꿉놀이 터를 찾아/ 지금쯤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른다./ 참 신기하고 즐겁다는 우주인 아저씨의 표정으로.// 내 깜찍한 딸님, 달님들을…./ 인젠 훌씬 커버린 줄도 모르시고ㅡ.

*어려서 아빠를 잃은 세 조카 이름. 그중 어린 조카가 맨 위임.

ㅡ「어둠이 깔리는 길목에서」 전문[182]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한 우주선의 이름이다. 1969년 7월 16일 지구를 출발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은 4일이 지난 20일 저녁 무렵이었고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인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현실의 세계에서 펼쳐진 이러한 상황을 상기한다면,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의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시방 한창 신나게/ 가고 있는 것도/ 까맣게 잊어먹은채."라는 대목에서 우선적으로 환기되는 것은 현실에의 시간적 표지가 된다. 이러한 시간적 표지를 통해 예의 동시는 환상처럼 펼쳐지는 우주라는 무대, 햇빛과 별빛이 반짝이는 빛의 세계에만 주목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상이라는 무대, 햇빛과 별빛이 우주로 눈을 돌려 빛을 거두어갈 때 어김없이 시야가 사라지는 어둠의 세계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아폴로 11호가 새로운 빛/희망을 찾아 우주로 떠나버린 뒤에 남겨진 어둠/상실의 세계에서 시인은 아이들을 "달"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내 깜찍한 딸님, 달님들...."). 아니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시에서 "너희들"로 지칭되는 "선희 진희 광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조카들")을 '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다. 시선의 주체는 '어른-화자'와 (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에서는 아이들을 향한 두 주체의 시선이 중첩되어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유명한 장면에서처럼, 현실과 다른 차원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아이들은 어려서 아빠를 잃었다—아버지의 시선이 시적 세계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입하는 아버지의 시선은 "우주인 아저씨의 표정"으로 언술되고 있다.

다시 「인터스텔라」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자면,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는 주체의 시선은 현실적 차원과 다른 우주적 차원을 고려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며, 그럴 때 각기 다른 차원의 시선들, 즉 우주적 차원의 시선은 현실적 차원의 시선과 중첩되면서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영화에서는 우주인 아버지의 딸이 다른 차원에서 전해오는 시선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 시에서 인식의 주체는 어른-화자이다. 어른-화자는 어린 조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조카들은 "한길 가에서" 세상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어둠'이 몰려오는 줄도 모른 채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있다. 화자는 "마녀 할멈같은 어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마녀라는 상상의 존재를 통해 어둠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은 물론 아동-화자의 감각이라 할 것이다. 그러다 다시 아동-화자는 어른-화자의 감각으로 전환된다. 그러면서 마녀에 의해 형성된 어둠은 아폴

182) 정재완, 앞의 책, 32-33쪽.

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접근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어둠으로 바뀌게 된다. 마녀의 어둠에서 그림자의 어둠으로 바뀌면서,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도 변모한다. 마녀의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야할 시간을 느꼈을 화자는 이제 우주선의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성장 과정에서의 애잔함을 느끼게 된다. 아이들의 성장을 향한 시선에 애잔함이 형성되는 까닭은 우주선의 '그림자' 때문이다. 어른-화자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지나가는 우주선에서 아이들('조카들')을 두고 일찍 다른 세상으로/우주로 떠난 아버지의 형상을 감각했으며, 동시에 어른-화자는 저 아버지의 형상이 어린 조카들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어둠이 깔리는 길목'이 일순 먹먹해지는 것은 정작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놀고 있는 조카들 자신은 전연 모르는 채로 아버지의 형상이 두 갈래로 표현되고 있는 까닭에 있다. 하나는 아버지가 "가까이 얼굴 내미는 줄도/ 모르고."이며,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가고 있는 것도/ 까맣게 잊어먹은 채."이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폴로 11호도 닿지 못하는 "영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가고 있음을 아이들은 전연 모르는 것이다. 어른-화자의 애잔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른-화자는 어둠(상실)의 세계에서 밀려오는 감각의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만 말을 건네본다. "너희 아빠는/ 억만년 만에 처음/ 달나라 구경하듯/ 어린 날의 너희/ 소꿉놀이 터를 찾아/ 지금쯤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른다./ 참 신기하고 즐겁다는 우주인 아저씨의 표정으로." 말이다. 당연하게도 우주적 차원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의 모습은 결코 현재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 차원의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아직 구획되지 않은 현실의 어떤 순간의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우주적 차원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시선에 보이는 아이들의 소꿉놀이 장면은 지금-여기에서의 일이 아니라 그곳/그 순간의 일이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빛의 시선과 어둠의 시선이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의 시선과 아버지의 시선이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주적 차원에 있는 아버지의 시선은 다시 현실적 차원에 있는 화자의 시선과 중첩된다. 시선의 중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연의 두 행에서이다. 먼저 "내 깜찍한 딸님, 달님들...."은 아이들을 여전히 빛의 세계(기억) 안에서 호명하는 아버지의 시선이다. 이어지는 "인젠 훌씬 커버린 줄도 모르시고—."는 그런 상황을 알고 어둠(상실)의 세계를 감각하며 애잔함을 감추지 못하는 어른-화자의 시선이다.

4. 나오는 말

※ 참고문헌

정재완,『하늘빛』, 향문사, 1962.

_____,『저자에서』, 형설출판사, 1972.

_____,『빗발같이 햇발같이』, 형설출판사, 1975.

_____,『해바라기』(동시집), 형설출판사, 1975.

_____,『흙의 가슴』, 형설출판사, 1981.

_____,『믿음과 노래』, 청록출판사, 1987.

_____,『사랑 안에 살면』, 청록출판사, 1993.

_____,『지상의 날에』, 전남대출판부, 1996.

_____,『여태 사랑을 고독하지 못했고 고독을 사랑하지 못했으니』(시집『사람 새』,『넘어가는 해』및 동시집『온 세상 어린이』합본 시집), 전남대출판부, 2001.

_____,『그 무수한 나의 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유고시집), 시와사람, 2004.

강용권,「정재완 저「한국현대시의 반성」,『국어국문학』86, 국어국문학회, 1981.

김종,「시문학사」,『광주문학사』, 한림, 1994.

송현호,「구도자의 자세와 순수 자연에 대한 탐구」,『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전남대출판부, 2002.

이동순,『광주의 시인들』, 소명출판, 2017.

이오덕,「동시란 무엇인가」,『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 비평사, 1977.

임환모,「정재완의『한국현대시인연구』: 한국현대시의 정체성을 찾아서」,『용봉인문논총』3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_____,「아름다운 영혼과 절제의 미학」,『그 무수한 나의 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와사람, 2004.

장백일,「감동적 사유로서의 서정시」,『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전남대출판부, 2002.

정병헌,「부동(不動)의 반백(半白)과 지향」,『석화 정재완 교수 정년기념논총』, 전남대출판부, 2002.

사유이미지로서의 시와 풍경의 윤리
—김소월의 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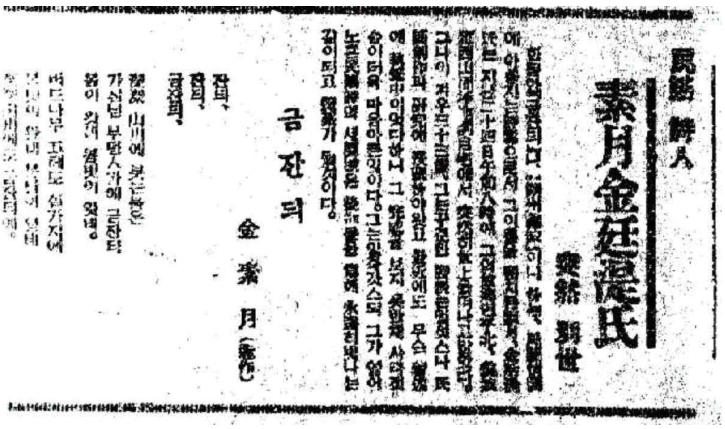
김유희 (강원대)

—목차—

1. 문제제기
2. 전통과 사유이미지로서의 시
3. '때' 그리고 풍경의 윤리
4. 맺음말

1. 문제제기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의 작품 활동은 1920년 『창조』2호에 「浪人의 봄」, 「夜의 雨滴」,「午過의 泣」,「그리워」, 「春崗」의 5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다.[183] 문단에 나온 이후 신문과 잡지 등 다양한 지면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왔던 김소월은 1934년 12월 24일 자택에서 타계했다. 그의 사망 기사는 사망일 이후 수일이 지난 시점에 『조선중앙일보』에 「民謠詩人 素月 金廷湜氏 突然 別世」(1934년 12월 30일자)에 그의 시 「금잔디」와 함께 게재되었다. 김소월의 작품은 『삼천리』,『신동아』,『여성』,『조광』등의 다수의


民謠 詩人
素月金廷湜氏
突然 別世
금잔디
金 素 月

「民謠詩人 素月 金廷湜氏 突然 別世」,『조선중앙일보』, 1934년 12월 30일자.

지면을 통해 그의 사후에도 발표되었다.

그의 작품 활동 기간은 1920년부터 그가 사망한 1934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시기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이어진 무단 통치, 1920년대 들어 문화통치,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까지, 조선의 식민 정책은 3·1운동, 중일전쟁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변화하게 된다. 김소월 자신이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로 1919년 3·1운동 이후 진행된 문화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민족말살정책이 1938년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김소월의 작품 활동 기간을 문화통치 기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183) 김소월의 생애 및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김용직 편저(1996), 『김소월 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후 전집에서 시를 인용할 때는 『전집』과 해당 쪽수만 기재하겠다.

김소월의 시대는 3·1운동 이후 사이토 미노루(齋藤實)가 경성에 부임한 후부터 진행된 문화 정책 기간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한국문학사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 사실상 그 문화 정책의 결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일보》 등의 세 일간지가 간행되고 상당량의 잡지들이 간행되었지만, 그것 역시 한반도 내의 불만분자들의 동향과 소재를 오히려 역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노출시킨 결과를 낳는다. 일본 식민지주의자들은 문화적으로는 약간의 가자유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의 배출구를 만듦과 동시에 그들의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구신분제도의 지배층들을 관료 계급으로 흡수함으로써 민족 에너지의 잠재력을 말살시키려 한다. 그와 동시에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착취를 감행하여 한반도를 완전히 <궁핍화>시킨다.[184]

"약간의 가자유"가 가능했던 다양한 신문과 잡지 매체의 시대였다. 문인들은 많은 지면을 확보함과 더불어 지면을 통해 자신들의 글이 세상으로 알려지는 만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정치적 성향이나 소재를 노출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전환되어 이뤄진 것이다.

3·1운동은 "갑신정변과 갑오 동학란의 정당한 계승점을 종합한 그 집대성이요 결론일 뿐 아니라, 근대 민족운동의 비롯이요 바탕"[185]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조선인의 유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일제에게 보여준 사건으로, 이 운동 이후 조선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일본인 사회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제의 치밀한 후속 정책들이 쏟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3·1운동을 엄밀한 의미의 민족운동의 효시로 보는 것은,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민족의식이 자각되었기 때문이요, 그것은 바로 경술 국치후 침략통치 10년 동안에 맛본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비분과 정치·경제·산업·교육·문화의 모든 면에서 노정된 가혹한 탄압과 수탈과 동화의 식민지 정책이, 비로소 같은 민족으로서의 감정노동·이해공동·문화공동·운명공동이라는 뜨거운 유대의식을 자각시킴으로써 폭발된 항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르면 그것은 이미 명실공히 민족운동이란 이름에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186]

1919년 3·1운동 이후 맞이한 1920년대를 문학사적으로는 동인지 시대이자 서구의 문학 이론과 시가 소개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 계몽기 이후 도래한 이 시대는 재래의 정형시에서 벗어나 자유시, 산문시의 경향이 두드러지던 시기였다. 1920년대 초, 이 시기는 최초의 문학 전문 동인지『創造』(1919년 2월 1일 창간호 발간)와,『白潮』(1922년 1월 창간)의 '동인지 시대'였다. 자유시를 언급할 때 그 초두에 있는 주요한의 「불노리」(『創造』, 1919.2.1)와, 연작시적 성격을 가진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白潮』, 1923.9) 등이 이들 잡지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김소월의 작품활동 시대는 김억에 의해 최초의 번역 시집인

184) 김윤식·김현(1996),『한국문학사』, 민음사, 2판(초판은 1973년), pp. 220~221.
185) 조지훈(1993),『한국민족운동사』, 나남, p.22.
186) 3·1운동에 관한 부분은 앞의 김윤식·김현의『한국문학사』(1996) p.223에서 재인용하려 했으나 조지훈의『한국민족운동사』(나남, 1993)를 구하여 원문 확인 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이 글에서 인용한 내용은 조지훈의 저서(1993) p.23에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은 1996년 나남에서 전 9권으로 출간된 조지훈 전집 제6권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조지훈의 전집 초판은 1973년 일지사에서 전 7권으로 출간되어 나와 있다.

『懊惱의 舞蹈』(廣益書館, 1921)가 출간된 시대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김소월이 활동하던 시대는 3·1운동 이후 매체와 지면이 늘어났고, 공동체나 유대의 가능성과 힘에 대해 체감하였고, 정형시에서 벗어나 산문시, 자유시 등 새로운 형식의 시가 시도되었고, 외국의 시나 이론이 출간이나 발행의 형태로 소개되던 시대였다.

김소월이 이 시기에 작품 활동을 했고 그의 작품들이 민족적이고 언어적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유이미지로서의 시와 풍경의 윤리'라는 주제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의 처녀 작품집은 1925년 12월 賣文社에서 발행한 『진달래꽃』이다. 김소월이 스승 金億이 주재한『假面』에도 많은 작품들을 게재했다고 전한다. 김억은 그가 『素月詩抄』 머리말에서 언급한 대로 김소월의 사망 후 그의 작품들을 시집 『진달래꽃』에서뿐만 아니라 잡지 『개벽』, 『삼천리』등에서도 뽑아내어서 『素月詩抄』(博文書館, 1939)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김억이 편찬한 소월의 시집 『素月詩抄』에는 김소월의 유일한 평론 「詩魂」이 수록되어 있다.

1925년 12월 김소월 시집『진달래꽃』 출간 전후로 이루어진, 김소월 시에 대한 당대의 평을 살펴보면 크게 '민요 시인'과 '시조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박월탄(朴月灘)은 1923년 1월 1일 발간된 『개벽』제31호에 실은 평론「文壇의 一年을 追憶하야 現狀과 作品을 概評하노라」에서 김소월 시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다.

> 아아 그 시 속엔 얼마나 아름다운 기교가 잇스며 얼마나 아름다운 調律이 흐르며 얼마나 안타가운 정서가 솟는가. 우리 無色한 시단에 이러한 작품 잇슴을 깃버하야 마지 아니한다. 다만 素月씨에게 바라노니 그만한 수단 그만한 관찰을 가지고 서정시 그 境域에서만 노래하지 말고 좀 힘잇는 더 뜨거운 고뇌의 爆裂인 그러한 시를 썻스면 한다. 開闢 29호에 同氏의 作인 『꿈자리』란 산문시도 역시 그의 시에서 보든 세련된 아름다운 문구와 情의 한숨으로 채워저 잇다.[187]

그에 따르면 김소월의 시는 "조율"과 "안타가운 정서"를 가지고 있어 당대 무색의 시단에 색깔을 준다는 의의가 있지만 "境域에서만 노래"하고 있고, "좀 힘잇는 더 뜨거운 고뇌의 爆裂인 그러한 시"는 아니다. 당대의 시단에서 "좀 힘잇는 더 뜨거운 고뇌의 爆裂인 그러한 시"는 무엇일까. 박월탄은 같은 글에서, "힘의 예술"을 주장하고 있다.

> 우리가 가저야 할 예술은 『力의 예술』이다. 가장 강하고 뜨거웁고 매운 힘 잇는 예술이라야 할 것이다. 歇價의 연애문학, 微溫的의 寫實文學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懊惱를 건질 수 업스며 시대적 불안을 위로할 수 업다. 만사람의 뜨거운 심장 속에는 어떠한 욕구의 피가 끌흐며 만사람의 얼켜진 뇌 속에는 어떠한 착란의 고뇌가 헐덕어리느냐. 이 불안이 고뇌를 건저주고 이 광란의 피물을 눅여줄 靈泉의 把持者는 그 누구뇨. 『力의 예술』을 가진 자이며 『力의 詩』를 읊는 자이다.[188]

앞서 살펴본 바대로, 당대는 일제 식민지 시기였고 다양한 지면이 확보되었고 그를 통해 지식인들과 문인들은 자신의 글을 선보이면서 동시에 글에 피력된 생각이나 사상이 노출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김소월에게 요구하고 있는 "좀 힘잇는 더 뜨거운 고뇌의 爆裂인 그러한 시"는 시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가 되겠다. 김소월의 시는 시대적 고뇌를

187) 박월탄,「文壇의 一年을 追憶하야 現狀과 作品을 概評하노라」,『개벽』제31호(1923.1.1).
188) 박월탄, 위의 글.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시대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는 없다. 그의 시에 제시되는 것은 돈문제, 생활문제 등의 현실의 제문제라기 보다는 죽음(「초혼」), 삶(「산유화」), 이별(「진달래꽃」) 등 인간 삶의 보편적 생리에 대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진(金其鎭)은 1925년 4월 1일 『개벽』 제58호에 게재된 「現 詩壇의 詩人」에서 “환상과 열정의 시인” 이상화(李相和), “幻覺派의 시인” 박회월(朴懷月), “민요적 색채를 농후하게 가진 사람” 露雀 홍사용(洪思容) 등으로 평하며, 김소월에 대하여 “시인으로서의 本領은, 개벼운 민요적 敍情小曲에 잇지 아니한가”라고 정리하고 있다.

> 작자는 『리리씨-슴』으로 구더진 시인이다. 따라서 그의 本領이 민요적 시인에 잇다함은 妄發이 아니라고 밋는다. 그의 감각은 돌출된 발달은 업고 모도다 고만 고만하게 완성되얏다. 그에게서 잇서서 약점은 俗情化하는 素質이 풍부하게 잇슴일 것이다. 그의 수법에는 때때로 통일력이 不足하다. 그럼으로 독자를 中路쯤 다리고 왓다가는 途中에서 그 의미 때문에 잠시간 방황케 하는 결점이 잇다. 그는 洪思容씨와 공통되는 부분이 만타. 그의 시에 변화가 업슴은 단순한 서술적 설명으로만 나아가는 점에 그 원인이 잇다.[189]

김기진은 소월이 홍사용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고 쓰고 있는데, 김소월의 시 감각은 돌출된 발달은 없고 모두 고만고만한 시작품이며 정서를 풍속화하는 소질이 있다고 적는다. 김소월에 대한 이 평에서 대부분 혹평이다. 하지만 정서를 풍속화한다는 것과 시를 읽는 독자를 의미 때문에 잠시 방황케 한다는 지적은 날카로워보인다.

“俗情化”, 정서를 풍속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풍속(風俗)은 예로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거나 그 시대의 유행과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김소월 시에서 정서를 풍속화한다는 것은, 시에 제시된 정서가 예로부터 조선 사회에 전해오는 습관인 것처럼 전화(轉化)된다는 의미이거나, 김소월 시에 제시되는 정서가 마치 그 시대의 유행이나 습관인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독자가 의미 때문에 잠시 방황하게 된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김소월 시의 특징은 서정적이고 이고 민족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독자를 中路쯤 다리고 왓다가는 途中에서 그 의미 때문에 잠시간 방황케 하는” 것은 김기진의 지적한 ‘결점’이 아니라, 그것은 김소월 시에 관한 어떤 ‘가능성’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김소월이 작고한 1934년 직전 해인, 1933년 3월 1일자로 발간된 삼천리 제5권 제3호에 이광수(李光洙)는 평론「朝鮮의 文學」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세계 속에서 조선문학의 입지를 고민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

> 금일의 朝鮮文學은 아직 세계 시장에 내노을 만한 정도에 도달치 못하얏다. 작가도 작품도 수에 잇서서도 질에 잇서서도 유감이나 아직 역사를 지닌 一民族의 문학으로써 널니 내여놀 수 업다. 다만 2천 3백만이라는 결코 수에 잇서서는 적지 안타고 할 一民族이 현재 소유하고 잇는 문학으로써는 소개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잇슬가.[190]

189) 김기진,「現 詩壇의 詩人」,『개벽』제58호(1925.4.1).
190) 이광수,「朝鮮의 文學」,『삼천리』제5권 제3호(1933.3.1).

이광수는 조선현대문학의 계보를 “ 愛國詩歌時代”, 이후 “崔南善의 散文詩時代”라고 하며, 신체시의 등장을 “約言하면 단순한 4.4調나 7.5調의 천편일률적 애국시가에 대한 불만으로 崔南善의 산문시가 나오고 그 산문시의 너무나 산문적 불만으로 좀더 정리된 좀더 구속적인 新體詩가 나왓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신체시에서 “朱耀翰, 金岸曙, 朴月灘, 金素月, 金巴人” 등의 시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김소월 시에 대하여 “민요풍의 애조을 띄운 시는 實노 朝鮮에 잇서 민요시나 동요의 魁이며 모범도 되엿슴으로 지금까지도 생명을 일치안는다.”고 평하고 있다. 이광수는 김소월을 신체시, 즉 당대 문단에서 새로운 시적 시도의 범주와, 민요시나 동요의 조선적 생명을 지닌 민족주의적 범주에 위치시키고 있다. 김소월의 시적 시도와 정조에 대하여 ‘민요시’, ‘신체시’로 범주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소월의 시를 민요시라고 처음 정리한 것은 소월의 스승이자 시인, 번역가, 평론가였던 岸曙 金億이었다. 김소월이 1922년 7월『개벽』25호에 「진달래꽃」을 발표했을 때 그 평에서 김억은 김소월을 민요시인으로 정리하였다. 김억은 김소월 사망 이후『삼천리』 제7권 제1호(1935.1.1)에 발표한「作家硏究」에서 소월의 공적이 “언어의 사용”, “표현으로의 용어”에 대한 부분에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 素月이가 朝鮮詩壇에 음직일 수 업는 커다란 功績을 遺産으로 남겨준 것은 言語의 使用이외다. 지금은 長足의 進步가 잇서서 제법 답온 用語를 使用하지만은, 그 當時로 보면 直譯式 文句가 아니면 外國語가튼 朝鮮말이 詩壇를 風靡하엿든 것이외다. 그 때에도 素月이는 言語를 살려서 使用하엿으니, 이것은 同君의 詩集「진달내꽃」를 들어다 보는 사람으로 누구나 認定하지 아니 할 수 업는 일이거니와, 그만치 素月이가 表現으로의 用語에 대한 注意는 집헛든 것이외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前에 그만한 關心을 言語에 대하야 가젓든 詩人은 업섯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외다. 素月의 用語에 대한 妙한 驅使는 實로 놀낼만 하엿든 것이외다.(밑줄 인용자)[191]

소월의 ‘언어 사용’과 ‘표현으로의 용어’ 대한 김억의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억과 김소월의 ‘시론’과 ‘시혼’의 논의를 살펴봐야 한다.

김억의 경우, 박월탄보다 거의 1년 뒤인 1923년 12월 1일 발간된 『개벽』제42호에 실은 평론「詩壇의 一年 」에서 예술과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 예술 하나만은 영구한 절대의 생명을 가지고 잇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예술을 남기기 때문입닛가, 또는 예술은 인생을 詩와 美로 곱게 하랴입닛가. 그러나 생명은 짤고, 예술은 깁니다, 짤븐 인생은 예술로 말미야서만 기억도 되며 오래살 수도 잇습니다. (중략) 詩에 대하야 멧 마듸를 하랴고 합니다. 나는 시를 세 가지로 난호고 십습니다, 毋論 여긔 시라는 것은 舒情詩의 뜻입니다. 제일의 詩歌는 詩魂의 恍惚이 詩人 자신의 맘에 잇서, 詩人 자신만이 늣길 수 잇고 표현은 할 수 업는 心琴의 詩歌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고 第二詩歌는 心琴의 詩歌가 문자와 언어의 약속 만흔 형식을 밟아, 표현된 문자의 詩歌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또 제삼의 詩歌는 문자의 詩歌를 일반 독자가 翫賞하며, 각자의 의미를 붓치는 현실의 詩歌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밑줄 인용자)[192]

김억이 이 글에서 시라는 것은 ‘서정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心琴의 시가, 표현된 문자의 시가, 현실의 시가’ 등 세 개의 층위로 시를 위계화하고 있다.

191) 김안서,「作家硏究」,『삼천리』제7권 제1호(1935.1.1).
192) 김안서,「詩壇의 一年」,『개벽』제42호(1923.12.1).

또한 이 글에서 김억은 김소월의 시를 “「님의 노래」와 「넷이약이」(開闢 2월호)의 두 편은 문자로 표현된 것 밧게 恍惚의 詩魂의 빗남이 업습니다, 말하자면 한번 읽어바리면 아모러한 기억을 주지 못할 만한 詩입니다.”라고 혹평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소월은 1년 뒤인 1925년 5월 1일 『개벽』 제29호에「詩魂」을 게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을 제기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193]

> 詩魂은 本來가 靈魂 그것인 同時에 自體의 變換은 絶對로 업는 것이며, 가튼 한 사람의 詩魂에서 創造되여 나오는 詩作에 優劣이 잇서도 그 優劣은, 詩魂 自體에 잇는 것이 안이오, 그 陰影의 變換에 잇는 것이며, 또는 그 陰影을 보는 翫賞者 各自의 正當한 審美的 眼目에서 判別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童濯禿山의 陰影은 落落長松이 가지버더 트러지고 淸溪水 맑은 물이 구뷔저 흐르는 鬱鬱蒼蒼한 山의 陰影보다 美的 價値에 乏할 것이며, 또는 개이지도 안으며는, 비도 내리지 안이하는 흐릿하고 畓畓한 날의 陰影은 雷聲電光이 今時에 번가라 니르며 대쭐기가튼 비빨이 붓드시 나려쏫치는 驟雨의 녀름날의 陰影보다 우리에게 快感이 적을 것이며, 따라서 살음에 對한 美的 價値도 적은 날일 것입니다.
> 그러면 詩作의 價値如何는 적어도 그 詩作에 나타난 陰影의 價値如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陰影의 價値如何를 識別하기는, 곳, 詩作을 批評하기는 至難의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중략)
> 詩魂은 直接 詩作에 移植되는 것이 안이라. 그 陰影으로써 顯現된다는 것과, 또는 顯現된 陰影의 價値에 對한 優劣은, 적어도 其 顯現된 程度及 態度 如何와 형상 如何에 따라 創造되는 各自特有한 美的 價値에 依하야 判定할 것임을 말하고, 인제는, 이 부끄럽을 만큼이나 족으만 論文은 이로써 끄틀 짓기로 합니다. (밑줄 인용자)[194]

김소월의 최초이자 마지막 시론인「詩魂」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다.

> 첫째, “詩魂”이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쓰게 만드는 내적 요인이자 정신적 기관이라고 할 때 시혼 자체는 불변하고 이미지 및 그림자 “陰影”의 다양한 조각들을 감지하고 포착하며 반영한다. 시혼에 대한 이런 관념에 바탕할 때, 시에 따라서 시혼의 깊고 얕음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들이 별개의 시혼에 의해 생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둘째, 개별 시작품에서 변화하고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불변하는 시혼이 아니라 다채로운 음영이다. 그런데 이 음영들에 대해서도 시적 가치나 우열을 비교하고나 평가할 수 없는데 각각의 음영들은 저마다의 고유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띄고 있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혹은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5]

이들 주장을 정리하면 김억의 경우는 현실 저 너머에 본질이 있다는 전제에 있는 상징주의에 근거하여서 ′시의 위계와 시의 깊이′의 문제를 논한 것으로 보인다. 김억이 지향했던 상징주의는 언어 저 너머에 본질과 관념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상징주의자들에게 언어란 사실적 묘사나 객관적 기술이나 지시기능을 넘어서 암시적이고 함축적인 것, 인간의 본

193) 김억의「詩壇의 一年」과 김소월의 「詩魂」의 내용과 관계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권희철(2014.3), 「1920년대 시에서의 죽음의 문제: 시혼을 둘러싼 김억과 김소월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학술대회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pp.12-30.
194) 김소월,「詩魂」,『개벽』제59호(1925.5.1).
195) 김소월의 반론에 대해서는 앞의 권희철의 글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권희철(2014.3), 앞의 글, p.15.

질과 관념을 표상하고 넓은 정신 공간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했다.[196] 그렇기 때문에 김억은 김소월의 시가 깊이가 없다고 혹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소월의 경우에는 현실에 항상 임리(淋漓)해 있는 죽음이나 상실에 의하여 저마다의 고유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각성하는 문제를 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시적 가치나 우열을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소월의 주장을 보면 시의 깊이 따위는 없다는 것이 읽힌다. 다시 말해, 시의 본질이나 관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단지 시 작품에서 변화하고 차이를 드러내는 다채로운 '음영'으로부터 비롯한 저마다의 고유성과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상징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방식대로의 '시의 깊이'나 '시의 본질이나 관념'이 있다는 전제는 김소월에게는 없다.

김억과 김소월의 논의를 할애하여 검토한 이유는, 3·1운동 이후 정책적 변화를 겪으며 문학의 발전과 방향을 고민했던 당시 문단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구 사상의 수용과 소개, 상징주의의 유행이 한쪽에 있었고, 민족시나 민요시가 다른 한 쪽에 있었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또 다른 한 쪽에 있었다.

> 3·1운동 세대의 신문학 운동은 1920년대 들어 계몽주의의 종언을 불러왔고,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를 두 기둥으로 하여 근대문학의 제도가 신문학의 이름 아래 정착하게 했다. (중략) 이 시기는 또한 정치 문제가 문학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직접적 투쟁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감시되는 문학이 정치 담론의 통로였다. 정치 문제가 문학, 그중에서 특히 평론을 표출되는 특성이 이 시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카프(KAPE,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1925~1935)가 결성되는 1920년대 중반 즈음부터 신문학은 국민문학파(우파), 프로문학파(좌파), 그리고 절충파(중간파)라고 불린 문단 세 파 사이에 치열하게 치러진 대논쟁 시대로 진입한다.[197]

이러한 문단 상황에서 김소월은 '민요 시인'과 '시조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 '신체시' 등의 주제어로 정리되어 왔다.

> 주요한의 뒤를 이어 한국시가 과제로 짊어지게 된 두 가지 문제,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국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시 형식을 찾는다는 어려운 문제와 씨름한 사람은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이다. 그 세 시인들에게 공통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시형의 탐구이다.[198]

한국문학사에서는 김소월을 7·5조의 리듬을 갖춘 시 창작에 몰두했고, 한용운과 이상화는 자유시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고 정리하고 있다.[199] 김소월이 새로운 시적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것은 리듬을 갖춘 시였다는 정리이다.

앞선 살펴본 평가와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김소월 시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시적 시도'이며 '(민요시인으로 대별되는) 리듬'을 갖춘 시라는 것이다. 그의 시세계에 대한 평가에서 부각되는 것은 정형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적 시도였고, 민요시인이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평가와 논의들은 김소월 시대 이후 연구에서는 '한(恨)'의 정서로 규명되면서 전통시

196) 김경란(2005), 『프랑스 상징주의』, 연세대학교출판부, p.19.
197) 최원식(2012), 『문학』, 소화, pp.206~210.
198) 김윤식·김현(1996), 앞의 책, pp. 221~222.
199) 위의 글, p.234.

로 평가하는 연구들로 이어진다.

김소월 시의 대표적 정서를 '恨'으로 규명하고, 시의 본질이 역설적 거리에 있다고 정리한 논의에서는 그 역설적 거리를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관념적 거리'로 세분화하며, 역설적 거리가 반영하는 인간 존재의 모순과 유한성 문제를 존재의 근원적 조건으로 고찰했다.[200] 그는 김소월 시의 한의 동기를 식민지 현실에서 찾고 민족 시인, 민족적 원형질에 기초한 시인으로 "소월은 근대의 한국 시인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통론자"라고 정리한다.[201] 소월시에 대하여 '근대의 한국 시'이며, 보기 드문 '전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전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듬'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한 장철환의 논의가 있다. 그는 1920년대는 근대 자유시의 성립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기를 '시적 리듬'이라는 개념과 '율격론이 가지는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시기로 규명하고 있다. 소월 시의 리듬이 근대 자유시의 성립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온 외래와 전통, 내재율과 외형률의 상호 교차 지점, 과거와 현재, 안과 밖,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분법적 길항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정리한다.[202]

리듬은 흐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본 논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형시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시적 시도'로서의 민요조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민요라는 것, 이것이 과연 전통적인 것인가, 또 전통이란 무엇인가, 유학까지 다녀왔고 신문사도 운영했던 김소월은, 시대 감각이 충분했을 것인데 그는 왜 민요조, 전통적 서정이라는 시적 형식을 추구했는가, 과연 민요조, 전통적 서정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것인가 등등의 물음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전통이 근대의 반대 급부로서 언급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전통의 범주에서 벗어나 김소월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요시, 전통시라는 틀에서 김소월 시를 탈각시켰을 때 펼쳐지는 풍경과, 시인이 풍경을 통해 모색했던 윤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김소월의 시가 하나의 사유이미지로 작용하고 있으며, 김소월이 제시하는 풍경이 김소월이 당대 시대적 상황에서 모색한 하나의 글쓰기 전략이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통과 사유이미지로서의 시

김소월 시를 민요시나 전통시로 정리할 때, 그의 시가 보여주는 '새로운 시적 시도'를 민요시나 전통시로 봉합해버리는 우려가 있다. 김소월의 시는 "단순히 옛날 전통에 대한 향수와 회고가 아니"며, 그는 "전통과 근대의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결합에 대한 혼돈스러운 질문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203] 그의 시에서 제시되는 죽음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는 옛날이나 전통의 범주에 고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죽음과 영혼의 문제는 우리 삶에 언제나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요시, 민요시인이라는 의미가 과연 전통적인 것인지, 전통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요시에 대한 방향 탐색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시가 형식의 창출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204] 일제 식민 시기 상황에서 조선인의 공동체의 유대나 민족적

---

200) 오세영(2000),「恨과 그 시적 반영」,『김소월, 그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pp.54～55.
201) 오세영(2000),「한, 민요조, 여성성, 민족주의」, 위의 책, p.99.
202) 장철환(2011),『김소월 시의 리듬연구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pp.4~5.
203) 신범순(2006),「떠도는 존재들의 우울과 사랑의 향기로 된 우주」,『바다의 치맛자락』, 문학동네, p.191.
204) 신범순(2011),「<산유화>의 신성한 기원과 그 계승」,『노래의 상상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서를 잇기 위한 일환으로 민요시 형식 탐구가 요구된 것이다. 식민 시기 이전 사회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으로 민요시라는 형식적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의 전통은 '과거 양식'에 준거하여 구성된다. 이전의 양식에 의존하거나, 반복과 구성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이 전통의 구성 방식이다. "전통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예전 상황들에 준거하는 형식을 띠거나, 아니면 거의 강제적인 반복을 통해 제 나름의 과거를 구성"[205]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처하여 있고,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응할 필요와 요구'가 있고, 이를 위해 '과거에 바탕'하여 '반복이며 공식으로 정착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에릭 홉스봄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 만들어진 전통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특정한 집단들, 실재하는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공동체들의 사회 통합이나 소속감을 구축하거나 상징화하는 것들이다. 둘째, 제도, 지위, 권위관계를 구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들이다. 셋째, 그 주요 목표가 사회화나 혹은 신념, 가치체계, 행위규범을 주입하는 데 있는 것들이다. (중략) 세 유형들 중 첫째 유형이 우세했고, 따라서 그 밖의 다른 기능들은 모두 특정한 '공동체' 그리고(혹은) 그 공동체를 대표하고 표현하며 상징하는 제도들—가령 '민족'처럼—과의 일체감에 내재해 있거나, 적어도 그런 일체감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206]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영국 사회가 추진한 것은 전통을 만드는 것이었다. 만들어진 전통이 요구되는 사회는 차이와 갈등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계급, 사회적 유동성, 이데올로기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이와 갈등이 다양한 사회 집단들에 내재해 있었다. 집단에 존재하는 차이와 갈등에 대하여, 만들어진 전통은 "공식적인 상징적 동의"를 통해 은밀하게 도입될 수 있었다.[207] 만들어진 전통이 그야말로 '전통'이 되는 과정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고리로 하나의 동일성을 배태한 집단을 만드는 일이었다. 공동체 의식의 공유는 다양한 집단의 단순화, 즉 동일성의 논리에 포섭된 집단들의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공유는 정책에 대한 집단의 반응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배계층에게는 정책의 명분이나 적용이 용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 피지배계층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유대감 또는 소속감에 의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불안이나 소요를 감쇄하고 안정과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만들어진 전통은 "공식적인 상징적 동의"에 의해 도입되며 지배층, 피지배층 각각 양상을 다르지만 집단들 내에서 일종의 유토피아적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고 상징화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전통' 개념을 이 글에서 차용하면, 1920년대 문인들에게 민요시 형식은 다음의 정황들 속에서 '전통'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식민지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상황에 대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식민지 시대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에 대응할 전통이었다. 민요시

---

p.533.

205) Eric Hobsbawm(2004),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출판그룹, p.21.

206) 위의 책, p.33.

207) 위의 책, p.34.

는 이러한 전통의 일환으로 식민지 시기 민족적 유대를 유지할 기반이자 체제로 구성되어야 했다. 둘째, 봉건적 사대부 장르인 시조보다는 민중의 생활에 더 밀접한 형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시조보다는 형태적 측면에서 구어의 형태로 전파될 수 있고 또 구어성을 가진 민요시 형태가 접근성 측면에서 보다 민중의 생활에 밀접했을 것이다. 셋째, 노래를 통해 위안과 즐거움을 찾던 민족의 성향을 감안해야 했다. 넷째, 노래 형식이 지닌 반복과 지속의 힘이 있다. 노래라는 것은 리듬을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고 민요시는 이에 바탕해 있기 때문이다. 다섯 째, 민요 속에 깃든 공동체의 역사나 정신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거의 준거가 되었다는 점이다.[208]

정리하면,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것은 집단들의 사회 통합이나 소속감을 구축할 수 있는 공공의 상징체계이다. 식민지 시기 민요시라는 형식을 만들어진 전통으로 이해할 때, 이 민요시의 형태가 '조선'이라는 공공의 상징이자 유대의 원천을 상실한 조선인 집단에게 민족적 유대를 형성하고 일체감을 부여할 수 있는 형식이자 제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당대의 지식인의 고민이 있었다.

그렇다면 민요시라는 형식에서 민요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민요라는 개념은 '민족의 노래' '고향의 노래'로서 민요의 기능은 국권 상실을 전후하여 새롭게 형성된 것이었고, 이때 민요는 그 자체만으로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환기시키는 시적 장치였다.[209] 민요가 추구하는 바는 민족성 또는 민족적 유대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 민족적 유대에 대한 필요는 세계 속의 조선인을 전제로 할 때 생겨난다.

1920년대 초부터 『개벽』을 중심으로 민요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고, 이때 민요에 대한 의식은 크게 '설움과 한의 노래' 그리고 '민족성을 표현한 노래' 라는 두 가지의 양태로 나타났다.[210] '조선'을 상실한 조선인에게 필요한 것은 '조선'을 대체할 상징체계이고, 이 대체적인 상징체계는 '조선'에 버금가는 유대와 귀속감,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했다. 민요에 대한 고민, 민요시 형식 정립에 대한 모색은 정치적 공동체 '조선'을 상실한 조선인을 위한 '하나의 장'을 모색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모든 정치가 치안에 압도된 식민지라는 조건이 신문학의 정치성을 한층 높이 담보하였으니, 3·1운동으로 날카롭게 깨워진 해방의 감각에 충실한 신문학은 조선 민중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정부'였다.[211] 1920년대 이뤄진 민요 운동과 민요시 형식에 대한 고민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민요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더불어, 민요시에 관한 고민은 1910~20년대 초기의 모든 정형율의 파괴를 지향했던 자유시에 대한 반성을 기반하여 이뤄지고 있었고, 민족 고유의 전통에 근거하여 민족적인 정서와 사상, 언어와 리듬을 표현하는 근대시의 창조로 구체화되었다.[212] 민요시라는 용어는 김억이 김소월의 「진달래꽃」[213]을 발표했을 때 처음 사용하였고, 그는 '시의 족보'를 분류하면서 민요시를 서정시 장르의 하위 범주인 양식으로 규명하면서 민요시를 미래시, 입체시, 자유시, 상징시 등의 근대적인 시 양식과 대등한 하나의 양식 개념으로 설정하였다.[214]

---

208) 민요시 형식을 만들어진 전통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노래와 민요시 형식, 시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는 다음의 저서를 참고하였다. 신범순(2011), 앞의 책, pp.533~543.
209) 심선옥(2003),「1920년대 민요시의 근원(根源)과 성격」, 상허학회, <상허학보>, pp.285~311.
210) 심선옥(2003), 위의 글, p.292.
211) 최원식(2012),『문학』, 소화, p.207.
212) 심선옥(2003), 위의 글, p.295.
213) 김소월(1922.7),「진달래꽃」,『개벽』.
214) 심선옥(2003), 앞의 글, pp.296~297.

민요시는 시대적으로는 '조선'의 상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만들어진 전통이자 새로운 상징체계였고, 문학사적으로는 자유시의 형식적 문제에 대응할 하나의 근대시 양식이었다. 김억은 김소월을 민요시의 범주에 정위시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민요시의 범주에 김소월의 시를 배치할 때 소월의 시를 해석할 다양한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215] 민요시라는 형식을 이해하되, 그 개념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해를 '조선'을 상실한 조선땅의 조선인 집단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상징체계로 옮겨 보자. 만들어진 전통이자 시대의 요구에 의해 정립되는 새로운 상징체계로 우리 시선의 중심을 옮기면 시공간의 문제와 질서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된다.

식민지 시대는 일제가 '조선'을 강탈하고 조선땅의 시공간을 지배해나가는 시기였고, 문화적 측면에서 '지배를 위한 전통'을 만들어나가던 시기였다. 식민지 시대는 일제가 소유한 역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사적 시간이란 역사를 소유한 자들의 시간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의 리듬을 소유한 자들에 일치시키려는 '제국의 시간', '권력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216] 일제가 소유한 '조선'을 상실한 조선땅의 시간은 '제국의 시간'이고 '권력의 시간'이었다.

조선인 집단은 일제가 제시하는 '만들어진 전통'에 의하여 '융화'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융화'는 일본 본토에서 일반민과 피차별 부락민 사이에서 요구되다가, 일본제국 차원에서 식민지 조선인과의 관계까지 '내지연장'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217] 조선인의 문명화가 곧 일본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일본의 발전은 곧 동양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표면적으로는 상생에 기초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업신여김을 받던 조선인의 불만이 1919년 3·1운동으로 분출되자 '무차별'을 내세우며 업신여김을 하던 일본인에게 의식 변화를 촉구하고 조선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문화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문화통치의 서막을 알린 다이쇼 천황의 '일시동인'의 천명을 살펴보자. "짐은 일찍이 조선의 강녕을 염원하고 그 민중을 애무하기를 일시동인, 짐의 신민으로서 추호의 차이도 없고, 각기 그 자리를 얻어 그 삶을 유지하면서 똑같이 휴명(休明)의 은택을 향유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218] 문화통치는 표면상으로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지만, 기저에는 조선인의 불만을 상쇄하고 일본의 충실한 신민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신민화 전략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조선인은 천황의 신민이 되거나 독립을 되찾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219]

이러한 일제의 지배 전략 속에서, 조선말로 된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 자체는 조선적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확보하는 행위였을 것이다. 조선인 집단의 정체성을 조선적인 것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통이자 체제로서 문학이라는 제도가 작동했다. 조선말로 이뤄진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조선인이 조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이자 조선인 집단에 대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내면화는 독자층뿐만 아

---

215) 김소월이 근대 시인이며 근대시를 썼다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있다. 권희철(2009.12),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1920년대 문학의 문답지형도」,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pp.141~173; 남기혁(2008.12), 「김소월의 시에 나타난 근대 풍경과 시선의 문제」,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론총〉. pp.373~406; 이광호(2013), 「김소월 시의 시선주체와 미적 근대성」, 〈국제한인문학연구〉, pp.125~148; 이웅기(2020), 「소월시에 나타난 미적 근대성 연구-언어감각 원리와 '시혼'의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pp.137~163.

216) 이진경(2010),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p.34.

217) 이정선(2020.2), 「1910~1920년대 '내선융화'선전의 의미-일본인과 부락민·조선인 '융화'의 비교」,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pp.354~380. 이 글에서 '융화'에 대해 인용한 부분은 p.355.

218) 조선총독부(1935), 『시정 25년사』, p.311; 이정선(2020.2), 위의 글 p.361에서 재인용.

219) 이정선(2020.2), 앞의 글, p.375.

니라, 작가들에게도 유효했다.

소월의 시가 민요시로 배치될 때 김소월 시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김억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민요시, 서정시의 범주로 규명한 것은 '시의 본질이나 관념'이 있다, '시의 깊이'가 있다는 상징주의 프리즘에 입각한 판단으로 보인다. 김소월의 시가 '민요적'이고 그것이 곧 '민족적'이며, '시의 깊이가 없다'는 정리는, 당대 문단에서 민요시가 조선적인 것, 조선적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김소월의 시를 '시의 본질이나 관념' 혹은 '시의 깊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민요시라는 문학사적 틀에서 벗어나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시간을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식민지 시기에 문학이 하나의 장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작동한다. 김소월의 시는 일제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시간에서 '시'라는 사유이미지를 제출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식민지 시기 상황에서 역사의 시간을 일제에게 강탈당한 조선인에게 유효한 것은 문학이라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시를 읽는 행위는 '응시(凝視, gaze)'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응시와 시각을 구별한 사르트르의 논의를 빌리자면, 응시란 단순한 지각이라기보다는 주체의 지향성이 담긴 지각이고 즉자존재(卽自存在)가 아니라 대자존재(對自存在)와 결부된 것이다.[220] 시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지면에 제시되고, 시를 읽으려는 의지의 독자가 지면상의 시를 들여다볼 때, 이때의 시는 지향성을 눈을 통해 응시하는 대상이 되고, 동시에 사유를 동반하는 이미지가 된다. 시를 응시한다는 의미는 시가 제시하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주체의 지향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또한 시가 제시하는 풍경에서 시를 읽음으로 해서 타자인 자신을 발견하는 풍경을 자각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시를 읽는 행위 과정은 시에 대한 응시, 그리고 시 읽기에 의해 이뤄지는 주체의 대상화를 동반한다. 시 읽니는 주체의 메타적 시선 확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시가 사유를 동반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응시를 통해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사유의 지평을 연다는 의미인 것이다.

역사적 시간에서 지면에 발표되는 시작품의 의미는 역사적 시간에 사유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새로운 유형의 의식을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적 공간의 창출은 개인 의식 변화에서 나아가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연다. 공간적 배치는 이미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며, '사회적 변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로이며, 그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집합적인 삶의 양상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이다.[221]

'조선'을 상실하고, '조선'이라는 시공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조선인들에게 신민화 정책 전략으로 역사적 시공간에 대한 인식은 선험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 선험적인 직관형식을 신문, 잡지, 라디오 등 각종 선전 매체가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의한 조선 민족성 논의는 일본국민성 논의가 내셔널리즘과 강하게 결탁하는 과정 속에서 출현하였으며, 이후 조선인의 열등성을 부각시켜 민족 간의 차별을 공고히 하는 역할로 귀결되었다.[222] 칸트에 따르면 개인의 경험과 시간 및 공간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판단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선험적 조건'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정립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성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223]

---

220) Jean-Paul Sartre(1976), 손우성 옮김, 『존재와 무』, 삼성출판사, pp.435~505; 이진경(2010), 앞의 책, p.77쪽에서 재인용.

221) 이진경(2010), 앞의 책, pp.162~163.

222) 이지원(2020.3),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지 사회교화정책과 조선 민족성」, <學林> 제45집, pp.167~202. 인용된 부분은 이 글의 p.180.

조선인들에게 일제가 제시하는 '역사적 시공간' 뿐만 아니라 '조선적인 것' 또한 선험적으로 주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조선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융화'하는 전략을 펼쳤던 것이다. 1920년대 일제는 조선적인 것을 규명하면서, 조선왕조 지배 이념이자 생활 규범이었던 유교적 풍속 즉, 순종과 충효의 도의를 '국민이 당연히 지녀야 할 도덕'으로 선정하였고, 민간신앙이나 무속 등이 곧 조선의 고유문화 혹은 전통이며, 이러한 고유문화 정서가 곧 조선인의 민족성이라고 부각시켰다.[224]

'조선적인 것'조차 일제는 지배전략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1920년대에 조선인 문인들, 당대 지식인들의 고민은 이중적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쪽에는 조선적인 것이

김안서, 「요절한 박행시인, 김소월에 대한 추억(1)」, <조선중앙일보>,1935년 1월 22일자.

곧 민족성이고 그것이 전통이라고 '융화'의 전략을 펼치는 일제의 치밀한 문화통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러한 제약적인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조선인 개인의 인식 변화를 촉발할만한 조선인을 위한 하나의 장, 하나의 시적 형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중적 상황이었다. 이 지점에서 전통시인 김소월, 민요시인 김소월, 김소월의 시를 다시 살펴봐야 할 의의가 생긴다.

김소월의 시는 전통적인 한국 정서와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정리되어 왔다. 그러나 소월 자신이 김억에 의해 '민요시인'으로 명명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 이것은 「나의 집」의 詩거니와 이것을 만일 이 詩人의 民謠에 比겨 본다 하면 그 얼마나 純情의 빛이 적은지,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외다. 素月이 自身은 어떤 理由인지 모르거니와 民謠詩人으로 自己 부르는 것을 그는 싫어하여 詩人이면 詩人으로 불러 주기를 바라던 것이외다. 그러나 事實은 亦是 그는 어디까지든지 民謠形에 남보다 類다른 솜씨를 보여 주던 것이외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自然스러웠습니다.[225]

---

223) 이진경(2010), 앞의 책, pp.167~168.

224) 이지원(2020.3), 위의 글, pp.191~193.

225) 김억은 <조선중앙일보>에 「요절한 薄倖시인, 김소월에 대한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1935년 1월 22일부터 1935년 1월 26일까지 총 5회분의 김소월을 회고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 회고에서 김억은 김소월이 '민요시인'을 명명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신문 지면을 확인하고 다음 저서에서 수록된 부분을 발췌하였다. 김안서, 「요절한 박행 시인, 김소월에 대한 추억」, 신동욱 편저(1981), 『김소월』, 문학과지성사, p.202.

김소월이 '민요시인'이라는 김억의 명명을 싫어했다는 회고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함께 놓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민요시인으로 규명되는 것은 조선적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일제의 치밀한 전략 하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문단의 민요시 추구는 또 다른 이름의 조선적인 것 추구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소월 자신의 시가 구축하는 세계가 하나의 만들어진 전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염려로 이해될 수 있다. 김소월의 시는 "전통적 시 형식의 계승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주제를 '활용'하여 근대적인 시를 한반도의 언어문화의 장 안에서 개발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통과 단절하는 방식으로 활용"[226]했다고 읽을 수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새로이 '구성'되어야 할 역사를 위해 파괴되어야 것은 무엇보다 문화사가 지어 보이는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가상, 그리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가상이다.[227] 전통적인 것이 곧 조선적인 것이라는 가상, 전통적인 것의 추구가 곧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상은 당대 일제의 지배 전략에 의해 조선인에게 유포되었던 '만들어진 전통'의 유토피아적 제시였다.

김소월은 이런 시대에 '전통과 단절하는 방식'으로 시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전통'이라는 것, 조선적이고 고유한 전통이라는 것은 식민지인을 '융화'하기 위한 동일화 지배의 논리였다. 이러한 '융화'라는 동일성을 목표로 시공간을 끌어나가는 일제의 역사적 시간에서 조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것이 일제라는 시대 하에서 조선인이 조선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벤야민의 논의를 빌리자면, "살았던 유사성(gelebte Ähnlichkeit)은 경험을 말한다. 벤야민적 경험은 '기억', '꿈과 깨어남', '충격 체험', '마약' 체험, '기시감'(旣視感, déjà vu)과 같은 초심리학적이고 '신비적'(okkult)인 체험 일반을 주목한다.[228] 일제가 '전통'을 정책적으로 정립하면서 조선인 집단을 조선적인 것, 고유한 전통이라는 문화 아래에서 '융화'시키려는 전략은 동일성에 기반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벤야민의 경험이란 "살았던 유사성"으로 일제 지배하에서 조선인에게 어떤 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사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지만 차이를 배태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해서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반성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분명 같은 것은 아니어서 차이까지 자각하게 하는 것이 유사성이다. 일제가 정립해서 제시했던 '전통'이라는 것은 분명 조선에 존재했던 문화들이었지만 그것이 꼭 조선적인 것이고 조선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문학, 종교, 언어, 학문, 제도, 예술, 철학뿐만 아니라 풍속, 풍습 등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생활 양식이나 행동양식을 말한다. 문화는 광범위한 삶의 양식을 가리키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습득되고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다. 사회화를 통해 문화가 습득되는 것인데, 일제의 조선 '융화' 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전통'의 요소를 정하고 학습 시켰던 것이다. 이때, 사회화로 몸과 정신에 습윤된 '전통'으로부터 인식적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을 비틀어 볼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하다. '전통' 속에서 '전통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동일성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유사성과 차이를 발견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는 것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기억은 지나간 것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매개물(Medium)이라는 사실을 언

226) 정과리(2020), 「「진달래꽃」이 근대시인 까닭 혹은 몰이해의 늪에서 꺼낸 한국시의 특이점」,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pp.53~65.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은 p.56.

227) 최성만(2008), 「발터 벤야민의 역사철학적 구제비평」, 『발터 벤야민 선집5 :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도서출판길, p.18.

228) 최성만(2008), 위의 글, p.22.

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229]

김소월의 시가 전통시, 민요시에 범주화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김소월의 시가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쓴 시라는 점에 천착한다면 근대 초기 자유시에서 김소월 시의 지점을 다시 짚어볼 수 있다. 앞서 김소월 시 리듬에 관한 논의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 '민요시인'으로서의 김소월의 위상이 전통의 계승이라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은 "傳統的인 抒情"인 '情恨'이라는 내용적 측면과 "傳統的인 律調"인 "민요적인 가락"이라는 형식적 측면의 결합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관건은 전통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정한'과 '민요조'의 실제적 내용을 확증하는 것이다. 특히 전통의 형식적 측면을 구성하는 민요조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민요조 리듬에 대한 이해는, 근대 초기 자유시라는 새로운 형식에 대한 사유뿐만 아니라 시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결정짓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기능하기 때문이다.[230]

김소월 시에 제시되는 전통적 요소는 민요조의 리듬, 정서, 기억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언어가 기억 그 자체가 아니듯이, 기억은 과거나 전통을 알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매개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김소월 시는 기억을 매개로 시라는, 하나의 독립된 세계를 가진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이미지들은 이전의 언어적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통찰과 깨달음'이라는 각성으로 우리의 사유를 이끈다. 기억으로부터 시를 응시하는 과정은 기억이라는 경험을 매개로 다른 사유를 환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때에는 말업시
> 고히고히 보내들이우리다.
>
> 寧邊엔 藥山
> 그 진달내꼿을
> 한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
>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 뿌려노흔 그꼿을
> 고히나 즈러밟고 가시옵소서.
>
>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흘니우리다.
>
> —김소월,「진달내 꼿」전문.[231]

이 시는 이별이라는 경험을 매개로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를 이끈다. 김소월이 과거 어떤

229) Walter Benjamin(2007), 김영옥·윤미애·최성만 옮김,「발굴과 기억」,『발터 벤야민 선집1』, 도서출판 길, p. 182.
230) 장철환(2011), 앞의 책, p.105.
231) 김소월(1922.7),「진달내 꼿」,『開闢』; 『전집』, p.166.

이별의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별의 기억을 매개로 사용한다. 이별은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는 인연의 생리와 맞닿아있다. 비단 사랑하는 연인들만 겪는 인연의 과정이 아닌 것이다. 탄생과 죽음도 이별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탄생은 모체와의 이별을, 죽음은 자기 육신과의 이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연인의 만남은 사랑의 끝남과 이뤄지는 이별을, 국가는 건국 이후 멸망이라는 이별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라는 이별은 언제나 도래하기 마련이다. 이별에 대한 기억, 이별에 대한 경험은 조선적인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인간 삶에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가 사용하는 경험은 '영변에 약산'이라는 장소이다. 실제로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면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480m에 달한다고 한다. 김소월은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에서 출생해서 자랐다. 익숙한 기억의 장소에서 이별이라는 경험적 상황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나'의 의지이다.

세 번째, '때'라는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현재가 아니고 도래하지 않은 어느 지점이라고 읽힐 수 있다. '때'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 '일정한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현상에 따라 시간을 구분한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일제가 제시하는 전통의 정의와 달리, 이 부분에서의 전통을 인간의 역사에서 보편적인 것, 그리고 반복되는 경험으로 정의한다면, 김소월의 이 시작품은 전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별이라는 행위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간 삶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자연물인 영변의 약산은 인간의 역사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우리는 그 산과 함께 경험한 역사를 가져왔고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때'는 반복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반복적이고 보편적인 요소가 김소월의 시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경험이라는 것이 현재의 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 근대의 시간을 분절하고 호출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더니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 시간은 권력의 시간이고 제국의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에서 이별, 장소에 대한 경험을 '때'라는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자 공간으로 편재시키는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모더니티를 현재로서의 현재에 대한 의식이라고 정의한다면, 모더니티는 '현재'라는 단 하나뿐인 영원성과 관련되게 된다.[232] 이 시에서 그 '때'가 오면 어떻게 하리라는 '의지'는 이 시가 진행되는 '현재'에서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다.

역사적 시간에서 해방되어 '때'를 기다리는 '의지'는 '현재'를 사는 '나'의 이중성을 깨닫게 하기도 한다. 님이 떠나면 보내드리겠지만, 또 정작 떠날 때가 도래하면 죽어도 아니 눈물흘리겠다는 이중성 말이다. 표면적으로 '때'가 도래하면 님을 고이 보내드리고, 눈물도 아니 흘리겠다는 의지로 현재를 지속시키고 있지만, 내면에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 이 '때'가 가지는 '이별에의 결연한 표면적 의지'와 그러한 '이별의 때가 도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면적 기대'라는 이중성은 '의지'를 추동력으로 하여 지속된다. '의지'에 의해 이러한 이중성은 '때'가 오기 전까지 현재로 존재한다. 이 현재에서 '나'는 자신의 내면적 기대를 비워내고 비워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때'는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의지'로 견인되지 않으면 현재가 아니다. 그러한 내면적 기대의 실효성은 '의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로 채워지는 '나'의 현재는 계속해서 내면을 비워내는 실천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적 상태는 '나'를 역사적인 시간이 아닌 '비-역사적'인 시간 혹은 역사적 시간 너머의 '초-역사적' 시간을 환기할 수 있게 한다.

'때'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이자 미결의 상태이다. 이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영속성에서 '나'

232) Antoine Compagnon(2008), 이재룡 옮김, 『모더니티의 다섯 개 역설』, 현대문학, pp.38~39.

에게 '의지'로 견인되는 '현재'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다. 도래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충만한 '현재'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먼 훗날에 당신이 차즈시면
그째에 내말이 「니젓노라.」

맘으로 당신이 나무려하시면
그째에 내말이 「무척 그리다가 니젓노라.」

당신이 그래도 나무러하시면
그째에 이말이 「밋기지안하서 니젓노라.」

오늘도 어제도 못닛는 당신을
먼 훗날 그째에는 니젓노라.

—김소월,「먼 後 日」전문.[233]

이 시 또한 '째'가 제시된다. 1연에 '먼 훗날'에 당신이 찾으시면 '내말'이 잊었노라. 2연에서는 '마음'으로 나무라면 '내말'이 잊었노라, 3연에서 '육성'으로 나무라시면 '이말'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못 잊는 당신을 먼 훗날 그때가 도래하면 잊었노라.
'-노라'는 자기의 동작이나 행위를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잊었노라'는 '당신'에 대해 앞으로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한 장중한 선언으로 읽힌다. 1연에서 '내말'은 잊었노라고 진술되고 있는데, 여기서 '내말'은 미래에 있을 나의 답이다. 2연에서 '내말'도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는 미래에 있을 나의 답이다. 3연에 가면 '이말'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이말은 당신이 잊었다고 말했는데도 그래도 나무라면 그 나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로 읽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말'은 미래에 당신이 나를 나무라는 말이다. 4연에 가면 '내말'이나 '이말'이 없고 그냥 '잊었노라'는 선언만 제시된다. 이 시에서는 '내말', '이말', 그리고 잊었노라는 마지막 선언이, 도래하지 않는 '먼 훗날'의 기한까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찾으시면', '나무라시면'이라는 '가정(假定)'과, 오늘도 내일도 못 잊는 당신이라는 '사실(事實)'은 '먼 훗날', '그 때'가 도래하는 순간까지 반복된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흐르는 순간이 반복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의지는 현실로 현상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반복되기만 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소월의 시 언어는 꿈의 언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 사유에 현실로 현상되지 않는 의지적 기억이라는 꿈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월은 의지와 이미지를 결합시키고 있다.
김소월의 시는 일제가 지배하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파장을 일으킬 꿈의 장을 열고 있다. 일제가 표방했던 조선적인 것이 곧 전통이고, 조선인의 문명화가 곧 일본의 발전, 동양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시대적 시공간 속에서 김소월의 시를 통해 제시되는 꿈의 장은 공간과 장소, 시간의 속성에 대해 다시금 환기하게 만든다. 언어를 매개로 이미지와 의지가 결합되는 층위는 초현실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낯선 시간 경험 속에서 익숙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든다. 이것이 사유이미지로서 김소월 시의 힘이라고 할

233) 김소월(1922.8),「먼 後 日」,『開闢』; 『전집』, p.4.

수 있다.

김소월의 시는 전통적인 개념 형태로 굳어질 수 있는 시간과 사유를 '나'의 '의지'로 구축하는 '도래하지 않은 영역' 즉 '꿈의 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익숙한 것과 자명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사유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준다. '의지'로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스스로 단절될 것과, 그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개입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김소월 시에 제시된 '나'는 단독성과 행위성을 갖춘 근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234]

조선적 서정, 민요시 혹은 전통시로 읽혀왔던, 김소월의 시를 사유이미지로 읽을 때 기억과 경험을 대상으로 두고 변증법적 인식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일종의 미메시스적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때의 미메시스는 대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현실을 깨어난 상태로 경험하게 만드는 변증법적 전환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35] 역사적 시간 속에서 제시되는 전통적 요소들을 미메시스하여 '시'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김소월의 시는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인간의 경험, 장소,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자 공간인 '때'를 통해 근대인이 자각할 수 있는 사유의 장을 제시하고 있다. 김소월의 시는 사유이미지로서의 시이다.

3. '때' 그리고 풍경의 윤리

김소월의 시는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자 공간인 '때'에 '의지'를 유보한다. '때'가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자 공간이기 때문에 그 '때'에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현실에 현상이 되지 못하고 미래에 유보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를 제시함으로써 김소월의 시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할 지평을 인식하게 한다. 이 '때'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완성, 추후 보완)

4. 맺음말

(미완성, 추후 보완)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234) 정과리(2020), 앞의 글, p.64.

235) 최성만(2007), 「『일방통행로』에서 『파사주』까지－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혁명적 지식인－」, 『발터 벤야민 선집1』, 도서출판길, p.56.

이효석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여성성 고찰

-「계절」, 「석류」를 중심으로

이민정(나사렛대)

1. 서론
2. ‘문턱’의 크로노토프에 드러난 여성성
3. ‘연애 목가’의 크로노토프에 드러난 여성성
4. 결론

1. 서론

문학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역사를 조명하며, 인간을 고찰한다. 그래서 문학은 크로노토프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재현하고, 작품 속 인물들은 크로노토프에서 숨을 쉰다. 바흐친은 인류발전의 각 단계에서 그 시대에 접할 수 있었던 시간과 공간의 일정한 측면들을 반영하고 예술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장르적 기법으로,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을 ‘크로노토프’라 말하고 있다.[236)]

1930년대는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작가들은 피식민지인들의 시대 상황을 재현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주체 동일화를 위한 검열에 묶여 제대로 된 텍스트 재현이 어려웠다. 그래서 1931년 1차 검거와 1934년의 2차 검거사건에 의해 카프가 해체되고, ‘순수예술추구’를 취지로 한 ‘구인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많은 작가들이 순수예술을 통해 왜곡된 식민주의의 근대를 벗어나 현대 소설로의 변화를 꾀했다. 이념과 사상보다는 예술성과 탐미적 시학성에 중점을 두고 시대상황을 문학에 녹여냄으로써 삶의 재현을 통해 검열을 피하고자 했다.

역사적 기원으로서 모더니즘은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낭만주의 예술의 미학적 욕망에도 불구하고 경험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함의하는 것이었다.[237)] 1930년대의 한국 모더니즘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236) 미하일 바흐친(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237) Art Berman, 『Preface to Modernism』, University of lllinois and Press Urbana and Chicago, 1994, p. 5, 재인용.

식민지에 대한 지배에서 나아가 한·일 '합병'을 요구했던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것을 일본과 동일화하고자 했다. 타자로 전락한 한국의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체의 동일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물질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욕망 속에서 근대적 공간성과 근대감각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모더니즘의 이러한 특성은 근대 주체와 공모한 제국주의의 공간성과 연관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스스로를 근대 주체로서 내세우기 위해 문명의 논리를 통해 식민지 영토 확장과 같은 공간욕망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더니즘은 제국주의의 근대적 공간 욕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238]

구인회를 주도했던 이효석은 제국주의적 근대 공간을 거부하고, 해체하고, 균열을 가하고자 했다. 1930년대 들어서서 경향주의적 문학을 정리하고, 이념과 사상보다는 원시적 자연과 본능, 예술성에 집착하게 된다. 「돈」(1933)에서부터 시작해 「화분」(1939)을 거쳐 「산협」(1941)에 이르기까지 탐미적 시학성을 띤 작품을 쏟아내게 된다. 또한 이효석은 텍스트 속에서 시공간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시대의 왜곡됨과 잘못된 인습, 가치, 성, 권력의 노예가 된 인물군상들을 표현하고 있다. 즉 근대에 잘못 형성된 가부장제와 일제식민지하의 인습, 가치, 성, 권력의 타파를 위한 새로운 크로노토프를 제공할만한 시·공간적 타당성을 위해 서정성, 미메시스를 활용하고 시간의 응축과 전치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239] 이효석은 이러한 크로노토프 속에서 가부장적인 인물 혹은 서구문명에 눈 뜬 지식인의 모습,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사는 주변인으로서의 여성, 격변하는 혼란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신여성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

기존의 이효석 작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뉜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주로 서정소설 혹은 산문성이 결여된 작품으로 나누고 있고, 주제적 측면에서는 '성과 자연의 교착, 탐미주의, 엑조티시즘(이국주의), 경향적 색채'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도 나뉜다. 먼저 긍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이효석이 성적인 것을 통해 소비적인 흥분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당대의 평가에 반기를 들면서, 이효석은 현대인의 퇴폐성에 대한 일종의 반역으로서 에로티시즘을 선택한 것'이며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소위로서 하나의 건전면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시를 읊은 작가'로 보고 있다. 부정적 평가로는 '계급의식의 미달', '이데올로기의 취약성', '시에의 퇴각', '위장된 순응주의', '역사의식이 결여된 작가, 역사와 시간을 부인하는 소설의 본질을 파괴하는 작가', '죄익이데올로

---

238) 조혜진,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타자성 연구 : 김기림, 이상, 백석 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5쪽.
239) 이민정, 「이효석 소설의 시공간 연구-크로노토프와 성담론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기에 대한 이념이 소극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이데올로기나 지성과는 거리가 먼 작가'로 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효석 소설의 서정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찰[240], 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노스탤지어의 의미에 주목하여 이효석의 문학적 위상을 해명[241], 신화적 상상력에 대한 새로운 고찰[242], 그리고 공간의 유토피아화[243], 작품 속 여성 인물에 대한 주체와 타자의 고찰[244] 등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의 깊이 있는 연구들에 의해 이효석 문학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된 작품들이 「메밀꽃 필 무렵」, 「돈」, 「벽공무한」, 「도시와 유령」, 「깨뜨려지는 홍등」, 「산」, 「들」, 「하얼빈」, 「화분」 등에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시각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지만, 크로노토프(시공간)를 통한 시공간의 교직에 의한 서술상황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고, 작품 속 여성인물의 주체성과 타자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단편적[245]으로 분석한 논문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다소 소외되었던 작품 「계절」(1935), 「석류」(1936)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두 작품은 이효석의 작품 중 공간의 확장, 시간의 응축, 시공간의 응축과 전치 속 여성 인물이 비교적 주체적으로 그려진 작품들이다. 두 작품에서 시간과 공간이 교직되어 형성된 크로노토프와 연관지어 텍스트 속에 형상화된 여성 인물의 주체성과 타자성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이다. 두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근대의 시공간과 가부장의 시공간은 그녀들의 주체성보다는 타자성을 표출시키는 크로노토프였다. 카페여급, 선생인 두 여성들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시공간의 짜임새 속에서 그들의 타자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려 했으며, 작가는 그들에게 어떠한 시련을 통해서 타자에서 주체로의 도약을 꿈꾸게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남성은 '과잉' 대표되어 왔고, 여

---

240) 최은영, 「이효석 서정소설의 특질과 그 문체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8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최은영, 「한국 현대 서정소설 연구-이효석, 이태준, 김동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241)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42) 박수연, 「이효석 단편소설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어문연구』 94집, 어문연구학회, 2017.
243) 양미영, 「이효석의 『벽공무한』과 유토피아」, 『현대문학이론연구』 74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244) 이민정, 「이효석 소설의 주체와 타자의 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집 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245) 이민정, 「이효석 소설의 주체와 타자의 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집 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성·미성년·노예는(인간이라는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하나로 세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핍'으로 표상되어 왔다.[246]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여성성을 연구했던 크리스테바는 여성성을 담론에 선행하는 침묵과 모순이며[247], 리타 펠스키는 문학의 역사 속에서 보편성이 곧 남성과 등치되는 것이며 여성을 특수한 사례로 간주해왔다고 지적한다.[248] 레비나스는 여성성에 대해 '가정(home)'이라는 '거주(dwelling) 공간'으로 설명한다. 거주는 주체가 초월을 욕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지이고, 주체적 자아가 내면성의 한계와 자신이 짊어진 존재의 무게를 초월하고자 하는 열망의 안전한 근거지인 가정은, '친밀한 타인'인 여성이 지키는 공간이라고 말한다.[249] 크리스테바와 레비나스의 여성성은 생물학적 여성보다는 성별을 떠난 '여성적인 타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효석은 이러한 여성성을 띤 인물들을 근대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탈근대적 크로노토프 속에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시공간의 크로노토프와 타자로서의 여성성 고찰을 통해, 이효석 문학 연구를 보완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찾아냄으로써 문학이 갖는 효용적 가치를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2. '문턱'의 크로노토프에 드러난 여성성

「계절」(1935)의 크로노토프(시공간)는 장면과 재현에 치중되어 있다. 시간보다는 공간에 치중된 플롯구성은 건과 보배의 만남과 그들의 시련 등을 묘사, 재현, 소급제시, 응축, 요약을 뒤섞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서사전략들이 혼재된 서술상황은 작중인물들의 혼란한 심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 공간과 시간은 자주 공모하여 서로의 용도가 교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외현적으로 시간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도리어 시간과 역사의 가치 및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도 있다.[250] 이 작품은 시간성의 약화를 통해 주인공들이 겪었던 인생의 고비였던 시간들과 주체적이지 못한 역사적 시간들을 '계절(여름)'이라는 시간 속에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문턱의 크로노토프'는 삶의 분기점이나 위기의 순간,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또는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실패하는 우유부단함, 문턱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공포) 등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위기의 사건, 몰락, 부활, 재생, 현현(顯現), 사람의 전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 등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 장소에 얽힌 시간을 말한다.[251] 「계절」 곳

---

246) 양윤의, 「안수길의 단편소설과 여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집 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13쪽.
247) 줄리아 크리스테바(김인환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248) 리타 펠스키(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여이연, 2010, 30-31쪽,
249)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90쪽.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 레비나스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9, 2008. 6, 한국여성철학회, 83쪽 -87쪽.
250) 김종구, "「메밀꽃 필 무렵」의 시공간과 장소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 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26쪽.
251) 미하일 바흐친(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앞의 책, 456쪽.

곳에 드러나고 있는 크로노토프는 인물들의 삶의 분기점이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문턱의 크로노토프'이다. 이러한 '문턱의 크로노토르'는 주인공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타자의 이질성을 발현하고 주체로서 자각할 수 있는 시공간이 된다.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플롯에 따른 주요 크로노토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낙태된 태아를 어디에 버릴지 상의하는 건과 보배의 삶의 공간인 단칸방
② 결국은 맑은 물에 태아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장소인 음침한 굴속 같은 도회 거리의 다리
③ 동무를 따라 바다를 건너가고 싶었던 건과 실연의 상처로 방황하던 보배의 만남 소급제시
④ 건과 보배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지 해수욕장
(보배의 배신한 옛 애인 태규, 옥련 만남)
⑤ 건과 보배의 최후의 만찬 장소 여관
⑥ 건이 떠나고 보배만 남은 단칸방
⑦ 보배의 옛 애인 태규가 자신의 소생인 아이와의 만남을 청하는 카페, 뒷골목 차점
⑧ 태규가 사기죄로 감옥에 간다는 소식과 동경으로 간 건의 편지가 전해진 보배의 단칸방

위의 플롯구성을 보면, 서사의 진행이 주로 공간의 재현으로 구성된다. ③만 시간을 응축한 서술이라 볼 수 있다. ③의 서술은 시간이 약화된 전체 구성 속에서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서사이다. 건과 보배가 어떻게 만나게 되고 같은 시공간 속에서 삶을 나누게 되었는지, 아이를 가졌지만 결국은 낙태를 해야만 하는 이유 등이 짧은 텍스트 속에서 긴 시간(3년 정도의 시간)을 압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③을 뺀 ①-⑧까지 시간은 한 계절(여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효석은 텍스트를 장면 재현과 약화된 시간성을 통해 소설이라는 장르를 흔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텍스트 속에는 지배 담론의 주변인이자 사회적 약자이며 주체의 동일화를 강요받는 여성성을 지닌 타자가 재현되어 있다. 시적 언어[252], 서정성의 극대화(장면화, 이미지화), 시간의 약화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위협하고, 텍스트 속 세계의 인물들은 그동안 고정적으로 위치지어졌던 역할에서 벗어나려 한다. 타자의 자리에서 유동적으로 타자의 이질성을 발현하여 주체로서 도약하고자 하고, 존재로서 거듭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유동적 인물이자 여성성을 지닌 타자로서의 대표적 인물은 '보배'와

252) 여기에서의 '시적 언어'는 크리스테바의 개념으로서 단지 시에서만 드러나는 언어들이 아니라 언어 문법 규칙이 위반되고, 주어가 생략되며, 리듬과 율동이 있는 여러 '시적 언어'들을 말한다. 이러한 '시적 언어'와 '미메시스'는 이데올로기와 신학의 허식을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언어 문법 규칙 위반은 상징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마이클 페인, 『읽기 이론/이론 읽기, 라깡, 데리다, 크리스떼바』, 한신문화사, 1999, 239-243쪽 참고.

‘옥련’이다. 그리고 ‘건’이다. 보배와 옥련은 가부장시대의 여성으로서, 피식민지인으로서 이중타자에 해당된다. ‘건’은 피식민지인으로서 타자에 해당된다. 가부장제도의 이데올로기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해체되지 않고, 교육을 받은 신여성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피식민지인으로서의 타자성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못한다. 이러한 타자성이 ‘여성성’, ‘여성적인 것’으로 명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성에게 존재하는 ‘자궁’ 때문이다. “‘자궁’ 즉 ‘코라’는 주체가 생성되는 동시에 부정되는 곳, 주체의 통일성이 그를 생산하는 변화와 정지의 과정 앞에 굴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자궁은 이미 성적 차이와 가족 구조 같은 사회 역사적 제한을 받는다.”[253] 보배와 옥련은 자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성적 차이와 가족 구조 같은 사회 역사적 제한’을 받는 가부장제에 의해 타자로 가정되고, ‘건’은 거대 담론에 삼켜져 주체의 자리를 빼앗긴 타자이다.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전히 주체로서 위치한다.

이효석은 텍스트 속 과도한 공간화의 크로노토프와 약화된 시간을 통해 소설이라는 장르를 뒤흔든다. 그 공간 속 타자의 이질성도 발현시킨다. 이 작품의 대표적 공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단칸의 셋방**이 몹시 더웁다. 소독용 알코올 냄새에 섞여 휘덥덥한 땀냄새가 욱신욱신하다. 협착한 뜰 안의 광경이 문에 친 발 속으로 아지랑이같이 어른거린다.[254]

(나) 두 사람은 **단칸의 셋방**에 만족하였다. 반드시 연애가 아닌 것도 아니었으나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생활이었던 것이다.(중략) 공동생활은 말하자면 그가 다음 일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유숙하고 있으면 족한 정류장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애정의 산물이 생겼을 때에도 그것을 길러갈 욕망도 능력도 없는 두 사람은 합의의 결과 그 수단을 써서 그 노릇을 한 것이었다. 무사히 성사된 것만 다행이었다. 건은 이것으로 보배에 대한 애정이며 지금까지의 무위의 생활이며를 청산한 셈이었다. 자유로운 몸으로 바다 밖에서 부르는 동무의 소리에 응하여 뛰어갈 수 있는 것이다. [255]

(다) **도회**란 속속으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음침한 굴속이다.

다리 위에 섰을 때에 얼마간의 용기가 필요하였다. 사람들이 지나거나 말거나 건은 한 개의 돌멩이를 던지는 셈 치고 그것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털썩하고 물 위에 흐린 음성이 났다. 검은 보는 쉽사리 물속에 젖어 버려 다음 순간에는 보의 위치와 모양조차 사라져 버렸다. 슬픔도 두려움도 양심도 죄악의 의식도-아무 감정도 없다. 목석같이 무감정한 마음을 건은 의아하게 여겼다. 발을 돌릴 때에 마음은 한결 시원하였다. 몸이 자유로워진 것 같고 걸음이 가뿐하였다.[256]

위의 (가), (나)는 건과 보배가 삶을 공유했던 단칸 셋방에 대한 서술이다. (가)는

253) 마이클 페인, 위의 책, 230-231쪽 참고.
254)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 전집』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467쪽.
255) 이효석문학재단, 위의 책, 471-472쪽.
256) 이효석문학재단, 위의 책, 469쪽.

단칸 셋방의 이미지화이고, (나)의 단칸 셋방에는 시간이 녹아들어 있다. 그들이 같이 살았던 삶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 단칸 셋방에는 건과 보배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의 '애정의 산물'의 시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는 보배의 자궁을 주체로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궁이라는 공간에서는 주체로서 성별도, 사회적 위치도, 지배 담론에도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리라 여겼지만, 건과 보배의 시공간은 이미 자궁에까지도 사회, 역사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단칸 셋방은 건과 보배에게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임시로 거쳐가야 할 '정류장'과 같은 시공간이다. 변화를 꾀하는, 유동성이 있는 상상계와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건은 주체로서의 자리를 찾기 위해 단칸 셋방을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갈구했고, 보배는 건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낙태시킴으로써 가부장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지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카페여급으로 살아가고 있던 보배는 스스로가 가부장제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보배에게는 이미 옛 애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고향에 있었고, 그 아이로 인해 그녀는 따뜻한 가정과도 같았던 고향이란 공간을 빼앗기게 된다. 가부장제의 굴레 속에서 그녀는 고향에서조차 타자의 위치에 처하게 된다. 단칸 셋방은 건, 보배에게 타자성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공간일 뿐이다. 그러나 타자성에 대한 자각은 그들을 주체로의 도약을 향한 꿈을 꾸게 한다. 건은 바다 건너 동무들에게서, 보배는 아이를 낙태하는 결정을 스스로 함으로써 식민지배 시공간과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무의미한 존재라 여기며 아이를 지우고 나서 남성인 '건'은 아이를 지우고 혼란을 경험하지 않지만, 여성인 '보배'는 낙태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어지럽게 펼쳐지는 시공간의 교차는 보배의 혼란스러운 심사를 대변해 준다. 낙태된 태아를 버리는 장소를 이야기할 때도, 건은 '공동변소'와 '쓰레기장'을 보배는 '맑은 물 위'에 띄워 달라고 한다. 건에게 아이는 무의미한, 전오이디푸스 단계의 거세되어야 할 '사물'이고, 보배에게 아이는 '다시 환생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 낙태한 아이를 버리고 난 후의 보배의 침묵은 가부장사회에서 훈련된 언어이다. 낙태한 아이를 개천에 미련없이 버리고 개운해 하는 건은 상징계에서의 발화된 언어이다. 보배에게 있어 옛 애인에게 태어난 아이는 가부장제의 굴레가 되고, 건과의 아이는 그녀의 타자성을 발현시키는 존재이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탈출한 아이는 이미 상징계에 발을 들인 존재이고, 벗어나지 못한 아이(태아)는 상상계에 머물며 어머니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타자성의 발현을 자극한다. 단칸 셋방은 같은 시공간이지만 건과 보배에게 너무나 다르게 체험되어지는 재현 공간인 것이다.

(다)는 건이 낙태한 아이(태아)를 버리고 간 도회의 다리이다. 유물론자인 건이 느끼는 근대적 공간인 도회는 '음침한 굴속'이다. 그리고 아이를 개천에 버리고 타자에서 주체로 나아갈 '다리'를 건너서 벗어나야 할 공간이다. 건은 동무들이 있는 동경으로의 공간 이동에 대한 욕망을 아이를 버림으로써 실행할 수 있음에 기뻐한다. 그에게 도회와 아이(건에게 아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물)는 피식민지인의 굴레를 느끼게 할 뿐인 크로노토프일 뿐이다. 그러나 건은 도회를 벗어나면 동경으로 향해서

주체성의 회복을 염원할 수 있지만, 보배는 도회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향한다 해도 타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옛 애인의 아이가 있는 고향은 이미 보배에게 상상계가 아닌 상징계일뿐이기 때문이다. 시공간의 혼란은 인간의 심리를 혼란하게 만든다. 왜곡된 근대와 일제식민지하의 혼란과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가중된 문학의 크로노토프는 여성에게 더 가혹한 타자성을 표출시킨다.

'단칸 셋방'과 '도회'의 공간 이외에도 '해수욕장'과 '여관'의 시공간은 이별의 공간이자 새로운 재생의 공간으로 재현된다. 어줍잖았던 가족인 건과 보배는 마지막 여행으로 '해수욕장'을 가게 된다. 헤어짐과 만남의 장소, 즉 '문턱의 크로노토프'인 '해수욕장'에서 건과 보배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옛 애인이었던 태규와 옥련을 만나게 된다.

(가) 보배의 기분이 상쾌한 날을 가려 건은 인천으로 해수욕을 떠났다.

번잡한 곳이니 필연코 그 무슨 귀치않은 것을 만나게 될 듯한 예감도 있는 까닭에 보배는 그다지 마음이 쓰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건강도 시험하여 볼 겸 끌어낸 것이었다.

거리에서나 차 속에서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굳건한 보배의 몸을 건은 기뻐하였다. 오늘이 보배와의 마지막 날이라는 은근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날 보배에게 대한 애정이 평소보다 한층 두터움을 느꼈다. 보배의 건강이 웬만하다는 것만 증명되면 건으로서는 이 마지막 날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중략)

"보배 언니!"

가까이 달려와서

"얼마만요."

보배의 손을 쥐었다.

"옥련이오? 우연히 만나게 되는구려."

보배의 한마디에 건은 그 여자가 바로 공교롭게도 보배의 이왕의 사랑의 적수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중략)

옥련은 저쪽 모래밭을 턱으로 가리켰다. 보배도 그 쪽을 보았다. 건도 그의 시선을 따랐다. 해수욕복을 입은 후리후리한 사내가 모래를 털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중이었다.[257]

(나) 해변에서 한 걸음 먼저 여관으로 돌아온 건은 혼자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보배의 올아오기를 기다렸다.

보배와의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만찬을 성대히 할 작정으로 깨끗한 여관을 골라 사치한 식탁을 분부한 것이었다.[258]

(가)와 (나)는 만남과 이별의 공간이자 장소이다. 해수욕장의 물은 탄생과 재생(만남과 이별, 죽음)을 나타내고, 여관 또한 만남과 이별(정화, 새로운 세계)의 공간 재현이다. 해수욕장과 여관은 건과 보배의 이별의 시공간이다. 이 텍스트에서 여관의 시공간은 관능이라기보다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정화와 이별, 새로운 삶의 시작으

257) 이효석문학재단, 위의 책, 474-477쪽.
258) 이효석문학재단, 위의 책, 479쪽.

로 재현되어 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시공간은 물을 통해 건과 보배의 그동안 공유했던 시공간을 걷어내고 건은 '동경'으로, 보배는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재현이다. 그러나 건의 '동경'행은 순조로웠지만, 보배의 '고향'행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건은 계속해서 보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해수욕장에서 만난 옛 애인 태규와의 아이가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보배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애인에게 버림받고 아이만 낳은 보배는 도회에서나 고향에서나 대타자일뿐이다. 그녀에게 도회와 고향은 상징계일 뿐이다. 다만 건이 동경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던 '나도 몸만 건강하다면 건이 하는 일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의 자각이 보배에게 타자성의 발현과 함께 주체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한다.

'해수욕장'은 이별의 시공간이기도 했지만,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보배를 배신하고 둘이 눈이 맞아 동경으로 떠났던 태규와 옥련을 만났다. 건과 보배의 이상적 시공간인 '동경'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상징계의 공간이었다. 물질적이고 낭만적이지만 불륜의 사랑을 추구했던 태규와 옥련에게 근대의 공간 동경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였다. 그들은 주체로서의 이행보다는 마냥 쾌락에 젖어 왜곡된 근대의 시공간을 누렸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피아노 한 대뿐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차점을 차리려 하였으나, 태규의 사기행각으로 결국은 '몰락한 허울좋은 피아니스트'로 남을 뿐이다. 옥련 또한 태규와 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지만, 보배는 옥련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이효석은 성담론을 통해 여성성을 지닌 인물들에게 표면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여성성을 지닌 인물들 본인의 성적 결정권을 획득하고, 성본능의 해방을 통해 현실의 지배담론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259] 보배를 배신하고 보배의 첫사랑을 앗아갔으나 자신 또한 홀로 남게 되는 옥련은, 근대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나 다시 그 시공간 속에 갇히게 되는 타자일 뿐이다. 보배는 다시 타자로 미끄러진 옥련을 안타까워 하고, 옥련을 통해 보배는 다시 주체로서 거듭나기 위해 '나도 몸만 건강하다면 건이 하는 일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얼토당토않은 생각'[260]을 해보는 것이다. 보배의 주체로의 회복이 탈근대, 탈가부장제를 이룰 수 있음의 은폐가 텍스트의 크로노토프에 녹아들어 있다. 건의 '동경'행 실천의 이면과 보배의 타자성 발현의 자각은 '문턱의 크로노토프'에 내밀하게 은폐되어 있다. 이효석은 이러한 은폐를 독자들이 다중적으로 읽어내는 행위를 통해 독자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3. '연애 목가'의 크로노토프에 드러난 여성성

259) 이민정, 앞의 논문, 2015, 16쪽.
260) 이효석문학재단, 위의 책, 489쪽.

「석류」(1936)의 크로노토프는 하루의 시간 속에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의 시간을 소급제시와 응축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고, 소급제시 속 미메시스는 공간을 형상화한다. 「계절」(1935)과는 대조적으로 「석류」(1936)에서는 공간이 약화되고, 시간이 강화된다. 이러한 크로노토프의 구성을 통해 여주인공 재희의 '첫사랑' 재현은 더욱 부각되고, 그녀의 타자성 발현은 '연애 목가'의 크로노토프 속에서 더욱 고상하게 승화된다.

'목가 크로노토프'는 목가에서의 시간이 공간에 대해 갖게 되는 특별한 관계에서 장소의 통일성을 갖게 된다. 즉 삶과 그 사건들이 주변의 산이라든가 계곡, 들, 강, 숲, 자기 집과 같이 속속들이 친숙한 영역에 유기적으로 결속되고 접목되는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261] 재희의 '첫사랑' 공간은 고향의 '학교'와 산놀이를 갔던 '산'이다. 그리고 재희와 준보의 첫사랑과 닮은 모습을 보이는 재희의 제자 '갑남이와 애순'의 첫사랑의 공간은 '학교'이다. 친숙한 공간이고 세대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목가 크로노토프'는 전기나 역사에 등장하는 반복불가능한 중심적 사건들과 비교할 때, '평범한 일상적 삶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는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262]

이러한 목가 크로노토프 중에서도 '연애 목가'는 자연의 품에 안긴 철저히 상투적인 소박한 삶은 사회적 관습과 일상적 사생활의 복잡성 및 부조화에 대비되고, 삶은 철저하게 승화된 사랑으로 추상화된다.[263] 이 작품의 중심인물은 재희이다. 텍스트는 재희의 4살 때부터의 기억으로 시작해서 첫사랑을 겪고, 헤어지고, 결혼을 하고, 다시 혼자가 된 재희의 모습까지를 가속화된 시간 응축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재희의 '첫사랑의 재현'과 '갑남이와 애순'의 첫사랑은 장면화되어 서술되고 있다. 공간의 약화를 통해 공간성과 이미지, 그 장면의 재현에 부여된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 크로노토프 구성이다. 「석류」(1936)는 첫사랑의 고상한 승화를 통해 사회적 관습과 일상적 사생활의 복잡성 및 부조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성을 지닌 타자 재희의 '연애 목가 크로노토프'가 재현되어 있다.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플롯에 따른 주요 크로노토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어느날 몸이 아픈 재희는 어디서 흘러오는지도 모르는 석류의 향에 첫 월경을 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② 첫사랑 준보의 자서전적 소설을 접하고 어릴적 준보와의 학교생활을 떠올린다.
③ 사업을 하다 파산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은행원 남편과 결혼했던 무덤과도 같던 재희의 결혼생활
④ 네 살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의 서울 생활(아버지의 첩, 어머니의 아픔)
⑤ 신소설 '추월색'의 주인공 정님과 영창에 준보와 자신을 빗댄 재희
⑥ 학교에서 원족(소풍)을 갔을 때 재희에게 진달래를 꺾어주려다 다치는 준보

261) 미하일 바흐친(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앞의 책, 430쪽.
262) 미하일 바흐친(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앞의 책, 430쪽.
263) 미하일 바흐친(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앞의 책, 431쪽.

⑦ 다시 고향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업은 파산을 하고, 재희는 아버지의 성화에 은행원과 결혼한다.
⑧ 재희의 제자들인 '갑남이와 애순이의 첫사랑'을 보고 준보와의 옛날을 그리워한다.
⑨ 재희는 소설가 준보가 소설 속에 그려낸 자신들의 첫사랑에 눈물 흘린다.

위의 플롯구성을 보면, 서사의 구성이 주로 시간의 응축과 전치로 나타난다. 재희와 준보의 첫사랑의 장면 재현인 ⑥과 갑남이와 애순이의 첫사랑 장면 재현인 ⑧을 제외하고, ①-⑨까지는 시간의 응축과 전치를 통해 시공간을 어지럽게 뒤섞어놨다.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재희의 혼란한 심사를 대변해 주는 듯한 서사구성은 시간성의 인과를 무시한 채 리듬과 율동을 일으킨다. 소설의 합리적 서사성을 파괴하는 크로노토프는 첫사랑의 미메시스화를 부각하고, 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교사란 직업을 가졌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재희의 타자성을 발현시킨다.

소설 속 시간은 크로노토프의 재현 즉 미메시스화를 통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264] 그리고 다른 사건들의 정보와 설명, 요약 등은 '장면'을 뒷받침하는 하위크로노토프로 작용하게 된다. 「석류」에서는 재희와 준보와의 '첫사랑 장면'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재희의 삶을 설명과 요약의 하위크로노토프로 구성한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 있었던 재희의 첫사랑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갇혀 강요된 결혼과 무덤과도 같던 결혼생활을 견뎌야 했던 타자 재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상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밖에 없었던 재희의 시공간의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어디서 흘러오는지도 모르게 그윽하게 코끝에 채이는 그리운 옛 향기. 약 그릇이 놓이고 어머니가 앉았고 머리맡에 병풍이 둘러치어 있었다. 약 향기가 어머니의 근심스런 얼굴에 서리었고 병풍 속 나무에 석류가 귀하였다. 익은 송이는 방긋이 벌어져 붉은 알이 엿보이고 익으려는 송이는 막 열리려고 살에 금이 갔다. 그런 송이는 어린 기억과 같이 부끄러웠다.
(중략) 웅크리고 앉아 있는 동안에 견딜 수 없이 배가 훌쳤다. 두려운 생각이 버쩍 들어 책보도 교실에 버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자리 속에서 옷을 말아 내고 어머니 앞에 얼굴을 쳐들 수 없었다. 버들같은 체질을 걱정하여 어머니는 간호의 시중이 극진하였다. 인생은 웬일인지 서글픈 것이었다.[265]

(나) 긴 가을밤에나 혹은 어머니나 그가 가벼운 병석에 있을 때에 그는 병풍 속 자리에 누워 신소설 『추월색』을 낭독하였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모녀를 울리기에 족하였다. 정님이와 영창이의 기구한 운명의 축복은 한없이 눈물지어 어느덧 한 가락의 초가 다 진하면 새 가락을 켜 놓고 운명의 다음 줄을 계속하여 읽곤 하였다. 어머니는 촛불과 같이 가만히 눈물지었다.(중략)

---

264) 미하일 바흐친(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앞의 책, 458-459쪽.
265)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 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62-163쪽.

준보를 생각할 때에 어린 마음에 의례히 정님이와 영창이의 사실이 떠오르곤 하였다.[266]

(다) 어머니를 여의고 그 위에 경영하던 회사에 파산까지 당한 불여의의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뜻에만 소경같이 좇은 것이 비극의 시초였을까.

결혼은 글자대로 무덤이었다. 뒤넘꾼은 무덤 같은 커다란 봉치함을 가정에 남겨 놓고 자취를 감추었다. 는실녀를 차린 것도 개차반의 짓이었으나 더욱 거쿨진 것은 은행의 금고를 연 것이었다. 그의 실종은 해를 넘어도 자취가 아득하였다.

재희는 당초의 그의 무의지를 뉘우쳤다. 할 일 없는 시가에 더 있을 수도 없어 친가로 돌아오기는 왔으나 더구나 친가에서는 하는 수도 없어 한 번 물러섰던 학교에서 다시 생활을 구하게 되었다. 학교는 꿈의 보금자리였다. 소년과 소녀들의 자태 속에 옛날의 그들의 모양을 비치어 볼 수 있음으로였다.[267]

(라) 관직의 한정(限定)이 찼을 때 아버지는 선조들의 묘만이 남은 실속없는 고향을 헌신같이 버리고 다시 솔가하여 가지고 서울로 떠났다.

얼마 안 되는 축재로 아버지가 회사의 한몫을 맡게 되었을 때 재희는 웃학교에 나아갔다.

준보의 자태가 마음속에 없는 바는 아니었으나 시달리는 동안에 새벽별같이 차차 그림자가 엷어진 것은 사실이었다.

서울은 결코 전설의 서울이 아니었고 꿈의 거리가 아니었다.

거리도 서울도 그칠 바를 모르는 산문의 연속이었다.

재희의 청춘은 회색 장막에 새겨진 회색 글자의 내용이었다.[268]

(가)는 재희가 첫 월경을 했을 때의 소급제시이다. 실금이 가기 시작한 석류와 첫 월경의 아픔을 대비시키고 무지개 같았던 어머니의 품을 추억하며, 쓰디 쓴 약같은 현실의 시공간을 하위크로노토프로 제시하고 있다.

(나)의 시공간은 이야기책을 좋아하던 재희의 어린 시절이다. 타자인 어머니는 재희가 어렸을 적 신소설 『추월색』을 읽어주며 주인공들의 삶에 눈물짓는다. 이야기 속 유학을 다녀온 주인공들은 서구문명에 개화된 인물들로 남녀의 평등은 물론 지극한 사랑을 하는 인물들이었다. 처음엔 정혼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으나 어렸을 적 헤어졌다가 성인이 되어 만났을 때는 서로의 의지에 의해 사랑을 이루게 된다. 재희와 어머니는 상징계 속 상상계의 언어를 접하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침전된 타자로서의 자각을 하는 시공간이다.

(다)의 재희의 시공간은 가혹하기만 했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가세가 기울고 은행원 사위를 원하는 가부장적 아버지에 의해 재희는 억지로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에게 결혼은 무덤이었다. 첩질을 하고 은행에서 횡령을 하고 실종이 된 남편은 아버지와 더불어 그녀의 주체성을 소멸시키고 타자성을 부각시키는 존재였다. 재희는 교육을 받아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신여성이다.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고, 사

266) 이효석문학재단, 위의 책, 168-169쪽
267) 이효석문학재단, 위의 책, 165-166쪽.
268) 이효석문학재단, 위의 책, 170-171쪽

회의 부조리함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자유연애를 허하지 않고 집안에서 필요로 하는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재희를 더욱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레비나스는 삶의 환경 즉 '향유'를 통해 자아가 출현하고 향유로 인해 형성된 자아는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노동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노동하는 세계에서 주체적 자아에게 안정성과 힘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주공간이라 주장한다.[269] 재희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친밀한 가정'이라는 거주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 가부장적 크로노토프에서 재희는 여성성을 지닌 여성 타자일 뿐인 것이다.

(라)는 서울의 시공간이 어린 시절 읽었던 신소설 『추월색』에 나오는 아름다운 서울이 아니라 회색의 시공간으로 변모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라)의 서술상황은 한 문장씩 단락을 구성하여 파편화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재희에게 있어 서울은 더 이상 정님이와 영창이의 애절한 사랑을 품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재희가 어렸을 적 이끼 속에 묻힌 추억 '예배당의 찬미가, 거리의 뱀, 따뜻한 무릎, 군밤'의 시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같은 병풍 속에서 이야기책을 같이 읽은 어머니를 잃은 것은 그대로 큰 꿈을 잃고'[270] 마는 재희의 시공간이다. 어머니 부재의 공간, 첫 월경을 넘긴 공간, 석류가 벌어져 석류알이 흘러넘치는 공간, 지배담론의 시공간이면서 성적 욕망이 넘실거리는 공간이지만, 재희에게는 '산문의 연속, 회색 글자'의 시공간으로 타자의 하위크로노토프이다.

(가) 먼 산에 원족을 갔을 때는 준보는 덤불 속을 교묘하게 들쳐 익은 으름을 송이송이 찾아다 재희에게 던졌다. 그러면서도 잔잔하게 말을 거는 법은 없이 늘 뿌르통하고 퉁명스런 심술이었다. 새까만 눈방울이 담비같이 빛났다.(중략)

바위코에 담뿍 몰린 한 떨기의 진달래가 마음을 흠뻑 당겼다. 재희의 원에 준보는 두려움도 잊고 날뽐을 냈다.

"내 손을 잡으렴."

바위 끝으로 기어가는 준보를 재희는 조마조마하게 바라보았다.

"일없다. 네 손쯤 붙들어야 소용없어."[271]

(나) 갑남이는 고집쟁이었다. 도화시간임에도 도화지를 가져오지 않은 때 이유를 물어도 꾸중을 해도 돌같이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말도 하는 법 없거니와 얼굴도 쳐들지는 않는다.(중략)애순이는 다정한 소녀였다. 여벌이 있으면 반드시 한 장을 갑남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솔직하게 받을 때도 있으나 종시 고집을 세우고 안 받는 때도 있었다.

"받으렴."

"일없다."

"고집 피이다 꾸중 들을라."

"꾸중 들으면 시원하겠니?"

---

269) 김애령, 앞의 논문, 83쪽.
270)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 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71쪽.
271)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 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69쪽.

"녀석두 맘에 없는 소리만."[272]

(가)와 (나)는 재희와 준보, 갑남과 애순의 첫사랑 크로노토르프의 재현이다. 재희의 첫사랑 준보의 미메시스화는 재희의 주체성을 회복시켜주는 크로노토프이다. 그러나 그녀의 주체성 회복의 매개체인 준보는 현 시공간에서는 『추월색』 속의 주인공들처럼 그녀에겐 그저 허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효석은 '갑남과 애순'의 첫사랑을 크로노토프의 재현을 통해 소설 속 시간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재희의 첫사랑의 '연애 목가 크로노토프'인 고향은 어머니의 부재와 '선조들의 묘만이 남은 실속 없는' 전체성의 시공간, 허상의 크로노토프가 되었다. 그래서 재희에게 고향의 대체 공간으로 타자로서 파괴된 자궁(고향)으로의 회귀를 거부하고 '꿈의 보금자리인 학교(갑남과 애순이 있는 학교)'[273]의 시공간이 주어진다.

「석류」는 허상과 현실의 크로노토프를 통해 재희의 주체성과 타자성을 조율하고 있다. 준보의 '자전적 소설책'과 '갑남과 애순이 있는 학교'의 크로노토프는 재희의 타자성을 추동하여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여성 타자의 내면에 침전되어 있는 주체적 자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해줄 것이고 변화로의 길을 모색하게 해줄 것이다.

4. 결론

문학은 크로노토프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재현하고, 작품 속 인물들은 크로노토프에서 숨을 쉰다. 이효석은 이러한 크로노토프 속에서 가부장적인 인물 혹은 서구문명에 눈 뜬 지식인의 모습,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사는 주변인으로서의 여성, 격변하는 혼란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신여성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다소 소외되었던 작품 「계절」(1935), 「석류」(1936)를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은 이효석의 작품 중 공간의 확장, 시간의 응축, 시공간의 응축과 전치 속 여성 인물이 비교적 주체적으로 그려진 작품들이다. 두 작품에서 시간과 공간이 교직되어 형성된 크로노토프와 연관지어 텍스트 속에 형상화된 여성 인물의 주체성과 타자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두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근대의 시공간과 가부장의 시공간은 그녀들의 주체성보다는 타자성을 표출시키는 크로노토프였다. 카페여급, 선생인 두 여성들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시공간의 짜임새 속에서 그들의 타자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려 했으며, 작가는 그들에게 어떠한 시련을 통해서 타자에서 주체로의 도약을 꿈꾸게 했는지 살펴보았다.

---

272)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 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72쪽.
273)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 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65쪽.

「계절」(1935)은 여성 타자 보배의 주체로의 회복이 탈근대, 탈가부장제를 이룰 수 있음의 은폐가 텍스트의 크로노토프에 녹아들어 있다. 건의 '동경'행 실천의 이면과 보배의 타자성 발현의 자각은 '문턱의 크로노토프'에 내밀하게 은폐되어 있다. 이효석은 이러한 은폐를 독자들이 다중적으로 읽어내는 행위를 통해 독자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석류」(1936)는 허상과 현실의 크로노토프를 통해 여성 타자 재희의 주체성과 타자성을 조율하고 있다. 준보의 '자전적 소설책'과 '갑남과 애순이 있는 학교'의 크로노토프는 재희의 타자성을 추동하여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여성 타자의 내면에 침전되어 있는 주체적 자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해줄 것이고 변화로의 길을 모색하게 해줄 것이다.

이효석은 텍스트 속에서 여성성을 지닌 인물들이 타자에서 주체로서 거듭나길 원한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암울했던 근대의 식민상황에서도 벗어나길 원했다. 우리 연구자들은 작품을 연구하면서 여성성을 지닌 인물들을 무의식적으로 주변 인물로, 타자로만 한정지어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크로노토프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 현시대 상황을 읽어내고 문학과 사회를 연계하여 바라보았을 때, 주체와 타자가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존재로서가 아닌 '나'와 '너'의 인식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참고문헌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 전집 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 전집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권정호, 『이효석 문학 연구』, 월인,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김구중, 『근대소설의 텍스트 공간 해석』, 이회, 2000.
김상구·정혜욱 등 공저, 『타자의 타자성과 그 담론적 전략들』,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4.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 레비나스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9, 2008. 6, 한국여성철학회.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출판주식회사, 1993.
김해옥, 『한국 현대서정소설론』, 새미, 1999.
라만 셀던·피터 위도우슨 등(정정호·유지관 등 역), 『현대문학이론 개관』, 한신문화사, 2000.
라이먼 타워 사전트(이지원 역), 『유토피아니즘』, 교유서가, 2018.
리타 펠스키(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여이연, 2010.
미하일 바흐친(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박헌호, 「'계급' 개념의 근대 지식적 역학」,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2008.
이상옥, 『이효석의 삶과 문학』, 집문당, 2004.
자크 라캉(권택영 역), 「무의식에 있어 문자가 갖는 권위(주장) 또는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장수익, 「타자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 『한국현대소설의 시각』, 역락출판사, 2003.
정명환, 「이효석 또는 위장된 순응주의」, 『이효석』,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줄리아 크리스테바(김인환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김남천, 「산문문학의 일년간」, 『인문평론』, 1939. 12.
김동리, 「산문과 반산문-이효석론」, 『민성』, 1948. 8.
김미영, 「1920년 전후 한국소설의 크로노토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용재, 「한국 근대단편소설의 서술형식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윤선, 「192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성담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종구, 「“메밀꽃 필 무렵”의 시공간과 장소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집 7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9.
_____, 「혼인시련 신소설의 서사구조와 인물유형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박금주, 「한국 근대 여성소설의 타자적 여성성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박수연, 「이효석 단편소설의 신화적 상상력 연구」, 『어문연구』 94집, 어문연구학회, 2017.
송효정, 「식민지 후반기 문학의 근대기획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양미영, 「이효석의 『벽공무한』과 유토피아」, 『현대문학이론연구』 74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양윤의, 「안수길의 단편소설과 여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집 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엄상희, 「1930년대 장편소설의 멜로드라마적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염상섭, 「4월의 창작단」, 『조선일보』, 1930. 4. 13.
이민정, 「이효석 소설의 시공간 연구-크로노토프와 성담론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이효석 소설의 주체와 타자의 담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집 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이세주, 「식민지 근대와 이효석 문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훈, 「이효석의 후기 단편소설에 나타나는 자연의 의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6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정여울, 「이효석 텍스트의 공간적 표상과 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조명기, 「이효석의 후기 소설 연구 -「삽화(揷話)」, 「장미(薔薇) 병들다」, 「부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3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조혜진,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타자성 연구 : 김기림, 이상, 백석 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진선정, 「근대 단편 소설의 서술과 여성인식의 양상」,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최경란, 「이효석 소설의 혼종성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최은영, 「이효석 서정소설의 특질과 그 문체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38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최은영, 「한국 현대 서정소설 연구-이효석, 이태준, 김동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고전문학]

「황비호실기(黃飛虎實記)」를 통해 본 『봉신연의(封神演義)』의 유통 문제
숫자노래의 형성과 문학적 특질
체험주의 상상력을 통해 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황비호실기(黃飛虎實記)」를 통해 본 『봉신연의(封神演義)』의 유통 문제

유춘동(강원대)

<차례>

1. 서론
2. 『황비호실기』의 성격과 면모
3. 『황비호실기』의 존재, 『봉신연의』의 유통의 문제
4.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이 글은 구활자본 고소설 『황비호실기(黃飛虎實記)』를 통해서 확인한 중국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의 한글 번역본 유통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봉신연의』는 중국 명대(明代)의 대표적인 신마소설(神魔小說)의 하나이다.[274] 이 소설은 17세기에 국내로 유입된 뒤로, 원전(原典)의 번역은 물론, 원전을 『서주연의』라는 제명으로 바꾼 번역본도 있고,[275] 원전의 충실한 직역은 아니지만 초역(抄譯)은 아니고, 충분히 원작을 음미한 상태에서 자국의 독자를 위해서 의역된 번역본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76]

지금까지 국문학계의 연구를 보면[277] 대체로 『봉신연의』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번역본 『서주연의』에 주목하여, 『봉신연의』의 번역과 번안의 양상, 구활자본 고소설 『소달기전(蘇妲己傳)』과 『강태공전(姜太公傳)』의 원전 탐색[278]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서주연의』가 군담소설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279], 『강태공전』을 통해서 본 방각본 소설과 세책본 소설의 유통의 문제,[280] 『서주연의』 번역본에 주목하여 국내에서 만들어진 파생작 내지 번역본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281]

이 글에서 살펴볼 『황비호실기』는 중국소설 『봉신연의』의 전체 100회본 중에서, 30회에서 34회까지의 내용만을 적출(摘出)하여 단권으로 출간한 것이다. 황비호는 『봉신연의』에서 등장하는 중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소설 속에서 7대에 걸쳐 은(殷)나라를 섬겨 온 명문

---

274) 오순방 역(1993), 『봉신연의』,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 1.

275) 장경남·이재홍·손지봉(2003), 『셔쥬연의』, 이회문화사.

276) 오오타니 모리시게(2010), 『한국 고소설 연구』, 경인문화사, p.221. 한글 번역본 『서주연의』는 고(故) 이현조 소장본 4책, 장서각 소장 25책을 비롯하여 여러 종이 있다. 기타 한글 번역본의 현황은 조희웅의 단행본을 참조. 조희웅(2006), 『고전소설 연구보정』 (상), 박이정.

277) 중문학계의 연구는 주로 『봉신연의』의 작품론에 주목하고 있다. 라민아(2008), 「봉신연의 인물 연구」,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지은(2013), 「소설 봉신연의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78) 이홍란(2008), 「낙선재본 『서주연의』 연구」, 숭실대 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손홍(2009), 「강태공 소재 소설의 번안 양상과 그 의미」, 서강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혜은(2019), 「조선시대 <봉신연의>의 향유 양상과 그 독자의식」,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279) 김동욱(2019), 「한국 군담소설과 <서주연의>」,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pp.249-277.

280) 주형예(2017), 「강태공전: 초역(抄譯) 현상을 통해 본 방각본 소설시장의 일면」, 『열상고전연구』 57, 열상고전연구회.

281) 최현민(2018), 「<서주연의>의 번역 양상과 그 의미」, 고려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가 집안의 자제로, 주왕(紂王)이 집권할 때에는 은나라 조정에서 최고 고위층의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은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주왕과 달기(妲己)가 공모하여 그의 부인과 여동생을 죽이면서, 서기(西岐)에 있는 무왕(武王)에게 귀순하고, 이후에는 강태공(姜太公)과 함께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周)나라를 건국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황비호실기』는 이러한 『봉신연의』 속의 '황비호'의 활약상만을 적출한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황비호실기』의 원전인 『봉신연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봉신연의』의 번역본인 『서주연의』를 비롯한 다른 번역본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아울러 대장편 중국소설인 『봉신연의』의 유통 문제, 이 작품에서 분화된 구활자본 고소설의 생성, 국내에 유입된 『봉신연의』가 어떻게 다채롭게 향유되었는지를 다루려 한다. 이 글을 통해서 구활자본 고소설 『황비호실기』의 성격은 물론, 국내에서 『봉신연의』 번역본 유통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황비호실기』의 성격과 면모

사진22. 『황비호실기』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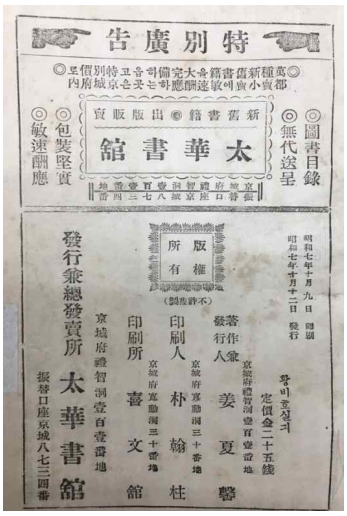


사진23. 『황비호실기』의 판권지

『황비호실기』는 전체 61면으로 본문이 기술된 구활자본 고소설이다.

이 책은 부제(副題)가 '신우장군(神牛將軍)'으로 되어 있다. 부제가 이렇게 된 것은 소설 속의 주인공 황비호가 항상 소를 타고 출전하여 큰 공(功)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여 '신우장군'이란 부제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판권지를 보면 1932년 태화서관(太華書館)에서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사진1>을 보면 성문당서점(盛文堂書店)에서 발행한 것으로도 되어 있다. 이처럼 표지와 판권지에 서로 다른 출판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성문당서점과 태화서관에서 공동으로 이 책을 발행했던 것인지, 첫 간행은 성문당서점에서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판권을 태화서관에 넘긴 것인지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282]

『황비호실기』의 본문은 장회(章回)의 구분 없이, 내용만 기술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10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황비호의 가계(家系)
② 달기(妲己)와 주왕(紂王)으로 인한 은(殷)나라의 혼란한 상황
③ 황비호의 부인 가씨가 황비호의 여동생인 황귀빈(黃貴賓)을 만나기 위해 입궁
④ 달기의 계교로 가씨가 주왕과 만나게 되고, 가씨는 자결함

282) 유춘동(2015), 「활자본 고소설의 출판과 유통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 원고/저본, 저작권, 판권지, 광고, 서적목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pp.289-315.

⑤ 황귀비가 주왕을 찾아가 주왕과 달기를 꾸짖고, 이 과정에서 주왕에 실수로 죽게 됨
⑥ 황비호가 이 소식을 듣고 주왕과 격전을 벌이고 떠나 무왕에게로 가게 됨
⑦ 다섯 관문인 임동관, 동관, 천운관, 계패관, 사수관에서 주왕의 군사와 격전을 벌임
⑧ 계패관에서는 부친(父親)과 격전을 벌이고, 부친을 설득하여 함께 무왕을 찾아 떠남
⑨ 사수관에서 한영과 그의 부하인 여화를 만나 사로잡히고 조가로 압송될 위기에 빠짐
⑩ 나타(哪吒)가 등장하여 황비호를 위기에서 구하고 이후 강태공과 무왕을 만나게 됨

이렇게 기술된 『황비호실기』의 마지막 대목에 가면 황비호가 주나라의 무왕과 강태공의 환대를 받는 내용 이외에, "황비호는 쳔신 만고하야 서긔로 도라와 행복을 누리는지, 은주(殷周)의 전쟁은 자차로 이러나리로다. 이 뒤를 연속하여 보시랴 거든 '문태사졍츙귀텬긔(聞太師精忠歸天記)를 보시옵소셔."라는 광고문이 있다. 이것은 구활자본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이다. 이처럼 『황비호실기』는 본문과 광고로 짜여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황비호실기』의 내용은 중국소설 『봉신연의』의 30회부터 34회까지의 내용이다. 따라서 『황비호실기』의 원천(源泉)은 중국소설 『봉신연의』라 할 수 있다. 『황비호실기』는 중국소설 『봉신연의』의 번역본이지만 원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 지금부터 두 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황비호실기』의 시작 부분은 제시한 예문처럼, 황비호의 가계와 혼란스러운 은나라 말기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 화설. 은나라 말년 주왕(紂王) 째에 일위 명새 잇스니, 성은 황(黃)이요 일홈은 비호(飛虎)라. 위인이 지족다모하고 용관삼군하야 남벌북졍한 공으로 진국무성왕(鎭國武成王)을 봉하야 전국 병권을 통솔케 하고, 부친 황곤(黃滾)은 계패관총병으로 잇고, 누이는 셔궁귀비로 잇셔 권셰와 명망이 텬하에 진동하더라.
>
> 부인 가씨(賈氏)의 몸에서 네 아달을 두엇스니, 장자의 일홈은 텬화니 세 살 째에 후원에서 놀다가 바람에 휩쓸녀 간 후 사생존망을 모르고, 둘재는 텬록이니 십사 세요, 셋재는 텬작이니 십이 셰요, 넷재는 텬상이니 칠 세라. 모다 부풍모습하야 영웅의 긔상이오, 또 두 아우 잇스니 비부, 비표라 또한 지용이 겸비하더라.
>
> 이째 주왕은 긔주후 소호의 짤 달긔를 총애하야 황후 강씨를 무참히 죽이고 달긔로 황후를 봉한 후 날로 황음무도하야 주지육림으로 행락하며 정사를 도라보지 아니하니, 병화는 사방에서 벌닐 듯하고 백셩은 도탄에 드러 시일이 갈상고 하는 원셩이 창텬하더라.
>
> (『황비호실기』, 1~2면.)

제시한 예문은 『황비호실기』의 시작 부분이다. 내용은 황비호의 가계(家系) 상황,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은나라 말엽의 주왕의 폭정(暴政)을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은 전체 서사 단락에서 ①,②에 해당한다. 이 내용의 원천은 『봉신연의』의 1회에서 29회 내용이다.

『봉신연의』의 1회에서 29회까지의 내용은 주왕이 여신(女神)인 여와(女媧)를 희롱하여 미움을 사고, 그로 인해 여와가 여우 호정(狐精)을 달기로 만들어 은나라 조정에 들어가 온갖 악행을 벌인다는 것이다. 『황비호실기』는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작품의 시작 부분으로 만들었다. 주인공 가계(家系)에 대한 기술은 원전인 『봉신연의』에서는 분명치 않은데, 『황비호실기』는 인물에 대한 소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재구성했다.

①, ② 단락 이후의 내용은 모두 『봉신연의』의 30회부터 34회까지의 내용이다. 원전인 『봉

신연의』와 번역본인 『황비호실기』를 대조해 보면, 『황비호실기』는 원전인 『봉신연의』의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번역해 놓았음을 볼 수 있다.

『봉신연의』	『황비호실기』
(…前略…) 妲己暗暗點頭, “黃飛虎, 你恃強助放神鶯, 抓壞我面門, 今日你一般妻子賈氏也入吾圈套!” 傳旨, “宣.” 賈氏入宮行禮, 朝賀畢. 娘娘賜坐. 夫人謝恩. 妲己曰, “夫人青春幾何?” 賈氏: “啟娘娘, 臣妾虛度 四九.” 妲己曰, “夫人長我八歲, 還是我姐姐. 我蘇氏與你結為姊妹, 如何?” 賈氏奏曰, “娘娘乃萬乘之尊, 臣妾乃一介之婦, 豈有彩鳳配山雞之理?” 妲己曰, “夫人太謙! 我雖椒房之貴, 不過蘇候之女, 你位居武成王夫人, 況且又是國戚, 何卑之有.”(…後略…). (30회)	(…전략…) 달긔 가만이 점두 왈, ‘황비호가 졔 권세를 밋고 나를 업수이 역이니 금일에 그 쳐자를 농락하리라.’ 하고 곳 젼지하야 드러오라 한대, 가부인이 드러가 조하의 례를 맛치니 달긔 자리를 주어 안지라 하거날, 가부인이 사은하고 안지니 달긔 왈, “부인의 나히 나보다 팔 세가 더한지라. 내 형으로 섬기리니 자매로 매지미 엇더하뇨?” 가부인이 주왈, “낭〃은 만승의 존엄하시고 신쳡은 일개 부녀라. 엇지 채봉과 산닭이 짝하리잇가?” 달긔 왈, “부인은 넘우 겸손치 말나. 내 비록 초방에 귀하나 소후의 딸에 지니지 못하고 부인은 무셩왕의 부인이오 또 국척이라, 무슨 나짐이 잇시리요?”(…후략…) (2~3면)

제시한 <표>는 『봉신연의』의 30회 부분과 『황비호실기』 중에서 ③단락에 기술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원전인 『봉신연의』는 매 회마다 개장시(開場詩), 삽입시(插入詩), 산장시(散場詩) 등이 있다. 하지만 『황비호실기』는 이러한 시들을 대부분 생략하고 본문만을 수록했다.

『황비호실기』는 제시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봉신연의』의 축자역(逐字譯)은 아니지만 원전의 내용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역도 해놓았다. 이러한 번역의 양상은 『황비호실기』 전편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황비호실기』는 원전인 『봉신연의』을 비교적 원전에 가깝게 번역/번안(飜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황비호실기』의 번역 및 번안의 양상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봉신연의』	『황비호실기』
1	紂王大怒, “這賤人反將朕打一拳!”, 一把抓住黃妃後鬢, 一把抓住宮衣, 拎起來, 紂王力大, 望摘星樓下一摔, 可憐! 香消玉碎佳人絕, 粉骨殘軀血染衣! 紂王摔了黃妃下樓, 獨坐無言, 心下甚是懊惱, 只是不好埋怨妲己.	주왕이 대로하야 황비의 머리채를 잡아 뿌리치니 가련하다! 황비의 옥보방신도 적셩루 아래 써러져 분골쇄신하여 죽으니라.
2	君臣四騎, 殺三十回合. 紂王刀法展開, 其勢真如虎狼. 三員大將使開鎗斧, 紂王抵敵不住, 刀尖難舉, 馬往後坐, 將刀一掩, 敗進午門. 黃明要趕, 飛虎曰, “不可.” 三騎隨出西門, 來趕家將, 一同行走, 過孟津. 不表.	군신 사긔가 삼십여 합을 싸호더니, 주왕이 삼장을 대적지 못하고 오문으로 쏫기여 드러가거늘, 황명이 뒤를 좃고자 한대 비회 왈, “불가하다!” 하고 셔문으로 나와 가장 등을 거나리고 맹진을 지내가니라.
3	哪吒想, ‘平白地怎就殺將起來? 必定尋他	나탁이 생각하되, ‘져 인마가 황비호를

	一個不是處, 方可動手.' 哪吒一時想起, 作個歌兒來, 歌曰, 吾當生長不記年 只怕尊師不怕天 昨日老君從此過 也須送我一金磚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산모통이로 내려 압길로 나셔며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래에 왈, 나는 장생하야 년긔를 긔록지 못하며, 스승님은 두려와 하되 하날은 두려 아니하는도다. 작일에도 태상로군이 이리 지내갈 째에 나에게 금 한 덩어리를 주고 갓도다.
4	黃飛虎上殿, 謝恩畢, 復奏曰, "臣父黃滾, 同弟飛彪, 飛豹, 子黃天祿, 天爵, 天祥, 義弟黃明, 周紀, 龍環, 吳謙, 家將一千名, 人馬三千, 未敢擅入都城, 今住扎西岐山, 請旨定奪." 武王曰, "既是有老將軍, 傳旨速入都城, 各各官居舊職."	차일에 무셩왕이 조현 사은 필에 주왈, "신의 아비 황곤과 아우 비푸, 비표와 삼자 텬녹, 텬작, 텬상과 의뎨 황명, 주긔, 룡환, 오겸과 가장 일쳔 명과 인마 삼쳔이 감히 도셩에 드지 못하고 서긔산에 주둔하고 명을 기다리나이다." 무왕 왈, "임의로 장군이 잇스면 곳 립셩하야 각〃 벼살은 구작을 짜라 잇게 하라." 하시니라.

제시한 예문은 원전인 『봉신연의』와 번역본 『황비호실기』를 나란히 제시해 본 것이다. 1은 황비호의 여동생이자 귀빈(貴賓)인 황귀빈가 주왕 앞에서 달기의 죄를 논하다가 주왕에게 죽게 되는 장면, 2는 황비호가 주왕에게 반기를 든 뒤에, 주왕과 대적하는 장면, 3은 한영과 여화에게 잡혀 위기에 빠진 황비호를 나타(哪吒)가 등장해서 구해주는 장면, 4는 황비호가 무왕을 만나 자신의 가족 모두를 도성에 입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다.

번역본인 『황비호실기』에서 해당 대목을 보면 『봉신연의』와 대조해 보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내용만 파악할 수 있도록 짧게 내용 축약 번역, 또는 번안한 것도 있다. 그리고 3의 경우처럼 삽입시를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는 원전에 가깝게 삽입시를 번역한 것도 볼 수 있다.[283] 따라서 『황비호실기』는 중국소설 『봉신연의』의 30회에서 34회의 내용을 번역 및 번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황비호실기』는 중국소설 『봉신연의』의 번역본이지만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국내에는 『봉신연의』의 대표적인 번역본인 『서주연의』가 있다. 『서주연의』가 중요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봉신연의』의 번역본의 연구는 대부분 『서주연의』를 논의에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비호실기』가 『봉신연의』를 저본으로 한 것인지, 『봉신연의』의 번역본인 『서주연의』를 기반으로 만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황비호실기』가 『봉신연의』의 번역본이지만 축자역본이 아니고, 축약번역이나 번안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신연의』, 『서주연의』, 『황비호실기』 세 본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한 예문을 보면 『황비호실기』의 저본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로 한다.

『봉신연의』	『서주연의』	『황비호실기』
且言. 乾元山金光洞, 有太乙	이튼날 황원, 황비호 등 열	각셜. 건원산 금광동에 한

283) 단, 등장인물의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나타'이다. 『황비호실기』에서는 '나타'를 '나탁' 또는 '타낙'으로 잘못 표기했다.

真人，閒坐碧遊床，正運元神，忽心血來潮. 看官但凡神仙，煩惱，嗔痴，愛欲三事永忘. 其心如石，再不動搖，心血來潮者，心中忽動耳. 真人袖裏一掐，早知此事，“呀! 黃家父子有厄，貧道理當救之.” 喚金霞童兒，“請你師兄來.”(…中略…) 真人曰，“黃飛虎父子有難，你下山救他一番，送出汜水關，你可速回，不得有誤. 久後你與他一殿之臣.” 哪吒原是好動的，心中大悅，慌忙收拾，打點下山. 腳登風火二輪，提火尖鎗，離了乾元山，望穿雲關來. 好快！怎生見得，有詩為證，詩曰: 腳登風輪起在空，乾元道術妙無窮。周游天下如風響，忽見川雲眼角中. 話說哪吒踏風火二輪，霎時到穿雲關落下，來在一山崗上，看一會，不見動靜，站立多時，只見那壁廂一枝人馬，旗旛招展，劍戟森嚴而來. 哪吒想，‘平白地怎就殺將起來?’ 必定尋他一個不是處，方可動手.(…中略…)有探事馬飛報與余化，“啟老爺，有一人腳立車上，作歌.” 余化傳令扎了營，催動火眼金睛獸，出營觀看，見哪吒立於風火輪上.(…中略…) 話說. 余化問曰，“登風火輪者乃是何人?”(…後略…).	한 사ᄅᆞᆷ을 다 함거의 너허 삼쳔군으로 더부러 한가지로 힝ᄒᆞ여 청운관의 니ᄅᆞ니 쇼졸이 보ᄒᆞᆫᄃᆡ, “한 도동이 두 슐위박회를 타고 숀의 화쳠창을 들고 가ᄂᆞᆫ 길을 막ᄂᆞ이다.” 녀홰 ᄃᆡ로ᄒᆞ여 화안금졍슈ᄅᆞᆯ 타고 원문의 나와 ᄃᆡ호 왈, “너ᄂᆞᆫ 엇던 놈이완ᄃᆡ 길흘 막ᄂᆞᆫ다?”	진인이 잇스니 태을 진인이라. 한가히 벽류 상에 안젓다가 황씨 일문이 액운을 당하야 됴가로 잡혀감을 알고 왈, “내가 황문을 구치 아니하면 누가 구하리오?” 하고 금화동자를 불너 왈, “너는 후원에 가셔 네 사형을 불너오라.”(…중략…)태을진인 왈, “황비호는 일후 주무왕의 동량지신으로 지금 란을 맛나 잡히여 가나니 너는 쾌히 가셔 구하야 사수관을 내여 보내고 속키 도라오라. 일후에 갓흔 주ㅅ나라 신하가 되리라.” 타낙은 본래 환발한지라. 심즁에 대열하야 왈, “어대로 가셔 구하오릿가?” 진인 왈, “착운관으로 가면 만나리라.” 나탁이 풍화륜에 올나 화쳡창을 잇글고 건원산을 써나 착운관을 바라고 삽시간에 가서 산 언덕에 내려 사면을 돌나보나 아모 동졍이 업는지라. 한참을 섯더니 멀니서 일지 인마가 모라오는데 졍긔가 날이고 검극이 일광을 희롱하는지라.(…중략…)여화의 탐매 나탁을 보고 나는 다시 여화에게 보왈, “앞길에 한 사람이 풍화륜을 타고 길을 막으며 노래하나이다.” 여화 이 말 듯고 젼령하야 영채를 머무르고 화안금졍수를 내모라 나탁을 바라보고 문왈, “풍화를 탄 자는 엇던 사람인다?”

제시한 예문은 『봉신연의』의 34회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서주연의』와 『황비호실기』의 해당 부분을 나란히 제시했다. 위의 예문을 보면 원전인 『봉신연의』를 각각의 번역본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은 황비호가 무왕이 있는 서기(西岐)로 가기 위해서, 은나라의 마지막 관문(關門)인 사수관(汜水關)에 도착했으나, 한영(韓榮)과 그의 부장(副將)인 여화(呂化)의 육혼번(戮魂幡)으

로 인해 적들에게 사로 잡혀서 주왕에게 압송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원전인 『봉신연의』는 이러한 황비호의 위기 상황에서, 건원산(乾元山) 금광동(金光洞)에 있는 태을진인(太乙真人)이 황비호의 위기를 감지하고, 그의 수제자인 나타를 보내 황비호 일행을 구하게 만든다. 『봉신연의』에서 등장하는 태을진인은 곤륜산의 신선이자 도인(道人), 그리고 나타의 스승으로서, 황비호가 위기를 겪게 될 때마다 황비호를 도술(道術)이나 조력자를 통해 구하는 선인(善人)이다.

제시한 예문은 『봉신연의』 수용사(受容史)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서주연의』가 『봉신연의』의 번역본이지만, 번역 과정에서 도교적 색채는 가능한 번역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서주연의』에서는 도인 태을진인의 활약상을 번역 과정에서 거의 노출 시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황비호실기』를 보면 『서주연의』와 달리, 『봉신연의』와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태을선인은 물론, 도술과 관련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황비호실기』는 『서주연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봉신연의』를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황비호실기』는 『서주연의』 보다는 『봉신연의』와의 친연성이 『황비호실기』에서는 더 많이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황비호실기』는 『봉신연의』를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다만 앞부분에는 원전에 없던 황비호의 가계, 은나라 말기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을 재구성하여 기술하고, 이후 원전의 30회부터 34회까지 내용만을 기술한 것이다.

그동안 『봉신연의』의 수용과 번역본을 연구할 때, 논의의 초점은 『서주연의』에 두었다. 그래서 『봉신연의』가 국내에 수용되면서 『서주연의』로 제목이 바뀌고, 도교와 관련된 내용, 도술이나 환상적인 내용은 삭제되었으며, 『서주연의』 번역본에서 특정 내용을 발췌하여 『소달기전』, 『강태공전』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즉, 『봉신연의』의 수용이나 번역본은 『봉신연의』▶『서주연의』▶『소달기전』/『강태공전』이 생겼다는 도식으로 이해하고 있다.[284]

그러나 『황비호실기』를 보면, 『봉신연의』는 국내에서 『서주연의』를 중심에 둔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봉신연의』를 번역했거나 번안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봉신연의』의 국내 수용 및 번역본의 문제는 이러한 『봉신연의』의 다양한 번역본이나 번안본을 고려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3. 『황비호실기』를 통해 본 『봉신연의』의 국내 유통의 문제

그동안 『봉신연의』의 국내 수용 문제나 번역/번안본에 대한 논의는 『봉신연의』의 번역본인 『서주연의』를 중심에 두고 번역 과정이나 번역본의 특성 등을 이해했고, 번역본 『서주연의』에서 파생된 것이 『소달기전』과 『강태공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서 『봉신연의』의 수용과 해석에 관한 엇갈린 견해가 생겼다.

논쟁의 핵심은 『소달기전』과 『강태공전』의 원전이 『봉신연의』인지, 『서주연의』인지에 대한 것이다. 『강태공전』을 『서주연의』와 상관없이 『봉신연의』의 번역본으로 본 것은 행문(行文)의 검토, 본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강태공이 곤륜산에서 하산하는 장면, 마씨의 자살 장면과 같은 대목을 『강태공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태공전』은 원

284) 이홍란(2008), 「낙선재본 『서주연의』 연구」, 숭실대 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손홍(2009), 「강태공 소재 소설의 번안 양상과 그 의미」, 서강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혜은(2019), 「조선시대 <봉신연의>의 향유 양상과 그 독자의식」,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전은 『봉신연의』를 직접 보고 번역한 것이거나, 이를 가져다가 전사(轉寫)한 것이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봉신연의』의 번역본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285]

반면에, 『소달기전』과 『강태공전』을 번역본 『서주연의』의 영향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비록 행문이나 본문의 내용 면에서 『봉신연의』와 유사한 부분이 확인되지만, 원전인 『봉신연의』를 변형 및 번안한 『서주연의』에서 보였던 번역 및 번안의 특성이 『소달기전』이나 『강태공전』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봉신연의』는 두 작품의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번역본 『서주연의』이지 『봉신연의』가 아니라는 것이다.[286]

필자는 이러한 엇갈린 견해가 나오게 된 것은 『봉신연의』의 국내 수용사에서 『서주연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세워두고, 『소달기전』이나 『강태공전』의 번역과 번안을 다루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봉신연의』의 번역본인 『서주연의』는 여러 종이 있지만 완질은 장서각 소장 25권 25책 1종이다.[287] 이외에 몇 종의 이본이 존재하지만 낙질본이거나 개인 소장본이어서 지금까지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봉신연의』를 번역 및 번안한 번역본도 존재한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주연의』만이 아니라 『봉신연의』의 어려 번역본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달기전』, 『강태공전』, 『황비호실기』와 같은 번역본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

『봉신연의』의 번역본인 『서주연의』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서주연의』에서 원시천존이 강상에게 봉신방(封神榜)을 건네주는 장면이 『서주연의』에서는 확인할 수 없거나 서술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유교 윤리에 좀 더 투철하고, 비현실적인 설정이 약화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288] 그리고 이런 기반 위에서 『봉신연의』를 기반으로 『소달기전』, 『강태공전』가 나오게 되었다는 주장만이 되풀이될 뿐이다.[289]

『봉신연의』의 번역본 중에는 번역본 『봉신지(封神誌)』가 있다. 『봉신지』는 전체 6권으로 된 한글 번역본이다. 이 번역본을 보면 『봉신연의』를 보고 번역한 번역본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본은 원문을 직역한 것은 아니나 원문의 수록 내용을 대부분 번역했고, 자주 등장하는 군담(軍談) 장면은 한 두 줄로 간단히 언급하며 번역했다.

『봉신연의』	『봉신지』
不说黃家父子在路, 且言乾元山金光洞, 有太乙真人, 闲坐碧游床, 正运元神, 忽心血来潮. 看官但凡神仙, 烦恼, 嗔痴, 爱欲三事永忘. 其心如石, 再不动摇, 心血来潮者, 心中忽动	사수관의 일이니 진수장은 ᄒᆞᆫ영이라. 그 휘ᄒᆞ의 좌슐ᄒᆞᄂᆞᆫ 일장이 〃스니 셩명은 여화이라. 육혼번을 써 황비호 일힝 노쇼를 몰수이 잡아 ᄒᆞᆷ거의 실어 조가로 가다가 건원산

285) 「강태공전」이 현존 「서주연의」와 다른 경로로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강태공전」 이전에 「서주연의」와 다른 번역본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편집할 때 「봉신연의」에 대한 직접 번역.발췌가 이루어졌는지, 이미 시중에 번역되어 있는 다른 번역본 「서주연의」를 발췌 요약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강태공전」 행문을 검토해 보면, 현존하는 「서주연의」 번역과는 다른 경로의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강태공전」형성과정에 개입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주형예(2017), 앞의 논문, pp.201~203.

286) 「강태공전」에서 보인 『봉신연의』와의 불일치는 『강태공전』이 『서주연의』를 저본으로 하였기에 생긴 변화였다. 즉, 『강태공전』은 『봉신연의』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서주연의』의 변모 양상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강태공전』의 저본은 『서주연의』로 보아야 온당하다고 논했다. 이제부터 『강태공전』 연구에서 『서주연의』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최현민(2018), 앞의 논문, 2~3쪽.

287) 장경남·이재홍·손지봉(2003), 『셔쥬연의』, 이회문화사.

288) 최현민(2018), 앞의 논문, pp.36~37.

289) 손홍(2009), 앞의 논문.

耳. 真人袖里一掐, 早知此事, “呀! 黄家父子有厄, 贫道理当救之.” 唤金霞童儿, “请你师兄来.” 金霞童儿至桃园, 见哪吒使枪. 童子曰: “师父有请.” 哪吒收枪, 来至碧游床下, 倒身下拜, “弟子哪吒有, 不知师父唤弟子有何使用?” 真人曰, “黄飞虎父子有难, 你下山救他一番, 送出汜水关, 你可速回, 不得有误, 久后你与他一殿之臣.” 哪吒原是好动的, 心中大悦, 慌忙收拾, 打点下山. 脚登风火二轮, 提火尖枪, 离了乾元山, 望穿云关来. 好快! 怎生见得, 有诗为证, 诗曰: 脚登风轮起在空, 乾元道术妙无穷. 周游天下如风响, 忽见川云眼角中.	금광동 ᄐᆡ을진인의 도제 나타를 만나 피로ᄒᆞ고 일힝을 방츌ᄒᆞ야 사수관을 도츌ᄒᆞ던 **허다ᄒᆞᆫ ᄉᆡ설른 부ᄌᆡᄒᆞ고 단셜**(권4, 40뒤)
子牙哀告曰: “弟子乃真心出家, 苦熬岁月, 今亦有年. 修行虽是滚芥投针, 望老爷大发慈悲, 指迷归觉, 弟子情愿在山苦行, 必不敢贪恋红尘富贵, 望尊师收录.” 天尊曰: “你命缘如此, 必听于天, 岂得违拗?” 子牙恋恋难舍. 有南极仙翁上前言曰: “子牙, 机会难逢, 时不可失, 况天数已定, 自难逃躲. 你虽是下山, 待你功成之时, 自有上山之日.” 子牙只得下山. 子牙收拾琴剑衣囊, 起身拜别师尊, 跪而泣曰: “弟子领师法旨下山, 将来归著如何?” 天尊曰: “子今下山, 我有八句钤偈, 后日有验.”	ᄌᆞ이 ᄃᆡᄒᆞ의 일이러 도신ᄒᆞ비 왈, “제ᄌᆞ 강상은 원ᄒᆞ노니 사부난 성수무강 ᄒᆞ옵쇼서.” 원시 왈, “네 이ᄌᆡ 상산ᄒᆞ니 뎡히 호합ᄒᆞ도다.” ᄒᆞ고 남극선옹 명ᄒᆞ야 **봉신방을 취히** ᄌᆞ아를 쥬어 왈, “너난 도라가 서기 산의 ᄒᆞᆫ 봉신ᄃᆡ를 짓고 ᄃᆡ상의 이 **봉신방을 걸고** 네 평싱사ᄅᆞᆯ 맛차 완전키ᄒᆞ라.” 자이 봉신방을 녕슈ᄒᆞ고 (권4, 49뒤~50앞)

제시한 예문은 『봉신연의』와 이를 번역한 『봉신지』이다. 『봉신지』에서는 『봉신연의』의 핵심 내용인 ‘봉신’을 그대로 번역했고, 이 소설의 핵심인 도인(道人) 간의 도술전(道術戰)를 축약 번역했다. 다만 『봉신연의』의 여러 군담 장면은 “허다ᄒᆞᆫ ᄉᆡ설를 부ᄌᆡᄒᆞ고 단셜”이라 언급하며 해당 부분을 생략했다.

『봉신연의』의 번역본인 『봉신지』를 보면 『봉신연의』의 국내 번역본은 무조건 ‘봉신’이나 ‘도술전’을 생략했던 것이 아니라, 이를 대부분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봉신연의』의 수용이나 번역본은 『서주연의』만이 『봉신연의』의 번역 및 유통의 핵심이었다는 생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봉신연의』가 『소달기전』, 『강태공전』, 『황비호실기』로 분화된 이유를 당대 출판시장의 유통과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봉신연의』 전체의 내용은 따로 분권(分卷)해서 읽어도 될 만큼 재미난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폭군 주왕과 달기의 이야기, 주나라의 건국 공신인 강태공의 이야기, 드라마틱하게 신분이 변화하는 황비호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거질(巨帙)의 중국소설의 번역본에는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열국지전』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방대한 내용을 전부 간행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제갈무후전』, 『관운장』, 『조자룡전』, 『타호무송』, 『손호공』처럼 특정 장면만을 발췌해서 간행되었다. 이 자료들은 흥미에 역점을 둔 당대 독서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290]

이러한 당대의 독서 시장,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활자본 고소설 시장에서 중국소설의 번역본『봉신연의』도 예외가 아니었다.『봉신연의』전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재미난 이야기만을 선별하여, 당대 고소설 시장의 경향, 구활자본 고소설 출판의 전략과 맞물려『소달기전』,『강태공전』,『황비호실기』로 나누어 간행된 것이다.

	『소달기전』	『강태공전』	『황비호실기』
봉신연의	1. 紂王女媧宮進香	15. 崑崙山子牙下山	30. 周紀激反武成王
	2. 冀州侯蘇護反商	1. 紂王女禍宮進香	31. 聞太師驅兵追襲
	3. 姬昌解圍進妲己	7. 費仲計廢姜皇后	32. 黃天化潼關會父
	4. 恩州驛狐狸死妲己	11. 羑里城囚西伯侯	33. 黃飛虎泗水大戰
	5. 雲中子進劍除妖	18. 子牙諫主隱磻溪	34. 飛虎歸周見子牙
	6. 紂王無道造炮烙	19. 伯邑考進貢贖罪	
	7. 費仲計廢姜皇后	21. 文王誇官逃五關	
	8. 方弼方相反朝歌	22. 西伯侯文王吐子	
	9. 商容九間殿死節	23. 文王夜夢飛熊兆	
	11. 羑里城囚西伯侯	24. 渭水文王聘子牙	
	17. 紂王無道造蠆盆	34. 飛虎歸周見子牙	
	19. 伯邑考進貢贖罪	12. 陳塘關哪吒出世	
	20. 散宜生私通費尤	35. 晁田兵探西岐事	
	26. 妲己設計害比干	36. 長桂蒡奉詔西征	
	27. 太師回兵陳十策	39. 姜子牙冰凍岐山	
	96. 子牙發柬擒妲己	41. 聞太師兵伐西岐	
	97. 摘星樓紂王自焚	52. 絶龍嶺聞仲歸天	
	100. 武王封列國諸侯	53. 鄧九公奉敕西征	
		56. 子牙設計收九公	
		57. 冀州侯蘇護伐西岐	
		67. 姜子牙金台拜將	
		97. 摘星樓紂王自焚	

제시한 <표>를 보면 원전인『봉신연의』를 토대로,『소달기전』,『강태공전』,『황비호실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다. 세 작품은 책에 따라 일부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각 출판사에서는 최대한 다른 출판사에서 간행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출간했다.

이 글에서 살펴본『봉신연의』의 번역본『황비호실기』는『봉신연의』의 국내 수용이 단선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선 후기에서부터 근대 시기까지 형성된 출판 시장의 흐름 속에서 생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4. 마무리와 과제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것을 요약하고,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제시하기로 한다.『황비호실기』는 1932년 태화서관(太華書館)과 성문당서점(盛文堂書店)의 협력에서 간행된 구활자본 고소설이다.『황비호실기』는 전체 61면으로, 본문은 장회(章回)의 구분 없이,『봉신연의』의 30회부터 34회까지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황비호실기』는『봉신연의』의 축자역은 아니지만 원전의 내용을 최대한 가깝게 번역했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의역을 해놓았다. 이러한 번역의 양상은『황비호실기』전편에서

290) 권순긍(2000),『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pp.224-227.

볼 수 있다. 따라서 『황비호실기』는 원전인 『봉신연의』을 비교적 원전에 가깝게 번역/번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비호실기』를 보면 도술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다. 『봉신연의』 수용을 논의할 때 번역 과정에서 도교적 색채, 도술 등은 가능한 번역에서 배제한 것이라 했지만 『황비호실기』는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봉신연의』의 수용이나 번역은 다른 번역이나 번안의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봉신연의』의 번역본의 다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봉신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봉신지』에는 『봉신연의』의 핵심인 '봉신', 도인(道人) 간의 도술전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봉신지』의 경우만 놓고보더라도, 『봉신연의』의 국내 번역본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읽혔던 『봉신연의』는 당대 고소설 시장, 독자들의 성향, 구활자본 고소설 출판의 전략과 맞물려 분권(分卷)되어 출간되었다. 즉, 『봉신연의』 전체 내용 중에서 재미있는, 『소달기전』, 『강태공전』, 『황비호실기』가 출간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봉신연의』의 번역본인 『봉신지』를 비롯하여, 중국 장편소설의 분권 및 유통, 저본의 문제 등을 다루지 못했다. 이 부분은 차후 과제로 넘긴다.

■ 참고문헌

권순긍(2000),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김동욱(2019), 「한국 군담소설과 <서주연의>」,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라민아(2008), 「봉신연의 인물 연구」,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지은(2013), 「소설 봉신연의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혜은(2019), 「조선시대 <봉신연의>의 향유 양상과 그 독자의식」,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손홍(2009), 「강태공 소재 소설의 번안 양상과 그 의미」,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순방 역(1993), 『봉신연의』,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 1.

오오타니 모리시게(2010), 『한국 고소설 연구』, 경인문화사.

유수민(2015), 「<봉신연의> 속 나타 형상 소고: 도교적 토착화 및 환상성과 관련하여」, 『중어중문학』 61. 한국중어중문학회.

유수민(2016), 「조선후기 한글소설 <강태공전>의 <봉신연의> 번안 양상 소고」, 『중국소설논총』 50, 한국중국소설학회.

유춘동(2015), 「활자본 고소설의 출판과 유통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 원고/저본, 저작권, 판권지, 광고, 서적목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pp.289-315.

이은영(2007), 「<봉신연의>의 성서 과정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작품 <열국지전>」, 『중국소설논총』 26, 한국중국소설학회.

이주영(1998),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이홍란(2008), 「낙선재본 『서주연의』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경남·이재홍·손지봉(2003), 『셔쥬연의』, 이회문화사.

조희웅(2006), 『고전소설 연구보정』 (상), 박이정.

주형예(2017), 「강태공전: 초역(抄譯) 현상을 통해 본 방각본 소설시장의 일면」, 『열상고전연구』 57, 열상고전연구회.

최현민(2018), 「<서주연의>의 번역 양상과 그 의미」,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호석(2017), 『활자본 고전소설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보고사.

숫자노래의 형성과 문학적 특질

하경숙(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목차

1. 시작하기
2. 숫자노래의 형성과 장르적 특성
3. 근대가사 <숫자가>의 내용과 의미
4. 마치기

1. 시작하기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을 숫자와 함께 해왔다. 숫자는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비밀스럽게 배열되어 있기도 한 창조의 신빙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숫자는 개인의 삶에서 사회적 약속에 이르기까지 기호화한 상징체계이자, 이성적 판단과 추론 인식의 매개물이다. 숫자는 철학과 더 긴밀한 관련을 갖고, 인간 사유와 인식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291]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수를 세다가 다섯 개씩 묶는 막대기 모양의 표시인 탤리 마크(tally marks)가 나왔다. 이후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60진법을 사용하며 산수의 확장을 가져왔는데, 숫자의 무한한 확장은 아무래도 고대 인도인에 의해 시작된 '0'의 발견이었다.[292] 이후로 인간은 그것과 함께 끝없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숫자는 자연 현상이나 사건과 결합되며 문화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고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었다. 고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숫자와 결합된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다. 서구의 바로크 시대에는 숫자를 이용하여 시간을 노래하는 종교적 찬미의 격언시도 있었다.[293] 이것은 동아시아에서도 거의 비슷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한국에서는 고대에 천문과 자연 현상을 통해 한 해를 계절과 절후를 파악하여 그것을 숫자로 기호화하였다. 고대인들의 숫자에 대한 상징적 관념은 건국신화, 탄생신화에도 나타난다.

숫자는 사용하는 민족의 민족성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상징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294] 다시 말해 "숫자는 독특한 문화 현상 중 하나로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전달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다.[295] 처음에 사물의 본질에 상관없이 단지 수를 세어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들이 인간의 욕망의

---

291) 이민희, 「수학적 사고와 공간관으로 본 『구운몽』 일고」(一考), 『한국어와 문화』 10권,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1, 5쪽.

292) 마리안 프라이베르거, 레이첼 토마스(이경희 외, 번역), 『숫자의 비밀』, 한솔아카데미, 2017, 10~26면.

293) 오토 베츠(배진아 · 김혜진 번역), 『숫자의 비밀』, 도서출판 다시, 2004, 279~288쪽.

294) 최해만, 「한국어 숫자 속담에 대한 연구」, 『중한언어문화연구』8권, 중한언어문화연구학회, 2014, 83쪽.

295) 나상진, 「이족 4대 창세서사시에 나타난 상징 분석-숫자상징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第60號, 中國語文學硏究會, 2010, 390~391쪽.

구조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296]받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숫자는 우리의 삶의 온갖 측면에 몰려들고 있다. 실업, 인플레이션, 소득, 범죄, 성장, 빈곤, 출산, 지능, 성과 등의 온갖 지표와 지수와 사회통계, 다수결의 원칙, 비용-편익 계산 등 숫자는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서술, 정치적 행동에 대한 옹호,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규탄에 일상적으로 등장한다.[297]

우리나라에서도 숫자와 관련된 시가 작품이 전승되었다. 고려속요인 <동동>에서는 한 해의 절기를 숫자로 기호화하여 임과의 상사를 노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월령체 노래가 꾸준히 지어졌다. 조선 말기에는 숫자를 전면으로 등장시켜 그것을 중심으로 언어유희의 희작(戱作)적인 시가 작품들이 나왔다. 숫자 원형은 신화와 무속 관념에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제2언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자연언어가 대신할 수 없는 신성한 특징이 있으며 특정한 환경에 특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298] 근대전환기에는 '수자풀이', '숫자풀이' 또는 '숫자노래'라는 숫자만을 가지고 부르는 민요나 잡가도 나왔다. 하층의 예술에서 출발한 잡가는 도시 유흥을 기반으로 하여, 사설의 측면에서나 악곡의 측면에서 이미 익숙하고 세련된 기성의 텍스트와 선율을 혼성화하면서 도시 대중들의 감성을 휘어잡았다.[299] 또한 숫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가창하였고,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자신들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숫자가>는 근래에 필자가 발굴한 '숫자노래'이다. <숫자가>는 『금수강산유람기』라는 자료집에 들어 있는 근대가사로 필자가 최초로 학계에 보고하였다.[300] 이 논문에서는 숫자노래의 전승을 살피고 근대가사 <숫자가>의 문학적 특질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숫자노래의 전승과 장르적 특성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도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301]고 했다. 숫자노래는 노랫말에 '일(一)'·'이(二)'·'삼(三)'·'사(四)' 등과 같은 일련의 숫자를 넣어 부르는 시가 작품을 말한다. 숫자노래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조선 말기이지만 그 연원은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시경』·「빈풍」이나 돈황곡 <십이월상사>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미 고대로부터 명절이나 절후의 숫자를 활용하여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가요 <동동>에는 1년 12달을 각각의 연으로 삼아 매 달 돌아오는 명절을 중심으로 상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작품은 숫자노래와 맥락이 닿아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국에서는 雜數詩는 숫자와 글자의 조합이 나타내는 단어나 문구를 시 속에 새겨 넣은 것이다. 이들은 수(數)를 통해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상세히 표현하였다. 수의 신화성 종교성 사회성 등을 말할 수 있게 되고

296) 박종한,「숫자에 담긴 중국문화와 그 활용」,『중국문화연구』 2권, 중국문화연구학회, 2003, 145~146쪽.
297) 이기홍, 「숫자로 통치한다」, 『사회과학연구』56-2권,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422쪽.
298) 왕염, 「제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에 대한 고찰」,『탐라문화』 4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3, 158쪽.
299) 이형대, 「근대계몽기 시가 장르의 존재 양상과 근대적 대응: 근대계몽기 시가사 인식의 구도와 관련하여」,『시조학논총』32, 한국시조학회, 2010, 15쪽.
300) 자세한 사항은 하경숙·구사회, 「숫자노래의 전승 맥락과 새로운 근대가사<숫자가>의 문예적 검토」, 『동방학』 43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을 참조하기 바란다.
301) 老子, 道德經 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나아가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주어진 문화 안의 가치관 우주론 사회구성론 등에까지 논란이 파급하게 된다는 것도 말하게 된다.[302] 상징화된 숫자들은 당대의 의식, 사회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하거나 특정 사회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치, 제도, 문화 등에 스며들었을 것이다.[303]

숫자는 단위이자 다수를 이루는 어휘라는 근본적인 특성 외에도 언중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와 상징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를 주기로 달마다 돌아오는 명절이나 절후를 중심으로 노래하는 작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동동>을 비롯하여 규방가사 <관등가>나 <월령상사가>에는 매월 숫자에 따라 상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들 내용은 세시 풍속과 함께 화자가 그것을 즐기는 소년 행락을 부러워하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이었다. 반면에 고상안이나 이기원의 <농가월령>이나 박세당의 <전가월령>, 그리고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등에서도 매월의 절후로 시작하여 권농과 풍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들 작품은 서로 가요적 성격이 달랐어도[304] 숫자와 관련된 1년 열두 달의 명절이나 절후를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였다. 월과 월령체의 구성 속에서도 단지 농경 관련주의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드러내거나 놀이 혹은 풍속에 관한 내용을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내용을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월령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는 것이다.[305]

이들 달거리노래나 월령체는 월력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둘 다 숫자를 이용한 말장난은 없었다. 그리고 이들 노래가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숫자노래' 자체는 아니다.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숫자노래'는 노래가사에 '일(一)'부터 시작하여 '십(十)'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백(百)', '천(千)', '만(萬)', '억(億)'이라는 숫자를 넣은 노래를 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숫자노래'는 숫자를 활용한 말장난으로 언어유희와 관련을 짓는다. 이와 같은 숫자를 언어유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본격적인 사례는 조선말기의 시가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二十樹下三十客	스무나무 아래 서러운 나그네
四十家中五十食	망할 놈의 집에서 쉰밥을 얻어먹으니
人間豈有七十事	인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不如歸家三十食	고향에 돌아가 설은 밥이나 먹을 걸

이는 19세기 유랑시인 김병연(金炳淵, 1807~1863)이 지은 <無題詩>이다.[306] 그는 이름이 김삿갓 또는 김립(金笠)으로 더 알려졌던 인물이다. 그는 본래 조선후기 세도가였던 안동김씨의 장동 일족이었다. 하지만 선천부사로 있던 조부 김익순(金益淳, ?~1812)이 홍경래 민란으로 적들에게 투항하면서 그의 집안은 폐족이 되었다. 그 결과 김삿갓은 벼슬길로 나가지 못하고 일생동안 유랑하면서 한 많은 일생을 마쳤다. 이 한시도 그가 유랑하다가 지은 것으로 여겨진

302) 김열규, 「한국인의 수 개념의 신비」, 『기호학연구』 14권, 한국기호학회, 2003, 200~201쪽.
303) 박인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숫자의 만수관념과 종교적 상징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8쪽.
304) 전자가 달거리노래로써 달의 순서에 따라 상사의 정을 담았다면, 후자는 월령체로써 매월 정령(政令)이나 농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특징이 있었다.
305) 권정은, 「조선시대 농서(農書)의 전통과 <농가월령가>의 구성 전략」, 『새교육국어』9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468~470쪽.
306) 이응수 편, 『정본 김삿갓 풍자시 전집』, 실천문학사, 2000, 107쪽.

다. 이 시는 작자로 보이는 화자가 유랑하면서 집 주인이 자신에게 쉰밥을 내놓자 저주를 퍼부으며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작자의 분노와는 달리, 독자는 오히려 웃음을 참기가 어렵다. 그것은 숫자를 활용한 말장난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노보다는 해학적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는 불우했던 김삿갓의 인생 내용과 작품의 표현 기법을 함께 파악해야만 작품을 담고 있는 해학적 아이러니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신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현실의 배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진실을 탐구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307]고 볼 수 있다.

이 시는 어휘의 지시적 의미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숫자 어휘의 이중적 표현 기법을 파악해야 의미를 알 수 있다. 시에서 '三十'은 '삼십'이 아닌 '서른'이 되고, '四十'은 '사십'이 아닌 '마흔'으로 읽어야 시적 의미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그리고 '五十'은 '쉰'으로, '七十'은 '일흔'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를 음가로 읽어나가면 '三十客'은 '서른 나그네'에서 '서러운 나그네'가 되고, '四十家'는 '마흔 집'에서 '망할 집'으로 변전된다. '五十食'은 '쉰 밥'이, '七十事'는 '일흔 일'에서 '이런 일'로 읽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결구에서의 '三十食'은 '서른 밥'에서 '설은 밥'으로 읽어진다.

김삿갓 한시처럼 숫자의 말장난을 통해 대상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표현 방식은 이전의 달거리 노래나 월령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시 기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기법은 정통적인 한시 작풍에서 크게 벗어난 변이형 한시였다고 말할 수 있다. 희작과 언문풍월(육담풍월)로 서민대중의 문학적 열망을 채워주었으며, 현실의 반영과 풍자라는 미학적 과제를 유희의 방식을 통해 서민대중이 공유하게 만들었다.[308]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전의 엄격한 한시 작법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것은 김삿갓만의 특징이 아니라, 19세기를 전후로 봉건체재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문예적 풍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면 숫자가 시가 작품에서 해학적이고 희화화되는 문예적 풍조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수'에 대한 관심이 조선 후기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도 조선 유학자들이 자연철학을 논할 때 역학(易學)과 상수학(象數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서양의 과학이 수용됨에 따라 상수학에도 변화가 일었고 이러한 변화가 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309]

언어유희는 민요나 판소리, 타령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우리 고유의 표현 방식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핵심적 층위인 주체의 발견과 대중적 성격이 조선 후기의 문학 장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310]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말기에 숫자를 활용한 노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춘향가>중의 십장가를 들 수 있다. 십장가는 전체 서사에서 춘향의 고난이 절정에 이른 곳으로 변사또와 춘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으로 춘향의 주제가 집약된 부분이기도 하다.[311] 십장가에서 춘향은 자신의 정절

---

307) 강동우, 「잡체시와 해체시의 비교 연구: 현대문학과 전통과의 연계성에 관한 시론」,『동방학』9권, ,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211쪽.

308) 심경호, 「김삿갓 한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문학논집』51권, 근역한문학회, 2018, 26쪽.

309) 하성란, 「경판본 흥부전 에 나타난 數의 의미」,『동방학』26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266쪽.

310) 오창은, 「미적 형식 변화를 통해 본 개화기 근대성의 재인식」, 『어문론집』 29권, 중앙어문학회, 2001, 343쪽.

311) 김동건, 「십장가 대목의 전승과 변이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151집, 국어국문학회, 2009, 177~207쪽.

을 지키기 위해 장형을 당하면서도 숫자를 세어가며 변학도에게 저항하는 대목이다.

> 춘향의 고든 마음 아푸단 말 ᄒᆞ여서ᄂᆞᆫ 열녀가 아니라고 져러케 독ᄒᆞᆫ 형벌 아푸ᄃᆞᆫ 말 아니 ᄒᆞ고 졔 심즁의 먹은 마음 낫〃시 발명ᄒᆞᆯ 졔 십장가〃 질어셔는 집장ᄒᆞ고 치ᄂᆞᆫ ᄆᆡ의 언의 틈의 ᄒᆞᆯ 슈 잇나. 한 귀로 몽글리되 안 죽은 졔 글ᄌᆞ요 밧 죽은 육담이라.
>
> 일칫 낫 짝 붓치니, "일졍지심(一貞之心) 잇ᄉᆞ오니 이(일)러ᄒᆞ면 변ᄒᆞᆯ테요."
> "ᄆᆡ우치라." "예이" 쪽.
> (둘칫 낫 짝 붓치니, "이 ᄯᆞ로 말 알뢰리다.")[312] "이부 아니 셤긴다고 이 거조擧措ᄂᆞᆫ 당치 안쇼"
> 세칫 ᄂᆞᆺ 쪽 붓치니, "삼강이 즁ᄒᆞ기로 숨가이 본바닷쇼."
> 네치 ᄂᆞᆺ 쪽 부치니, "ᄉᆞ지를 씻드리도 ᄉᆞᄯᆞ의 쳐분이요."
> 오치 낫 쪽 부치니, "오장을 갈나쥬면 오죡키 죳쇼릿가."
> 육칫 낫 쪽 부치니, "육방하인 무러보오, 육시戮屍ᄒᆞ면 될 터인가."
> 칠치 낫 쪽 부치니, "칠ᄉᆞ즁의 없ᄂᆞᆫ 공ᄉᆞ 칠 ᄃᆡ로만 처 보시오."
> 팔치 낫 쪽 부치니, "팔면 부당 못 될 일을 팔작〃〃 쒸여보오."
> 구치 낫 쪽 부치니, "구즁분우 관장되야 구진 지슬 그만 ᄒᆞ오."
> 십치 낫 쪽 부치니, "십벌지목 밋지 마오. 십(씹)은 아니 쥴 터이요."[313]

이는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에 나오는 십장가이다. 원래 십장가는 숫자노래의 창작 방식에 착안하여 판소리 구연 상황에 맞춰 지어진 삽입가요이다. 십장가는 춘향가 안에서 고급관리의 호색한적 부도덕성을 통하여 천민 춘향의 도덕적 고행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요긴한 기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십장가를 살펴보면 '일'부터 '십'까지 숫자를 활용하여 각 어절을 단위로 동일 음절의 새끼 꼬기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춘향이 첫째 장형을 당하면서는 어절에서 일련의 '일'자를 사용하여 '일칫' - '일졍지심' - '이(일)러'로 이어진다. 다섯째 장형에서는 '오치' - '오장' - '오죡'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특히 위의 십장가 숫자에는 다른 십장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쌍소리가 섞여 있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하나의 파격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셰계 각국에셔 슈ᄌᆞᆫ 다 맛찬 가지라 통샹이 되야 샹무가 흥황 ᄒᆞ거드면 불가불 외국 산학을 써야 셰음 치기가 쉽고 ᄯᆞ ᄒᆡ 노흔 셰음을 아모가 보아도 알아 볼터이라
> 그런고로 말은 서로 외국 사ᄅᆞᆷ과 통치 못ᄒᆞᆯ지라도 문셔ᄂᆞᆫ 서로 알아 보게 ᄒᆞ여야 죠션사ᄅᆞᆷ들이 ᄎᆞᄎᆞ 태셔 각국 사ᄅᆞᆷ ᄒᆞ고 쟝ᄉᆞ를 ᄆᆞᆺ ᄒᆞ게 될터인고로 우리가 오ᄂᆞᆯ날 외국 슈ᄌᆞ를 여긔 츌판 ᄒᆞ야 죠션 인민들이 셰계 만국에셔 쓰ᄂᆞᆫ 슈ᄌᆞ를 알아보게 ᄒᆞ노라
>
> <1897년 2월 18일 1면 논설>

위의 예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숫자가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앞으로 여러 나라

312) 강한영 교주본에는 괄호 안이 없지만 申氏家藏本에 들어 있다.
313) 姜漢永 校注,『申在孝 판소리 사설集(全)』, 민중서관, 1974, 45쪽.

와 활발히 통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만국 공통의 숫자를 배워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314]을 제시하고 있다. 숫자가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는 글이다. 이를 통해 근대에 활발히 숫자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일품대상 이완용아/이굴돌사 못할망정
삼천리내 이씨왕토/사백만을 도매하여
오정채미 된단말가/육조참사 좋은날경
칠조욕을 아느느냐/팔도인민 요동한다
구적구걸 우리형제/십대지목 때였구나
천고역적 이완용아/만고역적 이완용아[315]

이 노래는 <숫자풀이 노래>인데, 일제강점기 이후로 널리 불린 유희민요의 일종이다. 가사 내용은 '일'부터 '십'을 거쳐 '천'과 '만'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 이완용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 노래는 당시에 불렸던 각설이 타령에서도 '일자 한자 들고 보니'로 시작하여 '만'까지 이어진다. 이런저런 사례를 보면 조선후기로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민요나 잡가와 같은 노래 양식에서 숫자를 활용한 작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숫자의 순서에 따른 언어유희인 수자푸리도 근대 시가에서 널리 변용되었다. 수자푸리를 변용한 근대 시가 작품들은 언문푸리를 변용한 근대 시가 작품들보다 양적으로 더 많다. 국권 피탈 이전에 창작된 애국계몽가사 <문일지십(聞一知十)>도 수자푸리를 변용하며 애국계몽정신을 심어주었다.[316]

一之一之글이나一之/二之二之금을二之/三之三之집신이나三之/四之四之브즈런히야四之/五之五之세월가면늙을씨가돌아五之/六之六之抗業은水路오農業六之은/七之七之암컷이나七之/八之八之쓰고남거든八之/九之九之窮交貧族가난九之/十之十之生前事業成就ᄒᆞ야流芳百世ᄒᆞ고十之[317]

위의 예문은 <가루지타령>이다. 매 구절마다 '가루지(之) 자'의 운을 달고 1에서 10까지 성수한 수시의 변형된 형태이다. 여기에 쓰인 숫자로 된 한자는 원래의 뜻을 지니지 못한다. 즉 '일지일지'는 '읽지읽지'의 음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듯 언어유희에서 언어기호는 기의가 아니라 단지 떠도는 기표로 작용할 뿐이다.[318]

일 일본놈이 / 이 이등박문이란놈이 / 삼 삼천리강토를 삼키려다가 / 사 사실이 발각되여(사신에게 발각되여) / 오 오살할놈(오소리 같은놈) / 륙 륙혈포에 얻어맞아 / 칠 칠십도 못된놈이(치를 발발 떨다가) / 팔 팔자가 기박하여(팔이 떨어져서) / 구 구치못하고(구두끈도 못매고) / 십 십자가에 걸렸다(십자로 죽었다)

---

314) 안예리, 「독립신문의 수 표기에 쓰인 한자-"숫자로서의 한자"에 대한 재발견」,『한민족어문학』67권, 한민족어문학회, 2014, 66~67쪽.
315) 『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316) 이민규, 「근대 시가에 나타난 국가 표상 변천 과정 - 애국가, 의병가사, 애국계몽가사, 항일가요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31쪽.
317) 강동우, 앞의 논문, 212쪽
318) 강동우, 위의 논문, 208쪽.

<수자풀이 십진가>[319]

일 日本놈의 / 이 伊藤博文이가 / 삼 三千里江山에 / 사 四柱가 나빠 / 오 五臺山을 넘다가 / 육 육철포를 맞고 / 칠 칠십먹은 늙은이가 / 팔 八字가 사나워 / 구 구두발로 채워/ 십 十字街리가 났다

<수요(數謠)> A12 1965[320]

<수자풀이 십진가>, <수요> A12 1965, <「朝鮮歌謠의 數노름」에 실린 수자푸리>들은 모두 안중근에 의한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하여 작품들의 구절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은 숫자와 구절을 더해가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풍자하고 희화화시키는 방법을 점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자푸리는 구전적 전통으로서 근대 내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용되어 유통되었다. 근대의 독립신문에서는 숫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앞에 나온 '숫자노래'는 숫자를 활용한 말장난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언어유희가 허구적 삶이나 허구적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놀이의 차원에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이로다 일구월식 화답하세.....둘이로다 이천만의 우리 동포.....셋이로다 삼천여년 내려오던 무궁화강산 무궁화강산/ 단군부터 부여민족/ 등뒤에 있도다 등뒤에 있도다.....넷이로다 사천여년 내려오던..... 다섯이로다 오천만의 왜놈새끼.....여섯이로다 륙대주에 울리여라.....일곱이로다 칠십로인 기다리신다/한숨 눈물로 한숨 눈물로/병정갔던 요자식을/기다리누나 기다리누나/여럽이로다 팔년풍진 겪고나서.....아홉이로다 구만청천 날아가는/ 저 기러기야 저 기러기야/ 나의 집에 소식올랑/ 전하여주렴 전하여 주렴/ 열이로다 여러 형제 처자들아/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대한독립 만세를/ 노래부르자 노래부르자 <십진가>[321]

위의 <십진가>는 구절이 지날수록 어조도 강해진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한독립만세'를 통해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노래는 구전을 기반으로 하여 달거리와 월령체 가사로 연결되어,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잡가와 민요로 불리어지다 가사양식으로 귀결되었다. 아울러 여러 근대 시가 작품들에서는 숫자노래가 소멸하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되고 변이되었다. 이는 숫자노래가 지닌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식과 감정을 진솔하게 펼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축된다. 주제 역시 다양한 의식을 지니고 가창되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구전적 전통은 애국심을 쉽게 고취시켜주며, 제창을 쉽게 이루게 해주는 유효한 방법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숫자놀이는 다양한 방식의 내면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향유자는 다양한 내용이 첨가되면서 노래가 단순한 수요자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자의 역할과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319) 김학길, 『계몽기 시가집』, 문예출판사, 1990, 49~50쪽.
320) 임동권 편, 『韓國民謠集』 1권, 집문당, 1974, 470쪽.
321)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항일 가요 및 기타』, 보고사, 2007,274~276쪽.

3. 근대가사 <數字歌>의 내용과 의미

근대가사 <숫자가>는 2020년에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이 작품에 사용된 주된 양식은 숫자를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부르는 노래로 '숫자가, 숫자노래, 숫자풀이노래' 등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며 전승되었다. 숫자의 순서에 따라 말을 만들어가며 말놀이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생활 속에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숫자에 대한 특정한 관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관습적으로 정착되어 독특한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322] <숫자가>계열의 작품들은 높은 문학성을 지니기 보다는 노래의 형식 완결성과 내용의 개방성으로 인해 전승의 방법도 유연하고 쉬운 내용의 전달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사는 담당층의 세계관 및 미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조건과 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창작되었다. 특히 다른 장르에 비해 작품수와 범위가 방대하고, 자료의 유통이나 형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는 장점을 지녔다. 이 작품 역시 유연한 문체를 바탕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數字歌>는 표제가 『錦繡江山遊覽記』라고 적혀 있는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다시 「금수강산유람기」와 「가사집(歌詞集)」으로 구분된다. <숫자가>는 전자에 수록되어 있다. 「금수강산유람기」에는 32편의 가사 작품이, 「가사집」에는 10편의 가사와 잡가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금수강산유람기」에는 저자가 安東 金大憲이 지은 한시인 <百樂詩>와 <酒字詩>를 앞서 기록해 두었다.

만재 주원택이 그동안 창작해놓은 가사 작품을 1990년 8월에 「금수강산유람기」로 편집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리고 후자는 만재 주원택이 기존의 시가 작품을 「가사집」으로 편집하여 필사했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금수강산유람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전반에 다양한 작품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숫자가>에서 숫자풀이를 통해 '일본의 패망'에서부터 '1960년 군사 쿠테타'까지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건들을 노래하며, 근대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성실히 다루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는 민족화합을 통한 애국심 고취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는 숫자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며, 숫자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유추하게 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흥미로운 변주를 통해,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상기하게 되어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작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작품 원문>

數字歌

①　　②　　③

一字을 들고보니 日本國도 原子彈에 敗戰되고

二字을 들고보니 李氏朝鮮 이 國土를 李博士가 도로찾고

三字을 들고보니 三千里 錦繡江山 三八線이 가로막네

322) 조헌, 「한국 석탑의 상징성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35쪽.

四字을 들고보니 四一九 學生運動 自由黨도 무너지고
五字을 들고보니 五一六 軍事革命 民主黨도 무너지고
六字을 들고보니 六二五 동난 當時 東西洋이 參戰되고
七字을 들고보니 七百里 洛東江도 血流成川 되어 잇고
八字을 들고보니 八一五 解放日은 永世不忘 國慶日일세
九字을 들고보니 九宮運數 도라오면 中央土가 分明하다
十字을 들고보니 十字는 正數이라 大宇宙에 正數로다
百字을 들고보니 百發百中 百자리는(를) 임업시 도라오고
千字을 들고보니 千秋에 맺친 寃恨 解冤時節 도라왓네
萬字을 들고보니 萬古업는 大道大靈 大宇宙을 統制하고
億字을 들고보니 億萬年 利害是非 脫皮하고
우리民族 始終如一 大運數을 一化民族 되여보세
世界各國 民族들아

<해석> 일자를 들어보니 일본국도 원자탄에 패전되고
이자를 들어보니 이씨조선인 이 나라를 이박사가 다시 찾고
삼자를 들어보니 삼천리 금수강산에 삼팔선이 가로막네
사자를 들어보니 4.19 학생운동에 자유당도 무너지고
오자를 들어보니 5.16 군사정변에 민주당도 무너지고
육자를 들어보니 6.25 전쟁 당시 동서양이 전쟁에 참가하고
칠자를 들어보니 칠백리 낙동강도 혈류성천 되어 있고
팔자를 들어보니 8.15 해방일은 영구히 잊지 않을 국경일일세
구자를 들어보니 구궁운수 돌아오면 중앙토가 분명하다
십자를 들어보니 십자는 정수라 대우주에 정수로다
백자를 들어보니 백발백중 백자리는(를) 임없이 돌아오고
천자를 들어보니 천추에 맺힌 원한 해원시절이 돌아왔네
만자를 들어보니 만고없는 대도대영 대우주를 통제하고
억자를 들어보니 억만년 이해시비를 벗어나고
우리민족 한결같이 대운이 들어와 단일민족이 되어보세
세계각국의 민족들아

<숫자가>는 언어유희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재미를 주며,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의미를 주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작품이 지닌 상징을 항유자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진솔하게 설명하고 있다. 항유방식도 가창· 음영· 윤독 등과 연결되어 있어 시조와 더불어 전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323]
이 작품에서는 숫자의 '一'부터 '億'까지 숫자를 앞에 두고 시험적인 도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두운이라 할 숫자의 순서는 작품 전체의 암기에 용이한 기능적 구실을 하고 있지만 첫 구절에 오는 단어의 폭을 극히 제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상 속에서 각 구절을 배치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324]

323)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 과정과 근대적 지향」,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3, 231쪽.
324) 김종진, 「잡가.민요.가사의 경계에 대한 탐색」, 『동악어문학』50호, 동악어문학회, 2008, 221쪽.

화자나 독자가 갈등을 벗어나게 되는가(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과정을 작품 속에 그려내면서 대중은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사유함으로써 궁극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325] 아울러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전달사항이나 그 의미를 완성된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작품안에서 다양한 상징이 녹아 들어있다.[326]

이 작품의 표현을 살펴보면 반복법과 연쇄법에 의한 구성이 대체적이다. <숫자가>에서 사용되는 숫자의 순서나 비슷한 어휘, 어구 등의 반복사용은 낭송(朗誦)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지속적인 암기를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나 결박없이 우리 민족의 화합 고취하기를 이야기한다. '이승만 집권,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휴전, 4.19 혁명, 5.16 군사정변, 낙동강 전투, 8.15 광복 등 근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숫자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점점 커지는 숫자를 통해 '애국심 고취'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숫자가>에서 사용된 반복, 연쇄법은 많은 학습을 하지 않은 일반 대중이라도 쉽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작품의 파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①②번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온 것이고, ③번은 ①②번에 보이는 숫자의 모습이 들어간 한자를 활용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 역시 일종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유희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을 성취하고 있는 화자의 문학적인 재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숫자 '一'서 시작해서 '一'로 마무리 한 것 역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한 문학적 성취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1은 시작을 의미한다. 태초의 시작, 창조자, 주동자, 모든 가능성의 총합, 본질, 중심, 배아를 나타낸다.[327] 다시 말해 1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에는 滿數로서 '충분히 많다'라는 의미가 있다. "열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함께 많은 것을 뜻"[328]하는 것을 작가는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숫자노래는 한시의 한 종류인 잡체시(雜體詩)의 영역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잡체시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유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잡체시는 스스로 일정 정도의 제약을 건 상태에서 지어진 것이기에,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위 작품의 경우 ①번과 ②는 숫자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저 유희적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③의 경우에는 유희뿐만 아니라, 숫자의 변용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숫자가>는 가사적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문학적 가치보다는 그 주제의식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며 이에 대해 화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작품 역시 일정 이상의 한계가 보여진다. 숫자의 순서를 통해 진행된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숫자 '一'에서 '五'까지는 일본의 패망(1945), 그리고 해방(1945), 6.25전쟁(1950), 4.19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0)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다. 그러나 '六'과 '七'은 6.25전쟁(1950)이고 '八'은 8.15광복(1945)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숫자와

325) 송명희,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관한 고찰」1, 『한어문교육』 27, 한어문교육학회,2012, 22쪽.
326) 하경숙, 박재연, 「새로 발굴한 가사 작품 <본문가>에 대한 문예적 검토」,『문화와융합』40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9~10쪽.
327) 경판본 흥부전 에 나타난 數의 의미 269
328) 황태강 외 77명,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사, 1995, 513쪽.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할 수 없었던, 한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는 '十'에도 보여진다. '十'에 말한 '正數'는 천수(天數, 1,3,5,7,9) 二十五와 지수(地數, 2,4,6,8,10) 三十을 합친 五十五를 의미한다. 물론 이를 통해 천지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마치기

숫자노래는 19세기 말의 판소리 사설・가사・잡가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때, 숫자풀이 양식은 월령체로부터 근대시가까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숫자노래는 문학적 우수성이나 특수성은 찾기 어렵지만 쉽게 익힐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숫자를 사용하여 의식의 함양이나 독려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숫자풀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창작과 가창에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작품을 유통・계승하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숫자는 단순히 셈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화성 종교성 사회성 등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문화가 지니는 가치관 우주론 사회구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기호표기이다.

최근에 발굴한 근대가사 <숫자가>는 숫자풀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여 '일본의 패망'에서부터 '1960년 군사 혁명'까지 우리나라의 굵직한 역사적 사실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나 결박없이 우리 민족 본래의 화합과 성취를 소망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숫자를 통해 '애국심 고취'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숫자가>가 문학적 우수성이나 특수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유연성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다양한 유통과정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숫자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며, 숫자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유추하게 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또한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숫자를 통한 다양한 변주와 추론을 통해, 독자나 가창자들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상기하게 되는 목표를 기반으로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숫자노래가 지닌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식과 감정을 진솔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19세기를 전후로 봉건체재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문예적 풍조인 언어유희가 숫자노래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숫자가 시가 작품에서 해학적이고 희화화되는 문예적 풍조와 결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유희의 일종으로 보는 숫자노래는 민요나 판소리, 타령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우리 고유의 표현 방식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숫자와 관련된 1년 열두 달의 명절이나 절후를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였다. 월과 월령체의 구성 속에서도 단지 농경 관련 주의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드러내거나 놀이 혹은 풍속에 관한 내용을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내용을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숫자를 활용한 말장난으로 분노보다는 해학적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로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민요나 잡가와 같은 노래 양식에서 숫자를 활용한 작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숫자의 순서에 따른 언어유희인 수자푸리도 근대 시가에서 널리 변용되었다. 수자푸리를 변용한 근대 시가 작품들은 언문푸리를 변용한 근대 시가 작품들보다 양적으로 더 많다.

숫자풀이 작품의 주제 역시 다양한 의식세계를 규명하며 가창되고 전승되었다. 특히 과거 농

사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실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근대에 이르러 구전적 전통은 애국심을 쉽게 고취시켜주며, 제창을 쉽게 이루게 해주는 유효한 방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숫자놀이는 다양한 방식의 내면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향유자는 다양한 내용이 첨가되면서 노래가 단순한 수요자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자의 역할과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작가 미상으로 작품만 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 자료나 기록이 전무하여 작품의 특질과 그 실체를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숫자가>가 지닌 특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작품이 지닌 의미와 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동우, 「잡체시와 해체시의 비교 연구: 현대문학과 전통과의 연계성에 관한 시론」,『동방학』9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강한영 교주,『申在孝 판소리 사설集(全)』, 민중서관, 1974.
김동건, 「십장가 대목의 전승과 변이 양상 연구」,『국어국문학』151집, 국어국문학회, 2009.
김열규, 「한국인의 수 개념의 신비」,『기호학연구』14권, 한국기호학회, 2003.
김종진, 「잡가.민요.가사의 경계에 대한 탐색」,『동악어문학』50호, 동악어문학회, 2008.
김학길,『계몽기 시가집』, 문예출판사, 1990.
권정은, 「조선시대 농서(農書)의 전통과 <농가월령가>의 구성 전략」,『새교육국어』9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나상진,「이족 4대 창세서사시에 나타난 상징 분석-숫자상징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第60號, 中國語文學硏究會, 2010.
박종한, 「숫자에 담긴 중국문화와 그 활용」,『중국문화연구』2권, 중국문화연구학회, 2003.
서사증,『文體明辨序說』, 人民大學出版社, 1998.
송명희, 「문학의 치유적 기능에 관한 고찰」1,『한어문교육』27, 한어문교육학회,2012.
심경호, 「김삿갓 한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문학논집』51권, 근역한문학회, 2018.
오창은, 「미적 형식 변화를 통해 본 개화기 근대성의 재인식」,『어문론집』29권, 중앙어문학회, 2001.
이민규, 「근대 시가에 나타난 국가 표상 변천 과정 - 애국가, 의병가사, 애국계몽가사, 항일가요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임동권 편,『韓國民謠集』1권, 집문당, 1974.
안예리, 「독립신문의 수 표기에 쓰인 한자-“숫자로서의 한자”에 대한 재발견」,『한민족어문학』67권, 한민족어문학회, 2014.
왕염, 「제주도 무가 속의 숫자 12에 대한 고찰」,『탐라문화』4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3.
이민희, 「수학적 사고와 공간관으로 본『구운몽』일고」(一考),『한국어와 문화』10권,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1.
마리안 프라이베르거, 레이첼 토마스(이경희 외, 번역),『숫자의 비밀』, 한솔아카데미, 2017.
이응수 편,『정본 김삿갓 풍자시 전집』, 실천문학사, 2000.
오토 베츠(배진아 · 김혜진 번역),『숫자의 비밀』, 도서출판 다시, 2004.
최해만, 「한국어 숫자 속담에 대한 연구」,『중한언어문화연구』8권, 중한언어문화연구학회, 2014.

하경숙, 박재연, 「새로 발굴한 가사 작품 <본문가>에 대한 문예적 검토」,『문화와융합』40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하성란, 「경판본 흥부전 에 나타난 數의 의미」,『동방학』26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체험주의 상상력을 통해 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염 승 연 (전남대)

-목차-

1. 머리말
2. 체험주의 상상력을 통한 연구방법
3.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속 영상도식
4.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상상적 구조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호랑이는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동물로 자기잡고 있다. 많은 민속 신앙에서 호랑이는 산신의 현신, 벽사진경의 액을 막아주는 존재, 익살스러운 존재, 그리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갖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또한 설화에서도 호랑이는 『삼국사기』의 <단군왕검>을 시작으로 많은 설화에 등장하여 한국을 호담국(虎談國)[329]이라 부를 정도로 다양한 설화가 전승되었다.

특히,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이해 <해와 달>)는 호랑이 설화 중 대표적인 설화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호랑이가 떡을 파는 어머니를 잡아먹은 후에 집에 있는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하자, 아이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나무에 올라가 하늘에 비손하여 내려온 동아줄을 탔지만,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떨어져 죽고 아이들은 그대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졌다. <해와 달>설화는 후반에 오누이가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인해 설화 연구에서는 '남매일월담'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 이 설화는 <일월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와 몽고, 일본의 설화 자료를 비교한 손진태의 연구를 기반으로 각 나라 간 설화를 비교[330]하거나 설화에서 드러난 창조신화적 성격[331]을 중심으

329) 최남선, 朝鮮歷史 및 民族思想의 虎, 김호근, 윤열수 편, 『한국호랑이』, 열화당, 1992, 18쪽, 재인용.

330)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133~135, 155~158쪽; 정충권, 「동아시아 일월조정 신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박종성, 「<해와 달이 된 오누이>유형들의 견주어 읽기－루마니아에서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으로－」, 『한국문학논총』 44집, 한국문학회, 2006.

331) 라인정, 「구비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성격 고찰」, 『어문연구』 18권,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8, 338-339쪽; 라인정은 충남지역 구비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성격을 분류하면서 이에 따른 사람과의 행동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해와 달> 설화는 해와 달의 기원을

로 분석되어 왔다.

한편, 남매일월담 연구를 제외한 <해와 달> 설화 연구는 주로 설화 속 호랑이의 행동을 통해 호랑이의 성격에 파악하는데 주력한 관점[332]이나 권력담론[333], 트릭스터[334], 혹은 아동발달론적 관점[335]으로 설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민속이나 설화 속 호랑이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동물이나 신령스러운 존재 등 많은 의미와 상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동물이다. 이 경우, 호랑이는 주로 사납고 악의적인 '짐승(creature)'[336]이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동물[337]로 묘사된다. 이때의 호랑이는 먹이만을 생각하는 탐욕적인 동물로 자신의 힘을 이기적으로 행사한다. 또한 호랑이의 부정적 성격을 부각시켜 호랑이를 권력을 탐하는 강자 혹은 양반을 상징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여기에 호랑이의 어리석은 면모를 추가함으로써 호랑이는 바보스러운 짐승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338]

호랑이를 트릭스터로 보는 연구에서는 하인스의 트릭스터(trickster) 개념을 바탕으로 설화를 분석하고 있다. 트릭스터는 정의를 내리기에 무리가 있는 다가치적 속성을 지닌 인물로, 이한길은 <햇님달님>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속임의 상황과 속음의 상황이 호랑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주목하여 호랑이가 트릭스터 역할을 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김기호의 연구에서도 하인스의 6가지 트릭스터 속성을 통해 설화 속 호랑이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고, 동시에 오누이와 어머니의 유대를 분리하면서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개체로 간주하였다.[339]

이후 김기호는 호랑이를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보고 아동발달론적인 관

설명한 신화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호랑이는 아직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신화시대의 어지러운 현상을 표상하는 존재로서 악을 평정하고 밝은 세계 질서 확립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 이는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이며, '해와 달'의 생성 동기가 된다; 나경수, 「男妹日月神話의 神話論的 考察」 ,『한국언어문학』2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0, 289~312쪽;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비교민속학』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332) 황패강, 「한국민족설화와 <호랑이>」, 『국어국문학』 55-57회, 국어국문학회, 1972; 손동인, 「韓國傳來童話의 作中事件 攷 : 특히 호랑이의 事件을 통한 性格分節을 中心으로」, 『논문집』 16권 2호, 인천교육대학교, 1982; 김명희, 「설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와 여성」, 『동방학』 2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6; 오출세, 「민담에 나타난 호랑이 고찰 : 골계담을 중심으로」, 『동학어문논집』 제31집, 당악어문학, 1996; 김현주, 「호랑이 소재 민담과 민화의 유형 분류와 무의식 분석」, 『한국구비문학연구』 19호, 한국구비문학회, 2004; 류경자, 「구비설화 속 속신(俗信)의 형태와 구술담화적 기능 - '호랑이이야기'를 중심으로」, 『민속연구』 3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8.

333) 염희경,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호랑이상 - 설화와 전래동화 비교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5권,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3; 박진태, 호랑이의 문학적조형적 형상화 서사와 희화를 중심으로,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47, 2009;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9권, 실천민속학회, 2012.

334) 이한길, <해님 달님> 연구: 트릭스터로서의 호랑이,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연구 3권, 1997; 김기호, 트릭스터 그리고 성장의 매개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42권, 2003.

335) 김기호, 「한국 호랑이설화의 주제별 유형 - 발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 형상 -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이종주, 어린이의 사회화와 원형화소 시론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7, 실천민속학회, 2016.

336) 황패강, 위의 논문, 573쪽.

337) 김명희, 위의 논문, 162쪽.

338) 임재해, 위의 논문, 224-225쪽.

339) 김기호, 트릭스터 그리고 성장의 매개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호랑이, 『한민족어문학』 42권, 한민족어문학회, 2003; 이 논문에서는 호랑이의 트릭스터적인 면모를 분석하면서 오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발달론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호랑이의 트릭스터 행위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트릭스터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점에서 설화를 분석했다. 2004년의 연구에서 피아제의 아동발달심리학의 주요 개념인 자기중심성을 통해 호랑이를 자기중심적이고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340]로 규정하였다. 이후 2008년 연구에서는 분석심리학적 관점을 추가하여 호랑이가 초기 발달 단계에 고착된 반사회적 존재로 보았고, 특히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서는 무질서한 사고로 인해 기존 사회를 위기로 모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는 분석 심리학에서 무의식 내에 있는 열등한 인격처럼, 호랑이의 성격적 특징이 무의식에 억압된 자아의식의 여러 가지 열등한 성격과 상응한다고 본 것이다.[341]

기존의 설화 연구를 검토했을 때, <해와 달> 설화군에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화분석을 진행한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해와 달> 설화를 단순히 '남매일월담'을 통한 창조신화적 관점으로 한정시켜 분석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지영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전승자료를 대상으로 실제 전승의 실상과 특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남매일월담'이 언급되지 않은 설화들이 상당수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42]

서대석의 연구에서도 <해와 달> 설화가 몽골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보편적으로 전승되는 설화인 반면에 남매일월담만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남매일월담이 <해와 달>의 보편적인 설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월설화에서는 해와 달이 등장하기 전 세상이 암흑세계이거나 빛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인공의 행위가 중요한 필수요건이지만, <해와 달>에서는 남매가 호랑이를 피해 승천하여 해와 달이 된 부분이 위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서대석은 <해와 달>에서 남매일월담이 전파과정에서 부연된 부분으로 보고 있다.[343] 더 나아가 설화에서 서두와 전개, 결말의 화소 간의 의미 결합을 살펴보면, 창조신화보다 '창조 신화적 화소가 포함된 민담'으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있다[344]

<해와 달> 설화군에서 남매일월담이 포함되지 않은 설화를 보면 <호랑이와 떡장수>, <수숫대가 빨갛게 된 이유>를 볼 수 있다. <호랑이와 떡장수>는 <해와 달>의 초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짧은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다. <수숫대가 빨갛게 된 이유>도 <해와 달>의 남매일월담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다만 설화 후반에 남매일월담보다 호랑이가 수수밭이 있는 곳으로 떨어져 죽는 부분에 이야기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은 승천하는 내용으로 그친 반면, 호랑이가 수숫대 위에 떨어져 죽은 이후 수숫대는 호랑이 피로 빨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다.

남매일월담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해와 달> 설화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식(虎食)'이란 행위다. 설화 속 호랑이는 처음에 할머니에게 떡과 옷, 그리고 신체 일부분을 요구하다가 결국 잡아먹은 후, 집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오누이에게 접근한다. 그간의 <해와 달> 설화 연구에서는 주로 호랑이의 성격이나 결말에 따른 남매일월담,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론적 관점에 주력을 두었다면, 주목하지

340) 김기호, 「한국 호랑이설화의 주제별 유형 - 발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142-143쪽.

341)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 형상 -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342)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3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71-215쪽.

343) 서대석, 「한국 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 - 세계관적 대칭위상의 검토」, 『국어국문학』 101권, 국어국문학회, 1989, 22-24쪽.

344) 이종주, 「어린이의 사회화와 원형화소 시론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회』 27권, 실천민속학회, 2016.

못했던 호식의 행위와 그 반대인 호랑이로부터의 탈주에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호식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호랑이와의 상호작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식당하는 이야기나 거기에 벗어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해와 달> 설화에서도 호식이라는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주력한 설화가 아닐까? 아이들이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비손하여 승천하는 내용을 통해서 상상력이라는 인식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와 달> 설화에 대해 '호환'이라는 사람들의 경험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인간의 경험과 상상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체험주의의 상상력 이론을 적용했을 때 그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체험주의는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에서 연구된 경험에 대한 증거들을 수용함으로써 인간의 전반적인 사고와 행위를 몸에 집중하여 새로운 탐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345]

체험주의 이전의 철학이 몸의 구조나 마음의 본성에 대해 주로 이성과 정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논지를 구성했다면, 체험주의에서는 인간이 감각을 통해 겪은 신체적인 경험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인간의 경험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상상력 이론'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경험에서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경험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이론이다.

설화는 사람들의 경험과 생활상이 녹여진 이야기로, 그동안 설화에 관한 많은 연구방법이 설화의 텍스트 기저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했다. 물론, 체험주의 연구방법이 기존의 연구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경험과 상상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체험주의의 상상력 이론을 도입한다면, 기존의 연구에 가려진 설화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호환이라는 경험은 사람의 신체나 정신적 부상뿐만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운 경험이었다. 이전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되었고, 점차 호랑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가 등장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또한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전승되었을 것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관한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한 것은 '호환(虎患)'이라는 경험을 통해 설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고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언급된 '호식(虎食)'에 주목하여 체험주의의 상상력 이론을 바탕으로 설화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체험주의 상상력 이론의 기반인 영상도식과 은유를 설명하고, 3장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등장한 호랑이와 각 인물들의 행위에 따른 영상도식을 분석한다. 이후 4장에서는 상상력 이론을 통해 기존에 연구된 설화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겠다.

2. 체험주의 상상력을 통한 연구방법

체험주의는 몸과 정신을 본질에 있어 이성보다는 신체의 감각을 통한 경험을 포함시킨다. 이때 경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 상상력은 단순히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인 능력을 발현시키는

345) 노양진, 『몸·언어·철학』, 서광사, 2009, 208쪽.

의미보다는 신체를 통해 발현된 경험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더 추상적인 정신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마크 존슨에 따르면, 상상력은 이성에 대비되는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식 전반에 작동하는 근원적인 인지적 기제이다.[346]

여기서 영상도식은 하나의 구체적인 영상이 아닌 각각의 경험을 조직적으로 구조화한 패턴으로 우리의 지각과 개념을 구성하는데 질서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흔히 도식(image)은 시각적인 형상으로써 특정한 형식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체험주의에서 영상도식은 하나의 패턴으로서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그릇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릇을 경계로 그릇 안과 밖을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고, 반대로 그릇 안의 내용물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릇의 모양이나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릇에 들어 있는 내용물도 다양할 수 있다. 영상도식에서는 그릇을 보았을 때, 단순히 명제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시각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릇을 통해서 안과 밖이라는 요소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릇을 통한 행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그릇 도식'이라는 영상도식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릇의 종류나 그 내용물의 종류, 사람들의 행위도 다양하듯, 영상도식은 다양한 맥락에서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347] 때문에, 영상도식의 종류는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고[348], 영상도식의 구조와 패턴을 구성하는데 있어 물리적 힘은 중요하게 작용된다. 다양한 맥락과 의미 안에서 영상도식이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체를 통한 힘의 이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영상도식은 감각운동에 있어 기본적인 단위가 되며, 신체의 감각을 통해 영상도식으로 패턴화된 영역이 '신체화된 경험'이다.

처음에는 신체적 층위의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수의 영상도식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점차 구체적인 대상에서 경험의 층위로 확장된다.[349] 여기서 영상도식은 '은유적 사상'을 통해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층위의 경험으로 확장한다. 이때의 은유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언어 속에서 작용하는 사고 능력으로, 이를 이해하는 방식은 물리적 경험에서 얻은 패턴들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이해로 구조화되는 것이다.[350]

이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 대입해보면, 호랑이는 호식(虎食)함으로써 식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람은 호랑이로부터 호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호랑이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을 가진다. 때문에 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이러한 행동의 패턴이 영상도식과 은유를 통해서 설화가 전승된 양상과 그에 따른 상상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체화된 경험에서는 영상도식이 단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상도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힘의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패턴화된 도식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영상도식 중 하나인 「경로」(Path)도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346)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2018, 136쪽.
347) M. 존슨,『마음 속의 몸 - 의미·상상력·이성의 신체적 근거』, 철학과 현실사, 2000, 105쪽.
348) M. 존슨, 같은 책, 246쪽.
349) 노양진, 『철학적 사유의 갈래』, 서광사, 2018, 136쪽.
350) 김혜영, 「체험주의의 영상도식과 신체화된 경험」, 『범한철학』 83, 범한철학회, 2016, 151쪽.

경로도식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많은 지점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경로도식은 목적까지 도달하는데 연결된 지점을 통해서 방향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은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 지점에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지점들을 연결하면 그에 따른 방향이 나타나고, 그 방향으로 한 지점 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할 때 변화되는 시간의 지점이 나타난다. 이때, 시간의 지점에 따라 투사된 선이 추상적으로 존재한다.[351]

여기서 표인주는 인간은 수평적 이동을 통해 「안/밖」(in/out)도식을 인식하여 공간적 이동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이 도식은 경계를 기점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거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동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원초적 공간을 바탕으로 인간은 집 안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현세를 살아간다면, 집 밖으로 나감으로써 안정된 공간이 아닌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등 집 안의 경험과 대조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수직적 이동을 통해 「위/아래」(up/down)도식으로 구성된 지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와 천상에서 살아가는 신의 세계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수직적 이동을 통해 상징적으로 경험을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초월적 존재를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늘로 상정하고 하늘이 곧 신이 거주하는 거룩한 세계라는 종교적 경험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352]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경우에 따라서도 다양한 도식이 나타난다. 만일 경로도식에서 장애물로서 힘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그 영상도식은 「차단」(blcokage) 도식이 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벽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동 방향을 막는 경우가 차단 도식에 해당된다. 이때, 그는 그 벽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힘에 따른 이동을 변환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막혀 있는 곳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가거나, 다시 다른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혹은 벽을 뚫어서 그가 원래 이동하려 했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차단도식은 힘이 작용할 때 힘을 차단시키거나 장애물을 통해 힘이 작용되는 예상 방향에서 벗어나, 임의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경우에 따라서 벽에 문이 있다고 가정하면, 문이 열림으로써 그 사람이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장애물이나 제약이 없어짐으로써 힘이 작용될 수 있도록 열려 있거나 경로를 제시하는 「제약의 제거」(removal of restraint) 도식에 해당된다. 제약의 제거 도식은 차단 도식의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약의 제거 도식에서는 차단 도식과 같이 장애물에 대해 힘이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되기보다는, 장애물이 어떠한 이유로 제거됨에 따라 힘이 원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353]

앞에서 언급한 영상도식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등장하는 호랑이와 각 인물들의 행위에서도 볼 수 있는 도식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해와 달> 설화군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각 단락에 나타난 영상도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3.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속 영상도식

351) M. 존슨, 위의 책, 229쪽.
352) 표인주, 『체험주의 민속학 : 민속과 구술문학의 체험주의적 이해』, 박이정, 2019, 444-445쪽.
353) M. 존슨, 앞의 책, 131-132쪽.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그동안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설화로,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한다. 본고는 한국구비문학대계 및 아카이브에 채록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이하 <해와 달>)설화와 <해와 달>과 비슷한 내용인 <호랑이와 떡장수>, <수숫대가 빨갛게 된 이유> 까지 찾아본 결과, 총 92편의 설화 중에서 <해와 달>은 65편을 차지할 정도로 현재까지 전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54]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군에서는 오누이가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나무 위로 비손하여 동아줄을 얻고 해와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호랑이와 떡장수> 설화는 <해와 달>과 달리 내용과 결말이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호랑이와 떡장수>는 주로 호랑이가 일을 마치고 얻은 음식을 이고 가는 할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음식을 계속 요구하여 결국 음식을 다 먹거나 호식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때, <호랑이와 떡장수>에서는 다양한 결말이 나타난다. 호랑이는 음식만 먹고 가거나 음식 이외에 옷, 신체 등을 요구하여 결국 호식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끝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떡장수인 할머니, 혹은 어머니가 호랑이의 요구에 기지를 발휘하여 호랑이를 물리치거나 할머니를 호식하고 집으로 가서 아이들까지 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설화에서는 <해와 달>보다는 정교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초반부의 이야기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다만, <해와 달> 설화에서 언급되는 단락이 누락되거나 온전하게 전승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해와 달> 설화가 온전하게 전승되지 못하고 일부분만 전승된 경우로 보인다.

<수숫대가 빨간 이유> 설화군은 <해와 달>설화에서의 결말까지 비슷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결말부분에 있어서 <해와 달>이 남매일월담까지 이어지는 반면, <수숫대가 빨간 이유>에서는 호랑이로 인해 수숫대가 빨갛게 된 연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남매는 해와 달까지 변모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정도로 끝나고, 호랑이는 하늘에서 수숫대 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호랑이의 피로 인해 수숫대가 붉어졌다는 결말로 끝난다.

이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단락을 중심으로 개별단락을 나누되, 설화에 삽입된 내용을 따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때, <해와 달이 된 오누이>(줄여서 <해와 달>)설화를 순차적인 단락으로 나누었을 때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에피소드로 나타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에피소드 1-

① 어머니(할머니)가 떡(묵, 범벅, 밥)을 이고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난다.
② 호랑이가 떡을 요구하여 떡을 준다.
③ 떡이 다 떨어지자, 호랑이가 옷을 요구한다.
④ 옷을 다 뺏기자, 호랑이가 신체 일부를 요구한다.
⑤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에피소드 2-

⑥ 호랑이가 오누이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 요구한다.
⑦ 오누이가 거절하면서 호랑이에게 손을 요구한다.
⑧ 호랑이가 손을 보여주자 오누이가 의심한다.
⑨ 호랑이의 거짓말로 아이들이 문을 열어 호랑이가 집안에 들어온다.

35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2020.1.13. <https://gubi.aks.ac.kr/web/>

-에피소드 3-

⑩ 오누이가 뒷문으로 도망가 샘 옆 나무에 오른다.

⑪ 호랑이가 아이들을 발견하여 아이들에게 나무에 오른 방법을 묻는다.

⑫ 아이들이 다른 집에서 참기름을 얻어 나무에 발라 올라갔다고 답한다.

⑬ 호랑이가 나무에 참기름을 발라 올라간다.

-에피소드 4-

⑭ 아이들이 하늘에 비손하여 하늘에 동아줄이 내려온다.

⑮ 호랑이가 하늘에 비손하여 하늘에 썩은 동아줄이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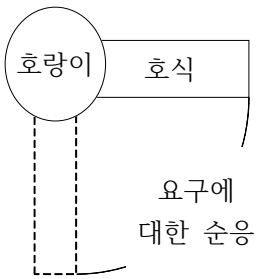
⑯ 아이들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호랑이는 수숫대에 떨어져 죽는다.

⑰ 하늘로 올라간 아이들은 해와 달이 되었고, 호랑이가 죽은 자리에는 수숫대가 빨갛게 되었다.

<해와 달>설화에서 에피소드 1에 접목된 영상도식은 「경로」도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차단」과 「제약의 제거」도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호랑이는 ②에서 ④까지 처음에 가지고 가던 떡을 요구하다가 옷과 신체 일부를 요구하고, 결국 ⑤번에서는 호랑이는 할머니의 몸체를 먹음으로써 할머니는 죽음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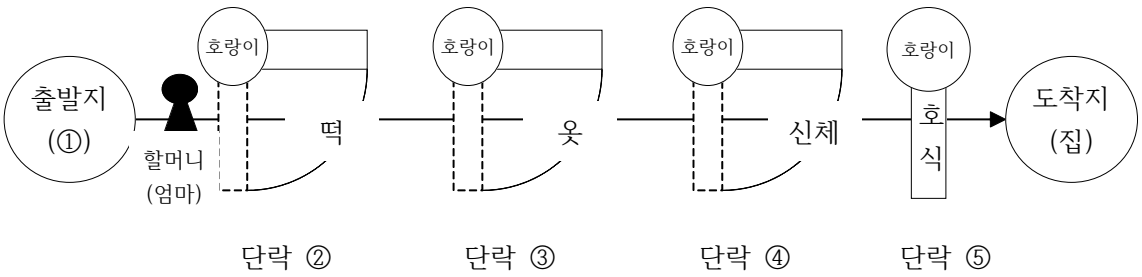
단락 ①에서 할머니는 목적지인 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출발지에서 여정을 떠난다. 동시에 딸의 집이라는 방향성을 통해서 할머니는 딸의 집으로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로도식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힘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그 방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하여 임의의 가능한 방향들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설화에서 호랑이가 장애물 역할을 담당하여 할머니는 임의의 방향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호랑이의 요구는 차단 도식에서 새로운 국면을 제공한다. 호랑이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호랑이가 길을 비켜주고 할머니는 가고자 하는 길을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니는 계속해서 호랑이의 요구에 순응한다. 호랑이로 인한 힘의 제약이 호랑이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제거되는 것이다.



<호랑이의 요구에 대한 제약의 제거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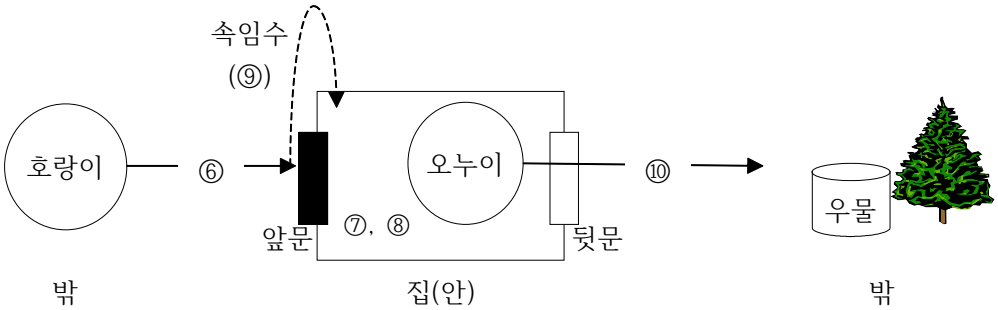
①에서 호랑이와의 만남 이후, 할머니는 ②번에서의 떡과 ③번에서의 옷, 그리고 ④번에서의 신체 일부까지 호랑이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내어주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요구에 순응할수록 할머니는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전부 뺏기면서 심지어 신체 일부까지 없어지고, 이러한 제약의 제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급기야 경로로부터 차단되고 만다. 단락 ⑤에서 결국 호랑이가 몸체만 남은 할머니의 신체를 잡아먹은 것이다. 따라서 <에피소드 1>에서 다뤄진 영상도식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에피소드 1의 영상도식>

두 번째 에피소드 또한 호랑이는 목적지와 호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누이가 있는 집을 향해 감으로써 첫 번째 에피소드에 적용된 경로도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이 문을 지키고 호랑이를 집으로 들여오지 않음으로써 호랑이의 경로에 있어 앞문은 장애물이 된다. 처음에 단락 ⑥에서 아이들은 호랑이에게 손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⑦~⑧에서는 호랑이가 손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엄마의 손이 아님을 의심하면서 계속 들여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호랑이는 곧바로 자신의 손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 그렇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문을 열도록 이끈다. 이때, 속임수는 문이라는 장애물을 아이들이 열어줌으로써 호랑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단락 ⑥~⑧까지를 보면, 아이들의 대응으로 처음에는 호랑이의 경로가 장애물에 부딪쳤지만 속임수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대응이 실패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 아이들은 단락 ⑩에서 뒷문을 통해 밖에 있는 나무로 올라간다. 에피소드 2에서는 호랑이의 목적에 따라 에피소드 1에 적용된 경로 도식을 기반으로, 차단 도식과 「안/밖」 도식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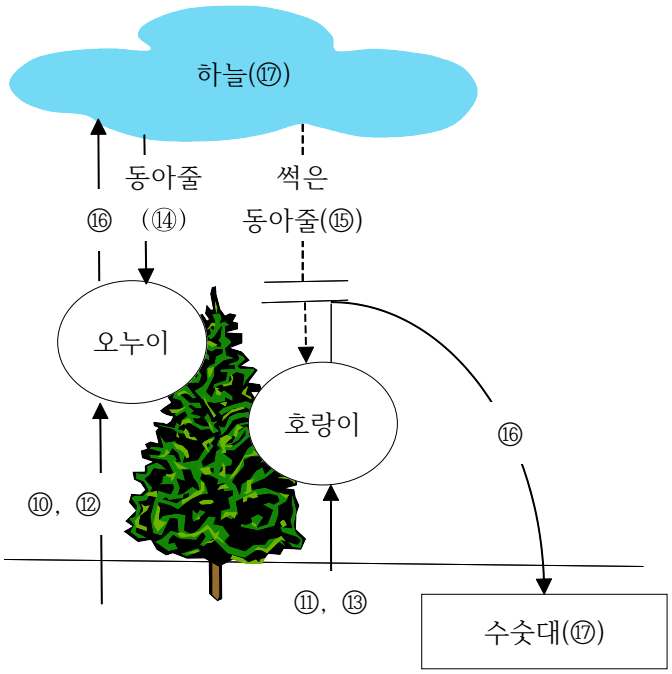
<에피소드 2의 영상도식>

이후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벗어나기 위해 뒷문으로 나와 샘(우물) 옆에 위치한 나무에 올라가고, 호랑이도 뒤따라 아이들을 발견한다. 이때, ⑪에서 호랑이는 아이들에게 나무에 올라간 방법을 물어보고 아이들은 다음 단락에서 다른 집에 참기름을 얻어 나무에 발라 올라갔다고 대답한다. 이제 호랑이는 ⑬에서 아이들의 방법을 그대로 이행하여 결국 나무를 오르게 된다.

이전 에피소드의 경로도식을 넘어서 아이들은 호랑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경로도식을 추가하게 된다. 방안에 같이 있는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은 뒷문으로 벗어나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위-아래」 도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때도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오른 아이들을 곧바로 잡을 수 없자, 호랑이가 아이들에게 나무를 오르는 방법을 묻는다. 아이들은 참기름을 나무에 발랐다는 거짓말로 기지를 발휘하여 호랑이가 이전처럼 나무에 오를 수 없도록 대응한다. 하지만, 호랑이는 아이들이 알려준 그대로 이행하여 호식에 대항하는 아이들의 시도는 실패한다.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아이들이 호랑이에 대한 두 번째 대응에도 실패하여 하늘에 비손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단락 ⑭에 아이들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면 새 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면 헌 줄을 내려달라'는 비손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줄을 내려진다. 아이들이 올라가는 것을 본 호랑이도 이를 그대로 이행하여 줄을 얻는다. 단락 ⑯에서 오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승천한 반면,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줄이 끊어져 추락한다.

단락 ⑰에서는 오누이와 호랑이에 대한 결말이 대조된다. 오누이는 호식에 대한 위기를 모면하여 해와 달이 된 반면,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만다. 에피소드 3과 에피소드 4에서 전개된 내용과 영상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에피소드 3~4의 영상도식>

이상의 <해와 달> 설화의 각 에피소드에 나타난 영상도식을 종합해보면, 호랑이와 등장인물들은 「경로」도식을 기반으로 여러 영상도식들이 결합되어 각자의 목적을 위해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랑이는 자신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할머니와 오누이는 호랑이로부터의 생존을 위해 호랑이와 대조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호랑이에 대응하는 양상이 다양한 영상도식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처음에 할머니는 호랑이의 목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호랑이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여 호랑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목적지로 도달하고자 하지만 결국 호식을 당한다. 계속해서 호랑이는 할머니에 이어 아이들을 먹기 위해 아이들이 있는 집에 도착하지만, 아이들은 거절과 의심으로 호랑이를 차단한다. 하지만 호랑이는 속임수를 써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집 안에서 집 밖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들의 대응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 나무 위로 도망치는 행위로 이어진다.

아이들은 호랑이로부터 도망쳐 나무에 올라가지만, 이에 호랑이도 아이들이 기지를 사용함에도 그대로 이행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결국, 아이들은 위에 있는 하늘에 비손을 하여 하늘의 도움을 받아 승천함으로써 호랑이로부터 피하여 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반면, 호랑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대로 비손하여 하늘로 올라가지만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4. 설화에 나타난 상상력의 재해석

호랑이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잡아먹히는 호환은 옛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신라시대부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어 호랑이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나섰다는 다수의 기록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는 척호갑사라는 통해 호랑이 사냥을 시행한 기록이 다수 남아있다. 심지어 조선으로 들어온 서양인들도 거처하는 곳에 호랑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나거나 길을 가던 도중에 호랑이에 의해 정체되었다는 경험을 기록했다.[355]

이처럼 호랑이에 대한 신체적 경험 층위의 경험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이에 대한 기록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모습이다. 일제강점기 대대적인 호랑이 토벌 작전 전까지 많은 호랑이가 산에 살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민가에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 일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356]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짐승이고, 이에 대한 신체적 층위의 경험에 대한 기록들이 다수 남아있다. 호랑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상징물로 인식되지만, 호식의 관점에서 호랑이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짐승이자 자신의 목적인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무자비한 존재로 비춰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호랑이의 목적과 정반대인 생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호랑이의 목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하게 대응하

355) W.E 그린피스(Griffis)는 1890년경 한반도를 여행한 뒤 지은 책에서 “조선 사람은 반년 동안 호랑이를 사냥하고 나머지 반년 동안은 호랑이가 조선 사람을 사냥한다.”라고 기록했다; W.E 그리피스(Griffis),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413쪽.

356) 태종 2년(1402년) 경상도에서만 호랑이에게 피해를 당해 죽음 사람이 무려 수백 명에 달했다. 그래서 밭을 갈고 김을 맬 수조차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였다; 이희근, 『산척, 조선의 사냥꾼』, 도서출판 따비, 2016, 27-28쪽.

고, 이러한 대응들이 일련의 상상력을 거쳐 설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상상력 구조를 통해 설화 속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호랑이에 대한 신체적인 경험이 영상도식과 은유를 통해 상상력 구조를 갖추고 탄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호랑이의 목적은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함인 반면, 설화 속 등장인물들은 호랑이의 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동한다. 처음에 할머니는 원래 목적지인 집에 도착하기 위해 길을 가던 도중, 도중에 호랑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했다. 하지만 호랑이는 떡을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는 요구에 순응한다. 호랑이가 길을 비켜주자, 할머니는 원래 목적이었던 집을 갈 수 있게 되면서 호식으로 인한 위험도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호랑이가 계속 경로를 차단하면서 할머니에게 요구를 하고, 할머니는 계속 호랑이의 요구에 순응한다. 호랑이의 요구 또한 떡을 시작으로 옷, 신체 일부 순서대로 할머니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하고, 결국 할머니의 남은 몸체를 호랑이가 잡아먹고 만다.

호랑이와 할머니가 서로 마주쳤다면,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호랑이가 떡을 요구하다가 종국에는 할머니를 잡아먹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신체적인 특성과 힘을 비교했을 때 호랑이의 힘이 할머니보다 월등했지만 할머니를 대하는 호랑이의 모습은 흡사 인간이 속임수를 사용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심지어 처음에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떡을 하나 달라는 말은 할머니가 행하기에 쉬운 요구였지만 점차 그 요구의 난이도를 높여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에서도 주도면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호랑이는 할머니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채,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호랑이에 대한 오누이의 대응은 할머니의 대응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일단 아이들은 호랑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막고, 호랑이를 시험한다. 이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안전한 공간인데 반해 밖은 위험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쉽게 밖에 있는 존재를 들여오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대응이다. 처음에 아이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호랑이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했으나, 호랑이의 속임수로 인해 결국 문을 열어준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작용된 호랑이의 속임수가 그대로 작용된 것이다.

호랑이가 속임수를 쓰는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의 행동을 감쪽같이 행하는 호랑이는 인간에게 예측하기 힘든 존재로까지 비춰진다. 이를 통해 호랑이는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거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공포를 주는 존재로 부각된다. 여기서 <해와 달>의 변이형 중에서 집안에 있는 갓난아이가 호랑이에 의해 잡아먹히게 되는 유형이 있다. 이는 아이들이 호랑이의 속임수에 의해 집안에 호랑이를 들이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간 후, 아이들이 호랑이가 집에 들어온 것에 위기를 느끼고 달아나는 내용은 아이들이 있는 집 안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알려주는 부분이자 아이들이 호식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을 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다.

아이들은 호랑이로부터 벗어나 호랑이가 올라갈 수 없는 나무로 올라가고, 호랑이에게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갔다는 대답으로 기지를 발휘한다. 아이들은 나무에 미끄러운 재질인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임을 알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 방법을 그대로 이행하여 나무에 올라가는데 성공함으로써 아이들의 대응을 좌절시킨다. 호랑이의 목적은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은 호식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다.

이에 아이들은 하늘에 비손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고 올라간다. 이는 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적 존재에게 바라는 신앙적인 면모로도 볼 수 있다. 호랑이도 아이들처럼 같은 행동을 그대로 이행하지만 결국 추락하고 만다. 호랑이가 떨어진 자리에 수숫대가 있어 피로 인해 빨갛게 되었다는 대목은 호랑이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수숫대가 빨갛게 된 이유> 라는 제목으로도 전승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남매일월담 또한 호랑이의 죽음에 대한 증거로 수숫대가 빨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같이, 남매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 결과물을 제시하는 증거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과 호랑이 모두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동이지만 아이들은 비손이라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 신앙적 행위는 인간이 신과 조응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간은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호랑이가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시도해도 호랑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과의 조응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호랑이는 수수밭 위에 떨어진 것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죽인 기록과 호랑이를 잡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한 기록을 통해 호식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이 <해와 달> 설화로 확장된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우선,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맹수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결국 호랑이는 사람들에 의해 제압당한 존재에 불과하다. 호랑이를 잡은 사람들의 설화가 다수 전승된 부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해와 달>에서는 호랑이에 대응하는 인물로 할머니와 오누이가 등장하는데, 호랑이와 비교했을 때 이들은 오히려 호랑이를 제압하기보다는 호랑이에게 호식당할 확률이 높은 노약자이다. 때문에 할머니는 결국 호식당하고, 오누이는 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하지만 매번 좌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랑이의 상징은 단순히 해를 가하는 짐승이자 무자비한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다는 점이다.

호식에 관한 기록에서는 호랑이가 사람들 잡아먹었다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잡아먹은 행위는 사람에게 있어 단순히 신체적인 상해를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호랑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호랑이를 토벌하거나 도망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호랑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호랑이를 '호랑이 = 죽음'이라는 은유로 확장시켜 설화를 분석해 본다면, 이 설화는 남매일월담을 통한 창조 신화보다는 호랑이로 비춰지는 죽음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때문에 호랑이가 속임수를 사용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힘든 모습 또한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볼 수 있고, 각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할머니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고자 눈앞의 요구를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결국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누이의 대응 또한 죽음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위로써 그들의 행위는 계속해서 좌절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내용은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대응은 호랑이를 통한 성장이나 정체성 확립보다 호랑이로 대변되는 죽음에 대해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호식이라는 경험과 죽음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상상력을 가미한 설화로 볼 수 있다. 호식에 대한 경험적 층위에 대하여 인간은 호랑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사람들이 호랑이로부터 살고자 하는 행동이나 방어하는 모습이 설화에 나타난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를 체험주의의 상상력 이론을 바탕으로 설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상상력 이론을 적용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설화 속 호랑이와 인물들의 행동에 따른 영상도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환이라는 신체적 경험이 설화 속 영상도식과 은유를 통해 볼 수 있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 보았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서는 네 개의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각각의 영상도식을 종합해볼 수 있다. 호랑이와 등장인물들은 「경로」도식을 기반으로 여러 영상도식들이 결합되어 각자의 목적을 위해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랑이는 자신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할머니와 오누이는 호랑이로부터의 생존을 위해 호랑이와 대조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호랑이에 대응하는 양상이 다양한 도식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에 따른 결과도 상이하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경로」도식을 기반으로 「차단」과 「제약의 제거」도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할머니는 딸의 집으로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호랑이가 장애물로 등장하여 할머니는 임의의 방향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때 호랑이는 제시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호랑이가 길을 비켜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할머니는 가고자 하는 길을 다른 방향으로 틀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랑이의 요구에 순응한다. 하지만 이 요구에 순응할수록 할머니는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전부 뺏기면서 심지어 신체 일부까지 없어지고, 이러한 제약의 제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급기야 경로로부터 차단되고 만다.

호랑이는 계속해서 할머니에 이어 아이들을 먹기 위해 아이들이 있는 집에 도착하지만, 아이들이 집 밖의 위험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집 안에서 아이들은 거절과 의심으로 호랑이를 차단한다. 이때, 호랑이는 속임수를 써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있던 집 안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때문에 아이들은 집 뒤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기존의 경로도식에 차단 도식과 「안/밖」 도식이 추가된 영상도식으로 나타난다.

아이들은 호랑이로부터 도망쳐 나무에 올라가지만, 이에 호랑이도 아이들이 기지를 사용함에도 그대로 이행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결국, 아이들은 위에 있는 하늘에 비손이라는 신앙적 행위로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을 타고 승천함으로써 아이들은 호랑이로부터 피하여 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호랑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대로 비손하여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내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는「위/아래」도식을 통해 아이들이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늘과의 조응을 이룰 수 있는 반면, 호랑이는 인간의 신앙적 행위까지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하늘과의 조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해를 가하는 부정적인 짐승으로 호랑이가 비춰질 때는 장애물로써 자신의 목적인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무자비한 존재로 비춰진다. 결국 호랑이는 사람들을 잡아먹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로서 '호랑이 = 죽음'이라는 은유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호랑이의 목적과 정반대인 생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호랑이의 목적을 피하기 위해 호랑이에 대한 대응 양상을 다양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인다. 할머니와 오누이의 행동을 통해서 호랑이로 대변되는 죽음에 대해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호식에 대한 경험적 층위로부터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대응과 염원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또 다른 설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체험주의의 상상력 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다만, 체험주의의 기반이 되는 영상도식과 은유를 통해 설화를 분석하여 설화가 전승된 맥락 또한 분석하고자 시도했으나, 의미를 도출하는 데 있어 근거가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특히, 호랑이는 죽음이라는 은유에 있어서는 호랑이와 호식에 대한 더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본 연구방법이 더욱 보편적인 방법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설화분석을 통해 그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한 설화만을 분석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설화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체험주의는 설화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에 있어 계속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분야다. 때문에 앞으로도 체험주의를 도입한 많은 설화분석 연구물들이 나오면서 연구방법에 대한 체계 또한 확립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 문헌

W.E 그리피스(Griffis),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강석근, 「한국 호랑이의 문화상징적 가치와 의미」, 『국제언어문학』 42호, 국제언어문학회, 2019.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 형상 -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김기호, 「트릭스터, 그리고 성장의 매개자 :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호랑이」, 『한민족어문학』 42권, 한민족어문학회, 2003.
김기호, 「한국 호랑이 설화의 주제별 유형 - 발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김수연, 「인간의 근원적 미지 불안과 치유의 서사, <호랑이와 곶감>」, 『문학치료연구』 32권,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김현주, 호랑이 소재 민담과 민화의 유형분류와 무의식 분석, 구비문학연구 19권, 한국구비문학회, 2004.
김혜영, 「체험주의의 영상도식과 신체화된 경험」, 『범한철학』 83, 범한철학회, 2016.
김호근, 윤열수 편, 『한국호랑이』, 열화당, 1992.
나경수, 「男妹日月神話의 神話論的 考察」 ,『한국언어문학』2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0.
노양진, 『몸이 철학을 말하다』, 서광사, 2018.
노양진, 『철학적 사유의 갈래』, 서광사, 2018.
라인정, 「구비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성격 고찰」, 『어문연구』 18권,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8.
류경자, 「구비설화 속 속신의 형태와 구술담화적 기능 - '호랑이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호, 한국문학회, 2017.
마크 존슨/노양진 옮김, 『마음 속의 몸 - 의미·상상력·이성의 신체적 근거』, 철학과 현실사, 2000.
박종성, 「<해와 달이 된 오누이>유형들의 견주어 읽기－루마니아에서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으로－ 」,『한국문학논총』44집, 한국문학회, 2006.
박진태, 「호랑이의 문학적·조형적 형상화 - 서사와 희화를 중심으로」, 『우리말 글』 47권, 우리말글학회, 2009.
성기열, 「한국구비전승의 일고찰 : '호랑이와 곶감'의 경우」, 『한국학연구』 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손동인, 「韓國傳來童話의 作中事件 攷 : 특히 호랑이의 事件을 통한 性格分節을 중심으로」, 『논문집』 16권, 인천교육대학교, 1982.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염희경,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호랑이상 : 설화와 전래동화 비교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5권,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3.
오출세, 「민담에 나타난 호랑이 고찰 : 골계담을 중심으로」, 『동학어문논집』 31집, 동학어문학, 1996.
이종주, 「어린이의 사회화와 원형화소 시론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7권, 실천민속학회, 2016.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3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이한길, 「<해님 달님> 연구 : 트릭스터로서의 호랑이」, 『한국고전연구』 3권,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이희근, 『산척, 조선의 사냥꾼』, 도서출판 따비, 2016.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9권, 실천민속학회, 2012.
정충권, 「동아시아 일월조정 신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4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최원오, 「한국 구비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 '호랑이설화'를 예를 들어」, 『국학연구』 16권, 한국국학진흥원, 2010.
표인주, 『체험주의 민속학 : 민속과 구술문학의 체험주의적 이해』, ㈜박이정, 201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2020.1.13. <https://gubi.aks.ac.kr/web/>
허원기, 「한국 호랑이 이야기의 현황과 유형」, 『동화와 번역』 5권,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2003.
황패강, 「한국민족설화와 <호랑이>」, 국어국문학 55~57호, 국어국문학회, 1972.

[한국어교육]

코로나 19 시대의 해외 한국어·한국학 교육
초급 한국어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유사 문법 기술을 위한 소고
대조 수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한·중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 비교 연구
한국어 'ㅣ' 발음 변용 현상 연구

중앙어문학회
제44회 전국학술대회

2021.02.18

코로나 19 시대의 해외 한국어·한국학 교육
-칠레가톨릭대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민원정
칠레가톨릭대학교 &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목차

들어가는 말

중남미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코로나 19시대의 교육 현장

코로나 19 이후를 위한 제언

목차

들어가는 말

중남미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코로나 19시대의 교육 현장

코로나 19 이후를 위한 제언

해외 한국학의 상황 변화

부정적 요인

ㄱ.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 수요의 감소

ㄴ. 전근대 한국 연구의 위축

긍정적 요인

ㄱ. 한류 → 새로운 성격의 교육 수요자 증대

ㄴ. 관심 영역/교육 수요의 다변화

(출처: "해외 한국학과 디지털인문학" 김현. 한국학대학원 '고전번역학과 디지털인문학' 세미나 / 2017. 3. 14)

중남미에서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현황

ㄱ. 1964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에서 아시아와 관련한 수업이 처음 개설된 이후 몇몇 중남미 국가들에서 한국학을 진행 중.

ㄴ.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이 독립적으로 발달한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상황.

ㄷ. 주로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간헐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관련 활동.

ㄹ. 대부분 전적으로 한국의 지원에 기대고 있다는 문제점.

ㅁ. 체계적으로 한국학을 수학한 학자들 및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학자가 거의 없음.

ㅂ. 한국학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보다 아시아학으로 통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ㅅ. 독립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의 지원 여부 및 수강생 수에 따라 지속되기 힘든 경우가 많음 (위 ㄹ, ㅁ, ㅂ 참조).

ㅇ.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파라과이 등), 세종학당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등), KOICA, 기타 대학별 프로그램

(출처: "A Short History of Ups and Downs of Korean Studies in Latin America: New Comers Meeting the Challenges." Wonjung Min.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Vol. 2 No. 1, pp. 181-197)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 현장 -칠레가톨릭대학교의 경우-

가. 코로나 19 이전

칠레가톨릭대학교의 한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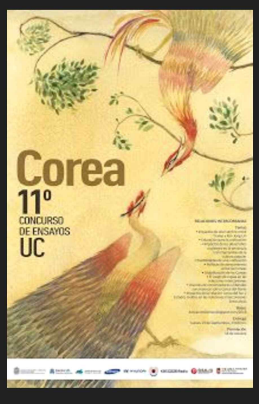
ㄱ. 2004년 [떠오르는 아시아] (학제간 팀티칭 교양과목)에서 한국학 파트 참여 시작

ㄴ. 2006년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개설: 아시아학부전공선택과목 & 전학년 전학과 교양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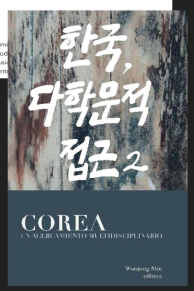
ㄷ. 학부 수업: [한국어와 한국문화 I] (2006~2011), [한국어와 한국문화 II] (2007~2011), [역사 속 한국 여성] (2007~2016), [한중남미 비교문학] (2011),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011), [한국의 역사와 문화] (2012~현재), [한중남미 비교문화] (2012~현재), [동북아의 대중문화 교류] (2018, 2020).

ㄹ. 대학원 수업: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012).

ㅁ. 칠레가톨릭대학교 학부생 대상 한국학논문대회: 총 11회. 2007년 ~ 2016년 (국제교류재단 지원),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제1회~4회, 제5회~8회 수상작들 출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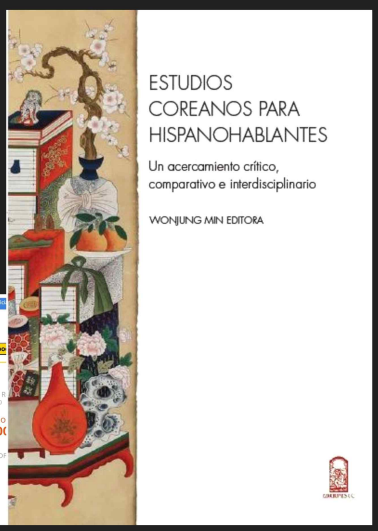


ㅂ. 국제한국학세미나: 총 10회. 2008년 ~ 2016년 (국제교류재단 지원),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제1회~2회, 제3회~4회, 제5회~6회, 제7회~8회 발표논문 선별 출판 (사진). 제9회~10회 발표논문 출판 준비 중.



ㅅ. 후통일시뮬레이션: 국제한국학세미나: 총 7회. 2011년 ~ 2016년 (국제교류재단 지원),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의 Junior Panel. 칠레가톨릭대학교 학부생들이 참가하여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주제로 토의.

o. [스페인어 화자를 위한 한국학: 비판적, 비교적, 다학문적 접근 Estudios coreanos para hispanohablantes: Un acercamiento crítico, comparativo e interdisciplinario], Ediciones UC, 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씨앗형프로그램 (2011~2014). 6인의 한국인 중남미학 전문가와 1인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스페인어로 된 한국학 입문서.



나. 코로나 19 이후

ㄱ. 2019년 10월 18일 시작된 시위 이후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어려워짐.

ㄴ. 시위의 장기화가 예상되던 터라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수업 준비.

ㄷ. 2020년 2월 말부터 남반구에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강 두번째주부터 1학기 수업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 이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2학기 수업은 전면 온라인 진행. 2021년 1학기도 전면 온라인 진행 예정.

ㄹ. 2020년 1학기 [한국의 역사와 문화]: 34명 수강, [동북아의 대중문화]: 7명 수강 (전공 세미나 수업)

ㅁ. 2020년 2학기 [한중남미 비교문화]: 48명 수강.

ㅂ. 대면수업 시 정원 40명에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후 정원 50명으로 바뀜.

ㅅ. 문제점: 열악한 인프라 (인터넷, 우기 시 정전 등). 경제 악화로 인한 휴학과 자퇴생 발생. 락다운/외출제한/경제상황/가족과 지인 중 코로나 19 환자 발생 등 여러 이유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 증가.

코로나 19 이후를 위한 제언

해외 한국학의 당면 문제

ㄱ. 교육 수요와 공급의 방향성 불일치

ㄴ. 전통적 분과학문 중심의 교수 인력과 연구 지원 체제

ㄷ. 현대적, 다학문적, 대중적 관심의 교육 수요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문제

ㄱ. 초급 교육 수요의 폭발적 증대 → 상당 부분 중급, 고급 과정 이수로 이어지지 못함

ㄴ. 외국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는 '한국'에 대한 관심(한류의 영향, 현지 기업에 대한 관심 등)에 기인 → '한국학' 수요로 고양시킬 연계구조 취약

ㄷ. 언어와 함께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를 알려 줄 수 있는 교수 인력 부족

(출처: "해외 한국학과 디지털인문학" 김현. 한국학대학원 '고전번역학과 디지털인문학' 세미나 / 2017. 3. 14)

해외 한국학 교육의 도전 과제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육 환경

Off-Line 환경: "한국에 관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On-Line 환경: ?

Internet: 해외 한국학의 새로운 교육 공간

현재의 오프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소수의 분과학문 전공 교육자가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

디지털 세계의 열린 환경에서 학생들 스스로 한국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필요

(출처: "해외 한국학과 디지털인문학" 김현. 한국학대학원 '고전번역학과 디지털인문학' 세미나 / 2017. 3. 14)

¡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

Thank you!

초급 한국어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유사 문법 기술을 위한 소고
-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

박기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본고는 초급 한국어 문법 항목 중 비격식체 종결어미로 '해요체'에 해당하는 '아요'와 '세요'[357]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종결어미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초급 한국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주요 종결어미 중의 하나이다. 이들 종결어미 '아요'에 대한 사전 뜻풀이를 보면 '아요'가 초급 한국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 질문'의 의미 기능뿐만이 아니라 '명령'과 '청유'의 의미 기능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1) '아요'의 한국어 사전 뜻풀이
가. 표제어 : -아요(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어휘」-어요, -여요.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아'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지금 문 닫아요.
벌써 문을 닫아요?
어서 손을 잡아요.
나. 표제어 : -아요(한국어기초사전)
[참고]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로 끝나는 동사와 형용사 뒤에 붙여 쓴다.
[어미] (두루높임으로)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질문, 명령, 권유**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전화 좀 받아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가: 버스만 기다리다가는 늦겠는데?
나: 그럼 우리 택시를 타요.
[참고어] -어요, -여요

위 예1)의 사전 뜻풀이의 기술을 보면 '아요'는 두루높임의 종결어미로서 '서술(설명), 질문(의문), 명령, 청유(권유)'와 같은 네 가지 의미 기능으로 문맥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동형이의(同形異意)

357) 본고에서는 해요체 종결어미 중 '아요/어요/해요 등'의 이형태를 대표하여 '아요'를 사용하고, '으세요, 세요, 으시어요, 으셔요 등'의 이형태를 대표하여 '세요'를 대표형으로 사용함을 밝힌다.

문법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요'의 뜻풀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2) '세요'의 한국어 사전 뜻풀이
가. 표제어 : -세요(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어휘」-으세요.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또는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시어요'의 준말.=-셔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분이 우리 어머님이세요.
어서 가세요.
나. 표제어 : -세요(한국어기초사전)
[참고] '이다',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인 동사와 형용사 뒤에 붙여 쓴다.
[어미] (두루높임으로) **설명, 의문, 명령, 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부모님께서는 언제 집에 들어오세요?
그곳으로 한 번에 가시려면 버스를 타세요.
점심을 못 드셔서 허기지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가: 김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나: 교무실로 가 보세요.
[유의어] -셔요 [참고어] -으세요

위 예2)의 사전 뜻풀이의 기술을 보면 '세요'는 두루높임의 종결어미로서 '설명, 의문, 명령, 요청'과 같은 의미 기능으로 문맥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동형이의 문법 항목으로서 '아요'와는 뜻풀이로 보면 유의 관계의 유사 문법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유사 문법이며 동형이의 문법 항목인 '아요'와 '세요'는 <국제통용 교육과정(2017)>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1. <부록2> 문법평정목록_1급 종결어미 목록 중 <국제 통용 교육과정(2017)>

등급	비고	대표형	관련형
1급	종결어미	-습니까	-ㅂ니까
1급	종결어미	-습니다	-ㅂ니다
1급	종결어미	-읍시다	-ㅂ시다
1급	종결어미	**-으세요**	**-세요. -으셔요, -셔요, -으시어요, -시어요**
1급	종결어미	-으십시오	-십시오
1급	종결어미	-고4	-고요
1급	종결어미	-을까	-ㄹ까, 을까요, -ㄹ까요
1급	종결어	**-어2**	**-아2, -여2, -야3, -어요, -아요[358], -**

표 1에서 격식체 종결어미가 합쇼체에서 '-습니다, -습니까, -으십시오, -읍시다'와 같이 네 가지 의미(서술, 질문, 명령, 청유)에 따라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요'는 '-으세요'를 대표형으로 해요체의 '-세요, -으셔요, -셔요, -으시어요, -시어요'를 관련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요'는 '-어2'를 대표형으로 하여 반말체와 해요체의 관련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요'와 '세요'는 의미 기능에 따라서 제시된 합쇼체 종결어미들과는 달리 <국제 통용 교육과정(2017)>의 문법평정목록에서 초급 1급 이외에 이후 2급~6급 사이에서 다른 의미 기능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59].

한국어 학습자는 어휘나 문법의 형태가 같으면 의미가 같을 것으로 유추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형태가 같더라도 그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른 동형이의 문법 항목은 별개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사 문법으로서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가 수행하는 중요한 의미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동형이의 문법 항목처럼 별개의 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360]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한국어 문법 교육 시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한국어 사전이나 한국어 문법서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초급 한국어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담화를 분석하여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동형이의 문법 항목으로서의 '아요'와 '세요'의 유사 문법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58) <국제 통용 교육과정(2017)>에 의하면 "'형태 의미 기능의 균형적 고려에 따라서 '요' 결합형은 관련형으로 처리하여 통합한다. 예시로 '-어2'를 대표형으로 처리하고 '-아3, -여3, -야3, -어요, -아요, -여요, -에요'를 관련형으로 처리함"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보면 본고의 연구 대상인 종결어미 '아요'는 반말형 종결어미 '아'에 '요'가 결합된 형태로 '아2'의 관련형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말형 종결어미는 한국어 학습 초기에 한국어 교육문법의 교육 대상에서 대체적으로 제외되고 두루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요'의 노출과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어2' 관련형 중 초급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문법 범주에 속하는 '아요'에 한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59) <국제 통용 교육과정(2017)>의 문법평정목록 중 급별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목록 중 '아요(-어2)'와 '세요(-으세요)'는 1급에서만 제시되어 있다.

등급	대표형	등급	대표형	등급	대표형	등급	대표형
1급	-습니까	3급	-는다	5급	-네2	6급	-으니4
1급	-습니다	3급	-던데2	5급	-다4	6급	-거들랑2
1급	-읍시다	3급	-잖아	5급	-다니1	6급	-게3
1급	**-으세요**	3급	-자3	5급	-으려고2	6급	-게4
1급	-으십시오	3급	-니2	5급	-거라	6급	-구려2
1급	-고4	4급	-는다니2	5급	-고말고	6급	-네1
1급	-을까	4급	-더군	5급	-는가1	6급	-는구만
1급	**-어2**	4급	-더라	5급	-는걸	6급	-는가2
2급	-는군	4급	-어라1	5급	-데	6급	-나3
2급	-을게	4급	-게5	5급	-더라고	6급	-던2
2급	-지	4급	-는다면서1	6급	-는구려	6급	-던가1
2급	-는데2	4급	-나3	6급	-는구먼	6급	-던가2
2급	-네	4급	-을걸	6급	-그려	6급	-라2
2급	-을래	4급	-어야지2	6급	-으리라	6급	-으리오
3급	-거든2	4급	-고4	6급	-으오	6급	-소
3급	-는구나	4급	-다니1				

360) 최은지 외(2020, p.334)에 따르면 초급 학습자의 자유 대화 발화에서 명령형 종결어미 '-(으)세요'의 사용 정확도가 다른 초급 종결어미에 비해 현격하게 낮으며 과잉 사용 오류가 많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학습자가 '세요' 사용에서 정확도가 낮고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동형이의 문법 항목으로서 '세요'의 의미 기능에 따른 맥락 구분이 없이 주로 명령형 어미로 제시되는 제한된 문법 정보로만 학습한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세요'의 교수학습을 위한 문법 정보는 '세요'의 사용 양상을 근거로 한 의미 기능별 기술 및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연구 자료와 방법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구어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태깅을 통해 의미 기능에 따른 두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모로 공적 & 사적 상황을 포함하는 구어 말뭉치 자료를 구축[361]하였다.

표 2. ‘아요’의 말뭉치 분석을 위한 자료 개요

담화 상황	텍스트 유형	자료 제목	약호	어절수	소계	비율 (%)
공적	인터뷰	뉴스 방송 인터뷰(2014)	<뉴>	24182	44650	9.19
		라디오 방송 인터뷰(2014)	<라>	20468		
	전화 상담	다산콜센터(2012)	<다>	21342	51526	10.61
		라디오 생활상담실(2001)	<전>	30184		
사적	영화 대본	건축학개론(2012)	<건>	13606	61378	12.63
		써니(2011)	<써>	14934		
		울학교 이티(2008)	<울>	13669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6)	<우>	19169		
	드라마 대본	청담동 앨리스(2012~2013)	<앨>	56484	328260	67.57
		시크릿가든(2010~2011)	<크>	157812		
		강남아줌마 따라잡기(2007)	<강>	113964		
합계				485814		100

표 4는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가 주로 구어로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구어(준구어 포함) 말뭉치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말뭉치 자료의 장르를 보면 방송 인터뷰 및 전화 상담과 같은 공적인 관계에서 진행되는 텍스트와 사적 담화가 공적인 담화보다 비교적 많이 드러나는 영화와 드라마 대본을 활용하였다. 전체 자료의 분량은 공적인 상황이 약 20%를 차지하고 사적인 상황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구성비를 고려하여 담화 상황별로 도출된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자료의 분량에 대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담화 분석을 위해 담화 상황 요인과 발화자의 발화 의미 요인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부 요인을 설정하여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담화 상황별 의미 기능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마련한 담화 분석 틀[362]은 아래와 같다.

표 3.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담화 분석 틀

변인 / 어미	담화 상황 요인				발화자의 발화 의미 요인				출처
	텍스트 요인		대화 참여자 요인						
	형식	상황	지위[363]	친소	서술	질문	명령	권유	
세요	격식	공적	화자=청자	소			0		<다>
아요	비격식	사적	화자=청자	친	0	0			<우>

361)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 자료는 필자가 2010년부터 구축해 온 것이다. 이를 위해 자료를 흔쾌히 공유해 주신 박근영(2001) 선생님과 한국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공부모임 ‘함콰’에 감사드린다.

362) 강현화(2012b:402)에서는 언어 교육에서 의미를 가지는 상황 맥락의 주요 요소를 담화 참여자 정보(화자, 청자, 화·청자 정보), 물리적 상황(시간, 장소), 발화 의도(상호작용 목적), 텍스트 형식, 장르 및 사회/심리/문화/역사적 맥락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담화 구성 요인 중에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텍스트 유형(담화 상황)과 의미 기능을 구분하여 담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63) 대화 참여자 간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구분한 신분이나 서열 및 연령 등의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로 ‘갑(상)>을(하)’

예3)

가. 상담원 : 아~ 고맙습니다~ 늘 노력하는 수화상담원이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 : 네, 상담원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

나. 유정 : 나두 엄마가 학교 오는 거 너무 싫었는데,,

윤수 : 왜요?

유정 : 우리 엄마가 너무 이뻐서...

윤수 :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유정 : 아니, 엄마 주제에, 이쁘니까. 재수 ***없잖아요***. <우>

위 예3_가)는 다산콜 상담 전화에서 상담 후 대화 마무리를 하는 상담원과 상담고객의 대화에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예이다. 예3_나)는 영화 대본 중 수감 중인 윤수와 변호사 유정이 어릴 적의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장면에서 '아요'가 사용되고 있는 예이다. 이러한 예3)은 위의 표 3과 같이 크게 담화 상황 요인과 발화자의 발화 의미 요인(의미 기능)으로 구분한 세부 요인에 따라서 사용 양상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 의 담화 분석 틀로 구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아요'와 '세요'의 담화 상황별 사용 양상

분석 대상 자료에서 추출한 담화 상황별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은 다음 표 4-1과 표 4-2와 같이 담화 상황별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1. 담화 상황별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 (회, %)

담화 상황	텍스트 유형	약호	아요		세요	
			빈도(회)	비율(%)	빈도(회)	비율(%)
공적	인터뷰	<뉴>	126	2	14	0.2
		<라>	654	10.4	18	0.3
	전화 상담	<다>	68	0.9	13	0.2
		<전>	918	14.6	81	1.3
사적	영화 대본	<건>	38	0.6	6	0.1
		<써>	69	1.1	1	0
		<울>	144	2.3	25	0.4
		<우>	188	3	13	0.2
	드라마 대본	<앨>	930	14.7	101	1.6
		<크>	1034	16.4	188	3
		<강>	1431	23.1	225	3.6
소계			5600	89.1	685	10.9
합계			6285	100	6285	100

표 4-2. 담화 상황별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회(%)]

담화 상황	텍스트 유형	아요	세요	아요+세요
공적	인터뷰	780(12.4)	33(0.5)	1892(30.1)
	전화 상담	986(15.7)	93(1.5)	
사적	영화 대본	439(7)	45(0.7)	4393(69.9)
	드라마 대본	3395(54)	514(8.2)	

로 표시하고, 동등한 관계일 때는 '갑=을'로 표시하고자 한다.

합계	5600(89.1)	685(10.9)	6285(100)

위 표 4-1은 ‘아요’와 ‘세요’의 전체 사용 빈도 6285회 중 ‘아요’가 5600회로 약 89.1%를 차지하고 ‘세요’가 685회로 약 10.9%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요’와 ‘세요’의 전체 사용 빈도의 큰 격차는 각 상황별 사용 빈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아요’가 공적/사적 상황에서 모두 ‘세요’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을 담화 상황별로 정리한 표 4-2에 따르면 ‘아요’와 ‘세요’의 사용 빈도가 공적 상황에서 약 30%를 차지고 사적 상황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요’와 ‘세요’의 담화 상황별 사용 양상을 자료 분량에 대비하여 분석하면 다음 표 4-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 자료 분량 대비 담화 상황별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회(%)]

담화 상황	아요+세요 _빈도수(%)	자료 분량 _어절수(%)	아요+세요(%) / 자료 분량(%)	아요+세요 _ 상대 빈도
공적	1892(30.1)	96176(19.8)	30.1/19.8	1.52
사적	4393(69.9)	389638(80.2)	69.9/80.2	0.86
계	6285(100)	485814(100)	100/100	1

위 표 4-3에서는 ‘아요’와 ‘세요’의 담화 상황별 사용 빈도를 전체 대상 자료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아요+세요’는 공적 상황에서 자료 분량 대비 사용 빈도인 상대 빈도 수치가 1.52로 나타났고, 사적 상황에서는 0.8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요+세요’는 전체 분량 대비 사용 빈도가 공적 상황에서 사적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요+세요’는 표 4-2와 같이 절대 수치는 사적 상황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지만 자료 분량에 대비하여 분석하면 공적 상황에서 사용 빈도가 사적 상황에 비해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가 기존의 논의와 같이 사적인 관계의 대화자 간의 일상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격식적인 문체를 주로 사용하는 공적인 상황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아요’와 ‘세요’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

‘아요’와 ‘세요’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아요’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1) ‘아요’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

‘아요’의 [서술] 의미는 다음 표 5-1과 같이 사용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5-1. '아요'_[서술]의 사용 양상(회, %)

담화	텍스트 유형	아요_[서술]

상황		빈도수(회)	'아요' 기준(%) (5600회, 100%)		'아요+세요' 기준(%) (6285회, 100%)	
공적	인터뷰	641	11	25	10.2	23.1
	전화 상담	811	14		12.9	
사적	영화 대본	317	6	50	5	44
	드라마 대본	2448	44		39	
소계		4217	75		67.1	

'아요'의 [질문] 의미는 다음 표 5-2와 같이 사용 양상을 정리할 수 있다.

표 5-2. '아요'_[질문]의 사용 양상(회, %)

담 화 상황	텍스트 유형	아요_[서술]				
		빈도수(회)	'아요' 기준(%) (5600회, 100%)		'아요+세요' 기준(%) (6285회, 100%)	
공적	인터뷰	139	2.5	5.6	2.2	5
	전화 상담	175	3.1		2.8	
사적	영화 대본	56	1	8.8	0.9	7.8
	드라마 대본	434	7.8		6.9	
소계		804	14.4		12.8	

'아요'의 [명령] 의미는 다음 표 5-3과 같이 사용 양상을 정리할 수 있다.

표 5-3. '아요'_[명령]의 사용 양상(회, %)

담 화 상황	텍스트 유형	아요_[서술]				
		빈도수(회)	'아요' 기준(%) (5600회, 100%)		'아요+세요' 기준(%) (6285회, 100%)	
공적	인터뷰	0	0	0	0	0
	전화 상담	0	0		0	
사적	영화 대본	65	1.2	10.1	1	9
	드라마 대본	501	9		8	
소계		566	10.1		9	

다음은 [청유] 의미를 나타내는 '아요'의 사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5-4. '아요'_[청유]의 사용 양상(회, %)

담 화 상황	텍스트 유형	아요_[서술]				
		빈도수(회)	'아요' 기준(%) (5600회, 100%)		'아요+세요' 기준(%) (6285회, 100%)	
공적	인터뷰	0	0	0	0	0
	전화 상담	0	0		0	
사적	영화 대본	1	0.02	0.23	0.01	0.21
	드라마 대본	12	0.21		0.2	
소계		13	0.23		0.21	

이상의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위에 따르면 '아요'는 '아요' 전체 빈도(5600회, 100%) 중 [서술]의 의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약 75%로 나타나고, [질문]의 의미가 14.4%, [명령]의 의미가 10.1%를 나타냈으며 마지막으로 [청유]의 의미로는 0.23%의 매우 미미한 사용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용 양상을 통해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는

[서술]의 의미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질문]이 [명령]에 비해 약간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며 [청유]의 의미는 그 사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미별 사용 상황은 공적인 상황에 비해 사적인 상황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세요'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

'아요'에 이어서 비격식체 종결어미 '세요'의 의미 기능별 사용 양상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먼저 [서술]의 의미를 나타내는 '세요'의 사용 양상은 다음 표 6-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6-1. '세요'_[서술]의 사용 양상(회, %)

담 화 상황	텍스트 유형	세요_[명령]				
		빈도수(회)	'아요' 기준(%) (685회, 100%)		'아요+세요' 기준(%) (6285회, 100%)	
공적	인터뷰	19	1.8	11	0.3	1.2
	전화 상담	56	8.2		0.9	
사적	영화 대본	9	1.3	16.4	0.1	1.8
	드라마 대본	104	15.1		1.7	
소계		188	27.4		3	

다음으로 [질문] 의미로 사용되는 '세요'의 사용 양상은 다음 표 6-2와 같이 나타났다.

표 6-2. '세요'_[질문]의 사용 양상(회, %)

담 화 상황	텍스트 유형	세요_[명령]				
		빈도수(회)	'아요' 기준(%) (685회, 100%)		'아요+세요' 기준(%) (6285회, 100%)	
공적	인터뷰	2	0.29	0.87	0.03	0.09
	전화 상담	4	0.58		0.06	
사적	영화 대본	2	0.29	4.38	0.03	0.48
	드라마 대본	28	4.09		0.45	
소계		36	5.26		0.57	

다음 표 6-3은 '세요'가 [명령]의 의미를 보이는 사용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6-3. '세요'_[명령]의 사용 양상(회, %)

담 화 상황	텍스트 유형	세요_[명령]				
		빈도수(회)	'아요' 기준(%) (685회, 100%)		'아요+세요' 기준(%) (6285회, 100%)	
공적	인터뷰	11	1.6	6.4	0.16	0.69
	전화 상담	33	4.8		0.53	
사적	영화 대본	34	4.9	60.5	0.54	6.64
	드라마 대본	381	55.6		6.1	
소계		459	66.9		7.3	

마지막으로 '세요'의 [청유] 의미는 다음 표 6-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4. '세요'_[청유]의 사용 양상(회, %)

담 화	텍스트 유형	세요_[청유]

상황		빈도수(회)	'아요' 기준(%) (685회, 100%)		'아요+세요' 기준(%) (6285회, 100%)	
공적	인터뷰	1	1	0.15	0.016	0.016
	전화 상담	0	0		0	
사적	영화 대본	0	0	0.15	0	0.016
	드라마 대본	1	0.15		0.016	
소계		2	0.3		0.032	

위에서 비격식체 종결어미 '세요'의 사용 양상을 의미 기능별로 분석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세요'는 '세요' 전체 사용 빈도수(685회, 100%) 중에서 약 66.9%가 [명령]의 의미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술(27.4%)], [질문(5.26%)], [청유(0.3%)] 순으로 사용 빈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세요'는 [명령]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세요'가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사적 상황에서는 '아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화자들 간의 관계가 다소 거리감이 있거나 친분 관계가 두텁더라도 연령을 비롯한 지위의 상하 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경우(아들<엄마, 후배<선배 등)에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요'와 '세요'가 동일한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담화 상황에서 '세요'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대화자 간 친소 관계나 지위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의 담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초급 한국어 비격식체 종결어미 '아요'와 '세요'의 유사 문법으로서 두 문법 항목의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아요'와 '세요'의 사용 양상 비교 (%)

담화 상황	문법 항목	의미 기능				소계
		서술	질문	명령	청유	
공적	아요	23.1	5	0	0	28.1
	세요	1.2	0.09	0.69	0.016	1.996
사적	아요	**44**	7.8	9	0.21	61.01
	세요	1.8	0.48	**6.64**	0.016	8.936
소계		70.1	13.4	16.3	0.24	100

위 표 7에서 '아요'와 '세요'는 네 가지 의미 기능을 모두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화 상황별 사용 양상을 보면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서 모두 '아요(89.1%)'가 '세요(10.9%)'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미 기능별로 보면 전체 빈도수에서 의미 기능의 사용 비중은 '[서술(70.1%)] > [명령(16.3%)] > [질문(13.4%)] > [청유(0.24%)]' 순으로 [서술]이 가장 높은 사용 양상을 보이고 [청유]가 가장 낮은 사용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의미 기능별로 보면 '아요'는 '세요'에 비해 모두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적인 상황에서 [명령]과 [청유]의 의미 기능으로 사용되는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요'가 두루 높임 종결어미로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며 매우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적인 상황에서 [명령]과 [청유]의 의미로는 '세요'가 적은 빈도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며 선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의미 기능에서 '아요'의 사용 양상이 '세요'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명령]의

경우는 '세요(6.64%)'가 사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아요(9%)'와 적은 빈도 차이(2.36%)를 보이며 비교적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는 초급 한국어 비격식체 종결어미로 유사 문법 항목인 '아요'와 '세요'의 동형이의 문법 항목으로서 문법 정보 기술을 보완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두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 분석을 위해 구축한 자료가 전체 사용 양상을 모두 담을 수 없는 한정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본고의 한계이다. 향후 문법 항목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충분한 말뭉치 자료 확보와 보다 면밀한 담화 분석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화. (2012a), 한국어 교육학에서의 담화 연구 분석, *한국어교육*, 23(1), 219-256.

강현화. (2012b), 한국어 교육에서의 담화 기반 문법 연구: 부정 표현의 맥락 문법을 활용하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9(3), 395-414.

고영근•구본관. (2018), *우리말 문법론(개정판)*, 파주 : 집문당.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2*,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서울 :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김재욱 외. (2019),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강좌(초급) 교육과정 및 강의 콘텐츠 개발 용역 최종보고서*. 서울: 세종학당재단.

김정숙 외. (2013), 세종한국어 1권~8권, 서울:국립국어원.

누리세종학당. (2021), www.sejonghakdang.org/e-book, 서울:세종학당재단.

박근영. (2001), *한국어 지시 대용어의 문법화*,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박나리. (2004), 한국어 교육문법에서의 종결어미 기술에 대한 한 제안: '-어', '-네', '-지', '-다', '-구나', '-단다'의 담화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6, 91-116.

박혜숙. (2018), 한국어 구어 문어 상호능력 신장을 위한 '-다', '-ㄴ다/는다'의 교육 연구: 교육 단계 및 교육 내용의 범주 설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80, 9-40.

성지연. (2006),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미 사용 양상: 어말어미의 사용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4(4), 497-516.

손마정. (2014), 한국어 구어적 종결 표현 교육 연구: 종결기능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8-1, 87-121.

양명희 외. (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과 표현*, 서울:집문당.

장채린. (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비격식체 종결어미 연구: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서울.

채숙희. (2012), 고급학습자의 일상대화에서의 종결어미 사용 양상 연구: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교육*, 23(4), 371-389.

최은지 외. (2020),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종결어미 사용 양상에 대한 종적 연구, *한국어교육*, 31(.3), 309-338.

표준국어대사전. (2021), stdict.korean.go.kr, 서울: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2021), krdict.korean.go.kr, 서울:국립국어원.

한송화. (2018), 한국어 학습자의 종결어미 사용 양상과 오류 연구, *문법교육*, 33, 165-210.

대조 수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한·중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 비교 연구[364)]

형재연(한성대)

1. 서론

본고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쓰기 텍스트의 영향을 준다는 대조수사학 이론의 관점을 전제하여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쓰기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대학 진학과 더불어 학업 부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학문 목적 학습자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쏟아내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에 띄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토록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지금까지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학문 목적 학습자를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뿐 학습자의 모어, 학습 경험과 배경, 연령, 문화적 차이 등과 같은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대학 입학 전인지, 대학 입학 후인지를 규정하지 않는 식으로 학습자의 상황과 학습 단계가 명확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설계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통한 성공적인 유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학습자의 경우 대학 수학에서 다양한 언어 기술 등 중에서 무엇보다도 쓰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살펴볼 수 있다(김정숙, 2000;이은희·박새암, 2008;박선옥, 2009;노정은, 2015).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윤경 외, 2011;유해준, 2015).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시피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의 경우 학문 목적의 쓰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있다(이수정,2011; 김성숙,2015). 쓰기 과정의 특성에 있어 한국 대학의 담화 공동체 양식과 사회·문화적 관습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제2언어(Second Language,L2)로서의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의미를 구성하는 쓰기 행위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교수자인 독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한국의 학술적

364) 본 연구는 형재연(2021) <중국인 학부생을 위한 학문 목적의 쓰기 교육 내용 연구 -한·중 학습자의 텍스트 분석과 교육 내용 설계를 중심으로->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다.

담론이 지닌 특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어 사용은 문화적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쓰기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모국의 쓰기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쓰기 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사회 · 문화적 배경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쓰기 교육 내용에 간극이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모색하려는 입장에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대조 수사학 이론과 쓰기 연구

제1언어의 문화가 제2언어 쓰기에 있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인 대조수사학적(contrastive rhetoric)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1966년에 미국의 응용 언어학자인 케플런(R.B.Kaplan)이 발표한 논문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대조 수사학에서는 언어와 쓰기가 문화적 현상이라는 관점을 밝혔다. 모든 언어에는 수사적 관습이 있으며 제1언어의 언어적 또는 수사적 관습이 제2언어 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Kaplan(1966)의 초기 대조 수사학 논문은 비교문화적 쓰기 양상, 특히 학습자들이 제2언어로 쓰기 규칙을 습득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Connor&Kaplan, 1987; Connor, 2002).

Connor(1996; 2002; 2003)는 Kaplan(1996)의 연구가 각 언어 또는 문화별로 글의 구성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Sapir-Whorf 가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각 언어 또는 문화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글을 구성한다는 Kaplan의 주장은 Sapir-Whorf 가설 중 언어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좀 더 완곡한 주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로 논의되는데 모국어가 서로 다른 학습자들이 쓴 글의 구성 형태는 그들이 모국어로 사고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글을 전개하여 나가는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글의 구성 형태가 언어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수가 다른데 이것은 언어에 따라 선호하는 글의 구성 형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국어로 글을 쓸 때 필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글의 내용에 적합한 글의 구성 형태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글을 구성하고 전개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의 구성 형태 중에서 자신의 글쓰기 목적에 맞는 글의 구성 형태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 글을 쓸 때에는 모국어로 글을 쓸 때와는 달리 사회의 언어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글쓰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의 구성 형태 중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글의 구성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그 결과 제2언어 학습자(이하 L2)의 글은 모국어 화자가 쓴 글에 비해 덜 효과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L2학습자가 모국어 글쓰기를 통해 지닌 글의 구성 형태에 대한 지식이 L2 글쓰기를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에는 상호 문화 쓰기에 대한 연구가 새로이 부각되면서 코너(U.Connor)는 제2언어의 담화 특성을 비교하는 대조 텍스트 언어학, 다양한 문화에서 쓰기를 배우는 과정을 비교하는 문화적 활동으로서의 쓰기 연구, 제2언어 쓰기 교실의 역동성에

대해 다루는 교실 기반 대조 연구, 다양한 목적과 상황 그리고 장르의 수행과 관련된 대조 수사학과 장르 분석,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적 전통 및 이데올로기를 아우르는 대조 수사학과 이데올로기의 지도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대조 수사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Sandra Lee Mckay, 김영주 역, 2009:185).

Martin(1992)은 좁은 의미의 대조 수사학이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제2언어 문어 텍스트의 수사적 조직은 제1언어의 수사적 조직이 전이된 결과이다. 둘째, 모든 언어에는 일정한 수의 수사적 형태가 있다. 셋째, 이러한 수사적 형태는 쓰기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필자의 모어 수사 방식이 제2언어 텍스트의 수사적 조직을 결정한다(진대연 외,2006 재인용). 반면에 넓은 의미의 대조 수사학은 제1언어의 수사적 규범은 텍스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며 제2언어 작문에는 중간 언어적, 문화적, 발달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쓰기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제1언어의 수사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정의에서는 필자가 제2언어로 작성한 쓰기 텍스트는 필자의 제1언어가 지닌 문화적, 언어적, 수사학 관습의 영향을 받는다는 대조 수사학의 이론적 전제가 된다.

최근에는 전통의 대조 수사학의 관점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이 정의를 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Atkinson(2004)은 대조 수사학의 '문화'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Holliday(1999)가 주장한 '소문화(small culture)'[365]의 개념을 발전시켜 문화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정의하여, 대조 수사학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자 하였다. 이는 이전의 대조 수사학에서 사용되던 국가, 민족, 언어에 의해 결정되는 대문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정의하는 소문화의 개념이 새로운 대조 수사학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를 전문적-학문적 문화, 교실 문화, 학생 문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것들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따라서 소문화의 개념은 교육 현장이나 환경에서 일어나는 교수 · 학습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조 수사학에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을 Holliday(1999)의 '소문화'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필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 따라 선호하는 글의 구성 형태와 수사적 특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술 담화 공동체 안에서도 전문 분야에 따라 쓰기 양식이 다를 수 있다.

대조 수사학적 관점에서 '학문 목적의 쓰기'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볼 수 있다. Connor(2002, 2003)는 대조 수사학을 학문적 글쓰기 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장르를 분석하는 분야에서 대조 수사학을 이용한 쓰기 연구를 하였다. 대조 수사학은 전통적으로 학습자들의 설명문, 논설문의 쓰기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제2언어 학습자(이하 L2)들이 쓰는 글의 장르가 설명문이나 논설문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된다(최연희,2009:204). 그렇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학문 목적의 쓰기'에 필요한 주요한 쓰기 텍스트 유형은 설명문과 논

365) Holliday는 '소문화'를 민족적이고 규범적인 '대문화(large or big culture)'와 대비시켜 어떠한 사회적 집단 내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결합적 행위들의 집합체로 규정하고 소문화를 역동적이고 계속되는 집단 과정이라고 본다. 또한 각각의 소문화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고유의 내적 규준과 관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소문화와 중복되기도 한다.

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 목적의 학습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사용하는 담화 공동체의 수사학적 구조와 글의 구성 형태에 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담화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쓰기 텍스트 유형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의 배경, 필자의 쓰기 텍스트가 사용되는 상황, 문화적 요인들이 필자의 쓰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대조 수사학에서의 쓰기 이론을 한국어교육의 쓰기 교육 분야에 접목을 한다면 앞서 Atkinson(2004)의 주장한 바와 같이 대조 수사학의 영역을 소문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쓰기(KGAP)'로 방향을 설정하며, 학문 목적의 쓰기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쓰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배경과 문화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목표로 하며, 분석을 통해 필자는 학문적인 담화 공동체 내에서 글의 구성 형태와 수사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글을 쓰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으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쓰기 텍스트 분석

Ⅰ. 쓰기 자료 수집 및 대상

한국인 대학생의 작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서울 소재 모 대학교의 <사고와 표현> 강좌를 수강하는 7개 분반의 205명의 대학 신입생이 작성한 글을 수집하였다. 학생들의 전공은 주로 인문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이 대학교는 모든 신입생이 수강해야 할 공통 필수 교과로서 1학기에는 쓰기 교육 중심의 <사고와 표현1> 강좌를 수강하며, 2학기에는 토론과 발표 중심인 <사고와 표현2>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7개 분반 모두 다른 교강사가 담당하였으나 모든 계열, 분반에 대해 2차례 쓰기 공통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수자가 주제를 제시하고 쓰기를 수행하는 공통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쓰기 표본은 인문대 학생의 글 100편이며, 쓰기 유형 중 '설득하는 글'의 성격을 갖는 글이다. 설득하는 글을 선정한 이유는 필자의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다른 텍스트 유형에 비해 문단의 구성 요소가 문단 전개의 양상이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의 주제는 '재능과 노력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칼럼을 한 편 쓰는 것이며, 1500자 미만의 글을 쓰는 조건이 부여되었다. 이 과제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 받았다.

중국인 유학생의 작문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1학기-2018년 2학기까지 학생들의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쓰기 자료를 제공한 학생들은 2곳의 서울 소재 대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부생이다. 이 학생들의 전공은 인문 · 사회 · 이공 ·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 다양했다. A대학에서는 교양 필수 과목인 쓰기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쓰기 표본을 채취하였고, B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만 수강하는 교양 필수 과목인 학문 목적의 한국어의 강좌에서 학생들의 쓰기 표본을 얻었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의 쓰기 표본 중 대학 신입생들에게 주어진 과제 중 실제 쓰기 내용을 보고자 하였다.

중국인 학생들의 작문 자료를 축적한 양은 매우 많았으나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쓰기 표본으로 삼고자 하여, 주가 되는 쓰기 표본은 총 41편이다. 한국인 대학생과 같이 '설득하는

글'의 성격을 갖는 글을 표본으로 삼았으며, 글의 주제는 '재능과 노력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예시 글은 학습자의 실제 쓰기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장의 오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은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인명, 지명 표기에 있어 한국어 어문 규범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함을 밝힌다.

Ⅱ. 텍스트 분석 기준

한국인 대학생(이하 한국인)과 중국인 유학생(이하 중국인)의 쓰기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은 쓰기 지식 내용을 준거로 삼고자 한다. 쓰기 지식은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체계 지식으로 분류한다.[366] 이들 각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쓰기 텍스트를 분석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 기준	분석 요소	
(가) 내용 지식	가-1.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	
	가-2. 주제와 관련된 외부의 자료를 얻고 활용하는 지식	
(나) 맥락 지식	거시적 층위	나1-1. 글의 전체적인 형식 나1-2. 글의 내용 구조 나1-2.1 서론의 도입 방법 나1-2.2 본론의 논거 양상 나1-2.3 결론의 특징
	미시적 층위	나2-1. 독자에게 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습 나2-2. 독자에게 신뢰도를 얻기 위한 관습 나2-3.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관습
(다) 언어 체계 지식	형태·통사적 지식	다-1. 문어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지식
	의미·어휘적 지식	다-2. 한국인과 중국인의 쓰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의미·어휘적 지식의 특징

[표 1] 쓰기 텍스트 분석 기준 및 분석 요소

내용 지식에 대한 분석 요소는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 즉 배경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외부의 자료를 얻고 활용하는 지식이다.

맥락 지식은 거시적인 층위와 미시적인 층위로 나뉜다. 거시적인 층위의 분석은 글의 전체적인 형식과 글의 내용 구조이며, 글의 내용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시적인 층위에서는 독자에게 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습으로 담화 표지와 소제목을 살펴본다. 그리고 독자에게 신뢰도 얻기 위한 관습으로 인용과 표절 등의 쓰기

366) 원 논문에서는 쓰기 지식을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체계 지식, 쓰기 과정 지식, 장르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쓰기 과정 지식과 장르 지식은 한국과 중국의 작문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쓰기 텍스트 분석 기준으로 (가)내용 지식, (나)맥락 지식, (다)언어 체계 지식으로 한정하여 다루었다.

윤리 지식을 분석해 낸다. 마지막으로 독자 중심의 글을 구조화하기로, 즉 독자 맥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자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구조,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

언어 체계 지식은 형태·통사적 지식과 의미·어휘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통사적 지식에서는 문어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지식, 문장 호응에 대한 지식, 문어적 연결 어미 사용에 대한 문법적 지식, 문어적 접속사 사용에 대한 지식이다. 의미·어휘적 지식은 한국어 모어 화자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나는 의미·어휘 지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3.1 한국인과 중국인의 쓰기 텍스트 분석

가. 내용 지식

가-1.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 중 '예를 든 인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인 인문대 신입생의 글 100편에 제시된 내용 지식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거의 예를 든 인물이 총 48명이 등장하였고, 책이나 책의 내용을 예시를 든 사례는 10건이었다. 글에서 제시한 48명의 유명 인물 중에서 국내에서 인물은 24명이며, 해외의 유명 인물은 24명이었지만, 중복되는 인물의 횟수를 합하면 국내 인물을 제시한 경우가 20건이 더 많았다. 국내 외 인물 중에서 예체능계 분야의 유명 인물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는데, 글의 주제에서 말하는 재능은 예체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의 특정 유명한 스포츠 선수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을 미루어보아 글을 수집한 시기가 올림픽이 개최된 직후라 이러한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외의 인물은 현재 유명한 인물보다는 역사 속의 인물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인물들로 자신이 가진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도 대부분의 글에서 인물을 제시하였는데, '방중영(方仲永)'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사례로 한 글이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방중영'은 중국의 소학교(초등학교) 어문교과 내용 중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다룬 이야기 속 주인공이다. 중국인의 글에서 한 인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지닌 지식의 한 부분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 제시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자국의 인물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나 유명한 가수 등이 등장하는데, 현대적인 인물들을 예를 든 반면, 해외의 유명 인물에서는 고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았다.

가-2. 주제와 관련된 외부의 자료를 얻고 활용하는 지식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외에 새로운 자료를 얻어 이용하는 지식이다. 글을 쓸 때에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다양한 매체 문서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얻으면 자신

이 갖고 있는 지식과 통합하여 글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 글(2). '일만 시간의 법칙'이란 한 분야에 대해 '일만 시간'을 들이면 그 분야에 대해 성공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이다. 이는 재능과 관계없이 꾸준히 노력을 하면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콤 그래드웰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일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다루었는데, 그 예시를 보였던 사람들 중 비틀즈가 있다.

중국) [글 A2-1]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에 테몬스테베스라는 아주 유명한 웅변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고 어깨를 으쓱하는 버릇이 있었다. 게다가 목소리도 가냘팠다. 데모스테네스가 웅변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인은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경로를 나타낸 내용을 보면, 전체의 13%가 책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참고한 책은 일반도서와 국어사전을 말한다. 특이점은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술한 글은 단 한 편도 없었으며 참고문헌 목록을 제시한 글도 없었다.

중국인은 외부의 자료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이용해 글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 글의 주제가 친숙한 주제이니만큼 외부의 자료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나 이야기를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한 편의 글에서 한국인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참고하여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글에서는 외부 자료는 서적이나 매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한국 학생들에게는 볼 수 없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라고 밝히고 있는데,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는 인식이 달랐다.

나. 맥락 지식

맥락 지식은 글의 구조 및 구성을 포함하는 거시적 층위와 표현 등을 아우르는 미시적 층위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층위는 글의 전체적인 형식으로 보고서의 표지, 본문, 참고 문헌을 살펴본다. 그리고 글의 내용 구조로 서론을 시작하는 방식, 본론의 내용은 논거의 종류, 필자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나 의견에 대한 특징이며, 결론으로 분류한다.

미시적 층위에서는 독자에게 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습은 담화 표지나 소제목을 살펴보고,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관습으로 쓰기 윤리의 인용을 위한 표지와 인용 여부로 나눈다.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관습은 독자에 따라 글의 내용, 구조,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다.

나1-2. 글의 내용 구조

나1-2.1 서론의 도입 방법

	도입 방법	한국(비율%,편)	중국(비율%,편)

1	인용한 내용	9%(9/100)	0%(0/26)
2	문제제기	10%(10/100)	0%(0/26)
3	자신의 주장을 바로 제시	6%(6/100)	65%(17/26)
4	주제에 대한 정보 제시나 사실 진술	38%(38/100)	15%(4/26)
5	개인적 일화 또는 개인적 경험	6%(6/100)	0%(0/26)
6	주제에 대한 질문	12%(12/100)	15%(4/26)
7	비유 또는 속담	16%(16/100)	3%(1/26)
8	동화 또는 영화 이야기	3%(3/100)	0%(0/26)

[표 2] 한국인과 중국인의 쓰기 텍스트 서론 도입 방법 비교

서론의 도입 방법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4)주제에 대한 정보 제시나 사실 진술을 하는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7)비유 또는 속담으로 시작하는 경우 16%, (6)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 12%였다. 그 외 인용한 내용, 문제제기, 자신의 주장을 바로 제시, 개인적 일화 또는 개인적 경험, 동화 또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중국인은 (3)자신의 주장을 바로 제시하는 경우가 65%로 가장 많았고, (4)주제에 대한 정보 제시나 사실 진술이 15%, 주제에 대한 질문이 15%, (7)비유나 속담으로 도입을 하는 경우가 3%였다. 그 외 '인용한 내용, 문제제기, 예 또는 개인적 일화, 동화 또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는 글은 없었다.

나1-2.2 본론의 논거 양상

논증을 하는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나 결론은 그 문장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논거는 논증에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합당한 근거가 되는 명제이며, 결론은 논증을 통해 도출해 낸,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이다.

논거를 증명 과정은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사실 명제, 개인이나 사회의 바람직한 사고 또는 행동의 방향을 주장하는 당위 명제, 선악이나 아름다움 등의 정의적 판단을 내리는 가치 명제가 있는데. 학술적 쓰기에서는 사실 명제나 당위 명제를 이용한다.

학문 목적의 쓰기에 있어서 논거를 위한 여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해야 한다. 본론에서 논거로 제시한 자료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1) 사실 논거는 자연 법칙에 따른 근거, 조사 결과에 따른 사실, 실험적 사실이 해당하고, (2) 의견 논리는 전문가 권위자의 증언, 경험자의 증언, 목격자의 증언이다. (3) 글쓴이 혼자만의 생각이나 경험담이 논거가 되는 경우에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세 가지 기준을 준거로 분석하였다.

논거 유형		입장		
		노력(95%)	재능(5%)	Total
사실 논거	Count	17	2	19
	%within입장	16%	33%	18%
의견 논거	Count	66	3	69
	%within입장	64%	50%	63%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거가 아닌 경우	Count	19	1	20
	%within입장	18%	16%	19%

[표 3] 한국인 쓰기 텍스트의 의견 간 논거 유형별 사용 비교

논거 유형		입장		
		노력(47%)	재능(53%)	Total
사실 논거	Count	0	0	0
	%within입장	0%	0%	0%
의견 논거	Count	10	13	23
	%within입장	83%	92%	88%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거가 아닌 경우	Count	2	1	3
	%within입장	16%	7%	11%

[표 4] 중국인 쓰기 텍스트의 의견 간 논거 유형별 사용 비교

한국인은 '노력과 재능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주제에서 '노력이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95%였고, '재능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은 5%에 해당했다. 논거의 유형은 사실 논거가 16%, 의견 논거가 64%,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거가 아닌 경우 18%였다. 논거의 유형을 두 가지로 취하여 쓴 글도 4편에 달했기 때문에 합계에 중복으로 집계된다.실험적 사실을 논거로 삼아 인용하고 있다. 사실 논거에 해당하는 글이 16편이었고, 전문가 또는 권위자의 증언, 경험자의 증언 등 의견 논거에 해당하는 글이 65편,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인의 경험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논거를 한 글은 19편이었다.
'노력과 재능'이라는 주제에 대한 글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 의견 논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근거를 제시하는 글도 상당수 있었다.

중국인의 글에서는 [표 4]에서와 같이 논거를 제시할 때에 객관적인 여러 자료를 참고하기 보다는 자신의 배경지식(기존지식)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보통 논거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이용되는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로 나뉜다. 의견 논거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증언, 경험자의 증언, 목격자의 증언 등을 일컫는데, 중국인 학습자가 쓴 글 중 88%가 의견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의견 논거에 거론된 인물들은 오래된 위인이나 중국 자국에서 유명한 인물인데, 이것은 중국인이 글을 쓸 때 자신의 논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물들의 권위에 기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견 논거 중 전문가 또는 권위자의 증언에 따른 글은 1편이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논거는 총11%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논거가 아닌 단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나1-2.3 결론의 특징

	마무리 방법	한국	중국
1	권계식 표현으로 마무리	2%(2/100)	15%(4/26)
2	의문문 형태로 마무리	3%(3/100)	15%(4/26)
3	강조 단락을 구성하며 마무리	4%(4/100)	34%(9/26)
4	독자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언으로 마무리	51%(51/100)	0%(0/26)
5	찬·반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으로 마무리	26%(26/100)	23%(6/26)
6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	6%(6/100)	3%(1/26)
7	반성, 후회하며 마무리	8%(8/100)	0%(0/26)
8	필자 개인의 결심(또는 다짐)이나 희망으로 마무리	0%(0/100)	7%(2/26)

[표 5] 한국인과 중국인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결론 양상 비교

결론을 내리는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4)독자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언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51%로 가장 많았다. (예. 한국-글(5). 노력은 재능보다 중요하다. 노력은 단순한 능력인 재능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재능을 가진다는 것의 출발점은 노력이고, 더 향상된 재능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도 노력이기 때문이다. 즉, 노력이 없으면 재능도 없다. 또한 노력은 우리를 더 다양하고 더 큰 목표를 갖기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도 하고, 더 많은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가치를 알고 중요시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1)권계식 표현으로 마무리, (2)의문문 형태로 마무리, (3)강조 단락을 구성하며 마무리, (5)찬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으로 마무리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글을 마무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인은 (3)강조 단락을 구성하며 마무리하는 글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의 텍스트 구성 양상의 특징 중 하나인 권계식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양상의 글도 15%로 나타났다. 권계식 표현은 '-하자', '-합시다', '-해라' 등의 권유형이나 명령형 종결 어미가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국어 쓰기의 권계식 마무리가 독자에게 이러한 도덕적 성찰을 가르치거나 가르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예. 중국-[글B1-2.3-3]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으면 그 재능을 이용해서 노력하면 더 좋을 바가 없고 평범하게 태어났으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천재가 되자.)

나2-1. 독자에게 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습

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글의 제목이다. 글에서는 제목이 간판의 역할을 한다. 즉 제목은 글의 맨 앞에 놓여 글 전체의 주제, 소재, 관점 등을 대략적으로 드러낸다.

나2-2. 독자에게 신뢰도를 얻기 위한 관습

	제목 양상	한국인	중국
(1)	주제를 짧은 문장이나 구로 압축한 제목	37%(37/100)	19%(5/26)
(2)	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제목	13%(13/100)	19%(5/26)
(3)	유사한 것에 빗대어 정한 제목	17%(17/100)	11%(3/26)
(4)	비유 또는 속담을 이용한 제목	5%(5/100)	0%(0/26)
(5)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담은 제목	8%(8/100)	0%(0/26)
(6)	글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제목	2%(2/100)	0%(0/26)
(7)	기타(무제, 과제 이름 등)	18%(18/100)	50%(13/26)

[표 6] 한국인 쓰기 텍스트의 제목 양상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관습은 사회·문화적 맥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Alexander 외(1991)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지식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한 신념이며, 사회문화 공동체의 의미 및 가치 반영, 공유된 지식의 활용, 관습적 규칙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이다. 학문 목적의 쓰기를 대입해 보자면 사회·문화적 지식은 학문적 담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 공유하는 신념을 가리킨다. 공유하는 지식을 활용할 때에는 학문적 쓰기 윤리를 지키고, 학문적 담화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문 목적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견해와 주장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다. 특히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글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전거로 삼거나 다른 글에 대한 비판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시작점으로 활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쓰기 윤리의 인용을 위한 표지와 인용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글(4). 내가 재능이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능성이다. 특히 스포츠의 분야에서 재능의 유무는 성공뿐만 아니라 도전 자체의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프로 퍼블리카'의 신문기자이자 한 때 육상선수였던 데이비드 엡스타인은 그가 쓴 책 '스포츠 유전자' 에서 맬컴 글래드웰의 "1만 시간만 투자해라. 그럼 대가가 되리라." 라는 속칭 '1만시간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국인은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나 실험적 사실, 전문가 또는 권위자의 증언을 인용할 때에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논거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연구 결과나 실험 결과는 출처가 나타나지 않거나 실험명, 실험 일자, 실험 참여자 등 인용한 실험의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인 역시 쓰기에서 표절에 대한 인식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나2-3.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관습

글을 쓸 때 필자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읽을 독자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지닌다. 글 쓰는 이가 내용에 대해 지니는 태도를 어조라고 한다. 어조는 다

루는 주제에 대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중립적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관찰의 태도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표현의 태도가 직접적이냐, 우회적이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필자가 독자에 대해 갖는 태도는 어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독자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혹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서부터, 친밀도와 격식성의 정도에 따라 독자와의 사회적, 심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글에서 드러낸다.

필자의 태도는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 글을 읽을 대상, 쓰고자 하는 글의 종류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 글(5). 만약 우리에게 노력과 재능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대다수는 '재능'을 선택할 것이다.

중국) [글 B2-3-1]
나는 천징룬, 다빈치와 마리퀴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내 관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천징룬(*쳉진룬(陳景潤))은 중국에 매우 유명한 수학자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 중국에 해방초기이였을 때 천징룬은 푸건성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다. 그 때 대만에서 온 비행기는 천징룬이 계신 도시에서 교련했다.

전체 글 중38%가 인물을 소개할 때에 '중국에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자가 한국인이라는 설정을 하였으나, 중국인 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국인 독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의 문장인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쓰고 있는 사례도 있다.

다. 언어 체계 지식

언어 체계 지식은 형태·통사적 지식과 의미·어휘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통사적 지식은 문어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지식이며, 의미·어휘적 지식은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어휘,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문체, 한자어에 대한 지식 및 의미 차이에 대한 지식,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에 포괄적인 지식을 말한다.

다-1. 형태·통사적 지식

문어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지식은 학술적 쓰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어와 구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보통 대학의 학문적 쓰기에서는 문어체인 '-ㄴ/는다', 다, (이)다'로 문장을 종결한다. 이때 글을 쓰는 학습자는 구어 격식체인 '-ㅂ/습니다'인 합쇼체, 비격식체인 '아/어요'인 해요체로 글을 쓸 때가 있다. 이때 학습자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교수나 선배 등 사회적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편지 등을 쓰는 상황에서는 구어 격식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문적 상황에서 어떤 쓰기를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 안에서 격식성을 가진 쓰기

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제출한 과제 100개 중 7개의 글에서 '-습니다'의 격식 구어체로 글을 쓴 학생들이 있었다. 격식 구어체로 글을 쓴 학습자의 텍스트 내용을 분석해보면, 발표문 형태로 작성한 것이거나 글을 읽는 독자가 '교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존칭해서 써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과제에서도 격식 구어체로 작성한 글은 7%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다수는 한국이나 모국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를 일정 기간 학습한 후에 대학에 입학한다.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쓰기에 구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쓰기에 능숙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문어보다는 구어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가령 '-다, -ㄴ/는다, (이)다'와 같은 문어체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2. 의미·어휘적 지식

	의미 · 어휘적 지식의 특징
한국인	1) 독백체 사용이 많음 2) 직접 인용의 사용이 많음 3) 명언을 즐겨 사용함
중국인	1) 속담 또는 격언을 사용한 글이 많음 2) 시구 또는 경전을 인용하여 글을 씀 3) 문학적 또는 시적 표현을 사용함 4) 의문문을 활용함 5) 관용 표현 또는 비유 표현을 사용함 6) 한자어 사용이 많음

[표 7] 어휘 · 어휘적 지식의 특징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의미 · 어휘적 지식의 특징은 (1) 독백체가 많다는 점, (2) 직접 인용의 사용이 많다는 점, (3) 명언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글에서 나타나는 의미 · 어휘 지식의 특징은 (1) 속담 또는 격언을 사용한 글이 많다는 점, (2) 시구 또는 경전을 인용하여 글을 쓴다는 점, (3) 문학적 또는 시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 (4) 의문문을 활용한다는 점, (5) 관용 표현 또는 비유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 (6) 한자어 사용이 많다는 점이다.

3.2. 쓰기 텍스트 비교 분석 결과

앞 절에서는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쓰기 지식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기준인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체계 지식을 준거로 양국의 학습자의 쓰기 지식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지식 중 '기존 지식의 활용' 측면으로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

을 살펴보기 위해서 수집한 텍스트에서 논거를 뒷받침하는 예를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텍스트에서는 국내와 국외 모두 스포츠 선수의 등장이 많은 편이며, 예체능과 관련된 분야의 인물을 주로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인의 텍스트에서는 서사인물 분야로 분류한 '방중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예시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이유를 추측컨대, 중국의 소학교(초등학교)의 어문(국어)교과서에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방중영'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에게는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쓰기 텍스트의 논거 사례를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전적으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은 미디어 매체에서 접하는 연예인이나 현대인물을 제시하고 있는 데에 반해 중국인은 해외 인물의 경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리퀴리, 미켈란젤로, 베토벤, 모차르트 등 고전에 가까운 인물들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자국의 유명 인물의 경우 비교적 근대 인물들이 등장하곤 한다. 세 번째는 한국인은 자신의 개인적 일화나 자신의 경험을 논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28건으로 중국인은 개인적 일화를 다룬 3건에 비해 많았다. 즉, 한국인은 '노력'이라는 주제어에 있어서 자신의 일화를 직접 논거로 사용하였으며, '재능'에 대한 주제어는 스포츠선수 등 예체능 관련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일컫는 방식의 글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얻고 활용하는 것'은 주제와 관련된 외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인데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의 출처나 주제와 관련된 외부 자료 검색을 의미한다. 한국인은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경로를 나타낸 내용을 보면, 전체의 13%가 책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글에서 밝히고 있는 참고 도서는 일반도서와 국어사전을 말한다. 한 가지 특이점은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술한 글은 단 한 편도 없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중국인은 외부의 자료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이용해 글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의 주제가 친숙한 주제이니만큼 외부의 자료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나 이야기를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유일하게 한국인(발레리나 강수진)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참고하여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글에서는 외부 자료로서 서적이나 매체 등을 인용한 경우가 없었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인의 글에는 드러내지 않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라고 출처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두 집단이 글을 쓰는 데에 있어 수집한 자료나 자료 수집 경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용 지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인 학습자에게 글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선별한 후에 해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 모두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를 보면 인터넷 자료만을 통해 자료를 모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최근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이 매우 활발해지고, 그 검색의 정확도도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은 엄청난 속도와 양과 정확성은 있지만 편리하고 쉽다는 이유로 자료 수집을 전적으로 인터넷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형태를 중심으로 보면 문헌자료, 그림자료, 영상자료 등

이 있고, 문헌자료는 인쇄된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단행본이나 논문 등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료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된 자료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비교 분석해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펴야 할 논리가 어떠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자신의 논리와 그것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면밀히 갖춰져 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맥락 지식 중 글의 구조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론의 도입 방법에서는 한국인은 '주제에 대한 정보 제시나 사실을 진술'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도입 방법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도입 방법에 있어 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흥미를 유발하여 글을 읽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글의 전략을 이용하여 글을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인은 '자신의 주장을 바로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많다. 그 외에는 '주제에 대한 정보 제시나 사실 진술', '주제에 대한 질문', '비유 또는 속담으로 시작'하는 방법 뿐, 도입 유형이 다양하지 않다. 두 집단의 도입 방법에 대한 명확한 차이는 중국인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론에서의 논거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인의 텍스트에서는 의견 논거 대부분이고, 사실 논거를 사용한 글은 없었다. 반면에 한국인의 텍스트에서는 의견 논거가 많은 편이나 사실 논거를 이용한 경우가 18%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미루어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조사 결과에 따른 사실이나 실험적 사실 등을 인용하기보다는 전문가나 권위자의 증언, 경험자의 증언 등에 의존하여 논거를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인 대학생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 사실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거가 타당하다는 것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전략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력과 재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경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많은 반면 중국인의 경우 재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글이 더 많다. 텍스트에 기술한 내용 중에 한국인은 자신의 대학 입학과정을 제시한 사례가 28%였는데, 결국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대학 진학에 성공하였다고 인식하여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 95%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유학생활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제2언어인 한국어가 능숙한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식한 중국인 학생들이 글에서도 '재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에서 글을 마무리하는 양상은 한국인의 텍스트에서는 51%가 '독자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본론의 내용을 확장하고 논거를 보충하는 경우와 글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독자가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 방향을 제언하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인 쓰기 텍스트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하려는 설교 방식이 강조되는 '권계식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독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분류했다. 이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가 전형적인 중국어 텍스트 구성 원리의 특징 중 하나인 권계식 표현의 사용은 모국의 텍스트 구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인의 텍스트에는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확장하고 논거를 보충하거나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은 것(51%)으로 미루어 보아 결론을 적절하게 내리고 있었다. 반면 중국인 쓰기 텍스트에는 자신의 입장이나 강조 단락을 구성하며 마무리하는 글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결론의 일반적인 방법인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 내

용을 바탕으로 확장 보충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생의 경우 본론의 내용을 요약한 글은 3%에 그쳤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여 전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67]

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글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의 제목을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대로 정해진 제목이라면 제목만 읽고도 그 글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필자의 태도나 관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글의 제목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경우 '주제를 짧은 문장이나 구로 압축한 제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유사한 것에 빗대어 정한 제목'도 있었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는 제목이 없는 '무제'가 절반이었으며, 일부 '주제를 짧은 문장이나 구로 압축한 제목'이나 '글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제목'을 정한 경우였다.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적절한 제목을 구성하였으나, 중국인 학생의 경우 '무제'가 많은 것을 미루어보아, 글자 수가 제한된 과제이니만큼 제목 또한 글자 수에 포함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관습은 사회적 맥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를 하는 데에 있어 학문적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공유하게 되는 신념으로 공유된 지식을 활용할 때 학문적 윤리를 지키고, 학문적 공동체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는 지식이다.

학습 윤리와 관련된 지식의 부재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쓰기 윤리 지식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두 집단에서 모두 나타났다. 하지만 '표절'의 문제에 대해 문화 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서구와 같이 타인의 창작성과 무단으로 인용 또는 도용의 의미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사회 내부에서는 선현의 말과 역사적 전고의 예처럼 굳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더라도 교훈 전달이라는 글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점 때문에 도용과 인용의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 학생들의 일반적 쓰기에서 표절, 즉 무단 인용에 대한 인식은 지금도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채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제2언어 쓰기 교육에서 '인용 또는 표절'에 대한 인식 태도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68]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관습은 필자가 독자에게 갖는 태도는 어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글에서 독자를 고려하여 서술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글은 70%에 해당했으며, 불특정 다수인 대중을 독자로 삼은 경우가 7%,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거나 독자와의 또래, 동료 학습자와 같은 친밀도가 높은 대상을 독자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친밀도가 높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은 23%에서 나타났고, 이러

367) 중국인 학습자의 이러한 특성은 김민애 외 3명(2006)과 정다운(2007)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설명문의 경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지를 심화 확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나열하는 구성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논설문의 경우 결론에서 비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368) 중국의 중등 교육에서는 자국의 유명 작품을 암송, 낭송하는 것이 주요한 교육 내용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전, 시, 산문 등의 작품이 주제로 다루고, 이러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매주 약 한 편씩 작문을 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문장이나 작품을 모두 철저하게 외워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외운 것을 응용하여 자신의 작문에 반영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어문과정표준(語文課程標准)참고). 이때 중국에서 교육을 받아 온 학습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작품의 내용을 인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전을 인용하여 쓴 글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중국식 쓰기 습관이 한국의 대학에서 쓰기를 수행할 때에 그대로 전이가 된다면 쓰기 윤리 위반이나 표절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한 글의 대다수가 결론에 이르러서 '-노력하라', '-해주고 싶다' 등의 권계형이나 충고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에 전체 글 중38%가 자국의 인물을 소개할 때에 '중국에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독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독자가 한국인이라고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했으나 중국인 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국인 독자들은 그 출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관습, 즉 독자에 대한 맥락 지식적 측면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은 자국의 보편적인 지식이 한국인 독자에게는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해야 한다.

언어 체계 지식 중 형태 · 통사적 지식을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격식 구어체인 '-습니다'를 사용한 비율은 각 7%로 나타난다. 한국인의 경우 발표문 형태로 작성하였기 때문인데, 독자가 '교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격식을 갖춘 존대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인의 경우 '저, 제'와 같은 존대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답 형태의 구어체 표현이 많았다.

의미·어휘적 지식을 보면 한국인의 경우 글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듯한 독백체의 사용이 많고, 간접 인용보다 직접 인용의 사용이 많았다. 이는 중국인의 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다. 반면에 중국인의 글에서 발견되는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 시구나 경전을 인용, 문학적 또는 시적 표현을 사용, 의문문을 활용, 관용 표현 또는 비유 표현을 사용, 한자어 사용에 대한 특징은 한국인의 글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중국인과 비슷한 형태로 명언을 인용하였으나 그 사용이 중국인의 글보다는 많지 않다.

4. 결론

본고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과 중국은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쓰기 교육 내용에 간극이 존재하므로 이를 교육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전제를 위해 대조 수사학을 기반으로 한 쓰기 연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대조 수사학의 쓰기 이론 중 대조 수사학의 영역을 소문화 개념으로 접근하여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쓰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학문 목적의 쓰기는 대학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쓰기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분석 기준은 쓰기 지식 중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체계 지식으로 범주를 정하고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그를 준거로 삼아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쓰기 텍스트에서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체계 지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쓰기 텍스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내용 지식은 두 집단 모두 논거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국의 인물을 예시로 들었으나 중국의 경우 쓰기 텍스트의 절반 이상 소학교(초등학교)의 어문(국어) 교과서에 실린 인물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한국인의 경우 도서를 통해 자료를 얻는다고 밝혔으나, 중국인

은 전적으로 자신의 배경 지식에 의존하여 글을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맥락 지식은 서론의 도입 방법과 본론에서의 논거 양상, 결론에서 글을 마무리하는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서론의 도입 방법은 한국인은 '주제에 대한 정보 제시나 사실을 진술'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도입 방법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인은 '자신의 주장을 바로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도입의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원인은 중국인의 경우 글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본론의 논거 양상 결과는 한국인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연구나 실험을 인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반면 중국인은 전문가나 권위자의 증언에 의존하여 논거를 펼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에서 글을 마무리하는 양상은 한국인은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확장하고 논거를 보충하거나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 경우가 많았으며, 중국인은 자신의 입장이나 강조 단락을 구성하며 마무리하는 글의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중국어 텍스트 구성 원리의 특징 중 하나인 권계식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양상인데 결국 모국의 텍스트 구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의 의미하는 결과였다.

사회 맥락 지식 중 하나인 쓰기 윤리 지식의 결과는 양국 학생 모두 표절과 인용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인은 성현의 어록이나 전고를 인용하는 데에 있어 그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는데, 이러한 점에서 표절이나 인용의 의미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의미·어휘적 지식을 보면 한국인은 글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듯한 독백체의 사용이 많고, 간접 인용보다 직접 인용의 사용이 많았다. 중국인은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 시구나 경전을 인용, 문학적 또는 시적 표현을 사용, 의문문을 활용, 관용 표현 또는 비유 표현을 사용, 한자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를 하는 데에 있어 대조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학습자가 지닌 쓰기 지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쓰기 지식의 요소들이 교육 내용으로 반영된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모국어인 중국어와는 다른 쓰기 텍스트의 구성 형태에 대한 선험 지식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으며, 효과적인 학문 목적의 쓰기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의 글에 나타나는 사회 언어학적 지식의 차이가 한국인 교수자 입장에서는 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정숙. (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1집 2호. 1-19.

이은희, 박새암. (2008).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교재 분석 연구 -대학 교양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소통과 인문학』6권. 77-107.

박선옥. (2009).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 방안. 『한성어문학회』 제28집. 107-133.

노정은. (2015).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양상 연구 - 중급 학습자의 쓰

기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60. 59-85.
배윤경 외3. (201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제22집 4권. 163-191.
유해준. (201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교양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사고와 표현』제8집 1권. 73-105.
이수정. (2011).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연구, 『人文研究』제63호. 91-120.
김성숙. (2015). 『한국어 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진.
진대연 외 3. (2006).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대한 대조 수사학적 연구. 『한국어교육』 17권 3호. 325-356.
최연희. (2009). 『영어 쓰기 교육론 원리와 적용』. 한국문화사.

중국 교육부 사이트: http://www.moe.gov.cn
Anderson, R,C.&Pearson, P,D. (1984), *A schema-theoretic view of readinf comprehension.* in P.D.Pearson(Ed). New York; Longman.
Canale, M., Swain, M. (1980). Theorerical bases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Connor,U. (1996), *Contrastive rhetoric: Cross-cultural aspects of second-language writing.* Cambrige Universtiy Press.
Connor,U. (2002). New directions in contrasstive rhrtoric. *TESOL Quarterly.* 36. 493-510.
Sandra Lee Mckay. (2009). *제2언어교실 연구방법론* (김영주 역). 한국문화사.
Martin, J. E. (1992). *Towards a theory of text for contrastive rhetoric: An introduction to issues of text for student and practitioners of contrastive rhetoric.* Peter Lang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한국어 ‘ㅣ’ 발음 변용 현상 연구
- ‘켜다’와 ‘바뀌다’를 중심으로 -

김명권[369]
(선문대학교)

1. 서론

어느 나라에서나 구어와 문어에 대한 차이는 존재한다. 한국어에서도 구어와 문어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에 따른 차이를 두고 교육을 해 왔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어교육 초기에서부터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교육해 왔기 때문에 초급 한국어에서는 소통에서 자주 쓰이는 구어에 해당하는 문법 및 어휘를 선정하여 교육해 왔다.

이러한 대표적인 문법으로 ‘-랑/-하고’와 ‘-길래’를 들 수 있다. 이 두 문법은 구어에서 사용되는 문법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370] 그뿐만이 아니라 어휘 역시 구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휘를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초급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구어 중심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교재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문법과 어휘뿐만 아니라 의외로 또 다른 영역인 발음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발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초급을 시작하는 처음 과정과 교과 과정 단원마다 발음 현상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해당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발음 규정에 나타난 발음 현상이 아닌, 한국인들이 틀리게 쓰고 있는 발음 현상을 인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발음은 규범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어 상황에서 틀린 발음으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틀리게 사용되는 현상 중의 하나는 ‘ㅣ’ 발음화 현상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켜다’, ‘펴다’, ‘바뀌다’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켜세요’보다는 ‘키세요’, ‘펴다’보다는 ‘피세요’, ‘바뀌어’보다는 ‘바껴’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표준어 발음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만, 실제 한국어 발화 상황에서는 빈번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인 학생들이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후 현장에 나가서 한국어를 발화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해당 규범을 중심으로 발음 현상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집중하여 특히 ‘ㅣ’ 발음화가 되는 현상을 짚어보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69)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학생부장, 선문대학교 한국어세계화연구소 학술연구부장

370)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재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교재에 해당 문법이 실려 있다.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현장 발음 교육의 필요성[371)]

한국인들은 잘못된 어휘나 표현을 듣는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허용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특히 발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흐름에서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발음이나 표현에서의 이해보다 사투리에서 이해도가 더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투리가 많이 포함된 한국 영화에서 자막 표기의 요구가 있기도 하다.[372)] 실제로 영화 중 '친구'의 부산 사투리, '계춘할망'의 제주 사투리로 인해 영화 '친구2'에서는 관객들의 자막 삽입 요구가 있었고, '계춘할망'에서는 관객들을 배려하여 어휘를 배제하고 어미에만 제주 사투리를 삽입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잘못된 발음에 대한 표현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대의 간격이 적기 때문에 바로 친구나 부모 세대에게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전에 교육받았던 규칙에 따른 어휘나 표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다르다. 습득이 아닌 학습을 통해서 발음을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발음을 기준으로 학습을 한다. 그런데 이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생긴다. 바로 모든 한국인들이 올바른 발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발음 오용에 있어서는 더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발화를 하는 데에 있어 잘못된 발음을 했다 하더라도 발화 상황에서 잘못된 발음을 굳이 고쳐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발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발음의 강약에 따른 외래어 발음의 차이는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모 발음의 변화에 따른 차이는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어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발음에 대한 교육을 표준 발음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어휘 교수법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은 현장 발음 인지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초급에서는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오류 어휘를 가르쳤을 경우 학생들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따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잘못된 발음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급은 한국의 경험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발음의 빈도도 높은 편이고 학습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잘못된 발음을 듣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해와 표현을 위한 현장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잘못된 발음을 사용해도 그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이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발생하기에 외국어로서의 현장 발음 이해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즉, 현장 발음을 교수할 때에 올바른 발음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구어 양상으로 자주 나타나는 오류 및 비표준어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발음을 교수하기 전에 어떤 발음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구어 발음의 전사 자료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긴다. 3장에서는 'ㅣ'발음화 현상 분석을 제시하고 그 목록을 제시하기로 한다.

---

371) 해당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외래어 발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래 논문을 참조하여 인용하였다.
김명권(2016),「한국어 외래어 변용 현상과 교수법 연구」, 충청문화연구, 제 17집.

372) 브레이크뉴스, 「'계춘할망' 윤여정, "완벽한 제주도 방언 사용안한 이유? 알아듣지 못해」,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4&aid=0002249215
한국경제TV, 「친구2 자막, 누리꾼 "진지한 대사 자막이 필요해" 왜 그런가 봤더니..」,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40829&section=sc4

3. 구어 발음 변용 현상 분석

이 장에서는 ‘ㅣ’발음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 분석 도구로는 구글과 네이버를 분석하여 빈도[373]를 측정한다. 표준어로 설정되어 있는 발음과 잘못된 발음의 쓰임을 검색하여 분석한다.

구글 검색은 어휘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구글 검색으로 예전의 말뭉치(2005년 기준)에는 없었던 자료들이 최근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흐름 파악을 위한 자료이다.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여 어휘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확한 분량보다는 대략의 양만 측정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빈도보다는 기준 어휘와 오류 어휘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세부 데이터는 네이버를 활용하였다. 네이버에서는 뉴스, 블로그, 동영상, 카페, 웹사이트, 지식인의 범주별로 나타나 있어, 구어 중에서도 공식적인 상황의 변용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구글은 전체적인 데이터양은 파악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뉴스, 동영상, 웹사이트만 제공하여 범주별 데이터 분석은 네이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 범주를 살펴보면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발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채팅 등으로 인해 구어가 글자로도 구현되면서 어떤 범주에서 구어를 인지하고 활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1) ‘켜다’ 변용 현상의 말뭉치 분석

구어 발음 변용 현상의 분석 방법으로는 우선 <표 1>에서 제시된 ‘켜다’의 어미 활용 양상을 네이버 및 구글에서 추출하였다. ‘펴다’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표준어인 ‘피다’와 또다른 표준어의 오용 사례인 ‘피우다’가 더 큰 비중으로 동일하게 검색되기 때문에 혼용 양상으로 나타나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이러한 기준으로 나타난 ‘켜다’의 전체 발음 활용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9> ‘켜다’ 활용 동사의 전체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어휘 검색량	구글 어휘 검색량 (2020)	구글 어휘 검색량 (2021)	오류 어휘	네이버 어휘 검색량	구글 어휘 검색량 (2020)	구글 어휘 검색량 (2021)
켜다	켜다	85,809	304,000	322.000	키다	239,351	569,000	424,000
	켭니다	133,545	211,000	256,000	킵니다	103,041	1,150,000	1,490,000
	켜요	67,118	149,000	99,200	키요	109,737	742,000	1,120,000
	켜세요	49,867	135,000	86,700	키세요	40,985	129,000	76,800
	켜서	1,370,408	2,230,000	1,950,000	키서	2,814	22,500	25,200
	켜고	3,749,298	4,530,000	5,920,000	키고	2,490,677	3,750,000	3,480,000
	켜는데	89,358	177,000	128,000	키는데	107,559	240,000	158,000
	켜니까	73,451	167,000	108,000	키니까	152,132	417,000	284,000
	켜면	1,133,422	1,090,000	1,630,000	키면	1,275,205	1,920,000	1,630,000
	켜면서	59,228	174,000	146,000	키면서	67,251	289,000	203,000
	켜라고	16,775	25,200	19,100	키라고	110,894	111,000	97,000
	켜지	561,765	2,780,000	3,810,000	키지	284,125	1,100,000	1,920,000
	켠	4,935,205	3,610,000	3,130,000	킨	1,740,316	8,260,000	9,660,000
	켜는	796,571	1,250,000	1,580,000	키는	5,260,406	7,990,000	5,410,000
	켤	696,611	1,280,000	697,000	킬	4,161,360	18,100,000	15,500,000

373) 네이버 자료의 기준은 2020년 2월 16일, 구글은 2020년 2월 16일과 2021년 2월 8일을 기준으로 한다. 네이버의 빈도는 현재는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부 분류별 비교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켜다’의 검색 목록을 살펴보면 오류 어휘를 입력하여 나온 결과 값의 양이 활용 어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검색 어휘가 모두 오류 어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범주별로 나누어 검색해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모든 오류 어휘에는 ‘피다’라는 글자가 포함된 어휘들이 중복하여 검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어휘를 살펴보면 ‘가리키다’, ‘지키다’, ‘돌이키다’, ‘시키다’, ‘들이키다’의 활용이 중복하여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키다’, ‘키는’, ‘키니까’는 신체의 신장을 나타내는 ‘키’의 의미로 활용된 부분이 중복하여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관형형인 ‘킬’의 경우에는 영어의 ‘Kill’을 한글로 표기하여 중복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키요’와 ‘킨’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어 그 검색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범주별로 활용 양상을 분석해서 살펴보면 활용 어휘를 오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뉴스에서도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0> ‘켜다’ 활용 동사의 뉴스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뉴스 검색량	구글 뉴스 검색량 (2020)	구글 뉴스 검색량 (2021)	오류 어휘	네이버 뉴스 검색량	구글 뉴스 검색량 (2020)	구글 뉴스 검색량 (2021)
켜다	켜다	3,604	8,310	9,030	키다	3,975	2,830	2,690
	켭니다	783	533	5,370	킵니다	56	7,680	9,530
	켜요	582	1,370	1,290	키요	710	1,700	2,250
	켜세요	680	3,540	793	키세요	24	110	88
	켜서	6,567	4,660	10,500	키서	57	64	215
	켜고	85,634	83,100	80,300	키고	9,042	6,070	30,200
	켜는데	840	4,740	543	키는데	373	120	176
	켜니까	152	96	169	키니까	40	1,840	182
	켜면	19,325	10,700	24,100	키면	987	3,070	3,200
	켜면서	2,508	1,440	1,980	키면서	684	2,060	2,910
	켜라고	230	238	279	키라고	1,100	1,050	6,780
	켜지	17,615	38,700	40,600	키지	2,474	4,720	5,790
	켠	115,354	71,400	74,700	킨	48,806	53,900	145,000
	켜는	28,897	22,600	45,300	키는	86,830	248,000	205,000
	켤	17,941	7,510	13,400	킬	235,000	184,000	199,000

<표2>를 살펴보면 전체 검색 목록과 동일하게 다른 의미를 포함한 어휘들이 중복해서 검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몇몇 상황에서는 심각한 오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객관적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에서 비표준어인 ‘키세요’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이버 뉴스 24개 중 22개가 ‘켜다’의 ‘키세요’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구글 뉴스에서는 네이버에 등록된 뉴스가 검색되지 않고, 다른 어휘의 의미를 포함한 뉴스가 검색되었다.

<그림 43> ‘키세요’ 네이버 뉴스 검색의 예

위의 뉴스를 보면 실제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들조차도 ‘켜다’를 변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양이 표준어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해당 뉴스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표준어로만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활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킵니다’는 56개 뉴스 중 9개, ‘키니까’는 40개 뉴스 중 20개가 ‘켜다’의 오용 사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고’, ‘키면’의 경우에는 검색된 뉴스의 ‘키고’는 9042개 뉴스 중 약 70%, ‘키면’의 경우에는 987개 뉴스 중 약 76%

가 오용 사례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나 '켜다' 어휘를 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검색 목록을 보면 다음과 활용 양상을 알 수 있다.

<표 81> '켜다' 활용 동사의 동영상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동영상 검색량	구글 동영상 검색량 (2020)	구글 동영상 검색량 (2021)	오류 어휘	네이버 동영상 검색량	구글 동영상 검색량 (2020)	구글 동영상 검색량 (2021)
켜다	켜다	2,405	22,000	19,300	키다	10,825	36,900	26,700
	켭니다	65	10,100	22,700	킵니다	110	58,100	93,300
	켜요	325	14,400	11,400	키요	1,085	48,900	54,100
	켜세요	2,972	7,790	5,560	키세요	812	3,020	4,890
	켜서	352	68,300	76,200	키서	0	796	615
	켜고	208,146	300,000	384,000	키고	128,244	141,000	206,000
	켜는데	3,406	2,830	8,140	키는데	39	2,310	2,680
	켜니까	13	1,710	2,560	키니까	54	6,120	6,100
	켜면	890	38,200	76,900	키면	1,148	60,800	83,300
	켜면서	27	3,720	3,590	키면서	21	5,830	6,360
	켜라고	7	1,910	1,360	키라고	469	4,520	1,880
	켜지	155	101,000	160,000	키지	500	28,100	151,000
	켠	5,340	245,000	230,000	킨	7,171	533,000	517,000
	켜는	1,439	77,100	139,000	키는	1,227	141,000	75,100
	켤	446	32,200	65,100	킬	52,489	2,390,000	1,490,000

<그림 44> '키면' 구글 동영상 검색의 예

우선 동영상의 경우에는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이 일정 비율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예전 자료에서는 기업이나 뉴스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어 오용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 개인 크리에이터(Creater)들의 영상 제작으로 인해 표준어의 검수 없이 바로 표출되어 변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검색에 있어서는 구글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검색량을 보였는데, 이는 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뉴스의 사례보다는 유튜브 '켜다'의 변용 사례는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켜면'의 경우 유튜브(2020)는 약 38,200건의 사용 사례가 검색되지만 '키면'의 경우 2020년에는 60,800건, 2020년에는 83,300건의 사용 사례가 검색된다. 물론 유튜브 자료가 모두 '켜다'의 변용은 아니지만, 실제 분석해 보면 2020년의 60,800건 중 83% 정도인 약 50,000건의 자료가, 2021년은 83,300건 중 85% 정도인 약 70,000건의 자료가 '켜면'을 '키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켜다'의 변용 양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종합 검색에서와 같이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이는 '킬'의 경우에는 영어의 'Kill'을 한국어로 쳐서 나타난 경우가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또한 '키면' 뿐만 아니라 '키고'는 네이버와 구글 둘 다 검색량이 많았는데, 네이버는 65%, 구글은 86%가 '켜다'를 변용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키는데'의 경우 역시 66%의 사용량을 보이면서 변용 현상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키면서'는 그 변용양이 전체 '키면서' 데이터 양의 37%에 그쳤는데, 이는 영상의 주제가 날씨와 다툼 등의 주제인 경우 '뒤엉키다'의 어휘 사용량이 많아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5830개 중 2157개에 달해 변용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충분하다.

그 외에 개인적인 자료를 올리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서는 보다 그 변용 양상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블로그, 카페, 지식인은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검증 받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쓰는 경우가 많아, 글을 쓰는 데에 있어 구어의 양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발음으로 나타나는 특성상 변용 현상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색된 데이터 중에서 다른 어휘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변용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블로그, 카페, 지식인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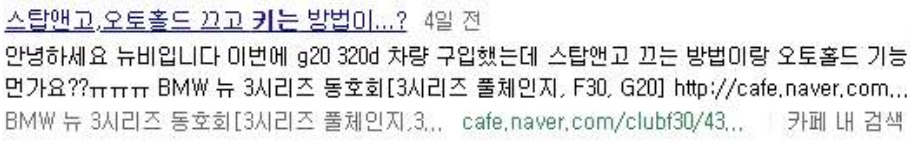
<표 82> '켜다' 활용 동사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블로그 검색량	네이버 카페 검색량	네이버 지식인 검색량	오류 어휘	네이버 블로그 검색량	네이버 카페 검색량	네이버 지식인 검색량
켜다	켜다	24,784	8,871	4,781	키다	69,043	42,267	22,949
	켭니다	39,550	22,707	19,792	킵니다	24,534	23,664	23,479
	켜요	15,206	18,505	13,469	키요	32,571	25,374	9,459
	켜세요	9,868	5,873	15,880	키세요	4,744	7,686	21,535
	켜서	394,625	313,562	205,844	키서	676	524	140
	켜고	1,227,276	588,072	190,631	키고	571,408	680,340	433,176
	켜는데	24,126	21,037	11,198	키는데	17,813	30,318	36,480
	켜니까	16,501	18,267	20,092	키니까	20,421	40,481	66,417
	켜면	306,693	243,505	178,650	키면	175,191	364,451	516,306
	켜면서	19,938	9,106	3,998	키면서	15,279	17,256	14,678
	켜라고	5,100	4,055	1,648	키라고	27,834	20,262	28,981
	켜지	193,166	78,598	38,829	키지	76,204	60,969	44,271
	켠	2,066,258	482,990	78,164	킨	443,146	380,469	171,128
	켜는	257,443	116,993	59,314	키는	873,372	931,367	2,250,218

	켤	204,314	125,534	85,116	킬	777,946	1,279,133	451,058

먼저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은 '켜는'의 변용인 '키는'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신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사용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키는' 네이버 카페 검색의 예



다른 검색에서도 많은 사용량을 보였던 '키고', '키면'의 경우에는 역시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서도 높은 비율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키고'의 경우 전체 검색 대비 블로그는 76%, 카페는 95%, 지식인은 99%가 넘게 '켜고'를 변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어인 '켜고'와 비교했을 때 블로그는 표준어의 사용량이 훨씬 많았지만, 카페와 지식인의 경우에는 변용 양상인 '키고'의 양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블로그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글을 쓰는 것이긴 하지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조금 더 다듬어진 글을 제시한다면, 네이버 카페와 지식인의 경우에는 각각 정보 공유와 질문인 경우가 많아 실제 구어 상황의 글을 대화하는 것처럼 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키고' 네이버 카페 검색의 예

<그림 47> ‘키고’ 네이버 지식인 검색의 예

위의 예시처럼 실제로 네이버 카페나 지식인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질문하는 대화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키면’의 경우도 ‘키고’의 상황과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블로그에서는 ‘켜면’의 사용량이 훨씬 많은 반면 카페와 지식인의 경우에는 ‘키면’의 사용량이 카페는 ‘켜면’ 243,505개, ‘키면’ 364,451개로 나타났고, 지식인은 ‘켜면’ 178,650개, ‘키면’ 516,306개로 약 3배의 사용 수치를 보였다. 사용 비율로도 봐도 블로그 93%, 카페 99%, 지식인 99% 이상으로 나타나 ‘키고’보다 훨씬 더 많은 변용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변용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은 해당 발음과 표기를 올바른 표기로 인식하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ㅕ’ 발음보다는 ‘ㅣ’ 발음 편의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ㅕ’ 발음 다음에 모음에 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켜요’나 ‘켜서’와 같이 모음에서는 그 사용 양상이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검색에 나타난 ‘키요’의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나 상품 이름, 자동차 열쇠나 키보드의 키를 지칭하는 상황으로 100% 나타나고 ‘켜요’의 변용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키서’ 역시 사람 이름이나 사물의 명칭으로 100% 나타나기 때문에 변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ㅕ’ 다음에 자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ㅕ’가 ‘ㅣ’ 바뀌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발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발음의 편의성이 글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뉴스보다는 글쓰기의 부담이 없는 카페, 지식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바뀌다’ 변용 현상의 말뭉치 분석

‘켜다’, ‘펴다’와 같은 ‘ㅕ’ 활용 동사 외에도 ‘ㅣ’ 발음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뀌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뀌다’ 동사는 ‘ㅟ’ 발음이 ‘ㅣ’로 발음되는 현상인데, 변용되는 발음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어휘가 혼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 양상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켜다’류의 동사와는 변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켜다’류의 동사가 ‘키세요’, ‘키고’, ‘키면’의 변용 양상이 표준어인 ‘켜세요’, ‘켜고’, ‘켜면’보다 높게 나타나는 데에 비해 ‘바뀌다’ 동사는 ‘바껴요’, ‘바껴서’의 변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발화하는 데 있어 발음의 편의성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규칙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바뀌다’ 동사는 동사의 어간 뒤에 모음 발음이 나타날 때 변용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끼다’, ‘바낍니다’, ‘바끼세요’, ‘바끼고’, ‘바끼는데’, ‘바끼니까’, ‘바끼면’, ‘바끼면서’, ‘바끼라고’, ‘바끼지’, ‘바낀’, ‘바끼는’, ‘바낄’은 표준어 대비 사용 비율이 4%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1% 미만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이 학습자의 오기 및 미학습 인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5>에서 나타난 ‘바뀌다’의 변용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3> ‘바뀌다’ 활용 동사의 전체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어휘 검색량	구글 어휘 검색량 (2020)	구글 어휘 검색량 (2021)	오류 어휘	네이버 어휘 검색량	구글 어휘 검색량 (2020)	구글 어휘 검색량 (2021)
바뀌다	바뀌다	173,077	735,000	534,000	바끼다	409	771	840
	바뀝니다	1,406,027	3,200,000	2,860,000	바낍니다	4,273	7,040	3,780
	바뀌어요	180,208	194,000	162,000	바껴요	154,079	99,600	162,000
	바뀌세요	2,431	4,360	3,170	바끼세요	47	219	60
	바뀌어서	1,630,762	1,590,000	1,800,000	바껴서	739,524	1,440,000	759,000
	바뀌고	4,443,766	5,530,000	6,180,000	바끼고	16,580	26,900	13,400
	바뀌는데	562,762	1,670,000	713,000	바끼는데	2,189	56,600	2,470
	바뀌니까	206,314	574,000	450,000	바끼니까	779	18,500	722
	바뀌면	1,686,513	2,950,000	4,040,000	바끼면	5,940	32,200	13,700
	바뀌면서	2,027,778	4,290,000	2,660,000	바끼면서	5,023	6,810	3,880
	바뀌라고	4,329	13,100	7,760	바끼라고	72	78	142
	바뀌지	2,442,184	3,200,000	3,740,000	바끼지	3,257	5,940	3,680
	바뀐	8,389,507	17,600,000	16,000,000	바낀	40,370	103,000	56,700
	바뀌는	6,268,525	11,700,000	12,400,000	바끼는	13,558	30,700	181,000
	바뀔	6,018,232	6,880,000	8,280,000	바낄	16,752	77,900	14,500

그에 반해 ‘바껴요’와 ‘바껴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바껴요’는 표준어 대비 네이버의 경우 약 86%, 구글의 경우 2020년에는 약 51%의 사용률을, 2021년에는 100%의 사용률을 보인다. ‘바껴서’ 역시 그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 약 45%, 구글의 경우 2020년에는 약 91%, 2021년에는 48%의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껴요’와 ‘바껴서’를 표준어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표준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상황에서 발화 및 기록되는 뉴스에서도 ‘바껴요’와 ‘바껴서’가 사용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뉴스는 일반적으로 즉흥적인 정보가 아닌 계획 하에 만들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문법 및 어휘의 내용을 검토하고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탈자 및 오류는 발화 및 기록되기 전에 걸러지며 표준어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표준어 인지 현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84> ‘바뀌다’ 활용 동사의 뉴스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뉴스 검색량	구글 뉴스 검색량 (2020)	구글 뉴스 검색량 (2021)	오류 어휘	네이버 뉴스 검색량	구글 뉴스 검색량 (2020)	구글 뉴스 검색량 (2021)
바뀌다	바뀌다	4,973	122,000	10,200	바끼다	3	4	4
	바뀝니다	21,388	43,600	62,500	바낍니다	0	1	1
	바뀌어요	1,620	1,230	1,920	바껴요	46	43	129
	바뀌세요	22	5	3	바끼세요	0	0	0
	바뀌어서	18,924	11,000	12,100	바껴서	279	2,470	664
	바뀌고	245,998	189,000	161,000	바끼고	13	8	10
	바뀌는데	9,499	6,450	41,400	바끼는데	0	8	1
	바뀌니까	3,888	2,930	2,500	바끼니까	0	1	1
	바뀌면	78,386	106,000	112,000	바끼면	2	9	8
	바뀌면서	140,124	52,600	74,200	바끼면서	10	5	2
	바뀌라고	123	238	9	바끼라고	0	2	0
	바뀌지	133,383	85,900	278,000	바끼지	2	2	0
	바뀐	481,847	779,000	1,290,000	바낀	99	99	92
	바뀌는	289,959	518,000	313,000	바끼는	14	4	1
	바뀔	308,418	197,000	251,000	바낄	44	79	47

뉴스에서는 ‘바뀌다’의 변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뉴스에서 변용으로 사용되는 어휘는 ‘바껴요’와 ‘바껴서’를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혀 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에 비해 ‘바껴요’와 ‘바껴서’는 비율로 따지면 3~4% 대이기는 하지만 사용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사용 비율도 중요하지만, 뉴스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변용 현상이 천 단위의 기사수로 나타난다는 것은 검수에서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송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껴요’와 ‘바껴서’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공통점을 추출해 보면 해당 어근의 변화가 ‘바끼’+‘어요’ 혹은 ‘바끼’+‘어서’의 형태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바끼’+‘어’=‘바껴’의 형태가 결합된다면 그 빈도 역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바껴’, ‘바껴요’, ‘바껴서’도 있고, 확장하자면 과거형의 결합인 ‘바꼈’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위의 상황인 ‘바껴’를 중심으로 데이터 구축을 해 보면 뉴스에서 사용되는 ‘바껴’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5> ‘바껴’의 뉴스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뉴스 검색량	구글 뉴스 검색량 (2020)	구글 뉴스 검색량 (2021)	오류 어휘	네이버 뉴스 검색량	구글 뉴스 검색량 (2020)	구글 뉴스 검색량 (2021)
바뀌다	바뀌어	148,640	98,500	190,000	바껴	1,899	12,300	8,510

‘바껴’의 검색량을 파악했을 때, ‘바껴요’와 ‘바껴서’에 비해 그 빈도와 양이 훨씬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잇다. 물론 표준어인 ‘바뀌어요’의 사용양도 증가하였지만, 네이버 뉴스의 경우는 1,899개, 구글의 경우는 2020년에는 약 12.5%에 해당하는 12,300개의 뉴스에서, 2021년에는 약 4.5%에 해당하는 8,510개의 뉴스에서 ‘바껴’를 사용했다.

<그림 48> ‘바껴’ 구글 뉴스 검색의 예

<그림 6>과 같이 일반 뉴스에서도 오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사로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바껴’의 형태가 우리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실생활의 발음에서는 더욱 사용되는 빈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인 뉴스를 제외한 다른 자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제의 발화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에서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바뀌어요’, ‘바뀌어서’, ‘바뀌어’의 빈도 값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86> ‘바껴’류 동사의 동영상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동영상 검색량	구글 동영상 검색량 (2020)	구글 동영상 검색량 (2021)	오류 어휘	네이버 동영상 검색량	구글 동영상 검색량 (2020)	구글 동영상 검색량 (2021)
바뀌다	바뀌어요	228	10,100	12,200	바껴요	145	2,530	3,480
	바뀌어서	132	51,000	66,400	바껴서	83	17,100	19,600
	바뀌어	1,076	223,000	369,000	바껴	310	34,300	35,200

네이버 동영상은 ‘바껴요’는 ‘바뀌어요’의 약 64%, ‘바껴서’는 ‘바뀌어서’의 약 63%, ‘바껴’는 ‘바뀌어’의 약 29%의 비율로 변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글 동영상은 앞서 제시된 ‘켜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의 양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에는 ‘바껴요’는 ‘바뀌어요’의 약 25%, ‘바껴서’는 ‘바뀌어서’의 약 34%, ‘바껴’는 ‘바뀌어’의 약 15%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바껴요’는 ‘바뀌어요’의 약 29%, ‘바껴서’는 ‘바뀌어서’의 약 30%, ‘바껴’는 ‘바뀌어’의 약 10%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비율만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바껴요’는 그 양에 있어서도 구글을 기준으로 뉴스 검색량의 약 59배인 2,530개, ‘바껴서’는 약 7배인 17,100개, ‘바껴’는 약 3배는 34,300개로 나타나 구어 변용 현상이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즉, 앞서 제시된 뉴스의 검색량에 비해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변용 양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어 상황에서의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껴’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바껴’ 구글 동영상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9> '바껴' 구글 동영상 검색의 예

<그림 7>과 같이 구글 동영상의 검색 목록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방송사나 노래 가사 등에도 변용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매체 제작이 최근의 현상인 크리에이터(Creater)의 개인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고품질의 영상 자료는 방송사나 회사 등의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 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객관적인 정보를 주어야 하는 매체 자료 역시 변용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개인적인 발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사용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87> ‘바뀌다’ 활용 동사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블로그 검색량	네이버 카페 검색량	네이버 지식인 검색량	오류 어휘	네이버 블로그 검색량	네이버 카페 검색량	네이버 지식인 검색량
바뀌다	바뀌다	47,992	21,942	10,357	바끼다	90	115	75
	바뀝니다	362,720	238,713	272,596	바낍니다	586	1,156	1,865
	바뀌어요	59,710	25,355	23,627	바껴요	34,838	32,223	48,468
	바뀌세요	434	452	1,011	바끼세요	2	6	37
	바뀌어서	467,265	355,836	257,347	바껴서	165,799	221,864	161,815
	바뀌고	1,363,893	680,530	409,357	바끼고	2,170	6,261	5,679
	바뀌는데	173,224	84,178	91,011	바끼는데	213	759	930
	바뀌니까	62,034	36,439	31,502	바끼니까	72	296	327
	바뀌면	479,662	281,782	186,493	바끼면	663	2,406	1,940
	바뀌면서	606,005	275,519	199,426	바끼면서	770	1,408	1,960
	바뀌라고	1,450	698	409	바끼라고	28	10	5
	바뀌지	744,581	288,531	248,358	바끼지	654	914	990
	바뀐	2,477,034	1,552,801	636,418	바낀	6,705	16,281	8,903
	바뀌는	1,963,238	883,898	588,857	바끼는	2,169	4,552	4,227
	바뀔	1,893,083	749,031	524,334	바낄	2,839	5,466	5,236

앞서 제시한 <표 4>와 같이 구어 발화가 표기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블로그, 카페, 지식인이다. 이를 ‘바뀌다’ 활용 동사를 기준으로 하여 검색했을 때 <표5>의 전체 검색에서 나타난 비율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면, 구어 상황에서의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9>에 나타난 활용 어휘 및 오류 어휘를 살펴보면 ‘바뀌어요’와 ‘바뀌어서’를 제외한 대부분 어휘의 비율은 전체 검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율이 조금 올라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사용량에 있어서는 단순히 오기나 오탈자로 파악하기에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껴요’와 ‘바껴서’의 비율이다. 뉴스에서는 3~4%, 동영상에서는 구글을 기준으로 각각 25%와 34%였던 비율이 ‘바껴요’는 ‘바뀌어요’에 비해 블로그 58%, 카페 127%, 지식인 205%로 나타났고, ‘바껴서’는 ‘바뀌어서’에 비해 블로그 35%, 카페 62%, 지식인 63%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어 상황에서의 변용 현상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는 표준어의 인지 없이 쓰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림 50> ‘바껴요’ 네이버 지식인 검색의 예

Q 인스타그램 프사 안**바껴요**;; 2020.02.09.
제목 그대로 인스타 프사가 안**바껴요** 어떻게 해야돼죠
A 어플을 삭제하고 최신버젼으로 다시 설치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인스타그램 분야 지식인 답변 고양이인스타

Q 페북 생일이 안**바껴요** 2020.02.03.
제가 페북 생일을 두번 바꿔서 이제 더 안**바껴요**ㅜㅜ 제 원래 생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죠
A 어쩔 수 없이 60일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생일 자주 변경 안되요. 60일 뒤에 생일 변경 가능 합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돌고래

Q ESD-USB로 **바껴**버린 1TB 짜리 외장하드 복구방법 없나요ㅜㅜ 2020.02.07.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USB 드라이버를 다운받았더니 기존에 있던 700GB 가까이 되는 자료가 없어지고 32 GB 짜리 ESD-USB로 **바껴**있는데... 이게 어떻게된거죠ㅜㅜ 기존...
A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USB 드라이버를 다운받았더니 기존에 있던 700GB 가까이 되는 자료가 없어지고 32 GB 짜리 ESD-USB로 **바껴**있는데... 이게 어떻게된거죠ㅜㅜ...
나만의 솔루션

Q 캐드 bak 파일이 한컴오피스로 **바껴**있는데 어떻게 다시... 2020.01.02.
캐드는 zw캐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글 정품으로 깔았는데 캐드 bak 파일이 다 한글로 **바껴**있는데 원상태로 어떻게 바꾸나요?
A 네이버 신디게이트 님의 블로그를 참조 하세요. https://m.blog.naver.com/syndgate/221307933314 한글 2018 설치 후 .BAK 파일 한글파일로 연결 해제...
ckpa****

Q 네이버 검색을 하면 화면이 회색으로 **바껴요**. 해결책 좀... 2019.11.06.
네이버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회색으로 **바껴요** 해결책 좀 알려저세요
A 안녕하세요 주연테크입니다 아래 내용 체크해 보세요. 1. 본체 전원 끄고 모니터 케이블 재연결 및 케이블 교체 후 연결 확인. 2. 외장 그래픽 카드 사용중일 경우 그래픽...
지식파트너 답변 주연테크

<표 88> ‘바껴’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검색 목록

기준 어휘	활용 어휘	네이버 블로그 검색량	네이버 카페 검색량	네이버 지식인 검색량	오류 어휘	네이버 블로그 검색량	네이버 카페 검색량	네이버 지식인 검색량
바뀌다	바뀌어	1,320,773	563,641	293,412	바껴	152,396	155,915	131,048

그러나 <표 10>과 같이 ‘바껴’의 경우에는 ‘바뀌어’와 비교하여 블로그 12%, 카페 28%, 지식인 45%의 비율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바뀌어’라는 항목 자체가 구어보다는 문어 상황에서 더 자주 쓰이고, 신문 기사 등의 제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분은 <그림 6>의 뉴스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종합 분석

위의 ‘ㅕ’ 활용 동사와 ‘ㅟ’ 활용 동사를 분석하면 각각 발음이 실현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먼저 '켜다', '펴다'의 'ㅕ'류의 동사에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발음에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있을 때 'ㅕ'의 발음이 'ㅣ'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ㅕ'의 발음이 이중모음으로 구현되어 다음에 제시되는 자음이 발음에 장애를 겪게 되어 'ㅣ'만 발화하려는 단모음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바뀌다'의 'ㅟ'류의 동사에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발음에 'ㅓ'가 발음되는 경우가 있을 때 'ㅟ' 발음이 'ㅣ'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ㅟ'의 발음이 뒤에 오는 'ㅓ'를 만났을 때 'ㅟ'의 'ㅜ' 발음이 약화되어 'ㅣ'와 'ㅓ'의 발음이 결합된 'ㅕ'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뀌다'의 경우는 그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ㅟ'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도 'ㅜ'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표기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높은 비율로 드러나지 않아, 이 부분은 음성 연구를 하여 전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4. 결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교수되는 현장 중심의 분야이다. 그러나 대학 진학이나 TOPIK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많아지면서 유창성보다는 정확도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여 토론이나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강의 듣기와 보고서 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학습자들의 소통 기회는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발화 현장의 현실 발음과 학습 발음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상황에서는 소통의 오해와 불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어학원에서도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할 뿐 현장의 발화 상황을 교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사회 활동 등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에 보다 실제적인 발화 상황을 학습에 적용시키면서 소통과 학습을 병행시킬 수 있다면 학습자들은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경화(2004),『구어체 Corpus의 구문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김명권(2012),「시간제한을 활용한 단계적 말하기 구성방안 : 중ㆍ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한어문교육』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김명권(2016),「한국어 외래어 변용 현상과 교수법 연구」, 충청문화연구, 제 17집.

백해파(2015),『한국어 구어의 동사구문의 실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논문.

이명오(2009),『구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어미 연구 : 비격식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 논문.

검색 도구

구글 검색 : https://google.com

- ‘키면’ 구글 동영상 검색
- ‘바껴’ 구글 뉴스 검색
- ‘바껴’ 구글 동영상 검색

네이버 검색 : https://naver.com

- ‘키세요’ 네이버 뉴스 검색
- ‘키고’ 네이버 카페 검색
- ‘키고’ 네이버 지식인 검색
- ‘바껴요’ 네이버 지식인 검색

신문 기사

브레이크뉴스(2013),「‘계춘할망’ 윤여정, “완벽한 제주도 방언 사용안한 이유? 알아듣지 못해」,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4&aid=0002249215

한국경제TV(2016),「친구2 자막, 누리꾼 "진지한 대사 자막이 필요해" 왜 그런가 봤더니..」,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40829&section=sc4

검색 자료

노컷뉴스(2010),「조정래 “故 황장엽씨에 훈장 수여? 납득할 수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175452

뉴데일리경제(2014),「SKT 원인 모를 LTE 장애…"잠시 껐다 키세요"」,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4/03/13/2014031310065.html

법륜스님의 즉문즉설(2012),「제665회 자기에게로 돌이키면(법문)」,
https://www.youtube.com/watch?v=3JoKqyCOhCs

분리수거(2019),「분리수거 - 분리수거밴드-해가바껴도 너무 이쁜아이가 예쁜…」,
https://www.facebook.com/watch/?v=2313471118723089

삼대장(2018),「유튜버가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키면?? 22만 유튜버의 충격적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watch/?v=605629563133751

서리아트HanSeolHui(2019),「오랜만에 방송을 키면 얼마나 들어올까?」,
https://www.youtube.com/watch?v=pufMpna_pfw

서울신문(2011),「“전조등 키세요!”…장마철 안전운전 요령」,

http://mn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22040006
소년시노비(2018),「작업관리자 키면 숨어버리는 바이러스라니 ㅎㄷㄷ」,
https://www.youtube.com/watch?v=Xpu0W9towQo
에이블뉴스(2012),「“서대문구에 오면 ‘포스퀘어’를 키세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2&NewsCode=0002201207111359249664 33
엑스포츠뉴스(2020),「펍지, 오는 4월 대회부터 에란겔 대신 '신 에란겔' 도입」,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237118
원재가 조아해(2020),「[원재] 리니지M - 방송만 키면...」,
https://www.youtube.com/watch?v=rGg4Ou_AdGk
인벤(2017),「[뉴스] 연휴가 심심하면 폰을 키세요, '4:33' 자사 게임 6종 설맞이 이벤트 진행」,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71347#csidx742ca8992d0bd7eaa1e1004ff696481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71347
이서니(2018),「롤에서 ESP키면 딱 이런 느낌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Ry6pxhZ9Vwo
제주도민일보(2020),「제주중등교사 임용시험 합·불합격 뒤바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490
주말에머하지?(2017),「주말에머하지? - 입술만 바껴도 훨씬 잘생겨질수있음!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watch/?v=374297359669646
해투(2019),「영화 1987 명장면 5 연희3 강동원,김태리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SpugbdcYVhc
EBS육아학교(2016),「[EBS 육아학교] 장래희망이 계속 바껴요 / EBS 라이브 토크 부모」,
https://www.youtube.com/watch?v=2FZGTLN9Qz4
NewDaily(2014),「[포토]비투비, '뛰뛰빵빵~ 다비키세요' 운전 하는 듯 귀여운 안무」,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02/17/2014021700131.html
NEWSIS(2020),「선관위 제동에 안철수 신당, 도로 '국민의당'…돌풍 재연 기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4_0000919234
NEWSIS(2020),「'우한 전수조사 대상' 23번, 확진까지 15일…20번 음성→양성(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817
KBS Life(2015),「[HIT]아침마당 - 나이가 드니 식성도 바뀌어」,
https://www.youtube.com/watch?v=jyZEN36zR60
TJ KARAOKE TJ 노래방 공식 유튜브채널(2015),「[TJ노래방] 얼굴이바껴도 - 8Eight / TJ Karaoke」,
https://www.youtube.com/watch?v=DbOOqT8S6DE